**A** 농경마루 4

농업사 산고(散稿) I

김 영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 농경마루 4

•

# 농업사 산고(散稿) Ⅱ

•

김 영 진

- \* 우리 연구원은 연구자가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공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농경마루시리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머리말

지난 14년간 농우회가 발행하는 「월간농정」지에 우리 농업사에 관한 내용을 원고지 20매 분량씩 매월 연재해 왔다. 그 분량이 한 권의 책으로 역어질만할 때마다 이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였다. 그러기를 세 번째 반복하는 게 이 책이다. 지난 두 권의 책보다 분량이 적어 망설였으나 9순(旬)을 넘기자 더 쓰기에는 심신에 한계가 온 것 같아 그만 이 것으로 접기로 하였다. 필자는 30대초 우연하게 농업고전을 만나 그 내용의 탁월한 농업기술에 매료되어 지난 50여 년간 농업사연구에 몰두해왔다. 농업사는 농학지식을 바탕으로 그 위에 이룩하여야 하는데 더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바로잡거나 보충해야겠다는 사명감때문이었다.

예컨대 소련의 Lysenko가 1928년 가을보리를 저온처리 하여 봄보리로 만듦으로써 월동 중 보리 싹이 얼어 죽는 피해를 막아 소련방의 맥류를 획기적으로 증산시킨바 있다. 이를 춘화처리(春化處理)라 하는데 이는 당시 세계적 농학적 성과로 칭송되었다. 그러나 고상안(高尙顏)이 1619년에 편찬한 농가월령(農家月令)을 보면 원리면에서 저온처리와 유사한 방법으로 얼보리(凍麥)를 만들어 월동 중 보리 싹의 얼어 죽는 피해를 막고 있다. 농학지식이 없는 안목으로 고상안의 얼보리를 보면 해독자체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거니와 그 내용이 획기적 농학적 성과인지 분간할수 없다는 것이다. 농업사 연구에 골몰한 이유의 또 하나는 의외로 우리 선인들이 개발한 농업기술이나 이를 기록한 농업고전이 풍부함에도 지난날 이를 모두 해독하거나 풀이하여 충실한 농업사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소책자는 그런 뜻에서 농학지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선인들의 농학 유산을 참고하여 평이하게 쓰고자 노력한 것이다. 부족하나마 독자들에 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필자의 기고문들을 모아 농경마루시 리즈로 엮어 필자의 농업사 연구를 더욱 알차게 여물도록 도와주신데 대 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여기에 기록으로 남기는 바이다.

김의진

#### ▮차례

### 제1장 | 농정사 에세이

- **1.1.** 조선시대 중농사상의 양면성 / 1
- 1.2. 세종시대 지리지(地理志)의 농지 등급 / 6
- 1.3. 세종시대의 토지 및 과세제도 합리적이었나? / 12
- **1.4.** 경국대전의 농지세 과세 / 19
- 1.5. 삼정(三政)의 문란과 철종말년의 민란 / 24
- **1.6.** 조선시대의 호적제도 / 31
- **1.7.** 대한제국의 재정·인사·외교와 기강 / 35

### 제2장 | 농학과 농업기술

- 2.1. 조선조 농학의 형성과 원(元)의 농상집요 / 43
- 2.2. 15세기초 농작물재배의 지리적 분포 / 49
- 2.3. 농작물의 병해(病害)와 국가의 흥망 / 56
- 2.4. 정치와 당쟁이 농서편찬에 미친 부정적 영향 / 62
- 2.5. 시대에 따른 조선시대 벼농사 기술의 발전 / 69
- 2.6. 작물의 감성과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 / 75
- 2.7. 화학과 한말 농학의 개화사(開化史) / 81
- **2.8.** 개화기에 우리 농업을 도와준 외국인들 / 87
- 2.9. 개화기 농학에 기여한 김가진(金嘉鎭)과 장지연(張志淵) / 94
- 2.10. 전환기 농업의 고랭지채소와 직거래장터 / 99

### 제3장 | 축잠고금

- 3.1. 조선초기 마소의 대명(對明)교역 / 107
- 3.2. 조선시대의 우역사(牛疫史) / 114
- 3.3. 원(元)나라의 제주목장 100년 / 121
- 3.4. 비싼 수업료 치른 대단위 한우목장 / 128
- 3.5. '70년대 양돈파동에서 얻은 것 / 132
- 3.6. 경제개발초기, 일거양득이었던 잠사업 / 137

### 제4장 | 조선시대의 농촌사회

- 4.1. 조선말기 농촌의 사회계급 / 143
- 4.2. 조선시대 농촌사회와 향약(鄕約) / 149
- 4.3. 동국세시기의 풍년 기원 / 156
- 4.4. 조선시대의 농부가(歌), 왜 긴 한숨의 넋두리인가? / 161
- 4.5. 17세기초 허균(許筠)의 팔도명산식품 / 167
- **4.6.** 사라져버린 권농일, 아쉬운 농촌의 우리 민속 / 173

# 제5장 | 시사를 통해 본 고사

- **5.1.** 승정원과 대통령비서실 / 181
- 5.2. 목양장(牧羊場)이었던 경무대(청와대) / 187
- 5.3. 이런 경제수석도 있었다 / 193
- 5.4. 대선공약과 국가의 장래 / 200
- 5.5. 망백(望百)의 비망록 / 207
- 5.6. 농업사 연재를 마치며 / 214

# ▮표차례

제1장	
	-1. 세종시대 지리지에 기록된 농지의 비옥도 ···································
제2장	
丑 2	-1. 15세기 초 작물별 재배군현 수51

# 제<sup>1장</sup> **농정사 에세이**

#### 차 례

- 1.1. 조선시대 중농사상의 양면성
- 1.2. 세종시대 지리지(地理志)의 농지 등급
- 1.3. 세종시대의 토지 및 과세제도 합리적이었나?
- 1.4. 경국대전의 농지세 과세
- 1.5. 삼정(三政)의 문란과 철종말년의 민란
- 1.6. 조선시대의 호적제도
- 1.7. 대한제국의 재정·인사·외교와 기강

# 1.1. 조선시대 중농사상의 양면성

조선시대의 농업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중요하게 여겨왔다. 통감절요(通鑑節要)를 보면 최초로 이 말을 한 이는 한(漢)고조의 둘째 아들로 전한(前漢)의 5대 황제였던 문제(文帝 BC179~157)가 내린 조서(詔書)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 이래 이 구절은 농경시대에 일관된 중농사상의 상징적 표어가 되었다. 의식주의 자료가 농업에서 산출되고 나라 존립의 재원이 농지세(稅)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18세기 중엽 서구에서 케네(Quesnay) 등이 주장한 국부론적 중농주의(重農主義) 보다도 그 뜻이 강한 게 농자천하지대본이란 중농사상이

다. 생존과 국가존립의 뜻에서 밝힌 간절한 표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조의 중농사상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긍정적 측면의 사례를 들어보면,

첫째로, 군왕의 연두교서다. 조선조정은 매년 초 임금의 세수권농교 문(歲首勸農教文)을 발표하였다. 오늘날 대통령이 연초에 기자회견을 통해 그해의 시정방침을 천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 내용은 농업의 중요성과 역대 농정의 치적을 들어 관민일체가 되어 농업증산에 힘쓰자는 것이다. 나라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음에도 유독 농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중농사상의 대외적 천명이 아닐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역대 임금은 매년 봄 동적전에 나아가 밭을 가는 친경의식을 거행하였고 왕비는 누에를 기르는 친잡의식을 거행하여 몸소 중농의 모범을 보였다.

둘째는, 조선조의 많은 농서(農書) 편찬이다. 정종 1년(1499)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을 시작으로 조선조말까지 약 80종의 농서가 편찬되었고 여기에 정조(正祖)의 구농서윤음(求農書編音)에 의한 응지농서(應旨農書) 약 70종을 포함하면 모두 150종 가량의 농서가 편찬되었다. 관찬(官撰)이나 사찬(私撰)을 막론하고 모든 농서는 보다 많은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신기술을 보급코자 만든 교재다. 이와 같이 농서의 편찬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농사를 중히 여긴 중농사상의 근거가된다.

셋째는, 중농의 증거가 관리임명에 반영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공무원법이나 정부조직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이전(吏典) 총칙을 보면 "수령을 거치지 않은 자는 4품(品) 이상의 품계에 오를 수 없다 (非經守令者 不得陞四品階)"라고 규정되어 있다. 4품계부터 문관은 대부(大夫), 무관은 장군(將軍)의 품계명(호칭)이 붙는다. 여기서 말하는 수령의 품계는 종6품의 현감(縣監)이나 종5품의 현령(縣令)의 뜻으로 속칭 원(員)님이라 부르는 고을 행정책임자를 뜻한다. 수령의 임무는 수령칠사

(守令七事: 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詞訟簡, 姦滑息)로 요약된 일곱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 일곱 가지 업무 중 가장 중요하고도 업무량이 많은 것은 권농업무인 첫째의 농상성(農桑盛)이다. 곧 적기영 농을 뜻하는 천시(天時), 적지적작을 뜻하는 지리(地利), 농업노력을 뜻하는 인사(人事) 등 조선조 농정의 3대 지침을 잘 이행한 자라야만 4품 이상의 고위관료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곧 고위관리의 필수적 자질이 권농경험을 통해 얻은 농업지식이란 것이다. 이는 농업을 중시한 중농사상이 인사제도에 반영된 구체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넷째로, 인사시기에 관한 것이다. 경국대전 이전(東典)의 외관직(外官職) 규정을 보면 당농월즉물체(當農月則勿遞)라 하여 농사철에는 권농을 담당하는 지방관의 인사이동을 금한다는 규정이 있다. 권농업무에 차질이 있을까 염려한 까닭일 것이다. 그러면서 춘분전50일이하자체(春分前五十日以下者遞)라 하여 정규 인사일 때라도 춘분(春分 양력 3월 21일전후)이 오기 50일 이전에 인사이동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새로 부임해가는 고을에 가서 그 고을의 농업현황을 파악하고 준비하여 춘분 때부터시작되는 권농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농업을 중시한 권농중심의 인사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군왕의 년두교서, 많은 농서의 편찬, 농업중심의 인사제도 등은 확실히 중농사상의 구체적 표현이다. 그러나 농업담당기관이나 농업기술직에 관한 한, 중농사상이나 중농정책이 무색할 정도로 차별화하거나 경시되고 있다. 그와 같은 사례들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농업관련기관들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고 있다. 호조(戶曹) 소속에 궁중의 채소를 담당하는 정6품 관서로 사포서(司圃署)가 있고 공조(工曹) 소속에 궁중의 과실과 조경 및 기화요초(琪花瑤草)를 담당하는 정6품 관서로 장원서(掌苑署)가 있다. 또, 예조(禮曹) 소속으로 제사용 가축을 생산하는 종6품의 전생서(典牲暑)가 있고 연회용 잡축을 생산

하는 종6품의 사축서(司畜署)가 있다. 또 각지에 산재한 국영목장의 우두머리로 종6품의 감목관(監牧官)이 있다. 여기서 품계는 기관장의 품계를 뜻하며 5품 이하의 품계명은 랑관(郎官)으로 통칭하며 4품 이상은 대부(大夫)라고 통칭한다.

여기서 농업기관이 소외되었다는 뜻은 어째서 농업담당기관은 궁중의 말을 담당하는 정3품의 사복시(司僕寺)나 옷을 담당하는 정3품의 상의원(尚衣院), 그리고 음악을 담당하는 정3품의 장악원(掌樂院)보다 무엇이 얼마나 모자라 한결같이 6품 기관으로 그들보다 6품계나 낮은 기관으로 설정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농업경시에서 나온 차별이아닐 수 없다.

둘째로, 농업기술직은 일반 문(文)관이나 무(武)관과 같은 정직(正職)이 아니라 잡직(雜織)으로 차별하였다는 것이다. 농업기술직은 사복시(司僕寺)의 마의(馬醫), 장원서(掌苑署)의 화훼담당인 신화(慎花), 과수담당인 신과(慎果), 새 종류 담당인 신금(慎禽), 짐승담당인 신수(慎獸) 등이 있다. 이중 마의(馬醫)만은 마의즉계동정직(馬醫則階同正職)이라 하여 "품계가 같은 정직(문무관)과 같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아마도 마의로 임명되는 조건이 안기집(安驥集)이라는 수의교재에서 세 가지 출제(三講)에 합격한 자만이 수의로 임관되는 국가고시 때문이라 믿어진다.

그러나 마의 이외의 농업기술직들은 정직(正職)으로 환직할 때 수정직 시강일계(授正職時降一階)라 하여 한 품계 낮게 보임되는 차별을 두고 있 다. 그 뜻은 기술직이 정직보다 모자람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곧 기술직 에 대한 명백한 차별대우다. 정직인 문무관이 기술직인 잡직으로 환직할 때는 아무런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셋째로, 농업기술직은 승진상한 품계가 너무나 낮다는 것이다. 화훼 담당인 종6품의 신화(慎花)는 종신토록 근무하여도 그 이상 오를 수 있 는 품계가 없고 새 종류에 종사하는 신금(慎禽)은 정8품 이상 오를 수 없 으며 9품의 짐승담당은 종신토록 그 품계에서 그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차별대우도 아닌 무대우라 아니할 수 없다. 승진의 기대는 관리들의 직무 충실이나 연구개발의 유인책임에도 애당초 승진기회마저 없는 제도라면 자기 집무에 대한 연구나 개선책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실이 갈 수 밖에 없다. 농업기술직이 오늘날의 국장(이사관)급으로 오를 수 있도록 제도화 된 것은 갑오경장 후인 1895년 4월 3일자의 관보(官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상공부의 업무분장에 이사관급의 기사(技師) 1인이 정원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서구문명이도입되면서 농업기술직도 차츰 그 지위가 향상되어가고 있으나 조선시대의 기술직은 너무나 가혹한 처우였다.

넷째로, 문무관의 정직이나 기술직인 잡직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권농관(勸農官)이나 양잠관(養蠶官)이 있다. 경국대전의 재정경제를 규정한 호전(戶典)을 보면 면(面)마다 한 사람의 권농관을 두되면적이 넓고 호수(戶數)가 월등히 많은 면은 더 둘 수 있다고 되어있다. 권농관은 근면하고 조심성 있는 자를 골라 수령이 임명하되 힘써 농사를 권하여 관내에 묵는 전답이 없게 하여야 한다 하였다. 또, 8월 15일 이전에 작황(作況)을 조사하여 농지세 자료를 수령에게 보고토록 되어있다. 두 가지 다 막중한 업무다. 농지세는 국가존립의 세입원이기 때문이다.

또 잠실(蠶室)이 밀집된 도회잠실(都會蠶室)에는 해당고을이나 인근고을의 공천(公賤) 중에서 근면하고 조심성 있는 자를 골라 수령이 이를 양잠관으로 임명하라고 되어있다. 이들은 업무는 있으되 정직이나 잡직에도 속하지 않아 보수규정상 국록이 있을 수 없다. 보수면에서 보면 잡직 9품의 신수(愼獸)만도 못한 처지인데 그 업무는 신수 못지않게 막중하다. 다만 미상한 것은 각 고을의 수령의 업무를 보필하는 아전들의 급료를 위해 고을마다 주어진 아록전(衙祿田)이나 고을의 공공된 비용에쓰도록 주어진 공수전(公須田)의 소출에서 그 일부를 권농관이나 양잠관

에게 수고비로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업무는 막중한데 보수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농업직을 경시한 상징이다. 특히 양잠관은 고을의 공천(公賤) 중에서 임명하라 하였는데 양잠농민은 공천의 지휘를 받아야 할 만큼 사회적 지위가 낮단 말인가?

요컨대 이상에서 밝힌바와 같이 조선조정은 농업을 중시하고 각종 시책이 중농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농업기술직이나 농업행정직에 관한한 중농사상이 무색할 정도로 그 처우가 야박하였다. 농업은 중하되이에 종사하는 관리나 농민은 박대하여도 되는 천직이란 말인가?

## 1.2. 세종시대 지리지(地理志)의 농지 등급

세종실록 제148~155권으로 편입된 8권의 지리지는 군현별 현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잘 편찬된 명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리지의 최초 편찬은 세종 6년(1424) 11월, 세종께서 변계량(卞季良 1369~1430)에게 지시함으로서 비롯되었다. 세종 7년(1425) 경상도 지리지가 완성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하여 8도(道)의 지리지가 완성되었으나 왕조실록에 정식으로 등재된 것은 단종 2년(1454)이 되어서였다. 왕조실록은 해당 왕의 사후에 편찬되기 때문이다.

이 지리지의 서술방식을 보면 당시의 행정단위인 8개 도와 335개 부 목군현(府牧郡縣)별로 기록하되 서두에 해당 고을의 역사적 변천 내력과 관할구역의 변동 등을 풀이하고 이어서 산천(山川)이나 바다 등 자연환 경과 명승고적 등을 풀이하였다. 다음으로 인접한 군현과의 거리 및 방 향을 기록하여 지도가 없어도 해당 고을의 지리적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호수(戶數)와 인구, 군정(軍丁)과 선군(船軍)의 실수를 밝혔다.

다음으로 그 고을의 원주민으로 살아오던 성씨와 그 수를 나타낸 토

성(土姓)과 외지에서 옮겨와 사는 내성(來姓)의 성씨를 밝혔다. 이어서 그 고을의 역사적 인물을 들어 그 행적을 약술하였다.

다음으로 그 고을의 산업을 풀이하였는데 그 내용은 농업지리라고 할 만큼 상세히 풀이하고 있다. 첫째는 해당 고을의 농지가 걸고 메마름을 풀이한 토질(土質)이 풀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상세 히 검토코자 한다. 둘째는 그 고을의 첫서리 등 농업기상을 풀이한 토후 (土候), 셋째는 그 고을의 민심을 뜻하는 토속(土俗), 넷째는 그 고을의 논밭 면적을 통계적으로 나타낸 간전(墾田)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평 안도의 벽동, 희천, 자성 등의 고을이나 함경도의 삼수, 갑산 같은 군현 은 모두가 밭뿐으로 논이 단 한 평도 없다든가 농업사적으로 중요한 도 별, 군현별 전답비율이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논 면적의 비율이 경기 38%, 충청 37%, 경상 39%, 전라 40%, 황해 20%, 강원 11.4%, 평안 10.4%, 함경 4.9%로 되어있어 최근의 도별 전답비율과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다섯째는 그 고을의 재배작물이 무슨 작물들인가를 일일이 밝 힌 토의(土宜)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컨대 오곡과 뽕나무, 삼, 닥나무, 모 시, 목화 등을 예시한 것이다. 여섯째는 그 고을의 공물(貢物)이 될 품명 을 밝힌 토공(土貢)으로 예컨대 사슴뿔, 곰가죽, 표범가죽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일곱째는 그 고을에서 생산되는 약재(藥材)를 밝혔는데 곰쓸개, 사 향, 우황, 오미자, 살구씨 등 수많은 약재가 기록되어 있다. 여덟 번째로 토산(土産)은 그 고을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어떤 개천에서 은어, 어떤 산에서 산겨자, 신감초(辛甘草) 등이 생산된다는 것들이다. 그 세세하고 가지 수가 많은데 감탄할 지경이다.

이어서 공업현황에서 사기그릇이나 자기그릇 굽는 곳의 위치와 생산 품의 품질을 밝히고 관아를 둘러쌓은 석성(石城)의 둘레 길이와 성안의 우물 수, 수질, 용출량(계절별)이 기록되고 끝으로 역(驛)의 유무, 도로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 현재 각 시군의 시지(市誌)나 군지(郡誌) 못지않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지리지로 하여 15세기 우리나라의 문화수 준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여기서 다시 검토할 것은 농업지리 첫째에서 밝혔던 군현마다의 토지의 비척(肥掎)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농지의 비옥도(肥沃度)에 따른 토지등급이라 할 수 있다. 비옥도는 토양의 거름지고 메마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리지에서는 비옥도를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나 전국 335개 군현 중 96%에 해당하는 322개 군현만 비옥도에 대한 기록이 있고 4%에 해당하는 13개 군현은 비옥도에 대한 기록이 없다. 경기도의 양지현, 전라도의 제주도와 함길도의 정평, 북청, 영흥, 고원, 문천, 예원, 안변, 의천, 용진, 길주, 단천 등 11개 고을로 도합 13개 군현인데 양지와 제주는 단순한 기록 누락으로 여겨지며 함길도는 이 시기까지 행정편입이 늦어진 정치적 사정이 있지 않았나 여겨진다.

비척(肥埼)의 종류, 곧 비옥도의 수준은 지리지에서 여섯 가지(등급)로 나누고 있는데 그 첫째는 비(肥)라고만 기록한 것이다. 이는 그 고을의 농지가 논밭 할 것 없이 모두 거름지다는 뜻이다. 이에 해당하는 군현은 경기도의 양주, 교하, 강화 등 3개 군현, 충청도의 결성(홍성의 결성면), 경상도의 밀양, 양산 등 26개 군현, 전라도의 옥구 등 10개 군현, 황해도의 강령, 함길도의 경원 등 4개 군현으로 모두 45개 군현만이 가장 비옥한 농지를 갖고 있고 강원도와 평안도는 거름진 군현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인 것은 농지가 거름지다거나 메마르다고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15세기는 오늘날과 같이 토양의 물리화학적 분석을 통해 토양성분의 구성으로 토양의 걸고 메마름을 판별할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마도 간접적 방법으로 해당 농지에서 생산된 작물의 평년 수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 믿어진다. 이 경우 논에서는 단일 작물만 생산되는 벼나 쌀이 기준이 될 것이나 밭의 경우는 여러가지 작물이 재배되기 때문에 어떤 작물인지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1485년(성종16)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의 관리들에게 봉급으로 주던 록과(祿科)를 보면 밭작물로 전미(田米 좁쌀), 황두(黃豆), 소맥(小麥)이 기록되어 있다. 이중 쌀과 같은 하곡(夏穀)은 좁쌀과 콩이므로 아마도 이 좁쌀과 콩 중 해당지역에 보다 많이 재배되는 작물의 평년수량이 기준작물이 아니었나 믿어진다.

둘째는 비다(肥多) 또는 비후(肥厚)로 표시하여 그 고을의 농지가 거름 진 땅이 많다 하였는데 그 뜻은 반대로 메마른 땅은 적다(埼少)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에 속하는 고을은 전라도의 보성, 평안도의 중화, 박천, 상원, 함길도의 갑산, 회령 등 6개 고을로 전국 335개 군현의 1.8%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의문인 것은 거름진 농지가 메마른 농지보다 많다는 뜻이 지극히 애매모호하여 백분율로 볼 때 몇 십 몇 퍼센트 많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거름진 농지가 3분지 2(66.6%) 이상일 때 많다는 뜻이 될 것으로 이해되나 1443년(세종 25)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가 제정하여 경국대전 호전의 양전(量田)에 반영된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의 토지 6개 등급을 보면 1등전(2,753.1 평)보다 2등전의 면적이 492.6평 많은 3,245.7평으로 되어있어 비율로보면 17.9%가 많은데 이 수치를 메마른 땅의 비율로 본다면 비다척소(肥多堉少)의 뜻은 메마른 땅이 약 18%이고 거름진 땅이 82%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산일 뿐 단언할 수는 없다.

세 번째는 비척상반(肥堉相半)으로 표시하여 그 고을의 농지가 거름진 면적이 반, 메마른 농지가 반이란 뜻이다. 경기도의 광주 등 20개 고을, 충청도의 충주 등 26개 고을, 경상도의 경주 등 27개 고을, 전라도의 전주 등 13개 고을, 황해도의 해주, 연안 등 2개 고을, 강원도의 평해, 울진 등 2개 고을, 평안도의 순안 등 15개 고을, 함길도는 한 개 고을도 없어 전국적으로 105개 고을이 이에 해당하며 비율로는 전국 335개 고을의 31.3%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는 두 번째 비다척소(肥多增少)의 반대인 비소척다(肥少增多)의 경우로 거름진 농지가 적고 메마른 농지가 많다는 뜻이다. 이에 해당하는 군현은 경기, 경상, 황해, 강원도에는 한 개 고을도 없고 충청도의 죽산 등 8개 고을, 전라도의 금구 등 8개 고을, 평안도의 평양과 함길도의 종성 등 모두 18개 고을로 전국 335개 고을의 5.4%에 해당하는 고을만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도 의문은 두 번째의 경우와 같이 기름진 농지가 적다는 뜻이 정확히 몇 퍼센트 적으며 메마른 농지가 많다는 뜻이 몇 퍼센트 많다는 뜻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다섯째는 그 고을의 토질이 척(堉)으로만 표시되어 모두 메마른 농지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양근, 과천 등 14개 고을, 충청도의 단양 등 19개 고을, 경상도의 청하 등 13개 고을, 전라도의 진산 등 19개 고을, 황해도의 황주 등 16개 고을, 강원도의 양양 등 19개 고을, 평안도의 맹산 등 11개 고을, 함길도의 산수, 부령 등 2개 고을들로 모두 113개 군현으로 전국 335개 군현의 33.7%가 이에 해당하고 6개 등급 중 가장 그 비율이 높다. 여기서 메마르다는 뜻을 수등이척제 토지등급의 5등전으로본다면 1결(結) 당 평수가 6,897.3평이므로 1등전 2,753.1평, 2등전 3,245.7평의 2배 이상이 되므로 1~2등전을 연작(連作) 농지로 볼 경우이 다섯째 척(堉)의 농지는 2년에 한번 농사짓는 2년 1작(2年에 1作)의 휴경농지라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다척(多堉)이라고 표시한 군현이다. 더욱 많이 메마른 농지라는 뜻이다. 경기도의 이천, 영평, 안협 등 3개 고을, 충청도의 청양, 전라도의 고부, 순창, 곡성, 동복 등 4개 고을, 황해도의 안악, 곡산, 신천, 평산, 은율 등 5개 고을, 강원도의 강릉, 홍천, 김화 등 3개 고을, 평안도의 강동 등 17개 고을, 함길도의 함흥, 경흥 등 2개 고을 등 모두 35개 군현으로 전국 335개 군현의 10.4%가 이에 속한다.

이를 수등이척제 6등전으로 본다면 1결(結) 당 면적이 11,035.2평 (坪)이 되므로 4등전 5,006.6평의 2배가 넘고 5등전 6,897.3평의 2배 가까이가 된다. 곧 3년 1작(3年 1作)이나 4년 1작(4年 1作)의 휴경농지 라 할 수 있다.

1443년 전제상정소가 수등이척제 토지 6개 등급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고려 문종8년(1054)에 제정된 토지등급 상·중·하의 3개 등급을 준용해 왔다. 연작지는 상등전, 2년1작지는 중등전, 3년1작지는 하등전 등중하등전은 휴경을 전제로 한 토지등급이었다. 이와 같은 휴경농법은 시비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시대의 농법으로 시비기술이 발전되면 휴경농법은 자연히 소멸되게 된다. 15세기는 휴경농법이 연작농법으로 바뀌는전환기였다. 그 증거로 1427년에 편찬된 농사직설(農事直說)을 보면 당시로는 선진농법을 기록한 것인데도 시비기술은 밑거름뿐으로 덧거름이나 이삭거름이 없다는 게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밝힌 바를 1443년 전제상정소가 제정한 토지 6개 등급과 아울러 표로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 1−1 `	세종시대 지리지에 기록된 농지의 비옥도

지리지의 비 옥 도	비(肥)	비다척소 (肥多塉少)	비척상반 (肥堉相 <del>半</del> )	비소척다 (肥少埼多)	척 (堉)	다척 (多塉)			
전국군현수	45	6	105	18	113	35			
동상비율	13.4	1.8	31.3	5.4	33.7	10.4			
전제상정소 토지등급	1등전	2등전	3등전	4등전	5등전	6등전			
동상결(結) 당 평(坪)수	2,753.1	3,245.7	3,931.9	5,006.6	6,897.3	11,035.2			

<sup>※</sup> 지리지 군현수 중 기록이 없는 13개 군현(4%)는 미계산.

## 1.3. 세종시대의 토지 및 과세제도 합리적이었나?

세종(1418~1450)은 재위 3년차부터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토지 및 과 세제도를 연구 검토토록 하였다. 세종 18년(1436)에는 공법상정소(貢法 詳定所)를 설치, 고려시대와 같이 전국의 토지를 비옥도(肥沃度)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공법안(貢法案)을 실시 하였다. 그러나 이 공법안은 결함이 많아 세종 25년(1443)에 다시 전제 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토지등급을 6개 등급으로 나눈 전분육등 법(田分六等法)을 시행하면서 풍흉에 따라 부과하는 과세(課稅)수준을 9 개 등급으로 나누는 년분구등법(年分九等法)도 시행하였다. 여기서 전분 육등법이란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1결 (結)의 면적의 넓이를 달리하는 제도다. 등급에 따라 1결의 면적을 달리 한다는 뜻에서 이를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등급의 면적의 크기를 오늘날의 평(坪)수로 환산하여 보면 가장 비옥 한 일등전의 넓이는 2.753.1평을 1결(結)로 하고 비옥도가 버금가는 2등 전의 넓이는 3,245.7평을 1결로 하며, 3등전의 넓이는 3,931.9평, 4등 전은 5,006.6평, 5등전은 6,897.3평, 아주 척박한 6등전은 11,035.2평 을 1결로 한다는 토지제도다.

그러나 이 6개 등급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20년마다 다시 측량하여 비옥도에 따라 그 넓이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등전의 농지가 20년 후에 1등전이 될 수도 있지만 그사이 비옥도가 떨어졌다면 1등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토지등급은 궁극적으로 1등전 2,753.1평이 생산하는 수량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옥도가 1등전보다 못한 2등전은 1등전보다 492.6평이 더 넓은 3,245.7평이 되어야 하고 가장 척박한 6등전은 1등전 넓이의 4배가 넘는 11,035.2평이 되어야 1등전 2,753.1평이 생산하는 수량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

다고 생각한데서 출발한 제도다.

그렇다면 1결(結)의 면적에서 얼마의 농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보았을까? 쌀을 기준으로 가장 대풍(大豊)인 해에 1결의 면적에서 2백두(斗)를 생산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상상년(上上年)이라 하여 그 10분지 1인 20두를 과세(課稅)하며 그보다 1할이 적게 생산되는 9분작(分作)인 해에는 이를 상중년(上中年)이라 하여 상상년보다 1할이 감액된 18두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같은 계산방식으로 8분작은 상하년(上下年)으로 16두를 과세하고 7분작은 중상년(中上年)으로 14두 과세, 6분작은 중중년(中中年)으로 12두 과세, 5분작은 중하년(中下年)으로 10두 과세, 4분작은 하상년(下上年)으로 8두, 3분작은 하중년(下中年)으로 6두, 2분작은 하하년(下下年)으로 4두를 과세하되 1분작은 면세(免稅)한다는 것인데 다만 평안과 함경도는 이에서 3분지1을 감하고 제주는 반을 감한다는 것이다. 이 과세제도를 년분구등법(年分九等法)이라 한다.

이때 9분작이니 8분작이니 하는 작황판단은 1차로 8월 15일까지 해당 면(面)의 권농관(勸農官)이 현지답사를 통해 판단하면 이를 다시 고을 수령(守令)이 재심하여 해당도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호조에 보고하여 다시 의정부의 심의를 거쳐 그해 전국의 과세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때 현지답사 하는 것을 답사를 통해 손실을 파악한다는 뜻에서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이라 이름하였다.

이와 같은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의 토지등급이나 년분구등법(年分九等法)의 과세제도는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실시한 게 아니라 장장 5개월간에 걸쳐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172,806명에게 가부를 물어 확정한 것이다.

그 여론조사는 가하다는 찬성여론이 98,657명으로 전체의 57.1%를 점하고 불가하다는 반대여론이 74,149명으로 전체의 42.9%를 점하였다. 결국 찬성여론이 많아 이 제도는 1443년(세종 25)에 공포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표 1-2 전제(田制) 및 과세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					
Ŧ	분	대신 등	3품이하 전현직	경기	평안	황해	충청	강원	함길	경상	전라	합계
찬	인원 (명)	21	702	18,228	1,322	4,471	7,017	944	78	36,317	29,547	98,657
성	비율 (%)	9.8	57.9	98.3	4.5	22.3	33.3	12.0	1.0	98.9	99.1	57.1
반 대	인원 (명)	194	510	312	28,510	15,618	14,041	6,898	7,402	393	271	74,149
	비율 (%)	90.2	42.1	1.7	95.5	77.3	66.7	88.0	99.0	1.1	0.9	42.9
인	원 계	215	1,212	18,540	29,832	20,083	21,058	7,842	7,480	36,710	29,818	172,806

그러나 시행도 전국을 동시에 실시한 것이 아니다. 첫해는 전라, 경상 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마침내 전국에 실시 하게 된 것이다. 이상이 세종의 토지제도와 과세제도의 대강이며 그 내 용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제나 과세제도는 당시 농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공평과 세를 하기 위한 새롭고 좋은 제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경제사나 재정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도 한결같이 이 제도를 잘된 제도였다고 찬양하고 있다.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데 대해 필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코자한다.

첫째로, 이 토지제도는 본말이 전도된 제도라는 것이다. 예컨대 토지 자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정한 면적을 영구히 원상태대로 보존하고 있 는 불가변적 존재다. 그러나 비옥도는 거름을 많이 시용하면 높아지고 시용하지 않으면 척박해지는 가변적 존재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일정 한 토지면적을 상수(常數)로 고정시키고 비옥도에 따라 변하는 수량의 차이를 종속변수(從屬變數)로 삼았어야 순리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서 예시한 바와 같이 비옥한 1등전 2,753.1평 1결(結)에서 대풍인 해에 200두(과)의 쌀을 생산한 것을 그보다 덜 비옥한 2등전에서 200두의 쌀을 생산하려면 3,245.7평이 필요하다고 제도화 할 것이 아니라 2등전은 1등전과 동일한 2,753.1평에서 23.4두가 덜 생산된 176.6두의 쌀을 생산한다고 하여야 순리적이라는 것이다. 비옥도에 따른 수량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의 토지면적을 일목요연하게 통계로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다. 변동이 심한 비옥도나 수량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이 증감되기 때문이다. 토지 등급에 관계없이 1결(結)의 면적을 고정시키지 않고 변하는 비옥도를 기준하다보니 비옥도나 수량조사에 관료들의 부정행위가 싹트게 된다. 심하게 말하면 이 제도는 부정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라고 혹평할 수도 있다.

둘째로, 토지등급간의 면적차가 일정하거나 일정치는 않더라도 승수 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경향치가 일정하여야 하는데도 이 제도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일등전의 넓이 2,753.1평을 100으로 볼 때 2등전의 100분비는 앞에서 밝힌바 118.2%, 3등전은 142.8%, 4등전은 181.9%, 5등전은 250.5%, 6등전은 400.8%로 계산된다. 1등전과 2등전의 넓이가 18.2%가 더 넓다면 3등전의 넓이도 2등전보다 18.2% 더 넓거나 118.2%의제곱인 136.4% 혹은 2.5배가 더 넓은 145.5%가 되어야 하는데 오직 이도저도 아닌 142.8%가 넓다는 것이다.

또, 4등전은 1등전의 181.9%, 5등전은 250.5%, 6등전은 400.8%로 비옥도의 감소에 따른 토지면적의 상대적 증가비율이 일정한 규칙이 없이 임의적으로 늘어 주먹구구식이다. 물론 당시에는 현대와 같은 토양분석을 통한 비옥도 조사로 정확을 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호조(戶曹)의 정원(定員)에는 종6품의 산학교수(算學教授) 등 3명, 종7품의 산사(算士), 종8품의 계사(計士), 정9품의 산학훈도(訓導) 각 1

명과 종9품의 회사(會士) 2명 등 모두 8명의 숫자에 밝은 산학직들이 재 직하여 비옥도 차이에 따른 토양등급별 면적의 차이를 일정한 숫자의 규 칙적 차이로 표시할 수 있는 산학능력이 있는데도 이와 같이 불규칙하게 제도화 한 것이 유감스럽다. 이와 같이 모호한 등급 간의 면적 차이는 뒤 에서 밝히는 대로 부정의 온상이 되기 쉽다.

셋째로, 전국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토지조사는 매 20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서 고을 수령은 매 3년마다 관내 토지 중 비옥도(수량)가 등락한 농지에 한해 재조정하여 관찰사에 게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한 1443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된 1653년까지 210년간 전국적으로 비옥도에 따른 토지 재조사 실적은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전국적으로 비옥도에 따른 토지측량을 다시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매년 변하는 비옥도를 210년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농지 통계가 믿을 수 없는 통계라는 뜻이다. 믿을 수 없는 통계는 부정의 온상이 된다.

넷째로, 년분구등법(年分九等法)에 의한 과세제도에 관한 것이다

한마디로 작황판단의 기준인 분작(分作)의 수가 너무나 세분되어 있어 9분작(分作)인지 8분작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작황조사(作況 調査)는 앞에서 밝혔듯이 벼농사의 경우 해당 면(面)의 권농관(勸農官)이 1차로 8월 15일(음)까지 실시하여 고을 수령(守令)에게 보고하면 수령은 이를 토대로 9월 15일까지 논에 나아가 작황을 판단하여 몇 결(結)이 9분작이며 몇 결이 8분작인지 하는 작황내역을 재조사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토록 되어있다.

이 작황보고에 있어서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황 판단기준이 모두 10계단(부작)으로 작황의 간격이 너무나 많고 세분되었다는 것이 다. 예컨대 대풍(大豊)으로 200두의 수량을 정점으로 그 10분지 1인 20 두(斗)를 과세하고 9분(分)작일 때는 18두로 감하는 등 한 분작이 내려 갈 때마다 2두씩의 과세액이 점감하는 분작(分作)의 수가 너무나 많게 세분되었다는 것이다. 권농관이나 수령이 현지답사 할 때 단기간 내에 고을의 필지마다 한 평의 이삭수를 세거나 평예(坪例)를 하여 수량을 실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눈으로 작황을 보는 달관조사(達觀調査)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아무리 신출귀몰하고 유능한 권농관이나 수령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9분작과 8분작 또는 7분작이나 6분작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9분작의 작황조사는 3~5단계 등 그 간격을 반으로 줄였어야 했다. 구분하기 모호한 제도는 애당초지켜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기 마련이다.

다섯째로, 이 새로운 토지 및 과세제도에 대해 가부를 물은 여론조사에 관한 것이다. 이 여론조사는 아마도 우리 역사상 이것이 최초의 것이며 민의를 정책에 반영한 호시였다고 믿어진다. 참여인원이 많아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어떤 여론이든 흐름이 있고 경향이 있는 게 보통인데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道)에 따라 여론이 들쑥날쑥하여 흐름이나 경향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경기, 전라, 경상의 3개도는 찬성이 98.3%, 99.1%, 98.9%인데 강원, 평안, 함길의 3개도는 어째서 반대가 88.0%, 95.5%, 99.0%로 정반대의 여론인가 하는 것이다.

더욱 희한(稀罕)한 것은 경기, 전라, 경상도가 98%이상 찬성인데 그사이에 끼어있어 자연환경이 이들 도(道)와 엇비슷한 충청도가 어째서 찬성이 고작 33.3%고 반대가 66.7%나 되느냐 하는 의문이다. 또 경기도와 인접된 황해도는 충청도보다도 반대가 더 많은 77.3%나 된다. 이로 보아 이 여론조사는 아마도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혹시 해당 도 관찰사가 찬성 또는 반대를 사전에 지시한 것은 아닌지? 더욱 그렇게 믿어지는 까닭은 대표적 지식인들인 2품 이상의 대신(大臣)들 215명의 여론이 90.2%이상 반대라는 점 때문이다. 「경국대전」

의 공무원임용규정을 보면 일선 수령(守令)을 거치지 않은 자는 4품 이상의 높은 품계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2품 이상의 대신들은 지난날 고을 수령으로 재직하면서 권농업무나 작황 및 과세업무를 다년간 체험적으로 경험한 지식인 들이다. 그들의 90%가 반대한다면이 제도는 의당 재고되었어야 했다.

옛말에 '어리석은 천 사람이 옳다하여도 판단력 있는 한 선비가 옳다고 한 것만 같지 못하다(千人之諾諾不如一士之諤諤).'는 말이 있다. 여론의 경향 등 정확도나 내용도 분석하지 않은 채 응답자 172,806명 중 과 반수인 57.1% 해당의 98,657명이 찬성하였다고 이 제도가 잘된 것이라고 시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전제상정소의 이 전제 및 과세제도는 허점이 많고 정확히 실천 하기가 불가능한 제도였다. 그렇기에 후일의 평가이기는 하지만 「증보 문헌비고 에 기록된 숙종 35년(1709) 평천군 신완이 상소한 한 구절을 보면 "대체로 세력 있는 자는 전지(논밭)가 많아도 결수(토지대장)는 적 고, 빈약한 자는 전지가 적어도 결수는 많으며 옥토와 척(瘠)토를 바꾸어 기록하여서 부세가 고르지 않습니다." 하였다. 한마디로 난맥상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난맥상태는 본말이 전도된 등급별 토지면적 설정, 실 현 불가능한 20년마다의 전국적 비옥도 조사와 토지측량, 정확을 기하 기 어려운 작황조사와 과세 등이 가져온 결과였다. 결국 선조 41년 (1608)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건의로 대동법(大同法)의 세제(稅制)에 따라 1결(結)에 16두(斗)로 납세액을 고정시키고 봄, 가을에 8두씩 분납 토록 개정하였다. 년분구등법상 8분(分)작에 해당하는 과세액이다. 납세 과정의 방납(防納)이라고 하는 부정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후 다시 인조 12년(1634) 영정법(永定法)으로 분작(分作)에 관계없이 결 (結)당 4두(斗) 씩을 일률적으로 과세하였으며, 효종 4년(1653)에는 비 옥도에 따라 1결(結)의 면적을 달리하는 수등이척법(隨等異尺法)마저 폐

지하고 종래 1등전의 넓이였던 2,753.1평을 비옥도에 관계없이 모두 1 결(結)로 정하게 되었다. 1결(結)당 4두씩의 과세액을 년분구등법에 의한 과세 수준으로 보면 면세 작황의 바로 위에 해당하는 2분작(下下年)의 과세 해당액이다. 결당 4두만 과세하여도 국가재정(세입과 세출)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 사이 농지면적이 늘어 과세대상이 늘었고 직파재배가 이앙재배로 바뀌었으며 천수답에도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받모자리 기술이 발전한데다 조선초기 기비(基肥)만 시용하던 것이 차츰 추비(追肥)와 수비(穗肥) 시용으로 토지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비옥도에 따라 1결의 면적을 달리하는 수등이척제 폐지는 시비기 술의 발전으로 척박한 땅도 시비를 통해 단기간 내에 옥도가 될 수 있어 토지의 비옥도에 대한 중요성이 효종대에 와서 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 1.4. 경국대전의 농지세 과세

농본국(農本國)이란 농업을 국가산업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국민의 의식주를 농업생산으로 해결하고 나라운영의 재원(財源)도 농업에서 조달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여기서는 나라운영의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조달하였나를 살피고자 한다.

조선시대 경제에 관한 규정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호전(戶典)에 규정되어 있고 재정조달에 관한 규정은 호전의 수세(收稅)조항에 열거되어 있다. 수세조항의 세목(稅目)에는 농지세란 용어가 없이 단순히 수세(收稅)라고만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날 지세(地稅)중의 하나인 농지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필자가 농지세라 이름한 것이다. 경국대전에서 농지세라 한정하지 않은 것은 세(稅)라고 하

면 당연히 오늘날의 농지세가 주종으로 이해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라 이해된다.

농지세의 부과대상은 경국대전에 쌀농사만 예시되어 있다. 가장 대풍 (大豊)이 든 해외 작황을 100을 뜻하는 십분(十分)이라 하고 실 수량을 1 결(結)당 쌀 200두(斗)로 하여 그 10분지 1에 해당하는 20두를 농지세 로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대풍의 작황을 경국대전에서는 상상 년(上上年)이라 이름하였다. 여기서 1결당 쌀 200두의 수량을 음미해 보 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1결(結)은 토지의 비옥도(肥沃度)에 따라 1등전은 2.753.1평(坪)에서 6등전은 1등전의 4배가 넘는 11.035.2평까지 다양 하여 1결의 면적을 어떻게 한정할지 어려우나 여기서는 편의상 오늘날 의 1ha에 상응하는 3천 평으로 가정할 때 1결당 쌀 200두(斗)는 오늘날 10a당 20두(쌀 2가마)가 된다. 이는 대풍인 해의 수량이므로 평년작으 로 볼 때 대풍인 해의 75%로 환산하면 쌀 15두가 된다. 10a당 15두는 오늘날의 생산수준으로 볼 때 너무나 적은 생산량이지만 덧거름이나 이 삭거름이 없이 밑거름만 시용하던 15세기의 생산수준으로는 과소한 생 산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시기 밑거름만 시용하였다고 믿는 까닭 은 16세기까지의 우리 농서(農書)에 덧거름이나 이삭거름을 시용하라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15세기의 생산통계가 없어 당시의 단위면적당 수량을 가늠할 수 없는 이때 이 과세표준이 나타내는 수량은 당시의 생산통계를 추정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만일 그해의 작황이 대풍인 해보다 10%가 감산된 9분(九分)작 상중년(上中年)일 때의 과세액은 대풍인 해보다 10%를 감한 18두를 부과하고 8분(八分)작 상하년(上下年)일 때는 16두를 과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같은 계산방식으로 7분(七分)작, 중상년(中上年)일 때는 14두를 과세하고 6분(六分)작 중중년(中中年)일 때는 12두,

5분(五分)작 중하년(中下年)일 때는 10두 과세, 4분(四分)작 하상년(下上年)일 때는 8두 과세, 3분(三分)작 하중년(下中年)일 때는 6두 과세, 2분(二分)작 하하년(下下年)일 때는 4두를 과세하되, 1분(一分)작 이하는 면세(免稅)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량의 10% 과세액도 무겁거니와 면세규정이 대풍인 해의 10% 이하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면세기준이다. 오늘날의 생산비 개념으로 보면 평년작의 50% 이하가 면세의 적정선이 아닐까 추측된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농지세 과세기준은 흡혈적(吸血的) 수준으로 얼마나 가혹하였으며, 농민이 얼마나 출혈적(出血的) 가렴주구(苛斂誅求)를 당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지세 과세기준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은 아니었다. 충청, 전라, 경상 등 농업선진지역인 삼남(三南)지방과 경기, 강원, 황해도까지가 앞에서 밝힌 과세기준 적용대상지역이고 함경(永安), 평안(平安)양 도는 위 기준에서 3분지 1을 감하여 과세하라 하였다. 또, 제주(濟州)삼읍(三邑)은 위 기준의 2분지 1을 감하여 과세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에 따라 과세기준이 다른 까닭은 생산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토지생산력은 토지의 비옥도(肥沃度)와 생산기술에 달려 있는데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경, 평안 양 도의 지품(地品, 토지 등급)은 좋은데 무지한 백성(농민)들이 구습에 빠져 농사를 어긋나게 함으로 지력을 다 쓰지 못하고 있으니 삼남(三南, 충청, 전라, 경상)에서 행하고 있는 좋은 농법을 수집하여 그들에게 전습시키고자 한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농사직설(農事直說)」 편찬의 동기를 말한 구절이다. 이로 보아 함경, 평안 양 도는 생산기술의 낙후가 생산력이 낮은 원인이다. 제주도의 생산력이 낮은데 대해서는 적절한 옛 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아마도 생산기술의 낙후보다는 토양자체가 지력이 낮은화산회토로 이루어진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다음으로, 9분(分) 상중년(上中年) 또는 6분(分) 중중년(中中年) 등 하는 작황(作況) 판단은 언제 누가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차로 8월15일까지 권농관(勸農官)이 친심(親審)하여 수령(守令)에게 보고하면 이를 근거로 수령이 9월 15일까지 고을의 작황을 평가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다. 경국대전 호전(戶典)의 호적(戶籍)조를 보면 "5호(戶)를 1통(統)으로 하고 5통으로 리(里)를 구성하며, 리에 리정(里正)을 둔다. 면(面)에는 권농관(勸農官)을 두고 서울(京)에는 방(坊)마다 관령(管領)을 둔다." 하였다.

다시 무농(務農)조를 보면 "권농관은 근면하고 조심성 있는 자를 가리 어 쓰되. 권농에 힘써 관내에 묵은 밭이 생기지 않게 한다." 하였다. 이 권농관이 오늘날 면장(面長)의 전신이다. 이 권농관의 신분은 품계(品階) 나 록봉(祿俸)이 없이 수령을 보좌하는 향촌사회의 지도력 있는 지식인 으로 이해된다. 이 권농관에게 새로 개간한 농지나 재해(災害)를 입은 재 상전(災傷田) 및 반(半)재상전 그리고 병으로 경작하지 못한 묵은 밭(陳 田)의 경작자는 감세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일 경작자가 사고 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권농관이 이런 농지를 몸소 살펴 직접 친심(親 審)을 거친 결과를 8월 15일까지 고을 수령에게 보고토록 되어있다. 이 권농관의 보고를 토대로 고을의 수령은 그해의 작황을 평가하여 9월 15 일 이전에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이를 재삼 살펴 의정 부에 보고하여 육조(六曹, 국무회의)의 동의(同議)를 거쳐 과세액을 확정 짓고 이에 따라 수세(收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작황평가를 어 떻게 하였나 하는 것이다. 이 평가방법에 대한 경국대전의 언급은 전혀 없으나 권농관이나 수령의 작황 평가는 아마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달관 조사(達觀調査)가 아니었나 믿어진다. 조선시대 편찬된 여러 농서(農書) 들을 보면 대개 수령을 거친 분의 편찬이 많은데 그 원인이 수령재임 중 축적한 농업지식의 결과가 아닌가 믿어진다.

그밖에 휴경과 경작이 반복되는 속전(續田)이나 새로 개간한 신기전 (新起田)은 경작한 해에만 과세한다 하였고 바닷가의 간척(干拓)농지는 초년에 면세하고 다음해에는 반액의 세를 거두며 귀화인(向化人)의 농지는 3년간 면세하라는 단서규정이 있다. 이상이 과세규정의 전부다.

이어서 벌칙규정이 첨기되어 있다. 재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경작자가 거짓으로 재상지(災傷地) 신고를 하거나 이를 묵인한 권농관, 이를 기록한 서원(書員) 등을 고발할 경우 관련자들은 1부(負: 1결結의 100분지 1)의 면적에 종아리(笞) 열 번을 치고 매 1부의 면적이 증가할 때마다 다시 열 번의 종아리 치기를 추가하되, 100번 이상은 더하지 않는다 하였다. 아마도 종아리를 맞다가 죽거나 중병이 들까 염려한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군(軍)에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이 허위 기재한 토지는 고발자가 경작토록 한다 하였다. 만일 수령이 허위 기재를 묵인하였을 경우 그 면적이 1결(結)의 10분지 1 이상이면 그 직을 파면하고 영원히 재임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과세대상 농지를 제전(諸田)조에서 살펴보면 관둔전(官屯田) 마전(馬田) 원전(院田) 진부전(津夫田) 빙부전(氷夫田) 수릉군전(守陵軍田)은 점유자가 자경(自耕)하고 세는 없다(無稅)하였다. 공공농지이기 때문이다. 또, 국가에서 행하는 수륙제(水陸祭) 채소를 가꾸는 사채전(司菜田), 내수사전(內需司田), 아록전(衙祿田), 공수전(公須田), 도전(渡田), 수부전(水夫田), 장전(長田), 부장전(副長田), 급주전(急走田) 등은 당해 관련기관이 수세(收稅)한다 하였고, 국둔전(國屯田)은 경계내의 군인들이 경작하여 군자(軍資)에 씀으로 당연히 세금이 없다 하였다. 이상 열거한 예외농지가 과세(국세) 및 수세의 대상농지가 된다.

운반에 해당하는 조전(漕轉)조를 보면 이와 같이 거두어들인 세곡(稅 穀)은 11월 1일부터 익년 정월까지 경기도와 경기인근의 강원도 군현은 경창(京倉)에 직접 입고하고 충청도의 세곡은 아산(牙山)의 공세관창(貢 稅串倉), 충청일부와 경상도 세곡은 충주의 가흥창(可興倉), 전라도는 함열(咸悅)의 덕성창(德城倉), 영광의 법성포창(法聖浦倉), 나주의 영산강창(榮山江倉)에 입고시킨다. 서울에서 먼 강원도 일부는 원주의 흥원창(興原倉), 춘천의 소양강창(昭陽江倉), 황해도는 백천(白川)의 금곡포창(金谷浦倉), 강음(江陰)의 조읍포창(助邑浦倉)에 입고시키고 다음해 6월말까지해운판관(海運判官, 종5품) 주관으로 서울로 운반한다 하였다.

평안, 함경도의 세곡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쌀 생산이 적었던 것 같다.

그 밖에 잡세(雜稅)조를 보면 공장(公匠), 좌가(坐賈), 야장(冶匠), 유철 장(鍮鐵匠), 주철장(鑄鐵匠), 행상(行商, 육상陸商 수상水商) 등에 대해 대 중소의 규모에 따라 종이(楮貨), 베(正布), 면포(棉布), 쌀 등을 춘추로 차 등하여 분납토록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코자 한다.

### 1.5. 삼정(三政)의 문란과 철종말년의 민란

삼정(三政)이란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의 세 가지 정사를 뜻하며 철종조의 민란이란 철종말년인 1862년 전국 29개 군현에서 민 중봉기가 연쇄적으로 폭발한 것을 말한다. 그 민중봉기가 진주에서 비롯되었다 하여 일명 '진주민란'이라 부르기도 하고 민란이 발생한 고을 29개 군현 중 충청, 전라, 경상 등 삼남지방의 군현이 압도적으로 많은 25개 군현인데 근거하여 이를 '삼남의 민란'이라고도 한다. 이 철종조의 민란을 밝히는 뜻은 그 민란이 1811년 홍경래(洪景來)의 난이나 1894년 동학혁명 못지않은 큰 민란임에도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정(三政) 중 전정(田政)이란 농지면적의 측정에 따른 농지대장인 양

안(量案)의 확정과 작황(作況)에 따른 공평과세와 수세 등에 대한 일련의 행정을 말한다. 농경시대에는 나라 운영상 필요한 재정조달이 전정에 달 려있었다.

조선조는 세종 25년(1443)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 14년간에 걸친 장기간의 연구검토와 17만 2천 명의 경험 많은 농부들에게 물어 농지의 비옥도(肥沃度)에 따라 농지를 6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가장비옥한 1등전보다 덜 비옥한 2등전은 그만큼 면적을 늘려 1등전 1결(結)이 생산하는 량과 생산수량이 같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농지등급에 따라 면적을 달리한다는 뜻에서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라 하였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 덧거름 이삭거름 시용 등 시비(施肥)기술과 모내기 면적 증가 등 재배기술이 발전하자 비옥도가 떨어지는 농지라도 거름을 더많이 시용하고 적기영농을 하면 비옥도가 좋은 농지와 생산 수량이 대차없게 되자 인조 12년(1634) 수등이척제를 혁파하고 과세기준도 개정하였다. 모든 농지는 1결당 면적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1결당 4두(斗)의 농지세를 과세토록 개정하였다. 다만 풍흥에 따른 과세액의 차등은 4두를 상한으로 하여 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농지에 부과하는 세액(농지세)이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점하는 근간이 된다.

예컨대 규장각에 자료가 있는 1895년의 세수(歲收)내역을 보면 전체 1,563,087원(元)의 세입 중 농지세가 65%, 인삼세 9.4%, 해관(海關)세 21.4%, 잡세 4.2%였다. 해관세가 없던 1876년 개항 이전의 정부 재정은 8~9할이 농지세로 충당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농지세는 농경시대 국가 운영의 가장 큰 재원이었다. 그런데 전정의 가장 큰 문란은 고을 행정책임 자나 양반 또는 토호(土豪)들의 탐욕적 조작으로 실제는 있는 농지가 토지 대장에는 오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농지를 숨은 농지라 하여 은결(隱結)이라 하는데 이 은결이 늘어날수록 반대로 나라의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고 국가운영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예를 들어 1882년 임오군란 때 군인들에게 주는 봉급미가 13개월분이나 밀린데다 겨우 1개월분을 주면서 쌀이 모자라자 모래를 섞어주다보니 격분한 군인들이 군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 군란의 원인을 소급해찾아가다 보면 세수 부족이고 다시 그 원인은 은결의 증가로 세수가 줄어들어 국고(國庫)가 비었기 때문이다.

은결의 폐단은 세수(稅收)부족만의 폐해가 아니다. 그 부족을 메꾸고 자 백지정세(白地徵稅)라 하여 농사를 짓지 않은 공지(空地)에 세금을 과 세하는 악폐가 따르고 억울하게 세금을 착취당하는 농민의 민생고(民生 苦)가 뒤따르게 된다. 이래서 전정은 얽힌 실같이 풀 수 없게 어지러워진다. 그것이 바로 전정(田政)의 문란이다.

삼정의 둘째는 군정(軍政)이다. 남자로 16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교대로 군역(軍役)을 담당하는 것을 양역(良役)이라 하는데 번(番)을 서는 의무기간을 마치고 나면 매달 한 번씩 군사훈련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역을 부담하는 대신 대역세(代役稅)라 해서 베(布) 두필씩을 국가에 납부하고 병역인 양역을 면제받는 제도가 있었다. 이 포(布)를 군포(軍布)라 하는데 군포는 군복 등 국용상의 필요보다는 장교 등의 급료 등 군(軍) 운용상의 부족한 군재정(軍財政)에 충당코자 하는 면이 강한 일종의 과세였다. 그러나 개중에는 중이 되어 아예 양역을 피하거나 관리와 결탁, 군포를 바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숙종 때는 그 수가 1만 명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고 영조 때는 50만이 넘었다고도 한다. 결국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들만이 그 부담을 지게되는데 그 농민 중에는 황구첨정(黃口簽丁)이라 하여 어린이를 어른같이취급하여 과세하거나 백골징포(白骨徵布)라 하여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과세하기도 하고 족징(族徵)이라 하여 친척이 대신 세금을 내거나 인징(隣徵)이라 하여 동네사람들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악폐가 계속되었다. 급기야 시달리다 못 견딘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가는 자가 늘어 농촌이

황폐화 하자 효종(孝宗)때부터 양역(良役)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누구나다 국역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워 개편을 꾀하였다.

그러나 일부 관료들의 반대로 해결이 안 되다가 영조(英祖) 26년(1750)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왕족과 관료들도 국역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게 되었다. 영조가 강력한 군주였기에 가능한 법이었다. 그 내용은 양포(良布) 2필을 1필로 반감하고 그 부족분은 어(漁), 염(鹽), 선세(船稅)와 결작(結作) 등으로 보충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결작이란 농지 1결(結)에 대한 부가세로서 서북양도(西北兩道)를 제외한 6개도에 평야지는 1결에 쌀 2두(斗), 산군(山郡)은 돈 5전씩을 징수한다는 것이었다. 종래의 농지세 이외에 이 액수를 더 징수하는 부가세다. 그러나 본세인 농지세가 은결로 사라지면 뒤따라 이 부가세도 사라지게 된다. 그것의 군정이 문란이다.

삼정의 셋째는 환곡(還穀)이다. 이는 흉년이나 춘궁기에 식량이 부족한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풍년이나 추수기에 반납토록 하는 진휼제도(賑恤制度)로 일명 환정(還政), 환상(還上) 또는 환자(還子)라고도 한다. 그 연원은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194) 3월에 곡식을 대여하고 10월에 환납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부터 환곡행정은 실시된 것으로 믿어진다. 고려초기에는 흑창(黑倉)을 두어 빈민을 구제해 오다가 고려 성종 5년(AD986) 이를 의창(義倉)이라고 개칭하면서 각 주부(州府)에 이 의창을 설치하였다 한다.

또 성종 12년(AD993)에는 상평창(常平倉)을 양경(兩京)과 12목(牧)에 두어 진휼사업을 확장하였는데 이는 항구적 기구가 아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1년(AD1392), 의창(義倉)을 설치하여 초기에는 대여곡에 대한 이자 없이 시행해 오다가 점차 보유양곡의 소모량을 보충하기위해 대여수수료로 약간의 양곡을 더 거두어 보충하기 시작하였다.

문종 1년(AD1451)에는 의창의 보조기구로 각 촌락에 사창(社倉)을

설치토록 하였는데 경상도가 이 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하였다고 한다.

의창의 수수료(이식)는 쌀 10두(斗)에 2승(升)이었고 사창의 수수료는 1석(石 15두)에 3두였다. 의창보다 사창의 수수료가 컸다. 세조 4년 (1458)에는 비상설기구로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여 물가조절을 하였는데 인조 4년(1626) 진휼청(賑恤廳)에 이를 통합하여 평상시에는 상평청(常平廳)으로 물가를 조절하고 흉년에는 진휼청(賑恤廳)으로 곡식을 대여하는 업무를 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자리 잡기 전에 병자호란 등으로 국력이 극도로 소모되고 세제(稅制)가 문란해지자 세수가줄어들어 국고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 부족분을 환곡의 수수료인 환곡의 이식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환곡의 부족한 곡식을 보충하고자 매관매직하거나 각 관청이나 군영(軍營)마다 각기 보유한 곡식을 대여하여 그 이식으로 자기 기관을 운영하다보니 환곡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과세나 이식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백성들의 환곡 필요여하를 불구하고 대부를 강제하기도 하였으며 그 이식도 점차 높여 강제징수 하다 보니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다.

조선중기 이후 삼정(三政)의 문란 중 가장 폐단이 심한 것이 이 환곡이었다. 이와 같은 삼정의 문란은 철종조에 이르러 더욱 우심하여 지배층의 농민에 대한 착취와 관리의 행패, 세도정치에 의한 정치적 모순 등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자 각처에서 농민봉기의 징후가 짙어지게 되었다.이 징후를 감지한 철종은 철종 12년(1861) 지방관리의 행패를 엄중히처단토록 명하였으나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이를 반대하자 그 명령은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듬해인 철종 13년(1862) 2월에는 진주에서 병사(兵使 종2품) 백락신(白樂莘)이 환곡의 이식을 너무나 올려 받는 뜻의 취임(取剩)에다 공갈, 그리고 불법으로 전세(田稅 농지세)를 더 받는 늑징(勒徵)과 6만량의 거액을 호별로 강제 징수하는 배호백징(排戶白徵) 등을 감행하여 그 일부로 개인 재산을 모으자 참았던 민원(民怨)이 드디어 분

출하게 되었다. 이 백락신의 행태는 동학혁명을 촉발시킨 고부(古阜)군수 조병갑(趙秉甲)의 행태와 유사하다.

이에 양반층인 진주의 이명윤(李明允)과 유계춘(柳繼春)을 주모자로 한 이계열(李啓烈) 등이 선두에 서서 1862년 2월 마을 유지들을 주축으로 머슴들과 나무꾼(樵軍), 목동들을 규합, 치밀한 조직훈련과 강제규정을 제정하여 단결을 굳게한 다음 그들을 전위부대로 앞세워 2월 18일부터 격문과 선전문을 배포하면서 진주읍내로 진격하였다. 그들은 합창으로 언가(診歌)를 부르며 관가를 습격, 아전집에 불을 지르고 백락신을 포위, 그 죄를 추궁하는 한편 권준범(權準範), 김희순(金希淳) 등 아전(衙前)들을 현장에서 불태워 죽였으며 관청을 습격하여 환곡을 불살랐으나 23일까지 6일간 계속된 이 민란을 아무도 막지 못하였다.

조정에서는 이 보고를 받고 2월 29일 관찰사를 비롯한 관계관을 문책 처벌하고 부호군(副護軍 종4품) 박규수(朴珪壽)를 안핵사(按覈使 사실조 사관)로 현지에 파견, 사태를 수습코자 하였으나 한번 터진 분화구는 충 청, 전라 등 삼남지방으로 확대되었다. 3월에는 전라도 익산, 4월에는 경상도 개령(開寧 김천), 전라도 함평, 5월에는 충청도 회덕(대전), 공주, 은진(논산), 연산(連山 논산의 연산), 청주, 전라도 여산(礪山 현 익산시 여산), 부안, 장흥, 순천, 경상도 단성(丹城 산청군 단성), 함양, 성주, 선 산, 상주, 거창, 울산, 군위, 비안(此安 의성군 비안면), 안동 등 22개 군 현에서 연쇄폭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박규수를 필두로 삼남 각지에 안핵사, 선무사(宣撫使 위무하는 관원), 암행어사(실정파악, 처단)를 현지에 파견, 사태를 수습하는 한편 탐관오리를 징계하고 주모자는 극형에 처하는 등 삼정의 근본적 시정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때 박규수는 민란의 원인이 국가재정의 소모와 민생의 궁핍에 있음을 지적, 과중한 농민의 부담을 덜고자 우선 환곡제도의 폐지를 상소하였다. 조정에서는 5월 22일 이를 접수하고 26일

삼정개혁을 위한 이정청(釐整廳)을 설치하고 시행규칙인 삼정이정절목 (三政釐整節目)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전정(田政)과 군정(軍政)은 민원을 참작, 그 폐해를 시정하고 환곡(還穀)에 대해서는 23개조의 수습방안이 열거되었다. 그중 중요한 것을 들면 첫째로 전국의 환곡수량을 2,361,998섬으로 고정하고 그중 1,500,000섬을 보유미(保留米)로 하여 항상 비치토록 하되, 둘째로실제는 없으면서 문서로만 있는 허유미(虛留米) 2,816,916섬 중 3분지 2는 탕감하고 나머지 3분지 1은 관리와 아전이 포탈(逋脫)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들에게 본전만을 10년 연부로 상납토록 할 것이며, 개중에 1천섬 이상 포탈한 자는 명부를 작성하여 조사 후 강력 처벌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전답의 실제 결수(結數 면적)를 밝혀 그 결(結)에 상응하는 결전(結錢 과세액)의 예에 따라 납세케 한다는 응급조치들이었다. 이같이하자 치열하던 각 지방의 민란도 다소 가라앉은 듯 하였으나 그해 여름한발과 수해가 우심하자 민심이 동요하더니 8월 이후 다시 전국적으로민란이 확대되었다. 9월에는 제주도의 수만 농민이 폭동하더니 10월에는 함흥, 11월에는 경기도 광주, 12월에는 경상도 창원, 남해, 황해도황주 등지에서 민란이 계속 폭발하여 연말까지 불안이 계속되었다. 이듬해인 1863년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금위영(禁衛營 궁성수비)의 군졸까지소요를 일으키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무능한 철종이 그해 승하하면서 외척인 안동김씨의 세도도 몰락 하자 민란도 소강상태가 되고 고종시대로 바뀐 것이다.

이상에서 삼정의 문란과 철종조의 민란을 요약하였으나 그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국강병의 국가적 목적이 지배층의 사리충족으로 변한데 있고 그 원인은 관리의 기강이 서지 않은데 있으며, 국가 보다는 가문 우선의 세도정치 때문이었다.

여기서 한마디 추가할 것은 진주 주민의 반골(反骨)기질이다. 진주는

철종시대만 민란을 촉발한 곳이 아니다. 고려신종 3년(1200)에도 고을 아전들의 학대와 부패에 대항하여 아전들의 주택 50여 채를 불사르고 여러 사람이 희생된 바 있다. 또 1923년에는 백정들이 신분상승을 목적으로 한 형평사(衡平社)라는 결사체가 진주에서 처음 결사하여 저항정신이 강한 고장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데 김용섭(金容變)의 '철종조민란발생에 대한 시고(試考)(역사교육1)', 한우근(韓佑劤)의 '18세기 전반기의 조선사회경제의 일고찰(서울대 인문논문집7)' 철종실록 등을 참고하였다.

## 1.6. 조선시대의 호적제도

고향 재종집의 고문서를 살피다가 현종 3년(1837)부터 고종 27년 (1890) 사이에 작성된 호적신고서 7건을 찾아보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182년 전의 고문서가 고스란히 보존된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호전(戶典)에 기록된 호적(戶籍) 조를 보면 호적은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개정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신고자는 호주가 하되 3년 동안의 인구변동 현황이 나타나도록 3부를 작성하여 현감(縣監)이나 군수 등 고을의 행정책임자인 수령(守令)에게 제출하면 수령이 이를 검토 후 수령의 직인을 찍어 한 부는 신고자에게 되돌려주고 한 부는 수령의 집무실에 비치하고 한 부는 중앙의 호조(戶曹)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다. 호조에서는 이를 기초로 군현별, 도별, 전국단위 등의 인구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호조에는 계수에 밝은 수리전문가로 종6품의 산학교수(算學教授) 1명, 별제(別提) 2명, 종7품의 산사(算士) 1명, 종8품의 계사(計士) 2명, 정9품의 산학훈도(算學訓導) 1명 등 모두 7명의 계수전문가가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조나 예조 등 다른 부처에 없는 이들 산학직들이 호조에만 있는 것은 인구통계 뿐 아니라 생산통계, 세수(稅收) 통계등 각종 숫자에 관한 행정을 전담한 까닭으로 보인다. 여기서 교수(教授), 훈도(訓導)등의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수에 밝은 인재는 도제(徒弟)식 교육으로 내부에서 육성하여 기용한 것 같다. 호적신고양식은 경국대전의 예전(禮典)에 호구식(戶口式)이라 하여 신고양식이 예시되어 있다. 이제 보존중인 7건의 호적을 기초로 그 작성방법을 풀이하면,

첫째 줄에 호적신고서를 작성한 년월일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대한제국 이전까지 중국년호를 썼기 때문에 도광(道光)17년(1837) 또는 함풍(咸豊)8년(1858)등의 년호와 년도에 이어 작성월일을 쓰고 관할현인 부여현(扶餘縣)까지가 한 줄로 세로로 써 있다.

둘째 줄에 고정유식성적(考丁酉式成籍) 또는 고무오식성적(考戊午式成籍) 등 작성당년의 간지(干支)상 년도를 표시하고 호적신고서를 작성하되 호구장내(戶口帳內)라 하여 호구의 내용은 몽도면(蒙道面) 수락리(水落里) ○통(統) 제(第) ○호(戶)까지를 한 줄로 써 있다. 여기서 통(統)이라 함은 경국대전 호전(戶典)에 규정 되어 5호(戶)를 한통으로 하는 5가작통(五家作統)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통, 호의 숫자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세기 이후 오가작통법은 유명무실해진 것 같다.

셋째 줄에는 호적신고하는 신고자의 직함, 성명, 연령, 출생년도의 간지, 본관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한자로는 유학(幼學) 김희현(金熙賢) 년오십칠(年五十七), 경자생(庚子生), 본김해(本金海)도 되어있다. 여기서유학이란 벼슬이 없는 유생이란 뜻인데 필자의 5대 조부시다.

넷째 줄에는 신고자(김희현)의 부친 조부, 증조부, 외조부의 직함과 이름, 외조부의 경우는 직함 및 성명과 본관까지 두 줄에 걸쳐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일러 사조(四祖)라 한다. 이를 한자로 표시하면 부학생여채 (父學生麗采)(필자의 6대조), 조가의대부(祖嘉義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 中樞府事) 중삼(重三)(필자의 7대조)이라 되어 있는데 가의대부는 종2품의 품계명이고 중추부는 정3품 이상의 소임이 없는 관리들의 대기소 같은 곳이다. 이어서 증조(會祖) 가의대부(嘉義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행운(行雲)(필자의 8대조) 다음에 신고자(김희현, 필자의 5대조)의 외조부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僉知) 중추부사 김익찬(金益燦) 본경주(本慶州)라 되어있는데 통정대부는 정3품의 당상관의 품계명이다. 당산관은 망건을 쓸 때 옥관자(玉貫子)를 달 수 있다. 같은 정3품이라도 통훈대부(通訓大夫)는 당상관이 아니라 당하관이다. 여기서 밝힌 사조(四祖)(부, 조부, 증조, 외조부)는 호적신고자의 혈통을 밝힌 것이다.

다섯 째 줄에는 신고자의 배우자에 관한 기록이다. 한자로 처백씨(妻白氏)(필자의 5대 조모) 령(齡) 59 무술생(戊戌生) 본수원(本水原)이라 되어있어 신고자의 배우자가 두 살 연상으로 되어있다. 함풍(咸豊) 8년 (1858)과 동치(同治) 3년(1864)에 신고한 신고서에는 처의 사조(四祖)도 기록되어 있으나 도광 17년(1837), 광서 2년(1876), 광서 5년(1879), 광서 8년(1882), 광서 16년(1890)의 5회에 걸친 신고서에는 처(妻)의 사조(四祖)가 생략되어 있는데 경국대전에는 처의 사조(四祖)도 기록토록 되어 있다.

여섯 째로 솔자(率子) 응길(應吉)(필자의 고조부) 년27(年二十七) 경자생(庚子生)으로 되어 있는데 족보상에서는 아들이 두 분인데 여기서는 장남만 기록하였다. 아마도 작은 아들은 분가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어서 며느리부(婦) 지씨(池氏) 령(齡)28, 기사생(己巳牲) 적충주(籍忠州)라 하였다. 경국대전 호구식(戶口式)(양식)에는 사위(女婿)가 있으면 성명, 연령, 본관을 기록하라 되어있는데 이는데릴사위이다. 첨기할 것은 1864, 1876, 1879, 1882, 1890까지 26년간 작성한 신고서에는 노복영(奴卜永)이라 하여 복(卜)씨 성의 종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경국대전 호구식에는 고공(雇工)(머슴) 비(婢)

(여종)도 기록하라 하였다. 따로 한 줄에 등갑오호구상준(等甲午戶口相準)이라 하여 3년 전인 갑오년(1831)과 같다 하였다. 그 밑에 부여현감의 직인이 찍혀 있고,

일곱째로 끝줄에 행현감(行縣監)이라 쓰고 현감의 수결(싸인)이 있다. 여기서 현감 앞에 행(行)자가 있는 것은 현감으로 행한 사람의 뜻이 아니 다. 당시의 현감의 품계가 종6품인데 그보다 높은 품계의 인물이 현감으로 재임하였다는 뜻이다.

이상이 조선시대의 호적제도에 의한 호적신고의 전부다. 호적신고의 목적은 인구동태를 수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함이요 남녀별 연령별 지역 별 등의 인구통계를 파악함으로서 국가나 지방의 식량수급, 병력자원이 나 취로인력 파악 등을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필요를 충족시키는 최 소한의 내용이면 충분함에도 7건의 호적신고서에는,

첫째로 필요 없는 기록이 너무나 많다. 예컨대 신고자의 직함이나 이미 사망한 신고자의 부친, 조부, 증조의 직함과 외조의 직함 및 성명과 본관이 인구통계상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1837년도 신고의 경우 모두 143자(字)의 기록 중 36%에 해당하는 51자가 이에 해당하고 처(妻)의 사조까지 기록된 1858년의 경우 모두 169자(字) 중55%에 해당하는 73자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로 인구통계상 반드시 기록하여야 할 항목은 없는 게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나의 조부의 경우 3남2녀의 5남매였고, 증조의 경우 4남1녀의 5남매였으며, 고조부의 경우 2남이었는데 7건의 호적신고에 장남이외에 다른 자녀나 손자손녀의 기록이 전무하였다는 사실과 여성의 경우는 신고자의 처와 자부 이외의 딸이나 손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곧 필요 없는 기록은 많고 필요한 기록은 없다는게 많다. 그래도 현감이 잘 되었다고 직인을 찍어준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의 호적신고는 형식적이었다.

셋째로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조선시대의 호적은 인구통계를 위한 호적이라기보다 신고자 가분의 문벌이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호적신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쓰고 있는 조선시대의 인구통계는 통계청의 인구학적 이론을 근거로 조선시대의 호구조사 자료를 평가하고 호당 가구 수, 인구증가율, 특정지역 기준의 보정 등 완성도분석(完成度分析)으로 인구수를 추정한 수치다. 근대적 인구통계의 시작은 갑오개혁 이후 1896년(건양원년) 9월 1일에 칙령 제 61호로 발포된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에의한 것이 처음이다(근잠회보 98호).

## 1.7. 대한제국의 재정·인사·외교와 기강

농업사를 공부하다 보면 더러 농업사와 이웃하고 있는 인접 문헌을 읽게 되고 때로는 부끄러워 읽기조차 민망한 경우가 더러 있다. 이에 몇가지 그 사례들을 들어보면 첫째, 인조 24년(1646) 2월 9일자의 인조실록의 한 구절에 구추강칭(狗雛强稱)이란 구절이 보인다. 개 구(狗) 새끼추(雛)이니 개새끼란 뜻이며 힘주어 말했다(强稱)는데 그 개새끼는 군상지자(君上之子) 곧 임금의 아들이라 하였다. 개새끼라 크게 욕(辱)한 이는 인조이며 아들은 소현(昭顯)세자다. 이 기록은 소현세자가 갑자기 사망(독살?)한지 2개월만의 기록이다. 아들인 소현세자를 개새끼라고 강칭한 아버지 인조는 무어라고 불러야하나? 참으로 읽기 민망하고 한스러우 대목이다.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때 봉림(鳳林)대군과 더불어 볼모로 청나라 심양에 끌려가 그곳에 머물다 서역원정에 청군과 같이 출전하기도 하였다. 북경에 머물 때는 그곳에 주재하던 천주교 선교사 아담 샬(Joanmes Adam Schall 湯若望)과 가까이 하였고 돌아올 때는 그로부터 지구의 (地球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서양문물과 천주상(天主像) 등을 가지고 돌아왔다. 특기할 것은 이때 중국의 채소재배기술자(菜園夫) 2인을 데리고 온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진농업기술자 초빙이다. 서양문물지참이나 채소재배기술자를 초빙한 것을 보면 소현세자는 열린 개명세자로 여겨진다. 그 개명세자의 무엇이 인조의 분통(憤痛)을 터뜨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체 높은 임금의 입에서 시정잡배들이나 쓰는 천박한 욕을 서슴없이 하였다는 것은 민망하고 부끄럽기 이를 데 없는 기록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라 더욱 그러하다. 실록은 519년간 209,350일간 5천만자의 글자로 기록한 세계 유일무이한 장기간의 기록이다. 만일 외국인들이 이 구절을 읽는다면 한국은 17세기 초부터 임금도 개새끼라는 욕을 아들한테도 하고 사관(史官)들은 임금의 말이면 비록 욕이라도 돌려 기록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쓰는 지극히 정직한 사관의 나라라고 비웃지 않겠나? 실록의 품위를 떨어지게 기록한 당시의 사관들도 머저리다.

둘째로 통탄스러운 것을 들어보면 갑오경장 다음해인 1895년의 정부세입총액 보고서이다. 모두 4,563,087원이다. 이중 차입금이 무려65.7%인 3백만 원이나 된다. 한 해 정부의 세입총액의 3분지 2에 가까운 액수가 차입금이라면 나라가 망한 거나 다름없다. 상환능력이 없을정도의 차입금이기 때문이다. 하도 의심스러워 고종 32년의 고종실록을찾아보았던 바 1895년 3월 4일자로 일본은행에서 3백만 원을 대여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갑자기 차입하였을까? 세출명세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의심스러운 것은 그 시절의 첨단시설인 전기나 전차시설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1895년 5월에는 서대문-청량리 간에 전차가 운행되었기 때문이다.

인적이 드문 청량리까지 설치한 것은 황실에서 홍릉 참배 때문이란다. 1898년 2월에는 남대문-종로 간에 운행되었으며, 1900년에는 종로에 가로등 3개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경복궁 건청궁에 전등이 가설된 것은에다슨(Edison T.A)이 백열전구를 개발(발명)한지 8년만인 1887년 3월의 일이다. 문명의 이기는 이용이 빠를수록 문명을 앞당긴다는 면에서적극 찬성할 일이다. 그러나 그 문명의 이기는 그 나라의 경제 체질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내어 시설하였다면 그것은 나라를앞당겨 팔아 먹은거나 다름없다. 더구나 돈을 꾸어준 일본의 수도 동경에는 없는 전차를 꾸어 쓴 나라 서울에는 동경보다 3년 앞서 시설하였다는 것은 한심하고 통탄스러운 시설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차이용자가 없자 동대문 인근에 있던 한성전기에서 무성영화(활동사진)를 상영하며전차를 탄 사람에게 입장료 10전(錢)씩을 면제해 주었다는 기록이다. 빚내어 이용자 없는 전차를 왜 시설하여야 한단 말인가? 당시 재정책임자인 탁지부대신(어윤중) 총리대신(김홍집), 그리고 최고 결정권자인 고종에게도 인조가 소현세자에게 한 더러운 욕을 강칭하고 싶다.

셋째로 대한제국의 인사행정이다. 갑오경장 이후 조선조정은 일본을 본떠 매월 관보(官報)를 발행하였다. 그 관보는 1894년 6월 21일부터 순종이 한일합방에 서명한 1910년 8월 29일까지 16년 2개월 동안 궁중행사, 관리 임면, 관청의 고지사항, 외국사정 등을 수록한 장장 19,600페이지의 방대한 관 발행 정보지다. 여기에 수록된 농상공부대신(장관)의 임면사항을 보면 1894년 12월 엄세영(嚴世永) 대신을 시작으로 1895년 2월 이채연(李彩淵), 1895년 5월 정병하(鄭炳夏서리), 1895년 9월 정병하, 1896년 2월 이완용(李完用서리), 1896년 2월 고영희(高永喜), 1896년 4월 조병직(趙秉稷), 1897년 3월 이윤용(李允用), 1897년 4월 권재형(權在衡), 1897년 12월 정낙용(鄭洛鎔) 등 만3년, 36개월 동안에 10명의대신이 교체되었다. 평균 3개월 18일 만에(108일) 교체된 셈이다.

그래도 이 경우는 재임기간이 긴 편이다. 1898년의 경우를 보면 1898년 4월 24일에 이도재(李道宰) 대신을 시작으로 9월 29일 민병석(閔丙奭), 10월 8일 다시 이도재, 10월 23일 김명규(金明圭), 11월 5일 박제순(朴齊純), 11월 19일 다시 김명규, 11월 26일 다시 권재형, 1899년 3월 15일 다시 민병석, 4월 8일 민영기(閔泳綺) 등 만1년 12개월 사이 무려 9명의 대신이 교체되어 평균 40일간 재임한 셈이다. 1년 주기의 농정을 40일간 재임한 대신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농정을 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단기간 임명의 대신이라면 촉한(蜀漢)의 명재상 제갈량(諸葛亮)을 대한제국 농상공부대신으로 모셔 와도 단 한 가지 성과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1년 사이 동일인이 두 번 농상공부대신으로 임명된 해괴한 사실이다. 이도재와 김명규, 그리고 민병석 등이 그들이다. 그러다보니 이도재의 경우 두 번째 임명된 1898년 10월 8일에는 15일간 재임하였고 김명규는 두 번째 임명된 1898년 11월 19일에는 겨우 7일간재임하였다. 1898년 9월 29일에 첫 번째 임명된 민병석은 9일 만에 해임되고 두 번째 임명된 1899년 3월 15일에는 23일간 재임하였다. 최단기간은 김명규가 두 번째 임명된 1998년 11월 19일~11월 26일까지의 1주일간이다.

조선조 500년간 단 하루 재임한 한성판윤이 8명이나 된다고 들었어도 남의 일같이 여겼고 이승만 정권하의 윤건중(尹健重) 농림부장관이 54년 5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55일간 재임하였으며 '90년대 여의사였던 박양심 보건사회부장관은 단 10일간 재임하였어도 극히 드문 예외적 인사로 치부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인사난맥은 비단 농상공부대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조정이 모두 고질적이었던 것 같다. 광무6년(1902) 10월 7일자 고종실록을 보면 주한 일본공사로 있던 하야시 (林權助)가 외부(外部 외무부)에 조회하기를 "한성판윤의 너무나 빈번한

경질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해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외국공사가 주재국의 인사시정을 요구할 정도로 인사제도가 엉망이란 말인가? 이는 다분히 고질적 매관매직이다. 이를 통해 대한제국은 재정뿐 아니라인사제도에서도 무너져 가는 게 선연히 보인다. 이 경우도 인조가 한 욕이 떠오른다.

넷째로 외교에 관한 것이다. 조선일보 2020년 10월 21일자(A30)에 기록된 박종인의 '땅의 역사'를 보면 을사조약(1905)체결 일주일전에 황제 고종이 일본 공사 하야시고스케(林權助)로 부터 2만 원을 받았다고 기록한 것이다. 명분은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 접대비이고 그 이유는 내탕금(內帑金 임금이 사사로이 쓰는 돈)이 궁핍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는 "조약 상대방의 궁핍함을 이용한 증뢰(贈賂)요 조약주체로 보면 나라 를 판 명백한 수뢰(受賂)행위다. 2만 원은 목수(木手) 백년 치 월급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황제가 자존심이나 체통도 없이 외국의 용 돈을 받으며 또 받아도 용돈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 같은 기록에 영국 외무부 자료 1906. 3. 31.자로 주 한 영국공사 조던이 영국 외무부장관 랜스다운에게 보낸 편지가 소개되 어 있다. "영접위원장(이토히로부미 영접) 민영환은 3월 31일 영국공사 관을 방문 공사 조던에게 이등박문의 방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 다. 이토는 명치천황 국서를 조선외교부에 사본도 남기지 않고 직접 고 종황제에게 전달하였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런데 민영환이 그날 영접내용(과정)을 이렇게 전하였다. 대사(이토)는 황제에게 천황선 물이라며 30만 원을 줬다. 그리고 경부선 철도에 고종이 가진 지분을 보 장하고 향후 경의선 지분 또한 보장한다고 확약하였다. 이토후작(侯爵) 은 같은 방식으로 50만 원을 궁중 참석자에게 나누어주고 이번 방문관 계자에게도 귀중품을 선물하였다."라고 쓰여 있다는 것이다.

모두 1905년 11월에 한일 간에 맺어진 을사조약(乙巳條約) 전후의 이

야기다. 고종은 주한일본공사 하야시로부터 2만 원을 받았다는데 그것은 목수 100년의 월급이라 하였다. 이를 현재의 시가로 환산할 때 목수하루 임금을 15만 원, 월 450만 원이라고 가정하여 1년이면 5,400만원이 된다. 100년분이면 54억원이다. 이를 이등박문 접대비 명목으로일본공사로부터 고종이 직접 받았다는 것이다. 액수로 보아 절대로 접대비라할 수 없는 고액이다. 또 영접위원장 민영환이 1906년 3월에 영국공사에게 말했다는 영국 외무성 자료대로 이토가 고종에게 직접 주었다는 30만원도 같은 계산으로 환산하면 810억원이요 궁중참석자들에게준 것이 또 50만원이면 1,350억원이다. 이들모두를 합계하면고종의철도 지분이나 귀중품말고도 현찰만 현시가로 2,214억원이다. 이 거액이을사조약 직전에고종과 궁중참석자들에게 뇌물로 증여된 것이다. 곧 2,214억원을 받고 우리나라외교권을일본외무성에 판 것이나다름없다.참으로한심한 황제요 머저리같은 궁중참석자들이다. 그리고을사오적만 죽일 놈들이라고 매도할수있단말인가?

다시 2020년 10월 28일자 조선일보 A34면 박종인의 '땅의 역사'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하면 "1907년 6월 25일 화란 헤이그에 나타난 고종의 밀사 3인은 전 의정부 참찬(정2품) 이상설, 전 한성재판소 검사 이준, 전 러시아 공사 이범진의 장남 이위종(당시 20세로 7개국 언어에 능통하였다 함)이었는데 만국평화회의에 입장이 거절되자 기자회견을 통해자신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한다. "우리 조선인들은 옛정권의 잔인한 행정과 탐학과 부패에 지쳐있던 터라 일본인들을 기대를 가지고 맞이했다……"(영문 생략)고 한 것이 서두 발언이다.

통탄할 일은 고종이 보낸 밀사들의 입에서 고종이 통치한 정부가 부패와 탐학 그리고 잔인하였다는 말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참으로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변명하여도 해명이 안되는 말이다. 결국 대한제국은 외교면에서도 실패를 자초한 나라다. 이 경우

도 인조가 말한 욕이 생각난다.

다섯째로 사회기강이다. 독립투사로 초대 성균관대학 총장과 대한유 도회장을 역임한 김창숙(金昌淑 1879~1962)의 자서전인 '벽옹(躄翁김 창숙의 호, 일제의 고문으로 다리를 저는데서 유래) 칠십삼년회상기'를 보면 "1910년 10월 일제는 양반과 원로유생 등 3,159명에게 15원부터 120원까지 일제천황의 은사금(恩賜金)을 주었는데 온 나라 양반들이 뛸 듯이 좋아하며 따랐다."는 기록이 있다.

또 1910년 11월 3일자의 기록을 보면 "일제총독은 양반, 유생, 노인 9,811명과 효자, 효부, 과부, 고아 등 83,922명에게 천황의 은사금을 주었는데 양반과 유생중 모범 노인에게는 200원씩을 주자 온 나라 양반들이 뛸 듯이 기뻐하며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일합방이 1910년 8월이니 이 글대로라면 합방직후에 일제는 국민의 반발을 막고자 2차에 걸쳐 모두 96,892명에게 천황의 은사금이란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우리 국민에게 뿌린 것이다. 1차 살포에 효과가 없었던지 2차 살포 때는 인원을 8.6배로 늘리고 액수를 배가하고 있다.

천황은사금이란 이 마약을 마시고 3.1만세운동 발기인 33인 중에는 유림(儒林)이나 양반 사대부에서 단 한사람도 참여하지 않고 개신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만 참여하였단 말인가? 이 경우도 인조가 한욕을 유림이나 양반 사대부에 퍼붓고 싶다. 대한제국은 재정, 인사, 외교, 사회기강 등 모든 면에서 스스로 망한 것이다.

임진왜란 후 명나라 군사가 철수하자 선조가 국민에게 유시(諭示)한 선조실록의 구절이 생각난다. "나라는 반드시 자신이 해친 뒤에 남이 해 치는 법이다. 예부터 전해오는 이 말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제2장 **농학과 농업기술**

#### 차 례

- 2.1. 조선조 농학의 형성과 원(元)의 농상집요
- 2.2. 15세기초 농작물재배의 지리적 분포
- 2.3. 농작물의 병해(病害)와 국가의 흥망
- 2.4. 정치와 당쟁이 농서편찬에 미친 부정적 영향
- 2.5. 시대에 따른 조선시대 벼농사 기술의 발전
- 2.6. 작물의 감성과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
- 2.7. 화학과 한말 농학의 개화사(開化史)
- 2.8. 개화기에 우리 농업을 도와준 외국인들
- 2.9. 개화기 농학에 기여한 김가진(金嘉鎭)과 장지연(張志淵)
- 2.10. 전환기 농업의 고랭지채소와 직거래장터

## 2.1. 조선조 농학의 형성과 원(元)의 농상집요

본고에서는 조선조 농학의 형성과정에서 원(元)나라의 농서 농상집요 (農桑輯要)가 어떻게 이용되고 기여하였나를 살피고자 한다. 유목민족이 었던 몽고족이 농경사회였던 한족(漢族)을 무리 없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한족의 생업인 농업을 진흥시켜야만 하였다.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개량된 농업기술을 전국에 고루 보급시켜야 하는데 이에 반드시필요한 것이 농업지식을 체계적으로 풀이한 농서(農書)였다.

이에 원(元)나라 세조(世祖) 구비라이(Khubilai 忽必烈 1260~1294)는 현재의 농림부장관격인 당시의 사농사(司農司)에게 원나라 경영에 필요한 완벽한 새 농서를 편찬토록 명하였다. 이에 사농사는 농법에 밝은 산동성 권농사(勸農使) 맹기(孟祺) 등을 위시한 전국의 농학자들을 총 동원하여 원나라 지원(至元)23년(1286) 드디어 농서를 편찬하였으니 그 농서의 명칭이 농상집요(農桑輯要)였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이 편찬한 농서를 보통 관찬(官撰)농서라고 하며 국가가 편찬하였다는 면에서 사찬(私撰)농서보다 공신력이 높은 게 상식이다. 이 「농상집요」는 모두 7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권에 농사나 잠업에 관한 역사적 교훈인 전훈(典訓), 제2권에 농작물재배를 내용으로하는 경간(耕墾), 제3권에 뽕나무재배를 다룬 재상(裁桑), 제4권에 누에치기를 풀이한 양잠(養蠶), 제5권에 채소와 과수를 다룬 과채(瓜菜)와 과실(果實), 제6권에 경제수종을 내용으로 한 죽목(竹木), 제7권에 가축과물고기 기르기에 관한 자축(孳畜) 등이 수록된 종합농서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모두 새로운 농학이론을 새로 풀이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서에서 인용하여 편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아무리 황제의 명으로 편찬한 농서라도 그 내용이 새로운 농업기술이나 농업과학만으로 채우기에는 역부족일 뿐 아니라 과학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농상집요」는 모두 6만 5천개의 글자로 쓰여져 있는데 독창적인 내용은 겨우 5.8%에 해당하는 3천 8백여 자에 불과할 뿐이다. 가장많이 인용한 기존의 농서는 6세기 가사협(賈思勰)이 저술한 제민요술(齊民要術)로 「농상집요」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2만여 글자를 이에서 인용하였다. 9천여 자는 기존의 사농필용(士農必用), 7천 5백여 자는 무본신서(務本新書), 3천 5백여 자는 사시유요(四時類要), 1천 9백여 자는 박문록(博文錄)과 한씨직설(韓氏直說) 등에서 인용하였다.

이 「농상집요」는 자연환경이 황하유역 중심의 화북(華北)지방을 중심

으로 엮어진 농서라 양자강 이남의 화중(華中)이나 화남(華南)지방의 농법은 소략한 감이 없지 않다. 그래도 「농상집요」는 관찬농서라는 편찬주체로 하여 편찬 이후 판(版)을 수없이 거듭하여 가장 널리 쓰인 원(元)나라의 경국지서(經國之書)가 되었다.

다음으로 이 「농상집요」가 고려에 도입된 경위를 살펴보면 고성(固城) 이씨의 중시조격인 이암(李喦 1297~1364)은 17세의 어린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요직을 두루 거쳐 고려 조정의 시중(侍中)으로 있을 때 충목왕(1344~1348)이 승하하자 충정왕(1349~1351)을 받들고자 원(元)나라에 갔다가 충정왕이 즉위하자 국정을 전단한 사람이다. 이때 이암이 원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널리 알려진 농서 「농상집요」한 질(7권)을 구입해 돌아왔다. 「농상집요」의 편찬이 1286년이니 편찬된 지 63년이 지난 1349년의 일이었다.

이암은 이 「농상집요」한 질을 자기 생질인 우확(禹確)에게 주었더니 우확과 이종간인 강시(姜蓍)가 우확에게서 그 책을 빌려 읽어보게 되었다. 강시는 현재의 합천군수격인 지합주사(知陝州事)로 권농의 지침서가 매우 아쉬웠던 참이었다. 이 강시는 14세기 중후기에 양화소록(養花小錄)을 편찬한 강희안(姜希顏)과 작물학서인 금양잡록(衿陽雜錄)을 저술한 강희맹(姜希孟)형제의 증조부가 되는 분이다.

강시는 「농상집요」를 읽어보고 그 내용이 권농의 지침서로 매우 유용할 것 같아 이를 다시 인쇄하여 전국에 보급코자 하였으나 한 개 고을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강시는 당시 경상 감사였던 설장수(偰長壽)의 재정지원으로 공민왕 21년(1372) 8월 「농상집요」 한 질(7권)을 모두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하게 되었다. 원(元)나라에서 「농상집요」가 편찬된 지 86년만의 출판이요 「농상집요」를 우리나라에 도입한지 23년 만의 일이다. 그래도 농서가 없던 고려농업에서는 이 농서가 신농서였다.

이 합천판본의 표제는 원조정본중간농상집요(元朝正本重刊農桑輯要)로 되어있고 모두 7권을 1책(冊)으로 꾸민 것이다. 맨 뒤에 목은(牧隱)이색(李穡)의 후서(後序)와 설장수(偰長壽)의 서후(書後)가 기록되어 있고 간기(刊記)에는 홍무5년(洪武五年) 임자 8월(壬子(1372) 八月) 강양개판(江陽開板)이라 되어있어 다른 여러 중국의 판본과 구별이 용이하다. 여기서 강양이란 합천의 옛 지명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출판된 경위를 자세히 밝히는 뜻은 종래 「농상집 요」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이암 실기인 행촌선생실시(杏村先生實記)에 의하면 「농상집요」가 이암(李嵒)이 저술인 것으로 되어있고 이춘령(李春寧)의 이조농업기술사(李朝農業技術史)에도 고사촬요(攷事撮要) 책판목록(冊板目錄)에 합천판본은 이암의 저술이라 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시 밝히건대 이암이 「농상집요」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합천에서 인쇄 배포한 분은 강시가 한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이다.

이때 인쇄 배포된 「농상집요」는 영농교재가 없던 고려 말에서 조선초 기까지의 40여 년간 요긴한 권농교재로 활용된 것 같다. 그러나 「농상집 요」는 어디까지나 중국 화북지방의 기후 풍토를 중심으로 편찬된 중국 농서라서 중국 화북지방과 자연환경이 다른 조선의 농법에 모두 일치할 수가 없었다. 그와 같은 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기록이 「농사직설」 서문의 한 구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오방의 풍토가 같지 않은데다 각종 작물의 재배법도 작물마다 알맞은 방법이 서로 달라 옛 농서(농상집요)에 기록과 같을 수가 없다(五方風 土不同 樹藝之法 各有其宜 不可盡同古書)." 하였다.

이를 다시 음미하여 보면 동서남북과 중앙 등 5방의 자연환경은 서로 같지 않은데다 작물마다의 재배법 또한 서로 다르니 중국풍토를 중심으 로 엮어진 고서(농상집요)의 내용과 우리 농업현실과 같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인식을 경험을 통해 얻어내는 데는 「농상집요」의 농법을 여러 해 동안 한반도에서 그대로 적용해 보고 실패한 결과로 얻어진 결론일 것이다. 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조선조 농학의 성립 기초가되다.

농업증산을 위한 권농수단으로 농서는 절실히 필요한데 「농상집요」는 우리 농업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자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농상집 요」에서 우리 농업현실에 알맞아 적용 가능한 내용만 초록하여 농서를 편찬하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사정을 기록한 한 구절이 「농사직설」의 서문에 기록되어 있다. "태종께서 일찍이 유신에게 명하시기를 옛 농서에서 간절히 쓰일말만을 취하여 책으로 역되, 우리말로 주를 달아 널리 인쇄 배포함으로써백성이 농본에 힘쓰도록 가르치라(太宗 恭定大王 嘗命儒臣 掇取古農書切用之語 附註鄉言 刊板頒行 敎民力本)." 하였다는 구절이다.

곧 옛 농서인 농상집요에서 우리 농업현실에 맞아 간절히 쓰일 말만을 취하고 우리말로 번역하여 인쇄 배포하되 이를 보고 백성들이 천하지 대본인 농사에 힘쓰도록 가르치라는 어명이다.

이 어명에 따라 태종 15년(1415) 대제학 이행(李行)이 「농상집요」 작물부분에서 간절히 쓰일 말만을 초록하고 이를 이두(史讀)로 번역하여 인쇄 배포한 것이 농서집요(農書輯要)이고 같은 해 우대언(右代言 우승지) 한상덕(韓尙德)이 「농상집요」 양잠부분에서 약 30% 정도를 초록하고 이를 이두로 병기하여 인쇄 배포한 책이 양잠경험촬요(養蠶經驗撮要)였다. 「농상집요」 합천판본을 이용한지 43년만의 일이다. 이 두 개의 초록본 농서가 작물과 양잠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들이다. 곧 중국 농서인 「농상집요」를 이용하다 그 내용이 우리의 자연환경과 맞지 않음을 알고 맞는 부분만 초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초록본 농서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만 초록한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 이 사정을 아신 세종께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서를 편찬코자 삼남의 경험 많은 농부들을 찾아 새로운 농법을 물어이를 정초(鄭招)에게 체계적으로 정리토록 하자 문장에 밝은 종부소윤(宗簿小尹) 변효문(卞孝文)의 협력을 얻어 1429년에 완성한 농서가 우리나라 최초의 풍토 중심의 농서인 농사직설(農事直說)이다. 이때 삼남인 충청, 전라, 경상의 3개도는 무상기간이 길어 우리나라 중부 이북지방보다 농법이 발전된 곳이었다. 이로 보면 세종은 훌륭한 성군이었다. 어떻게수많은 농부들에게 물어 농서를 편찬할 생각을 하였을까 하는 점 때문이다. 이때까지 세계에서 농부들에게 물어 농서를 편찬한 전례가 없었다.

이「농사직설」을 편찬할 때 정초와 변효문은 「농상집요」의 편찬방식이나 작물배열의 순서 서술방식 등에서 「농상집요」를 많이 참고한 것 같다. 두 농서의 서문을 대조하여 보면 문장이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농사직설」의 서문의 한 구절에 "여러 농서를 참고하여 중복을 피하고 간결하고 요긴한 바를 취하여 한편의 농서를 편찬하였으니 이르기를 농사직설이라(披閱參考 袪其重複 取其切要 撰成一編曰 農事直說)." 하였는데 「농상집요」의 서문을 보면 글자만 네 개가 다를 뿐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똑같기 때문이다(披閱參考 冊其繁重 撫其切要 纂成一編曰 農桑輯要).

그뿐 아니라 「농상집요」는 우리농서인 「농사직설」이 편찬된 이후에도 「농사직설」에 없는 내용이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농상집요」를 보충교 재로 활용해 왔다. 그와 같은 사실을 세종실록에서 찾아보면 세종 19년 (1437) 6월 13일자에 "「농상집요」의 가을갈이를 참고하여 권농토록 각도 감사에게 전지(傳旨)하라."는 왕명이 기록되어 있고 동년 7월 23일자에는 "「농상집요」와 「사시찬요(四時纂要)」에 기록된 자방충(虸蚄虫) 방제법을 각도 감사에게 참고토록 하라."는 왕명이 기록되어 있다. 또 세종 20년(1438) 7월 5일의 세종실록에는 "수도파종적기를 「농상집요」에

기록된 3월 파종이 상시(上時)라고 각 도 감사에게 이르도록 전지(傳旨)"한 기록들이 있다. 이와 같은 세종의 지시는 모두 우리 농서인 「농사직설」이 편찬된 1429년 이후의 일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농사직설」편찬 이후에도 「농상집요」는 권농의 보조교재로 널리 이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원(元)나라의 농서인 「농상집요」는 첫째로 고려 말에 다시 인쇄되어 고려 말~조선 초기에 권농의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나 둘째로 「농상집요」는 중국 화북지방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엮어진 농서라서 환경이 다른 고려~조선초기의 한반도 농업에 그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조선의 지식인들에 인식토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셋째로 「농상집요」는 농서가 필요한 조선사회에 「농상집요」의 내용 중우리 농업현실에 맞는 부분만을 초록한 초록본 농서의 초록모본이 되었다. 넷째로 초록본 농서가 권농교재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우리 풍토 농서인 「농사직설」을 편찬할 때 「농상집요」는 편찬이나 서술방식 등을 본받은 참고서가 되었다. 다섯째로 「농상집요」는 「농사직설」이 편찬된 이후에도 「농사직설」에 없는 내용 등을 참고하는 보충교재로 활용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농상집요」는 조선초기의 조선농학 성립에 지대한 기여를 한 농서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2.2. 15세기초 농작물재배의 지리적 분포

약 600년 전인 15세기 초 우리나라 농작물재배는 어떤 작물이 가장 널리 재배되고 어떤 작물이 버금가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의문이 있어도 불행히 우리는 당시의 작물별 재배면적 통계가 없어 알아 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 세종실록지리지(地理 志)를 보면 작물별 재배면적 통계는 없어도 어떤 작물들이 그 고을에 알 맞아 널리 재배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고을마다 기록하고 있어 이를 통해 고을마다 또는 각 도 마다 어떤 작물이 우선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었는가를 살필 수 있게 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께서 윤회(尹淮)와 신장(申檣) 등에게 명하사 세종 14년(1432)에 완성된 지리지로 모두 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농업에 관한 기록은 해당 고을마다 농지의 비옥도(肥沃度), 전답별 면적(結數), 재배작물을 뜻하는 토의(土宜)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토의에 기록된 작물들을 근거로 각 도(道)마다 벼를 널리 재배하는 고을이 몇 개 고을이며 기장을 재배하는 고을은 몇 개인가를 통계를 작 성한 바, 표에서 보는바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여기서 밝혀둘 것은 각 고을에 공통적인 오곡(五穀)은 개개작물을 예거하지 않고 오직 오곡으로만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오곡은 어떤 작물들을 뜻하는지 의문이었다. 1429년에 편찬된 농사직설에도 오곡이 어떤 작물들을 뜻하는지 밝혀져 있지 않고 「농사직설」보다 십여 년 먼저 편찬된 것으로 믿어지는 촬요신서(攝要新書)의 오곡총론(五穀總論)에도 제목만오곡이었지 오곡이 어떤 작물들을 뜻하는지는 언급이 없었다. 다행히 지리지 편찬자들은 경기도 광주목(廣州牧) 풀이에서 주(周)나라의 관제를 기록한 주례(周禮)의 한 구절에 "예주(豫州)땅에 5종의 작물이 알맞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당(唐)나라 초기의 학자 안사고(顏師古 581~645)가 이를주해(註解)하기를 "5곡은 기장, 피, 콩, 보리, 벼"라고 밝혔고 맹자(孟子)에 기록된 오곡을 주자(朱子 1130~1200)가 주해하기를 안사고의 풀이를 그대로 다시 인용하였으니 이 지리지에서도 오곡은 안사고의 설을 따르겠다는 구절이 있다. 따라서 필자도 5곡이라고 기록된 지리지의 기록들을 기장, 피, 콩, 보리, 벼로 이해하고 표를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표 2−1	15세기 초 작물별 재배군현 수
포ᅵ	그 10세기 쪼 극골길 세베正연 ㅜ

									•											
군현수	작목	벼	기장	콩	보리	耳	조	팥	메밀	참깨	수수	녹두		호밀	율무	귀리	삼	뽕	목화	모시
함길	15	11	10	13	9	15	4		4							1	10	7		
평안	41	21	30	29	28	30	4	1	2		1				•	•	33	35		•
황해	21	15	19	21	21	19	17	21	20	7	9	4					9	4		2
경기	40	36	36	36	36	36	37	27	29	18	8	10			•	•	35	35		•
강원	13	8	12	12	13	12	4	1							•	•	13	13		1
충청	54	46	46	50	39	44	39	26	25	10		2	2	2	2		6	20	3	10
경상	63	63	39	27	32	15	51	1	8						•		25	22	12	1
전라	47	45	45	45	45	45			2				2		•	•	43	36	24	11
계	294	243	235	232	221	214	156	107	90	35	18	16	4	2	2	1	174	172	39	25

표를 해독함에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먼저 밝혀둘 것이 있다. 벼의 경우를 보면 함길도 15개 군현 중 11개 군현만이 벼가 널리 재배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함경도의 경우 갑산(甲山)군은 논이 전혀 없고 밭뿐이기 때문에 벼 재배를 할 수 없고 경원부(慶源府)는 농지 4,096결 (結)중 논이 겨우 10결 뿐이고 회령(會寧)군은 3,853결 중 논이 12결, 종성(鍾城)군은 농지 4,377결 중 논이 45결로 벼를 재배는 하되 널리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15개 군현 중 4개 군현이 벼 재배 군현수에서 제외되고 11개 군현만 벼를 재배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곧 논이 없거나 있어도 널리 재배하지 않은 군현은 숫자에서 제외하였다는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다. 같은 논리로 평안도 41개 군현 중 벼 재배 군현이 21개 군현으로 20개 군현이 벼 재배 군현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도 평안도 희천(熙川)현이나 자성(慈城), 무창(茂昌)현 등은 아예 논이 1결도 없어 벼를 재배할 수 없고 위원(渭原)군은 논이 겨우 1결 뿐이라 벼를 재배는 하되널리 재배할 수 없어 벼 재배 군현 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모든 작목의 재배 군현 수는 보다 널리 재배하는 작물이라 뜻으로 이해

하여야 한다. 또 지리지에 기록이 누락된 군현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강원도의 경우 실제는 23개 군현이 있는데 기록은 13개 군현뿐이란 점이다. 그래도 이 표 작성으로 얻어지는 대의(大意)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표를 보면 벼는 15세기 초 전국 294 군현 중 83%에 해당하는 243개 군현에서 널리 재배하는 작물로 군현 수로 보아 제일가는 작물임을 알수 있다. 이 벼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제일가는 작물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다. 벼가 전국적으로 제일가는 작물이라고 각 도가 같은 현상은 아니다. 함길도는 재배 군현 수로 보아 피가 널리 재배하는 제일작물이고 평안도는 기장과 피가 널리 재배되는 제일가는 작물이며, 황해도는 콩,보리, 팥이 고르게 널리 재배되어 제일가는 작물,경기도는 조가,강원도는 보리, 충청도는 콩,경상·전라도는 벼가 널리 재배하는 제일작물로 풀이된다. 15세기 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재배하는 제일작물이된 결정적 요인은 군현 수가 많은 경상,전라 양 도가 벼를 집중적으로 널리 재배한데 원인한다. 벼는 본시 열대원산으로 무상기간(無霜期間)이길고 기온이 온화한 한반도 남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배하기 좋은 지역이고 당시 인구가 벼 재배 적지인 이 지방에 보다 많이 거주해 작물 중재배과정에 노동수요가 가장 큰 벼 재배 노력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단위면적당 생산력이 다른 작물들보다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15세기 우리 농업에서 둘째로 널리 재배하던 작물은 뜻밖에도 보리나 콩이 아니라 기장 이었다. 밭곡식으로는 가장 널리 재배하던 작물이란 뜻이다. 1429년에 편찬된 농사직설(農事直說)을 보면 벼 재배다음으로 기장과 조의 재배법이 풀이되어 의아하게 생각된 바 있었는데이 표를 보고 15세기 초 기장의 재배가 벼 다음으로 널리 재배되었기 때문에 「농사직설」에서도 기장을 벼 다음가는 작물로 풀이한 것이 아닌가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기장이 둘째가는 작물이라고 각 도가 같은 현상은 아니다. 함길도에서는 네 번째 가는 작물이고 평안도에서는 첫째가는 작물이며 황해, 경기, 강원, 충청, 경상에서는 둘째가는 작물, 전라도에서는 첫째가는 벼와 같은 수준이다. 이로 보아 기장은 하곡(夏穀)으로 밭에서 생산되는 곡식으로는 이 시기 보리나 밀, 그리고 조보다 우선된 곡식이었다고 풀이된다. 기장은 벼와 같이 농업용수에서 오는 재배상의 어려움이었고 보리나 밀과 같은 월동작물이 아니라 겨울철 어린 싹이 동사(凍死)하는 재해요인이 없어 한반도 어디든지 재배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무렵 기장이 벼 다음으로 널리 재배되는 작물이 되었던 것 같다.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셋째로 널리 재배하는 작물은 콩이다. 콩은 하곡으로 중요한 단백질원 이다. 특히 콩은 연중 필수불가결의 장(醬)류 등부식(副食)의 원료이기 때문에 수요가 곡류 다음가는 작물이 된 것이다. 콩은 하곡(夏穀)이기 때문에 재배상 기후면에서 오는 제약요인이 거의 없다. 콩의 원산지가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동북지방이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작물의 하나가 된 것이라 믿어진다.

전국적으로 넷째 가는 작물은 보리다. 셋째인 콩 재배 군현 수에 11개 군현이 모자란 221개 군현에서 널리 재배하고 있는데 「농사직설」에서 보리의 식량적 가치를 "신구곡(新舊穀)을 연결하는 접식(接食)의 효과가 큰 작물이다." 하였다. 곧 묵은 쌀은 떨어지고 햅쌀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이 보리가 그 사이를 이어주는 식량이란 뜻이다. 보리는 동곡(冬穀)으로 월동(越冬)중 어린 보리싹이 얼어 죽는 위험 때문에 우리나라 중부 이남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이북지방에서는 비교적 온화한 해안 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15세기 다섯 번째로 널리 재배하던 작물이 피(稷)이다. 「농사직설」에서는 벼, 기장 다음으로 세 번째 작물로 재배법을 풀이하고 있는데 현재 잡초로 인정되는 피가 15세기에는 294개 군현 중

72%인 214개 군현에서 널리 재배하는 작물이었다니 격세지감이 든다.

이상에서 15세기 우리나라의 5곡 재배에 대하여 간략히 풀이하였다. 그밖에 잡곡으로 조는 전 군현의 53%인 156개 군현에서, 팥은 36%인 107개 군현, 구황작물(救荒作物)인 메밀은 31%인 90개 군현, 유료(油料)작물인 참깨는 35개 군현, 수수는 18개 군현, 녹두는 16개 군현, 밀은 4개 군현, 호밀과 율무가 각각 2개 군현, 귀리가 함길도에서 1개 군현에 재배되고 있다. 「농사직설」에 기록된 식용작물로 이 통계에 없는 작물은 들깨(水蘇子) 뿐이다.

총체적으로 보아 널리 재배되는 작물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답 혼유지대인 중부지방으로 황해도와 경기도가 각각 11종, 충청도가 13종이며, 평균기온이 낮은 함길도는 8종, 평안도는 9종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후적 영향이 큰 요인으로 믿어지며 강원도는 가장 적은 7종인데 그 이유는 기온이 낮은 산간계곡이 많은 까닭이다. 경상도는 8종, 전라도는 7종으로 그 수가 가장 적은데 그 원인은 5곡 재배에 집중되어 잡곡 재배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 믿어진다.

다음으로 식생활의 원료인 곡류 못지않게 의생활에 필요한 원료가 섬유작물이다. 15세기 초 우리 선인들은 베옷의 원료인 삼(麻)이 가장 보편적인 직물이었다. 그렇기에 삼(麻)의 재배가 전 군현의 59%에 해당하는 174개 군현에서 널리 재배하던 작물이다. 「농사직설」의 작물재배법풀이를 보면 벼농사보다도 앞서 삼농사를 먼저 풀이하였는데 그 까닭이의생활이 식생활보다 우선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이해된다. 삼농사는 각 도가 고르게 재배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평안, 경기, 전라, 경상등 4개 도가 더욱 널리 재배하고 충청도가 가장 적게 재배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 대신 충청도는 모시풀 재배가 가장 많다.

섬유직물로 베옷 못지않은 게 명주(明紬)옷이었다. 명주는 누에가 토 해내는 비단실이 원료인데 누에의 사료가 뽕잎이다. 뽕나무의 재배면적 이 넓고 좁음은 곧 명주옷의 생산다과와 직결된다. 뽕나무 재배는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재배밀도가 높은 도는 평안, 경기, 전라도 등 3개 도이다.

뽕나무는 재배상 자연환경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목본(木本)작물이라 전국 어디든지 재배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섬유작물로 셋째가는 작물은 무명(木棉)옷의 원료인 목화다. 목화는 고려 공민왕12년(1363)에 서장관으로 원(元)나라에 갔던 문익점(文益 漸)이 돌아오는 길에 목화씨를 가져온 이래 근 70년이 경과한 지리지 편 찬 당시까지 전국적으로 39개 군현에서만 널리 재배되고 있다. 목화는 원래 열대작물이라 평균기온이 낮은 지방에서는 재배할 수 없다. 그런 까닭으로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온이 온화한 한반도 남부인 충청, 경 상, 전라의 3개도에서만 재배되고 있다. 가장 재배밀도가 높은 도는 전 체 도의 51%인 24개 군현이 재배하고 있는 전라도다. 섬유작물로 모시 베의 원료인 모시풀(苧麻)이 있다. 번식을 숙근성(宿根性)인 뿌리로 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지방에서는 겨울철 뿌리가 얼어 죽는 까닭으로 온화 한 해안지방이나 충청이남지방의 온난한 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널리 재배하는 지방은 충청도와 전라도로 모두 25개 군 현에서 재배되고 있다. 모시베는 고급 하복(夏服)의 원료이나 제사, 직 조. 제복 과정이 삼베보다 섬세한 노력이 많이 드는데다 섬유가 가늘어. 옷을 해 입으면 단기간에 후줄근해지는 단점이 있어 비록 오래된 작물이 나 널리 재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15세기 우리나라 작물재배의 지리적 분포를 간단히 살펴보 았다.

벼 재배를 제외하면 15세기의 작물분포와 최근의 그것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5세기는 그 시기에 알맞은 식량사정이나 생산기술 등 작물생산에 관계된 온갖 요소의 총화가 빚은 작

물의 지리적 분포라는 점이다. 부수적 소득은 지리지 편찬년도보다 3년 전인 1429년에 국찬(國纂)농서로 편찬된 「농사직설」의 작물 풀이 순서가 어째서 벼, 기장, 피, 콩, 보리였는지를 이 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2.3. 농작물의 병해(病害)와 국가의 흥망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의 경제와 사회질서를 뒤흔들듯이 농작물의 병 또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그 농작물의 병에 대해서 조선시대의 농학은 언제부터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1399년에 편찬된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의 내용으로 보아 가축의 질병은 조선 초기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가축의 생리기능이 인체와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농작물에 대해서는 조선중기까지도 농서에 단 한마디의 기록조차 찾아볼 수 없다. 겨우 1655년에 와서야 신속(申洬)이 편찬한 농가집성(農家集成)의 올벼 못자리 풀이에 "모내기를적기에 하지 못해 실기 하면 묘잎에 파리가 앉은 것 같이 곳곳에 (검은)점이 생긴다. 세속에서는 이를 파리오줌(蠅尿)이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이 문맥으로 보아 오늘날의 도열병반(또는 깨씨무늬병반?)으로 추정되는 이 병을 병반으로 인식하지 않고 파리의 배설물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그 후 187년이 지난 1842년경에 서유구(徐有榘)가 편찬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오해고(五害攷)를 보면 작물에도 병이라는 인식은 어렴 풋이 한 것 같으나 동물(가축)에서 쓰는 병(病)자를 쓰지 않고 병려(厲)자를 쓰고 있다. 천한 귀신을 뜻하는 려귀(厲鬼)를 표시할 때 쓰는 려자이다. 그 내용풀이를 보면 벼이삭을 태우는 도깨비불(陰火)이 있는데 그 불

은 묵은 무덤속의 시신에서 유래한다 하였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황당한 기록이다. 또, 벼이삭이 무성하게 자라다가 갑자기 주저앉아(蹲縮) 노랗게 시드는 도준(稻蹲)현상이 있다 하였는데 오늘날의 바이러스로 추측되는 이 현상을 왜 그런 현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풀이는 전혀 없다. 이로 보아 벼가 탄 것 같이 붉다거나 벼모가 노랗게 주저앉는 가시적 사실은 인지하였어도 그것이 병인 줄은 확실히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과학이 우리보다 앞선 유럽에서도 19세기 중기까지는 작물의 병을 "신이 내린 형벌"로 알아왔다. 그래도 우리와 다른 점은 작물도 병이 든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한 것이 다르다. 유럽에서도 병원체를 밝혀 작물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한 것은 감자의 역병 (疫病)이 밝혀지고 나서의 일이다. 남미 칠레 원산인 감자는 1570년대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유럽에 전달되었다. 전달 초기에는 "성서에 없는 작물이라 먹으면 문둥병이 걸린다."는 뜬소문으로 보급이 잘 되지 않았다.

감자는 단백질 함량은 높지 않아도 그 질이 좋은데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생육기간이 짧은데도 단위면적당 수량(收量)이 많은 특이한 작물이다. 이 점을 이해한 독일의 프레드리히대왕(Friedrich 1712~1786)은 일찍이 감자가 빵을 대신하여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작물이라고 확신하였다. 그 보급수단으로 감자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귀한 것이라 하여 궁성안에 이를 심고 파수꾼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 일반백성의 호기심을 유발토록 하였다. 서로 다투어 훔쳐 심게 하고자 계획된 파수꾼이었다.

이 보급책이 적중하여 감자는 유럽제국에 널리 보급되고 그중에서도 곡류 생산이 부족한 아일랜드는 앞질러 감자가 곡류를 대신한 주식이 되 었다.

그 결과 1754년 아일랜드의 인구는 320만 명이었는데 약 90년이 지난 1845년의 인구는 820만 명으로 2.6배나 폭증하였다. 주식인 감자의 안전증산이 계속되어 굶주림이 해소되자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란 옛말이 있듯이 1840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감자의 역병(疫病)이 해가 갈수록 더욱 만연하여 그 절정을 이루었던 것은 1846년이었다. 역병으로 감자생산이 계속 격감하자 이 기간에약 1백만 명이 굶어죽게 되었고 약 2백만 명이 먹거리를 찾아 영국이나신천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미국 캐네디 대통령의 선대도 이이민행렬의 한 가족이었다. 2021년 미국 대통령이 된 바이든의 선대도같은 경우이다. 조선시대에는 세종 때의 구황벽곡방(救荒辟穀方)을 포함, 대대로 5종의 구황서(救荒書)를 편찬하여 초근목피(草根木皮)로 굶주림을 면하도록 강권하였는데 아일랜드에서는 굶어죽을망정 초근목피는권하지도 먹지도 않았던 것 같다. 결국 1850년대 아일랜드의 인구수는대기근(大饑饉)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인구가 90년전으로 되돌아갔으니나라가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때 비로소 유럽에서 작물의 병리를 대상으로 하는 식물(작물)병리학이 개척되었다. 1861년 안톤 드 바리(Anton de Bary)가 감자의 역병균이 파이톱소라 인패스탄스(Phytophthora infestans)라는 학명의 병원균에 의해 발생되고 감염된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 이 병은 16~20℃의 서늘한 기온일 때 비가 자주 내리는 봄 가을에 빠른 속도로 전염된다는 것도 밝혔다. 이와 같이 1861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밝혀진식물의 병을 1842년경에 편찬된 우리나라의 임원경제지에 도열병반을도깨비불에 태워진 것이라고 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또, 누에병의 한가지로 미립자(微粒子)병은 불란서의 잠사업을 망치게한 대신 일본의 잠사업을 일으켜 일본 근대화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게하였고 나아가 동양침략의 원동력이 되게 하였다. 누에는 중국에서 사육되기 시작하여 유럽에 전파되고 유럽에서는 19세기 중반 불란서가 가장큰 양잠 강국이었다. 그러나 1852년부터 후일에 병원균이 밝혀진 미립자병이 발병하기 시작하여 1856년부터 매년 그 피해가 증가하더니

1864년에는 잠견생산의 7할이 감산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미립자병이란 누에의 장관(陽管)벽에 전염성이 강한 미립자 병균 (Nesema discase)이 기생하는 병이다. 이 병에 감염되면 누에의 표피세 포에 갈색 또는 검은빛깔의 작은 얼룩무늬가 생겨 마침내 누에가 죽게 된다. 이에 나폴레옹3세는 과학자 파스퇴르(Pasteur, Louis 1822~1895)에게 이 병을 규명하고 방제법도 밝히기를 명하게 되었다. 파스퇴르는 다년간의 연구 끝에 1885년 그 방제법을 완성하였으나 그 사이 불란서의 잠업은 이미 기반이 무너져버렸다. 30여 년간 누에를 정상적으로 기를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불란서의 비단수요는 변함이 없었다.

이 틈을 용케 이용한 것이 약삭빠른 일본이다. 1859년에 요코하마(橫濱)항을 개항한 일본은 당시의 실권자 막부(幕府)의 쇼궁(將軍)명의로 1 만 5천매의 잠종(蠶種)을 무상으로 불란서에 보내 환심을 사면서 재빨리 유럽제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잠종, 잠견, 생사를 유럽제국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불란서는 무상으로 보낸 잠종의 답례로 아라비아산 명마(名馬) 26두를 쇼궁에게 보내면서 매년 일본 잠종을 계속 수입하였으나 일본에서도 수출잠종이 모자라자 일부의 잠종에 모양이 비슷한 무우씨를 섞어 수출하다 이 사실이 유럽제국에 밝혀져 그 후 일본잠종의 대외수출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생사수출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였다. 불란서를 비롯한 유럽제국의 견직물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 일본에게 유리하였던 것은 유럽에의 생사 수출경쟁국인 중국의 생사수출이 격감되었기때문이다. 아편전쟁(1839~1842)에 패한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1851년에 궐기한 홍수전(洪秀全)의 태평천국의 란은 백만의 농민봉기로 남경을 점령하여 1864년 다시 무너진 후에도 상당기간 혼란이 계속되었기때문이다.

불란서의 잠업은 1885년 미립자병 방제법이 규명되면서 다시 회복하는 듯 하였으나 1916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다시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포도주 음용이 일상화 되자 뿅밭의 많은 부분이 포도밭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결국 불란서의 생사 주도권은 이탈리아로 넘어가 불란서는 영원히 생사수입국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1924년 불란서의 잠견 생산량은 한국(당시 일제하의 조선)의 생산량 7,000 톤의 절반수준인 3,500 톤이었는데 그해 이탈리아의 생산량은 한국의 7배가 넘는 5만 톤의 고치를 생산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운(國運)이 좋았던 것은 유럽에 이어 미국의 생사수요가 증가한데도 원인이 있다. 1865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평화시대가 계속 된데다 1869년 미대륙 횡단열차가 개통되어 산업이 활발해지고 국민소득이 늘면서 견직물 수요가 증가되자 1920년 일본의 생사수출선은 8할이 미국으로 바뀌게 되었다. 유럽에 이어 미국에 수출이 늘어나자 1923년 일본의 수출총액 중 생사 한품목의 수출액이 무려 46.4%나 되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871년부터 국가가 뽕밭을 계획적으로 증설하면서 품질 좋은 우량생사를 생산코자 1873년 생사제조규칙을 제정, 요코하마와 고베(神戸)항에 생사검사소를 설치하고 검사를 거쳐 생사를 수출토록 하였고, 관영 모범제사공장인 도미오까(富岡)제사장을 개설하여 전국의 제사기술을 향상시켰다. 또 1884년 양잠학교를 개교하고 1886년 농상무성 기구에 잠다과(蠶茶課)와 잠업시험장을 개설하였으며 1892년 잠업기술보급을 위해 일본잠사회를 설치하는 등 생사수출증대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나 제도를 정비하였다.

그 결과, 1915년 일본농가의 4분의 1인 167만 양잠전업농이 조성되었고 1929년에는 생사 34,920톤(580,000표俵, 1표당 60㎏)을 수출하는역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1930년대의 대공항과 인견사(人絹絲) 출현, 그리고 1941년의 태평양전쟁 등으로 일본경제

에 생사수출의 기여도는 계속 격감하여 오늘날 생사수입국이 되었다.

이상에서 감자의 역병이 아일랜드의 대기근을 가져와 인구수를 90년 전의 인구수로 되돌리게 하였고 누에의 미립자병이 불란서의 잠업을 망하게 한 대신 일본의 잠사업을 진흥시켜 생사의 대불(佛) 대미(美) 수출로 일본 국부(國富)의 많은 부분을 이룩하게 하였다. 그 국부가 일본근대화의 시초인 명치유신(明治維新)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면서 서양문물의조기도입과 일본근대화를 앞질러 성공토록 하였다. 이로보아 농작물의병 또한 인류의 유행병 못지않게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위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불란서의 미립자병과 일본의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우리나라 와 관련지어 본다면 본시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농업국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페리제독이 동경만의 작은 포구 우라가(浦賀)항에 함포를 쏘며 개항을 요구하자 그 압력에 눌려 1853년 가나가와(神奈川)조약(미일 불 평등통상조약)을 맺으면서 피동적인 문호개방을 한 것이다. 여기에다 후 일 명치유신의 주역들인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 이노우에가오루(井上 馨) 등 5인이 1863년 6월 27일 런던대학(London Callege)에 유학하여 서양문물과 국제사정을 익힐 무렵 불란서의 잠사업이 참담하게 망하면 서 일본이 생사수출로 근대화를 앞당겨 국력을 키웠다. 그 국력이 무력 이 되어 1894~1895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청일전쟁, 1905년 5월의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여세로 1905년 11월 우리나라의 외교 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강제하더니 급기야 1910년 우리나라를 송두 리째 강점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논리의 비약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일본의 부국강병은 개화주역들의 조기유학 등 인재육성과 날쌘 기회포 착 등 보조요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요인은 당시의 미립자병으로 인한 국제환경이 일본의 부국강병에 유리하도록 전개된 점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 2.4. 정치와 당쟁이 농서편찬에 미친 부정적 영향

이 글의 목적은 조선중기인 17세기의 농서 편찬에 정치와 당쟁이 미 친 폐단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17세기는 그 이전인 15. 16세기 보다 농서편찬이 비교적 많았던 시기였다. 허균의 「한정록 1618」과 「도문대 작 1611, 유진의 「위빈명농기 1618, 고상안의 「농가월령 1619, 이 수광의 「지봉유설 1614」, 신속의 「농가집성 1655」과 「구황보유방 1655,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1670경」, 유형원의 「반계수록 1670」, 박 세당의 「색경 1676」, 홍만선의 「산림경제 1700경」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이 시기 농서편찬이 많았던 까닭은 당시의 시대상이 농서편찬을 요 구하였기 때문이다. 1592년의 임진왜란과 1597년의 정유재란으로 국 토가 초토화 되고 미처 복구도 하기 전에 1623년의 인조반정에 이어 1624년의 이괄의 난으로 농업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데다 1627년의 정 묘호란과 1636년의 병자호란 등 전후 여섯 번의 내우외환이 겹쳐 극도 로 식량이 부족하게 되자 그 대책으로 권농의 수단인 농서가 절실히 필 요하게 되었다. 그 시절 극도의 식량이 부족하였다는 뜻은 국가가 초근 목피로 먹거리를 대신하라고 1655년 구황보유방(救荒補遺方)을 편찬 배 포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농서편찬이 많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두 번의 왜란 이후 고추, 호박, 담배 등의 새로운 작물이 도입되어 이들 작물의 재배법을 새로운 농서에 반영코자 한데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검토대상의 농서는 식품서나 구황서, 그리고 농업정책을 다룬 농정서 등 농업의 한 개 부분만 다룬 전문농서들을 제외하고 작물, 원예, 양잠, 축산 등 농업의 온갖 부분을 고루 갖춘 농서로 그 풀이가 체계적인 종합농서 4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1618년 허균(許筠)의 한정록(閑情錄), 1655년 신속(申洬)의 농가집성(農家集成), 1676년 박세당

(朴世堂)의 색경(穡經), 1700년경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 등이 그것이다.

먼저, 1618년에 완성한 허균(1569~1618)의「한정록 치농(治農)」편을 보면 작물, 원예, 양잠, 축산, 양어 등의 생산기술을 종합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중 종전의 농서에 없던 새로운 기술은 첫째로 최초의 덧거름 시용 기술이다. 허균은 건묘육성을 위해 못자리에 재거름이나 개똥등 속효성 덧거름을 시용하라 하였다. 그 이전의 농서에는 밑거름 뿐이었다. 둘째로, 모내기 때 최초로 줄모(正條植)심기를 풀이하면서 그 이유가 벼모가 고르게 자라고 제초노력이 덜 든다는 것이다.

셋째로, 최초로 올벼 뒷그루로 논보리 재배법을 밝히고, 넷째로 콩나물(豆芽菜)에 대한 기록과 채소와 곡식을 동등하게 중요시 하였다. 다섯째로 최초의 물고기 기르기(養魚)를 밝히고 물가에 양사(羊舍)를 지어 양 똥을 쓸어 물고기에 먹이는 먹이사슬을 밝혔다. 여섯째로 손이 많이 가는 채소 포장은 주택 가까이 배치하고 덜 가는 곡물은 멀리 배치하며 뽕나무는 뽕잎 따기가 쉽도록 애당초 구부지게 기를 것이며 죽을 쑤어 퇴비장에 뿌려 구더기를 길러 닭 사료로 이용하라는 등 최초의 농업경영이론을 밝히고 있다.

허균은 경상감사 허엽(許曄)의 삼남으로 1594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내의현직을 두루 거쳐 판서급인 정2품의 의정부좌참찬에 오른 문신이다. 그중 권농의직에 있었던 것은 1597년 감목관(監牧官), 1598년 황해도 도사(都事), 1604년 수안(遂安)군수, 1606년 삼척부사, 그 후의 공주목사 등으로 이 지방관을 거치면서 권농의 수단으로 농사를 익힌 것 같다. 1610년 진주부사(陳奏副使), 1614년과 1615년 천추사(千秋使) 겸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다녀 올 때마다 책을 구해와 모두 4천여 권에 이르렀다는데 이들을 참고하여 「한정록」을 편찬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는 비상한 재사였으나 처신이 경박하여 황해도 도사 시절에는 서울

에서 기생을 데려다 즐기며 업무를 태만이 하다가 탄핵 판면되고 수안군수 때는 불교 신봉으로 탄핵 파직되었다. 삼척부사 때는 중의 옷(가사)을 입고 불경암송과 중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다 3개월 만에 파직되었으며, 공주목사 때는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던 서얼들을 가까이 하다가 네 번째 파직되었다. 또 1610년 중국에 다녀올 때는 천주교 주기도문을 최초로 가져오기도 하였고 좌참찬 때는 인목대비를 폐하여 서궁에 유폐하는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광해군의 폭정에 항거하여 하인준, 김우성 등과 반란을 꾀하던 중 심복인 현응민이 남대문에 격문을 붙인 게 탄로나자 대질심문으로 허균의 역모죄가 드러나 48세 되던 1618년 8월 그의 동료들과 가산 몰수와 더불어 저잣거리에서 능지처참에 처해졌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처형 직전 그의 문집과 「한정록」등을 사위 이필진(李必進)의집에 옮겨 불에 태워지지 않은 채 이를 온전히 후세에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적의 문집 등은 금서(禁書)가 되어 후일의 농서편찬에 전혀 인용될 수 없었다. 그것이 정치가 농서편찬에 개입한 폐단의 첫 출발이다. 진시황이 분서갱유(焚書坑儒)할 때도 농서는 불태우지 않고 널리이용하도록 권장하였는데 이 경우는 있어도 후일의 농서편찬에 인용이허용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실은 그 후 37년 만에 편찬된 신속의 「농가집성」에 잘 나타나고 있다.

신속(1600~1661)은 녹봉이 없는 6품직의 별제(別提)를 거쳐 영주(榮州)군수로 있던 45세의 늦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이 활짝 열렸다. 곧이어 사헌부의 지평(持平 5품), 장령(掌令 4품), 성균관 사성(司成 종3품)을 거쳐 드디어 출세의 관문인 승지(承旨 정3품)의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때마침 외숙 김자점(金自點)이 역모로 효종의친국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자 이에 연좌되어 승지는 고사하고 있던 자리에서 마저 쫓겨났다. 그러나 다행히 대사헌 흥무적(洪茂積)의 변호로 간

신히 복직되어 중앙진출의 꿈을 버리고 지방관으로 양근(양평) 서원(청주) 현감 등을 전전하며 1429년에 편찬된 「농사직설」의 농법을 연구하여 공주목사로 있던 1655년 「농가집성」의 초고본인 증보본을 완성하였다. 이에 1444년에 세종이 발포한 권농교문을 앞에 철하여 당대의 집권세력인 송시열(宋時烈)의 서문을 받고자 그를 찾아갔다. 효종이 어릴 때사부이기도한 송시열은 서문을 써주면서 그가 존신하는 주자(朱子)의 권농문 3개도 이에 보태도록 권하였다. 신속은 흔쾌히 이에 응하면서 내친 김에 1470년대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 편찬한 주곡 중심의 금양잡록(衿陽雜錄)과 그 무렵 편찬한 종합농서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도 이에 합철하였다. 이로서 「권농교문」의 세종 「농사직설」의 원 저자 정초(鄭招), 「농사직설」의 증보자 신속 자신, 「권농문」의 주자, 「금양잡록」과「사시찬요초」의 강희맹 등 국내외 5인의 농가(農家 농학자)의 설을 모았다는 뜻으로 이 농서의 이름을 농가집성(農家集成)이라 이름하였다.

「농가집성」의 주목되는 농법은 첫째로 거름부족을 보충코자 풀이 썩을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 속성퇴비를 만드는 기술의 개발과, 둘째로 「농사직설」의 벼 한그루에 4~5본씩 심으라는 것을 신속 자신의 연구를 통해 3~4본으로 20% 가량 줄임으로서 소주밀식(小株密植)의 원리를 밝힌 것. 셋째, 늙은 벼 묘에 발생하는 승점처(蠅点處 도열병 또는 깨씨무 늬병)로 병들었을 때 묘를 갱신하는 기술, 넷째 깊이갈이로 벼 뿌리의 권역을 넓히고 얕게 심어 벼 묘의 분열을 촉진하는 심경천종(深耕淺種), 다섯째 이미 맺힌 목화열매를 더욱 건실하게 기르고자 그 이상의 도장(徒長)을 막자는 목화의 순(筍)치기 기술, 여섯째로 당시에 관행되던 혼작(混作)보다 단작(單作)이 증수된다는 이론 등 종전의 농서에 없던 새로운 기술들이 추가되고 있다. 아쉬운 것은 몇 백 년 전의 농서나 주자의 권농문까지 「농가집성」에 편입시키면서 그보다 27년 전에 편찬된 허균의「한정록」을 제외시킨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제외시키더라도 허균

의 농서에 기록된 덧거름 시용, 줄모심기, 논보리재배, 농업노력 절약을 위한 농업경영개선 등 당시의 식량문제 해결에 초미의 급선무인 기술들 을 문장풀이의 한 구절에 끼워 넣지도 못한 것이다. 정치성이나 사상적 내용이 전혀 없는 생산기술이라 더욱 그렇다.

만일 이때 「농가집성」에 허균의 신농법이 추가되었더라면 효종의 명으로 「농가집성」이 인쇄되어 내사본(內賜本 왕의 내탕금으로 인쇄된 책)으로 전국에 배포되어 생산기술 개선으로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다.

국가가 농서를 인쇄 배포한 것은 「농사직설」에 이어 이것이 두 번째이며 신속은 이때 송시열의 추천으로 효종으로부터 호피(虎皮) 두 장을 부상으로 포상 받았다. 농서를 써 포상을 받은 것은 우리 역사상 이것이 처음이다.

다음으로 당쟁이 농서편찬에 악폐로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다.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은 반남 박씨로 32세 되던 1660년 문과에 장원급제한 수재였다. 그 후 전적(典籍), 예조좌랑, 병조정랑, 홍문관교리, 경연시독관 등을 두루 거쳐 1668년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한실학자였다. 그러나 맏아들 박태유(朴泰維)가 격지에 근무하다 병사한데다 둘째아들 박태보(朴泰輔)가 장희빈의 무고로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를폐위할 때 이에 반대하다가 고문 끝에 진도로 유배 가던 중 장독(杖毒)으로 노량진에서 사망하자 이에 충격을 받아 공직에서 물러나 양주군 수락산 서쪽의 석천동에 은거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후진양성에 몰두하였다.

그는 다년간의 영농경험을 기초로 1676년 색경(薔經)이라는 종합농서를 편찬하였는데 「색경」이라는 뜻은 거두는(穡) 글(經) 곧 농서라는 뜻이다. 색경의 서문을 보면 "나는 내 스승을 얻었다(吾得吾師)."라는 구절이 있다. 또 「색경」의 내용이 중국 원(元)나라의 농서 「농상집요」를 많은 부분 초록한 것을 보면 박세당은 「농상집요」를 스승삼아 영농교재로 농

사를 지은 것 같다. 「색경」의 내용에 박세당의 독창적인 신기술은 벼농 사와 보리농사에 관한 것이다.

벼농사를 보면 6~7월 중 벼가 왕성히 자랄 때 논물을 빼고 잡초를 뽑아 흙속에 밟아 넣은 후 재거름이나 깻묵가루 등 속효성의 거름을 시용하라 하였다. 이 시비의 현대적 표현은 이삭거름(穗肥)에 해당된다. 또이때 4~5일간 논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말렸다가 물을 대라 하였는데 이의 현대적 표현은 토양 통기(通氣)를 위한 중간낙수(中間落水)다. 이삭거름이나 논바닥 말리기는 「색경」에서 처음 밝혀진 신기술이다.

그는 또 처음으로 보리골을 깊게(溝欲深)하라 하였는데 이는 겨울철 보리싹이 얼어 죽지 않고 봄가뭄으로 보리싹이 마르지 않게 하자는 기술이다. 그러나 박세당은 58년 전에 편찬된 「한정록」이나 21년 전에 편찬된 「농가집성」의 창의적인 농업기술을 단 한마디로 「색경」에 인용하지 않았다. 「한정록」은 역적이 쓴 농서라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농가집성」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서로 당파가 달랐기 때문이다. 「농가집성」은 송시열이 서문을 썼고 그의 추천으로 저자가 효종의 포상을 받으면서 국가주도로 전국에 인쇄 배포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찍이 사변론(思辨錄)을 지어 그사이 잘못 이해한 육경(六經)의 뜻을 바로잡은바 있고 사서(四書)를 주해한 사서집주(四書集註)를 지은 바 있는데 이들 책이 주자(朱子)를 비방한 내용이라 하여 송시열 일파로 부터 사문란적(斯文亂賊)으로 몰린바 있다. 또 박세당이 이경석(李景奭)의 신도비문을 지을 때 병자호란 후 청나라와 화친하기 위해 이경석이불가피하게 삼전도비문(三田渡碑文)을 지었다고 쓴 것을 문제 삼아 완론자(緩論者)로 박해한데도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

결국 노소론(老少論)간의 대립으로 「색경」은 더 충실한 농서를 쓸 그 이전의 농학적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채 농학이나 생산기술 개선이 약 80년간 정체된 것은 애석한 일이다. 이는 당쟁의 폐단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이나 당쟁의 폐단은 1700년경 홍만선(1643~1715) 이 편찬한 산림경제(山林經濟)에 와서 비로소 말끔히 해소된다. 이 책의 편찬년도가 불확실한 것은 이 책에 간기(刊記)가 없기 때문이며 1700년 경이라 한 것은 그의 생존기간으로 보아 그가 다른 농서편찬과 같이 환갑(농서14종 평균 58.2세) 전후에 편찬한 것으로 추측하였기 때문이다.

홍만선은 풍산 홍씨로 1666년 진사시험에 급제하여 사옹원 봉사(奉事)를 시작으로 의금부 도사, 대홍군수, 합천군수, 인천도호부사, 상주목사, 군자감 정(正 정3품)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지방관으로 전전할 때 권농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농서를 인용하여 「산림경제」를 완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농업의 모든 분야와 식품이나 약용식물까지 포함한 방대한내용의 종합농서를 엮은 것이다. 이 「산림경제」의 특징은 많은 국내외 농서를 모두 인용하였다는데 있다. 이를 숫자로 밝혀보면 작물, 원예, 화훼, 경제수종 등 4개 부분만 보아도 「농사직설」등 22개의 국내 농서에서모두 420회를 인용하였고 신은서(神隱書) 등 22개의 중국농서에서 모두 388회를 인용하여 도합 808회나 인용하고 있다. 그밖에 복거(卜居), 섭생, 양잠, 축산, 약용식물 편에 인용된 것까지 헤아린다면 인용문헌이나인용횟수는 몇 백 종의 서지에서 몇 천 번의 인용 횟수가 될 것이다.

지면관계상 생략하거니와 「산림경제」가 국내외에서 명저로 칭송되는 것은 이 인용문헌을 체계적으로 보다 많이 짜임새 있게 인용한데 있다. 이로 보아 결국 모든 학문이나 문명은 그 이전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룩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

## 2.5. 시대에 따른 조선시대 벼농사 기술의 발전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우리 농사의 주종인 벼농사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재배기술이 발전하여 왔는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15세기는 고려시대 이전의 휴경농법에서 연작농법으로 전환하는 시기라고 알려져 왔다. 그럼에도 15세기 중기까지 일부의 휴경(休耕)농지가 남아 있었다. 세종 26년(1444) 11월 무자일의 세종실록을 보면 연작(連作)을 권장하기 위해 "정전(正田)을 묵혀 소출이 없더라도 경작하여소출이 있는 논과 똑같이 과세한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경작하지 않고 휴경하는 농지는 지력회복을 위해 휴경하거나 경작노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휴경하는 농지 등 두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곧 농지의 생산성이 낮거나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벼농사는 농지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농업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떤 기술적 대응을 해왔을까?

세종 11년(1429)에 편찬된 농서, 농사직설(農事直說)의 벼농사법을 보면 볍씨를 본답에 직접 파종하는 직파법(直播法)과 벼모를 모판에서 길러 모내기 하는 묘종법(苗種法)의 두 가지가 있었다. 직파법은 올벼무논직파법(早稻水田直播法)과 늦벼무논직파법(晚稻水田直播法), 그리고 늦벼마른논직파법(晚稻乾畓直播法) 등으로 나뉘므로 이를 감안한 조선시대 벼농사는 묘종법 포함 모두 네가지 방식이 있었다. 이와 같은 벼농사법들은 봄 가뭄과 장마철의 홍수가 지는 조한만수(早旱晚水)형의 우리나라 기후에서 연작으로 가장 알맞게 선택된 벼농사법들이었다. 그러나 묘종법만은 벼모가 자라 본답에 옮겨 심을 때 적기에 논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농할 위험이 있어 「농사직설」에서도 이는 위험한 농법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네가지 재배법 중 수리불안전답이 대부분인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쓰인 벼농사법은 늦벼마른논직파법이었다.

이러한 기초에서 조선시대 벼농사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따라 어떤 재배기술을 발전시켜 왔을까? 생산력 향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농지의 지력을 높여 생산력을 올리는 방법과 둘째로 노동능률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이다.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사직설」에서는 가을갈이를 깊이 하라 하였다. 이는 월동중의 풍화작용으로 토양중의 유효성분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갈이라 이해된다.

봄같이도 하되 깊이 갈면 심토(心土)를 건드릴 위험이 있으므로 봄갈이는 깊이 갈으라는 단서가 없다.

농지생산성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농지를 걸게 하여 비옥도를 높이도록 유기질비료를 보다 많이 시용하는 것이다. 그 종류는 퇴비, 구비, 잠사(蠶砂), 산야초와 분회(糞灰) 등이다. 여기서 분회란 15세기만 하여도 인분뇨를 액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 없던 시절이라 재를 보관하는 시설과 대소변을 보는 칙간이 병설되어 있어 그때마다 분뇨를 초목회에 섞어 보관하기 때문에 분(糞)과 재가 섞어진 분회라 이름한 것이다. 따라서 분회는 인분뇨를 액상으로 저류하지 않던 조선전기의 거름의 하나다.

지력을 높이는 세 번째 방법은 「농사직설」에 논에 새 흙(新土)을 넣거나 떼흙(莎土)을 넣으라 하였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객토(客土)라 이름하는 지력증진법이다. 객토가 더욱 유효한 땅은 질땅과 헤식은 땅, 그리고 수온이 낮은 논들이다. 이와 같은 지력증진기술은 16세기까지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모두가 밑거름(基肥)으로만 시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어떤 농서에도 덧거름 시용의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덧거름(追肥)은 17세기부터 시작되었다. 1618년에 허균(許筠)이 편찬한 한정록(閑情錄)의 치농편(治農篇)을 보면 건묘육성을 위해 못자리에속효성의 초목회를 덧거름으로 시용한 게 그 기원이다. 덧거름에 이어 이삭거름(穗肥)은 1676년에 박세당(朴世堂)이 편찬한 색경(穡經)을 보면 최

종의 기음매기때 물을 빼고 재거름이나 깻묵 등의 속효성 비료를 이삭거름으로 시용하라 하였다. 그러므로 15세기 이전의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까지는 휴경(休耕)을 통해 지력의 회복을 꾀하였고 조선 초기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유기질비료나 객토 등의 무기질비료를 밑거름으로 시용함으로서 휴경농법을 연작농법으로 전환시켜 왔다. 17세기 초에 밑거름에 덧거름 시용을 더함이 더욱 유효함을 알았고 17세기 후반에 다시 이삭거름시용을 더함이 토지생산성을 더욱 높이는데 절대 필요함을 알게 된 것이다. 이로 보면 농업지식의 발달은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덧거름, 이삭거름 등의 거름 수요가 늘어나자 거름의 유효성분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기술이 새로이 개발되게 된다.

1619년 고상안(高尚顏)이 편찬한 농가월령(農家月令)의 잡령(雜令)을 보면 인분뇨(人糞尿)를 액상으로 보관토록 칙간에 목통(木桶)이나 대형 의 독을 묻도록 권하고 있다. 「농사직설」에서 밝힌 분회(糞灰)는 재와 분 뇨가 섞일 때 재의 알칼리성으로 인해 분뇨의 질소성분이 휘산(揮散)되 어 악취가 없다거나 운반이 편리한 장점은 있으나 질소성분이 날아가 거 름끼가 반감된 거름이었다. 거름성분을 온전히 보존하도록 하는 이 액상 분뇨 저장법은 덧거름 시용으로 시비수요가 늘면서 개발된 신기술이다.

이에 더하여 덧거름 이삭거름 등 시비수요가 늘면서 17세기 중기에는 오늘날의 속성퇴비(速成堆肥)에 해당하는 유기질비료의 제조기술이 개 발되게 된다. 1655년 신속(申洬)이 편찬한 농가집성(農家集成)의 올벼 못자리거름을 보면 "풀이나 버들가지, 그리고 떡갈잎 따위를 베어다 작두로 썰어 외양간 오줌이나 사람의 오줌에 적시거나 마소가 외양간에서 밟은 거름들을 따뜻한 재와 섞어 쌓아두고 그 위를 거적으로 덮어 열의 발산을 막아주면 속히 썩어 못자리 밑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속성퇴비가 된다." 하였다. 이때 오줌을 섞는 것은 오줌의 질소성분이 유기물을 썩히는 세균의 영양원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벼농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제초노력이 많이 드는 직파재배보다 제초노력이 적게 드는 모내기(묘종법) 재배로의 전환이다. 앞에서 밝힌바 15세기 이래의 올벼무논 직파재배나 늦벼무논직파재배 그리고 건답직파재배 등 일체의 직파재배는 온 논에 볍씨를 직파함으로써 발아에서 성묘가 될 때까지 온 논의 제초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내기 재배는 본답 10분의 1의 좁은 모판에서 모를 기르므로 제초노력이 10분의 1 밖에 들지 않게 된다. 이때모내기재배는 직파 때보다 모내는 노력이 추가되는 흠이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더라도 모내기 재배의 노력이 직파재배보다 덜 드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모내기 재배는 논에 물이 마르지 않아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관배수가 조절이 가능한 수리안전답은 물못자리로 육묘하여 어려움이 없지만 수리불안전답이나 비내림만 고대하는 천수답(天水畓)은 못자리 육묘를 할 논물마저 없어 모내기 재배가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는 6월 중순 이후의 장마 이전에는 봄 가뭄이 상습화한 기후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모내기 재배가 바람직하자 이에 새로이 개발된 것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개발된 밭모기르기다. 모만 기를 수 있다면 장마에 모내기 용수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1770년경 홍만선(洪萬選)이 편찬한 산림경제(山林經濟)의 밭모기르기 (乾秧法)를 보면 "봄 가뭄으로 못자리 물이 없을 경우 마른 논을 흙덩이가 없도록 곱게 다스려 이에 작은 골을 지어 분회에 버무린 볍씨를 파종한다. 본답 한마지기에 심을 모가 필요할 경우 볍씨 7두(斗)를 파종한다. 비가 내려 본답에 물이 확보됨을 기다려 모내기 하면 물모자 때보다도 더 좋다." 하였다. 이와 같은 밭모자리는 물모자리에 비해 성묘율이 낮아 종자량이 많이 들고 모 뿌리가 양분과 수분을 찾아 깊이 뻗어 모를 뽑을 때 노력이 많이 드는 결함이 있으나 물모자리보다 모가 억세어 건묘

육성은 물모자리에 비할 바 아니다.

이 밭모자리의 단점인 모뿌리가 깊이 뻗지 않도록 18세기 중기에는 믿거름인 초목회를 얕게 집중적으로 많이 시용하여 모뿌리가 양분을 찾 아 깊이 뻗는 폐단을 예방하는 기술이 뒤이어 개발된다. 이로서 18세기 에는 천수답이나 수리불안전답에도 모내기 재배가 가능토록 모내기 재 배의 기술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또, 벼농사의 노동생산성 제고는 직파 재배를 모내기로 바꾸는 것 뿐 아니라 모를 제초하기 쉽도록 줄모(正條 植)로 심는 것이다. 「농사직설」이래 모심기는 허튼모(散植)를 심어오다 가 17세기 초에 모의 통풍채광(通風採光)이 잘되는 줄모심기가 새로이 개발되었다. 허균(許筠)이 1618년에 편찬한 한정록(閑情錄) 치농(治農)편 을 보면 "모 여섯 줄기를 한 그루로 하여 한 사람 당 여섯 그루를 한 줄로 줄모를 심어나가되 반듯하게 심어야 기옴매기에 편하며 모를 얕게 심어 야 발육이 잘 된다." 하였다. 이로 보아 우리나라의 줄모심기는 17세기 초에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허균은 모 여섯 줄기를 한 그루로 하라 하였 는데 1429년에 편찬된 「농사직설」에는 "모 4~5개 줄기를 넘지 않게 한 그루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1655년에 편찬된 신속(申洬)의 농가집 성(農家集成)에는 "한 그루에 모 3~4줄기를 넘지 않게 심는다."하여 「농 사직설 보다도 그루당 20%가 줄어든 3~4본으로 소주밀식(小株密植)이 풀이되어 있다. 벼모의 소주밀식은 벼농사 증산의 중요 요건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17세기부터 시행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이상에서 밝힌 벼농사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은 직파재배 보다는 모내기재배가 더욱 능률적인데 못자리 물마저 확보가 어려운 천수답의 모내기 재배를 위해 17세기말경에는 밭모자리육묘기술이 개발되어모내기 재배가 전국적으로 보편화 되게 된다. 또, 중경제초시의 노동능률을 높이고자 15세기 이래의 헤쳐심기를 지양하고 17세기 초부터 줄모심기와 17세기 중기부터 벼모의 소주밀식이 개발 시행되었다고 요약

할 수 있다.

끝으로 밝힐 것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반드시 쓰이는 농기구가 있 다. 갈이(耕) 연장으로 따비, 쟁기, 괭이, 가래, 삽이 있고 삶이(정지) 연 장으로 써레, 쇠스랑, 곰방매, 번지, 나래, 고무래, 발번지, 통번지, 밭나 래 등이 있으며 거름내기 연장으로 장군, 새갓통, 귀때동이, 거름통, 삼 태기, 거름대 등이 있다. 씨붙이기 연장으로 고써레, 드베, 파종기 씨송 곳, 씨망태, 종다래끼, 끙게, 살번지, 궁글대 등과 김매기 연장으로 호미, 밀낫, 칼자매, 매번지, 보토괭이, 제초기 등이 있고 물대기 연장으로 두 레, 맞두레, 용두레, 무자위, 물풍구, 살포 등이 있다. 거두기 연장으로 낫, 전지, 도리깨, 댓돌, 개상, 홀태, 삼괭이 등과 말리기 연장으로 얼루 기, 멍석, 도래방석, 발, 거적, 채반 등이 있으며 고르기연장은 부뚜, 듸 림부채, 바람개비, 키, 이남박, 체 등이 있다. 갈무리 연장으로 독, 나락 뒤주, 쌀뒤주, 통가리, 섬, 가마니, 중태, 멱서리, 뒤웅박, 씨주머니가 있 으며, 방아연장으로 절구, 디딜방아, 물방아, 물레방아, 돌확, 맷돌, 매 통, 토매, 연자매, 기름틀, 국수틀, 물절구, 안반이 있다. 나르기 연장은 지게, 발채, 들것, 망태기, 소쿠리, 광주리, 바구니, 다래끼, 거지게, 걸 채, 옹구, 발구, 썰매, 수레, 달구지가 있으며, 기타 연장으로 갈퀴, 넉가 래, 함지, 매, 도끼, 까뀌, 톱, 반달낫, 도롱이, 태, 덫 등이 있으나 이들의 각종 연장은 15세기 것이나 개화기의 연장이 큰 변화가 없어 농기구 개 량에 의한 노동능률 향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토지 및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농가호당의 경영규모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가 없어 시대에 따라 얼마만큼의 경영규모가 확대되었는지도 밝힐 수 없다. 극히 조방한 수치지만 14세기말인 1392~1393년의 농지(전, 답) 면적으로 당시의 인구수를 나누어 본 바, 1결(結)의 농지에서 6.89인이 먹고 살 먹거리가 생산되었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592년은 8.05인이 먹고 살 식량이 생산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100년

이 지난 1807년은 1결에서 12.78인이 먹고 살 식량이 생산되었다. 곧 14세기 말을 100으로 본다면 19세기 초인 1807년의 생산은 185로 85% 가량의 식량이 증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6. 작물의 감성과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

조선일보에 포도나무가 음악에 반응하여 보다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고 이로 빚은 포도주가 이탈리아 와인산업을 세계 1위로 끌어올렸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2021. 6. 14.).

사연인즉 이탈리아 토스카나 발도르차계곡의 한 와이너리는 광활한 포도밭에 100개의 스피커를 곳곳에 설치하고 모차르트 음악 800곡을 5일 간격으로 반복해 들려주었더니 포도나무가 음악소리의 스트레스에 반응해 포도알의 껍질이 더 두껍고 독특한 풍미의 포도송이가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더 많이 함유한데 원인한 것이란다. 그뿐 아니라 이 음악방송은 포도나무 해충의 번식기에 스트레스를 주어 암수의 교합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번식이 억제되어 해충의 피해를 줄이고 해충이 매개하는 병균의 전염까지도 줄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매년 4천여 톤의 포도주를 수입하는 이탈리아의 와인산업은 69만 5,000 ha의 포도밭에서 연간 767만 톤의 포도알을 생산하여 56억 6,000만 리터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큰 산업이라 그 나라의 농사시험기관이나 관련 대학에서 포도나무의 음악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라고 하였으니 신뢰가 가는 기사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5세기에 이미 식물에도 감성(感性)이 있음을 농서에서 밝히고 있다. 최초의 기록은 1470년경 강희맹(姜希孟 1424~1483)

이 편찬한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시 찬요초'에는 간기(刊記)가 없어 언제 누가 편찬한 것인지 의문스러웠으 나 일제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도서해제(朝鮮圖書解題)에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강희맹의 편찬이라 밝히고 있다. 하여간 이 '사시찬요 초'의 2월의 춘분(春分)에 할 농사일을 보면 여러 밭작물의 파종을 풀이 하면서 대나무 재배법이 풀이되어 있다. 대나무의 성질은 서남쪽을 좋아 함으로 서남쪽을 향한 동북쪽 높고 평평하며 배수가 잘되는 곳에 2월초 에 심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식 적기를 실기하였을 때에는 음력 5월 13일이 가장 좋은 재식일이라 하였다. 그날은 대나무가 취(醉)하는 날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취하여 감성이 없는 죽취일(竹醉日)이란 것이다. 대나무가 취한 날이란 뜻은 옮겨 심어도 옮겨 심었는지 대나무 스스로 이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음악소리에 포도나무는 반응을 하였는데 대나무는 평소에 있던 감성이 죽취일에 한하여 없다는 뜻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식물도 감성(感性)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기록으로 같은 '사시찬요초'의 나무재배(種木類)법을 보면 모든 나무는 정월에 심는 것이 가장 활착이 잘되고 2월은 버금가며 3월은 너무 늦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심할 것은 나무를 옮겨 심어도 "나무 스스로 옮겨 심은 줄을 모르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도 나무가 감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때 가장 민감한 것은 나무의 음양(陰陽)이니 남쪽으로 뻗은 가지는 옮겨간 곳에서도 남쪽으로 향하도록 심으면 백 그루를 옮겨 심어도 모두 활착이 잘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나무의 햇빛을 향한 감성을 음양의 이치에서 풀이한 것이다.

15세기의 감성은 17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 활동한 류성룡(柳成龍)의 셋째아들 류진(柳袗)이 1618년 위빈명농기 (潤濱明農記)라는 체험적 농서를 편찬하였다. 그는 낙동강 지류인 위천

강(渭川江)변의 갈대밭을 개간한 경험을 이책에 기록하고 있다. 갈대는 뿌리가 억세어 아무리 뿌리를 잘 제거하여도 다음해 숨은 뿌리에서 새싹이 다시 돋아나는 강한 성질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여름에 개간한즉 다시 재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한기인 봄과 겨울에 개간한 곳은 이듬해 새싹이 돋아나는데 한여름 한더위 때 개간한 곳에서는 신통하리만큼 땅속에 일부 잠복해 있던 뿌리에서 조차 전혀 새싹이 돋아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까닭이 한더위에 뿌리가 지쳤거나 노여워서 그러한지에 대해서 유 진은 그 까닭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필자의 풀이로는 남은 뿌리에 이듬 해 재생할 양분이 고갈되는 시기가 바로 한여름이기 때문이라 이해된다.

하여간 유진이 갈대의 재생이 환경변화에 반응하는 감성을 알아낸 것은 17세기 농학이 이룩한 큰 성과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소련의 Lysenko는 1920년대 가을보리를 춘화처리(春化處理)를 통해 봄보리로 실용화 한 것을 세계적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우리나라 고상안 (高尙顏)이 1619년에 편찬한 농가월령(農家月令)을 보면 원리가 같은 Lysenko의 춘화처리를 그보다 3백년 앞서 고상안이 먼저 밝히고 있다. 이것도 식물의 감성에 관한 기록들이다.

작물의 감성뿐 아니라 '사시찬요초'에는 15세기 농학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과학적 내용들이 곳곳에 풀이되어 있다. 예컨대 "초하룻날 새벽닭이 울 때 횃불을 들고 뽕나무나 과일나무 주간(主幹)의 아래 위를 쬐어주라." 하였다.

이는 가장 추운계절의 가장 추운시각에 가장 뜨거운 횃불로 갑자기 잠복중인 벌레나 병원균에 뜨거운 충격을 주어 효과적으로 병충해를 방 제하라는 것인데 그 발상이 주목되는 병충해 방제법이다.

또 정월초에 "해가 뜨기 전 과일나무 가지 사이에 벽돌을 끼워두라." 하였다. 이를 가수(嫁樹)라 하여 나무 시집보내기라 하였다. 부연설명은 없으나 이는 열매를 맺지 않고 웃자라기만 하는 도장지(徒長枝) 사이에 벽돌을 끼워 도장을 억제함으로서 결과지(結果枝)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기술이다.

현대 과수학에서 도장하는 가지에 고리모양으로 돌려가며 상처를 내어 도장을 억제하며 결실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환상박피(環狀剝皮)라한다. 벽돌을 끼우는 것도 환상박피와 같은 원리다.

또 위빈명농기의 소과문(蔬果門)에 풀이된 과수재배법을 보면 환상박 피와 유사한 내용이 풀이되고 있다. 과수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으로 의인화(擬人化)하여 정월에 과일이 많이 맺히도록 재촉하기 위해 두 사람이 과일나무아래 마주서서 한사람이 도끼를 들고 "열리지 않는 이나무 베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나무에 돌려가며 얕은 상처를 내면 또 한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금년에는 많이 열릴 것이니 그대로 기르자고 말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 그해의 결실이 풍작이 된다는 것이다. 유진은 과목도 감성이 있음을 믿고 쓴 농서라 이해되나 과목에 상처를 내는것은 곧 생육을 억제하는 일종의 환상박피인 셈이다.

15세기에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오늘날의 환상박피와 같은 결실의 원리를 밝혀냈다는 것은 놀라운 농학적 성과다. 또, 춘분(春分)에 오이씨 파종에 관한 기술도 매우 과학적이다. "한구덩이에 네 개의 오이씨를 파 종하되, 그 곁에 콩씨 3개를 심어둔다. 대체로 오이씨는 약해서 싹이 틀 때 흙을 뚫고 나오기 힘이 드나 힘이 센 콩씨는 덮어준 흙을 쉽게 뚫고 나오므로 이때 콩씨는 오이씨의 발아를 도와주게 된다."는 것이다. "오 이씨가 싹이 터 두어 개의 본 잎이 나오면 콩의 묘는 잘라준다." 하였다. 이 약삭빠른 농업기술을 읽으면서 엷은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이상에서 식물의 감성에 관한 기록과 한겨울의 병충해 방제나 나무 시집보내기, 그리고 강한 콩씨의 발아력으로 약한 오이씨의 발아를 돕는

기술들을 간단히 요약하였다. 그 뜻은 15세기 후반의 조선조 농학의 수준을 음미코자 예시한 것이다. 이로 보아 15세기 우리 농학의 수준은 원리면에서 최신과학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현대의 농업과학이 더 정밀하게 과학화 하였다는 차이 뿐이다.

그렇다면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은 어떤 분이기에 농학에 그토록 밝은 분이었을까? 그의 가계는 농학 가문이었다. 그의 증조부인 강시(姜蓍)는 1372년(고려 공민왕 21) 합천(당시 江陽)군수로 있을 때 원(元) 나라에서 편찬된 농상집요(農桑輯要) 한질을 읽어보고 이를 경상감사 설장수(偰長壽)의 재정 지원으로 합천에서 복간하여 널리 권농교재로 쓰도록 전국에 배포한 훌륭한 농학자였다.

또 강희맹의 친형인 강희안(姜希顏 1417~1464)은 1460년경 우리나라 최초의 화훼원예서인 양화소록(養花小錄)을 편찬하였다. 소록이라고하였지만 그 내용은 소록이 아닌 알찬 분량이다. 또 그의 이모는 세종의왕비인 소헌(昭憲)왕후로 세조와는 이종(姨從)사촌간이다. 그는 일찍이문과에 급제하여 병조 이조의 판서 등 고관대작을 두루 거친 관료였으나양부(養父)의 상을 당하여 관리에서 물러나 농사를 지으며 금양잡록(衿陽雜錄)이라는 체험적 농서를 편찬하였다. 금양이란 현재의 시흥과 양천의 일부를 아우르는 당시의 지명이다. 1492년 강희맹의 아들 구손(龜孫)이 금양잡록을 출판하면서 쓴 발문을 보면 "농부의 차림(野服)으로 농사를 지으며 농부들과 담론하였다."한 것으로 보아 강희맹이 몸소 농사를지으며 의문스러운 점은 농부들과 토론하면서 농업지식을 쌓은 것 같다.

따라서, 강희맹은 증조부 이래의 농학가문에서 태어나 영농경험을 통해 실용적인 농업지식을 갖춘 농학자였다. 그러나 '금양잡록'은 주곡 중심의 농서라 원예, 축산, 양잠 등을 수록한 농서가 필요하였다. 그것이바로 '금양잡록'의 하편(下篇)격인 '사시찬요초'라 이해된다.

이 '사시찬요초'의 초(抄)란 본래의 '사시찬요'에서 초록하였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모본인 '사시찬요'는 누가 언제 편찬한 어느 나라 농서일까? '사시찬요'는 당나라 말기에 한악(韓鄂)이 편찬한 월령식(月令式)농서다. 월령식 농서란 한 작물의 재배법을 풀이할 때 일반농서와 같이 파종에서 거둘 때까지 일관되게 기록하지 않고 파종은 봄철의 농사를 풀이할 때 기록하고 중경·제초는 여름철, 거두기는 가을철의 농사를 기록할 때 풀이함으로서 월별로 농사일을 기록하는 편찬방식의 농서다. 그래서 사시 (四時) 찬요초인 것이다.

그렇다면 강희맹은 한악의 '사시찬요'에서 얼마나 많은 분량의 내용을 초록하였을까? 그것은 원본대조가 있어야 알 수 있는데 그 원본이 중국에서 조차 소실되어 한악의 '사시찬요'는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알았었다. 그러다가 1961년 일본의 야마모도(山本) 서점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모리야(守屋美都雄)의 해제(解題)를 붙여 발표함으로서 비로소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책은 중국에서 출판된게 아니라 1590년 우리나라 현재의 울산군 하상면(下廂面)에 주둔하고 있던 경상도 좌병영의 좌병사(左兵使종2품) 박선(朴宣)의 발문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복간된 것이었다. 결국 본래의 '사시찬요'는 중국에서 저술되고 우리나라에서 복간되어 일본에서 발견된 꼴이 되어 동양삼국의 농업사학도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최근인 2017년 6월 17일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연구팀이 또 다른 '사시찬요'를 발굴하였다. 그것은 뜻밖에도 태종 3년(1403)인 계미년(癸未年)에 주조된 활자로 인쇄된 '계마자본 사시찬요'였다. 이 활자는 세종 3년(1420)까지 사용 되었으므로 이 '계미자본사시찬요'는 1403년에서 1420년 사이의 어느 해에 간행된 것으로 추측되며 강희맹의 사시찬요초는 그의 생존 년대로 보아 바로 이 '계미자본사시찬요'에서 초록한 것으로 믿어지게 되었다. 이 '계미자본사시찬요' 는 2017년 12월 부산대 최덕경에 의해 역주본(譯註本)이 출판되었다.

이 '역주본 사시찬요'와 강희맹의 '사시찬요초'를 대조한 결과 강희맹은 한악의 원본 사시찬요에서 극히 일부분만 인용하였을 뿐 대부분은 농상집요(農桑輯要) 쇄쇄록(瑣碎錄), 월암종죽법(月庵種竹法) 등 중국의 여러 농서에서 초록하고 이에서 부족한 것은 우리나라의 관행농법을 보태어 편찬한 것이었다.

결국 강희맹의 '사시찬요초'는 편찬방식만 월령식농서로 한악의 '사 시찬요'를 따랐을 뿐 주된 내용은 중국의 다른 농서와 우리의 재래농법 을 인용한 것이다.

끝으로 강조할 것은 15세기 후반의 우리 농학이 식물의 감성(感性)이나 가수(嫁樹) 등 높은 수준의 농업과학을 농업교재로 '사시찬요초'에서 밝혔다는 것은 비록 그 내용이 중국농학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더라도 높이 평가해야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2.7. 화학과 한말 농학의 개화사(開化史)

본 고에서는 화학과 관련된 농학의 현대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여기서 개화란 주역(周易)에 나오는 개물성무(開物成務), 화민성속(化民成俗)의 두 구절에서 첫 글자 하나씩을 모아 만든 용어로 그 뜻은 지식이 발달하여 사상 풍속 문화 등이 진보함을 뜻하며 그 시기는 1876년 한일수호조약 체결과 동시에 문호를 개방한 이래 일제강점기까지를 뜻한다.

먼저 화학의 기원을 살펴보면 산소를 처음으로 밝혀 화학의 창시자가된 불란서의 라부아지에(Antoine-Laurent de Lavoisier 1743~1794)가 연소(燃燒)이론을 밝힌데서 비롯된다. 오늘날 화학이란 원자 분자의처지에서 물질의 성질과 구조, 그리고 화학반응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화학이라고 한다.

동양에서 화학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일본인이었다. 일찍이 화란과 교류가 많았던 일본은 화란에서 전수된 의학을 통해 서양의화학을 알게 되었고 우다가와요인(字田川榕菴)은 1837년부터 10년에 걸쳐 세이미가이소우(舍密開宗)라는 화학책을 편찬하였다. 여기서 세이미(舍密)라는 일어는 화란어 세이미(Chemie 화학)를 일어로 차음한 용어다. 이때 여기에 산소, 수소, 질소, 탄소 등의 원소명과 산화, 환원, 용해, 결정 등의 화학적 용어가 창안되었는데 이 학문을 화학(化學)이라고처음으로 이름 붙인 사람은 가와모도 고민(川本辛民)으로 그가 1861년에 쓴 화학신서(化學新書)란 책을 쓰면서부터였다. 그 후 일본에서 화학이라고 통일하여 쓰게 되었는데 이 시절의 일본화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사실은 전혀 기록이 없다.

우리나라에 화학이란 학문이 처음 도입된 것은 1885년 개화업무를 총괄하던 통리교섭사무아문 산하에 광혜원(廣惠院 후일 제중원으로 개칭)이란 서양병원을 개설한데서 비롯된다. 갑신정변 때 칼에 베인 민비의 조카 민영익을 치료해 고종의 환심을 얻은 미국인 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 安連)의 건의로 광혜원이 개설되자 알렌이 이 병원운영의 주무자가 되었다. 그는 플로리다의대 출신의 의료선교사였다. 달레(Dallet.e.e)가 쓴 「조선교회사」에는 이 광혜원에 그해 도착해 새로부임한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 후일 연대 설립자)가 알렌을 도와의학교육의 한 분야인 화학교육을 담당하였다 하니 이 때 처음으로 화학이란 학문이 우리나라에 전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다음해인 1886년에 개교한 육영공원(育英公院)에서도 화학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미수호조약후 미국을 시찰하고 돌아온 보빙사(報聘使) 일행이 신식 교육기관인 육영공원 개설을 건의하여 육영공원이 개원되면서 헐벗(Hullbert), 벙커(Bunker), 길모어(Gilmore) 등 3인의 미국인 교수를 초빙하였는데 이중의 한 분이 서양

의 새로운 학문인 화학을 강의하였을 것이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화학은 1885~6년경 미국인에 의해 처음 도입되고 교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화학적 용어로 산소, 망간 등의 용어는 화학이 정식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앞질러 도입되었다. 실학자 최한기(崔漢綺 1803~1877)는 1834년 육해법(陸海法)이란 양수기관계의 수리서를 비롯해 년도 미상의 농정서(農政書)와 농정회요(農政會要) 등 세 농서를 편찬한 분이다. 그는 또 지구전요(地球典要)라는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 책도 편찬하였다. 이「지구전요」의 제8권을 보면 온도계, 습도계와 산소, 수소, 질소, 황산, 질산, 염산 등의 화학용어가 풀이되어 있고 서양문자인 26개의 알파벳도 소개되고 있다.

또, 우두로 유명한 지석영(池錫永)은 1887년 갑신정변의 잔당으로 지목되어 전남 강진의 신지도에 유배된 바 있다. 이때 할 일없는 귀양살이에서 병충해가 많은 벼농사보다 병충해가 없어 재배가 용이한 보리농사로 식량증산을 꾀하여야 된다고 1888년 중맥설(重麥說)이란 보리재배전문서를 편찬하였다. 이 책에 공기의 구성을 풀이한 것을 보면 산소를 양기(養氣), 질소를 담기(淡氣), 이산화탄소를 탄기(炭氣)라고 중국식 화학용어를 쓰고 있다.

또, 1904년에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이 농학신서(農學新書)라는 신식 농서를 편찬하였는데 그 제1권을 보면 여기에도 양기, 경기, 담기 등 중국식 화학기호가 풀이되고 있다. 이 중국식 화학용어는 중국의 화학을 개척한 중국의 화학자 서수(徐壽 1818~1884)가 만든 것이다. 서수는 아편전쟁 후 전통적 중국학문이 무력함을 절감한 나머지 서양의 과학서적을 탐독하며 서양의 새로운 과학을 중국에 도입하는데 앞장섰다. 이 서수에게 화학을 심어준 사람은 영국인 선교사 합신(合信 Benjamin Hopson)이었다. 합신은 자신이 저술한 박물신편(博物新編)을 서수에게 읽도록 하면서 서수에게 화학에 심취토록 교육한 것이다. 이때 서수는

화학기호를 일본과 달리 산소를 양기(養氣), 수소를 경기(輕氣), 질소를 담기(淡氣)하는 식으로 독자적 명칭을 창안한 것이다. 이 중국식 화학기호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최한기의 「지구전요」, 지석영의 「중맥설」, 장지연의 「농학신서」에 인용되었는데 그 도입경로는 알 수 없고 그 이후의우리농서에 더 이상 반영되지 않은 채 단절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화학용어는 모두 일본식 용어들이다. 그것은 일본을 다녀온 안종수(安宗洙)가 1881년에 편찬한 농정신편(農政新編)을 국가가 세 번에 걸쳐 영농교재로 인쇄 배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광혜원에서 화학교육을 하기 4년 전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1886년 일본과 한일수호조약을 체결한 이후 제1차로 김기수(金綺秀), 2차로 김홍집(金弘集) 등의 수신사가 일본을 다녀와 일본의 개화실상을 보고 돌아왔다. 그 후에 범어사(동래)의 개화승 이동인(李東仁 1849~1881)이 1879년 밀항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대사찰 홍간지(本願寺)에 10개월간 머물면서 일본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 서구 문물을 도입하여 개화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조정과 개화파에게 알리자 우리 조정은 조직적으로 일본의 실상을 파악코자 1881년 60여 명으로 구성된 신사유람단(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게 되었다. 이때 세관을 주로 견문하는 담당은 후일 농상공부대신이 된 조병직(趙秉稷)이었다. 그 조병직의 수행원이 23세로 진사였던 안종수(安宗洙)였다.

안종수는 일본에 4개월간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일본의 신진 농학자 쓰다센(津田仙)을 만났다. 쓰다는 화란어와 영어에 능통하여 1873년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만국박람회에 일본대표 오까다 (岡田芳男)의 통역 겸 보조자로 파견되어 그곳에 3~4개월간 주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쓰다는 후이부랭크(Hooibranke 荷衣白蓮)라는 화란의 실험농학자를 만나 그로부터 서양의 신농학을 집중적으로 전수 받고

돌아왔다. 여기서 서양의 실험농학(實驗農學)이란 동식물을 화학적으로 분석한다거나 생리현상을 실험을 통해 규명한다는 뜻에서 붙인 용어로 경험을 통해서만 농업지식을 얻는 동양의 경험농학(經驗農學)과 대칭되 는 용어다.

쓰다는 일본에 돌아와 서양농학을 소개하는 농업잡지도 발행하고 흥 농사(興農社)라는 농업학교도 개설하였으며 농업삼사(農業三事)라는 서양농학서도 편찬하였다. 안종수가 만난 것은 바로 이 쓰다였다. 쓰다는 안종수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자신의 실험농학 지식을 안종수에게 친절히 전수하면서 안종수가 귀국할 때는 일어로 된 서양 농학잡지와 일본농서 등을 있는 대로 모두 기증하였다.

쓰다가 안종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아마도 장차 안종수를 통해 그가 신봉하는 개신교를 한국에 선교코저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쓰다가 족자에 쓴 예수의 산상보훈을 선물하였을 때 안종수가 거절하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안종수는 쓰다의 실험에 바탕을 둔 서양농학을 우리나라에 도입함이 시급한 구국의 길임을 인식하고 5개월간 두문불출하며 편찬한 농서가 1881년 12월에 완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농학서 농정신편(農政新編)이다.

그 내용은 식물도 호흡을 하되 뿌리에서도 하며 식물도 암수가 만나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그리고 영양과다로 위로 곧게 웃자란 가지는 질소과다로 열매를 맺지 않으니 구부려 도장을 억제함으로서 탄소 함량을 높여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것 등이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식물생리적 설명에다 현미경으로 확대한 벼꽃이나 보리꽃 그림 등이 있어 이해하기 쉽도록 편찬되어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제1권의 토양물리와 토양화학에 관한 풀이였다. 돋보이는 것은 화학용어인 마그네슘, 인산, 유산, 규산, 산화철, 소다 등이 풀이된 것이다.

이로서 우리 농학에 비로소 화학이 침투한 것이다. 이 「농정신편」에 서문을 쓴 분은 후일 학부대신이 된 신기선(申箕善)으로 "도(道 공자 맹자의 도)는 만고에 변할 수 없어도 기(技)는 비록 오랑캐의 기술이라도 국민에게 이롭다면 도입해야 한다."고 썼지만 이 「농정신편」은 곧장 인쇄 배포될 수 없었다. 서양농학은 예수교 문명의 소산이라 서양농학을 도입하면 뒤따라 사교(邪敎 예수교)가 들어와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기우때문이었다.

그 후 이 오랑캐의 농서는 3년 반을 끌다가 지석영 등 개화파의 건의 가 여물어 1885년 5월에 가서야 국가가 4백부를 인쇄 배포하고 1895년 10월, 그리고 일제의 식량증산책으로 1931년에 일제총독부가 거듭 인쇄 배포되어 널리 영농교재로 활용하게 되고 화학이 농학의 한 부분이되었다.

농업교육에서 화학이 한 과목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04년에 개교한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에서였고 1909년에 개교한 진주, 공주 등 6개 지방농업학교에서였다. 그 교재는 산질되어 현재 알 길이 없으나 화학비료에 관한 전문교재는 1909년에 김달현(金達鉉)이 편찬한 응용비료학(應用肥料學)으로 필자 기증으로 농촌진흥청에 소장되어 있다. 이로서일제강점기 이전에 화학은 우리 농학 속에 한 부분이 되었다.

화학이 농업에 크게 기여한 분야는 개화기에 비롯된 화학비료였고 개화기 이후의 농약과 발효화학분야였다. 식물생리학이 발전되자 식물체를 분석하다보니 작물마다 질소 인산 가리의 함량이 타 요소보다 월등히 높아 이를 작물의 요구대로 충족시켜주다 보면 종래의 유기질비료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질소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다.

이에 인공으로 화학비료를 만들어 작물의 요구에 응하는 첫 사례가 1905년 독일에서 개발된 질소비료공장이었다. 그 후 여러 품목의 각종 화학비료 생산 기술이 계속 개발되었는데 이 다양한 화학비료는 세계식

량공급에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가장 크게 기여한 셈이다.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 초기에 서울과 부산에 영세한 규모의 화학비료공장이 있었다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암모니아는 독가스로도이용할 수 있어 일제는 조선에 비료공장 설립을 꺼려 왔다고 한다. 그러다가 1931년 만주 침략을 앞두고 그 전진기지인 조선의 경제기반을 다지고자 1927년에 함경남도 함흥에 대규모의 질소비료공장을 건설하였다. 조선의 질소비료 80%는 이 공장에서 생산 공급하였다고 한다.

광복 후 특히 동란 후의 한국은 극심한 비료부족에 시달리다가 1964 년 삼성이 대일차관으로 울산에 한국비료를 건설하였으나 삼성의 사카 린 밀수가 탄로나자 여러 곡절 끝에 회사를 국가에 헌납하였다.

그 후 충주비료를 거쳐 1970년대에 영남화학, 남해화학 등의 대규모 화학비료공장이 속속 건설되어 화학비료 수급의 어려움은 해소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2.8. 개화기에 우리 농업을 도와준 외국인들

개화기에 외국인들이 우리농업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었을까?

이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은 대략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의 부류는 조선조 말기에서 대한제국시대 우리정부가 필요로 하는 외국의 전문가들을 자주적 결정으로 우리가 초빙한 경우이며, 둘째의 부류는 대한제국이 초빙은 하였으되 그 이면에는 일제의 힘에 의한 피동적 초빙의 경우이다.

세 번째 부류는 정부가 전혀 관여한 바 없이 선교목적으로 우리나라

에 주재하면서 농원을 경영하거나 자기자본을 가져와 기업적 농원을 경영함으로서 부수적으로 우리 농민이 이를 보고 배우게 된 불로소득의 경우들이다.

첫째부류에 속하는 외국인들을 들어보면 인조실록에 인조 23년 (1645) 볼모로 청나라에 가있던 소현세자가 돌아오면서 중국의 채소재 배 기술자(菜園夫) 2인을 데려온 사실이 있다. 궁중에 양질의 채소를 조 달코자 데려온 것으로 믿어지나 이것이 우리 역사상 외국 농업기술자를 초빙한 최초의 기록이다. 개화기인 1884년에는 독일인 매텐스 (M.Maetens 麥登司)가 조선 조정의 초청으로 당시의 국영기업인 잠상 공사(蠶桑公司)의 견직(絹織) 고문으로 초빙되었다. 추천인은 독일인으 로 개화기구였던 통리아문(統理衙門)의 협판(차관)으로 있던 묄린드로프 (Möllendorf, Paul George Von 穆麟德)였다. 그러나 잠상공사는 낯선 기업경영의 부실로 수년 후 문을 닫았다. 또 1888년에는 영국공사의 추 천으로 제프레이(R. Jaffray 爵佛雷)가 1884년에 개설한 농무목축시험 장(農務牧畜試驗場)의 고문으로 초빙되어 농사시험지도를 하면서 2년제 농업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중 전염병으로 부임 1년 만에 갑자기 사망하 였다. 또, 미국인 크룸(Raymond Krumn 巨廉)은 1894년 미국 공사의 추천으로 토지측량기관인 양지아문(量地衙門)의 고문으로 초빙되었으나 그 측량실적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

조선정부는 1895년 강화도 갑곶이에 해군사관학교격인 한 학년 30명의 조선수사해방학원(朝鮮水師海防學院)을 개설하고 영국인 해군대위코웨이를 교수로 초빙하였는데 그의 부인이 영국에서 순무씨를 가져와주택 인근에 재배한 것이 오늘날 강화순무의 기원이 되었다.(조선일보이구태 코너)

1898년에는 불란서인 농학자 쇼트(M.Shott 蘇特)가 주한 불란서 공 사 플랑시(Collin de plancy 葛林德)의 추천으로 종목국(種牧局 농무목 축시험장의 후신)의 고문으로 초빙되었으나 1902년 젖소 20두가 전염 병으로 모두 폐사하자 그 책임을 물어 그해 10월 해촉하였다. 그는 재임 중 현 광진구 자양동(락천정 일대)에 있던 종목국의 축산시험 부분을 도 심에 가까운 신촌역 근처로 옮긴 사람이다.

1904년에는 일본인 아까가베(赤壁次郎)가 농상공학교 농과교수로 초 빙되었다. 강의 통역은 일본 구마모도(熊本) 농업학교 출신의 이장로(李 章魯)교관이 담당하였다. 아까가베는 1906년 일제가 권업모범장(농촌진 흥청의 전신)을 개설코자 할 때 현 수원시 서둔동이 적지라고 선정한 사 람이다. 또 같은 1904년에 일본인 수의사 스가누마(管沼源之助)가 경성 부 공수의(公獸醫)로 공중위생을 담당한 고문으로 초빙되었으나 그 실적 은 알 수 없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류의 외국인들은 1905년 을사조약이후 일제 통감부가 설치되자 사실상 이 통감부가 선임한 일본인들을 대한제국이 피동적으로 위촉 임명한 외국인들이다. 일제 통감부는 1906년 혼다(本田幸介 독일유학자, 축산전공)외 16인을 권업모범장 개설요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이들은 1907년 권업모범장이 정식으로 개장되자 우리정부가 임명한 농사시험연구의 기간요원이 되었고 혼다는 장장이면서 1908년부터 농상공부 농림학교(현 서울대 농대의 전신)의 3대 교장을 겸임하였다. 또 같은 1906년에 오시기리(狎切祐作) 등 4인의 일인 농학자가 뚝섬에 개설하였던 원예모범장(1910년 수원 권업모범장에 흡수통합) 연구요원으로 초빙되었고 같은 1906년 일본인 도요다(豊田眞理)외 6인의 일인 농학자들은 농상공부 농림학교의 교수로 초빙되어 농업교육에 종사하였다.

1907년에는 일본인 스미요시(住吉正喜) 등 12명을 농상공부 기술행정요원으로 초빙하였고 같은 해 미야모도(宮本政蔣) 등 4인을 권업모범장에, 하야시(林弛作)를 원예모범장의 연구원으로 추가 초빙하였으며,

1908년에는 일본인 기시(岸秀次) 등 2인을 농림학교 교수요원으로 추가 초빙하고 이노(井野勇太郎) 등 5인을 권업모범장 연구원으로 재추가 초빙하였다. 또 1910년에는 사와미야(澤宮四郎)를 농림학교 교수로 재추가 초빙하여 을사조약(1905) 이전에 7인, 을사조약 이후에 58인 등 모두 65인의 외국인 농학자 또는 농업기술자들을 초빙하였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어려운 정부 재정임에도 고액 급료 이외에 주택비와 연료비, 그리고 부임 및 귀국 여비까지 모두 우리정부가 부담하였다.

이상에서 밝힌 외국인 초빙의 특징을 요약하면 을사조약 이전에는 주한 해당 외국공관장의 추천을 받아 우리의 자주적 결정으로 대부분 구미제국의 인사들을 초빙하였고 그 이후에는 일제의 영향 때문에 모두 일본인 일색으로 초빙되었다. 또, 대부분 농사시험연구나 농업교육에 필요한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농업의 과학화나 서구의 신농업기술 도입이우선적으로 필요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부류는 우리정부와 상관없이 선교 목적으로 왔거나 기업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농원을 경영하거나 새로운 농작물의 품종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농업에 기여한 외국인 들이다. 조선농업발달사를 보면 선원(船員)으로 우리나라를 왕래하던 성명 미상의 중국인 선원이 선원을 그만두고 1887년 인천에 채원(菜園)을 개설하였다. 채원경영을 하면 성공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산동성에서 속이 노랗게 차는지부(芝罘)라는 품종의 결구(結球) 배추씨를 가져와 재배 판매하였는데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속이 차는 결구배추의 재배 기원이 되었다 한다.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속이 노랗게 차는 결구배추가 없었던 것 같다.

1889년에는 캐나다인 선교사 펜위익(M.C.Fenwick 한국명 片爲益)이 양배추, 셀러리 등 서양채소 종자를 가져와 황해도 소래(蘇來)에서 채소농원을 경영하다가 1896년부터는 원산에 미국의 사과와 배나무 묘목을 들여다 과수원을 경영하였다. 또 황성신문(皇城新聞 경성신문의 후

신) 광무 6년(1902) 5월 29일자 과수수리(果樹收利) 제하의 기사를 보면 "원산항에 거류하는 영국인 모씨가 넓은 택지를 구입하여 능금과 포도 등 과수를 많이 재배하였는데 매년 이익이 2천 원이 넘는다 하더라." 하는 기사가 있다. 이 영국인은 아마도 1880년에 개항한 원산세관에 초빙되어온 관세고문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의 2천 원은 목수(木手) 10년간의 월급과 맞먹는 액수라 하니 꽤 큰 돈이다.

또 1892년에 캐나다인 선교사 하디(R.A.Hardie 河鯉泳)도 원산에서 미국종 사과와 배나무 묘목을 들여다 과수원을 경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01년에는 일본인 하라다(原田鐵策)가 일본에서 사과 왜금(倭金), 축(祝), 홍옥(紅玉), 홍괴(紅魁) 등의 묘목을 가져와 평안남도 남포(南浦)에서 사과농원을 경영하였고 같은 1901년 불란서인 신부 안토니오 곰베루(공안국)는 미사 때 쓰는 포도주를 만들고자 안성 구포동 성당에 포도품종 마스켓을 가져다 재배한 것이 안성포도의 기원이 되었다 한다.

1902년에는 제주에 와있던 불란서인 신부 에멜타케가 제주에 자생하는 왕벚꽃나무를 일본에 와있던 식물학자로 신부인 불란서인에게 알리자 그가 감사한 나머지 일본에서 개량된 중국 원산의 온주밀감(溫州蜜柑)묘목 14그루를 보내왔는데 이것이 제주의 재래품종보다 우수한 오늘날의 제주감귤의 원조가 되었다.

1904년에는 일본인 모리시다(森下仙吉)가 일본에서 사과 홍괴와 중성자(中成子) 품종, 그리고 배 명월(明月)품종 등의 묘목을 일본에서 가져와 원산에서 과원을 경영하였는데 이로써 앞에서 밝힌 세 사람까지 모두 4개의 농원이 원산에 개설된 셈이다. 원산은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교육기관인 원산학사(元山學舍)가 개교하여 서양농학서인 농정신편(農政新編)을 교재로 쓴 바 있는데 이러한 신식교육에 4개의 농원개설 등이 농업선진지가 되어 현재 북한 제일의 농대가 평양에 있지 않고 원산에 있게 된 원인의 하나가 아닌가 여겨진다.

또 1904년에는 일본인 가게야마(影山秀樹)가 사과 홍괴, 축, 유옥(柳玉), 홍옥 등의 묘목을 일본에서 가져다 대구에서 과원을 개설함으로서 대구 능금의 기원이 되었고 대구가 사과 명산지가 된 것이며 1905년에는 일본인 후지다(藤田明)가 일본에서 사과 홍괴, 축 등의 묘목을 가져와 황해도 황주에서 과수원을 개설함으로서 황주가 사과 명산지가 되는 기원이 되었다. 또 같은 1905년 일본인 도가와(戶川龜喜相)는 일본에서 품종미상의 사과와 배 묘목을 가져와 경남 구포에서 과수원을 경영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1906년에는 일본 마쓰후지(松藤田六)가 일본에서 배금촌추(수村秋), 명월 적용(赤龍) 품종 등의 묘목을 들여와 전남 나주에서 배나무 과수원을 경영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나주 배 명산지가 된 기원이다.

그 후 1911년에도 불란서인 신부가 일본에서 다시 개량된 온주밀감의 묘목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으나 신부의 성명이나 그루 수는 밝혀져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산야에 널리 분포되고 있는 북미 원산의 아카시아 (acacia)나무는 독일총영사 크루거가 1915년 데라우찌(寺內正毅) 총독에게 권고하여 중국 산동성 친다오(靑島)에서 수만 그루의 묘목을 들여와 부지공사로 붉게 노출된 용산의 일본군 사령부 부지에 사방용으로 심은 것이 최초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아카시아나무 재배의 기원이다. 그러나 이때 프랑스어 학교장이었던 에멜마텔은 총독에게 아카시아가 번식력이 지나치게 왕성하여 원하지 않는 곳까지 자라나가니 심지말라고 권고하였으나 허사였다는 일화가 있다. 아카시아는 광복후 산림녹화의 좋은 조림수(造林樹)였고 현재 목재나 연료뿐 아니라 밀원(蜜源)식물로 더욱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1918년에는 경성(서울)수사원(修士院)에 와있던 독일인 신부 퀴겔겐 (具傑根 1884~1964)이 꿀벌 기르기에 관해 양봉요지(養蜂要誌)라는 최

초의 현대식 양봉교재를 편찬, 150부를 인쇄 배포하였다 한다. 그 내용은 독일식 양봉기술이다.

또, 현재 잘 알려진 임실(任實)치즈는 1967년 임실성당의 지정환(디디에세스테벤스)신부가 산양 두 마리로 시작한 낙농(酪農)이 그 기원이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상에서 필자의 비망록에 틈틈이 기록해 두었던 외국인들의 활동을 간단히 여기에 초록하였다. 그 외국인들 중 특별히 고마운 분들은 우리정부의 부담 없이 스스로 찾아와 새 품종의 농원을 경영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시범농가나 전시농원의 역할을 하게 한 선교사들이다. 결구(結球)배추, 사과나 배의 여러 신품종 도입과 명산지 조성, 안성포도, 강화순무, 온주밀감, 밀원식물이 된 아카시아, 임실치즈 등이 모두 외국인들에 의한 것이며 농원경영의 기법(技法)도 이들이 선도한 것이었다.

5.16후 경제개발기였던 '60~'70년대 농촌지도의 한 방법이 수많은 시범포, 전시포, 모범농가 조성이었다. 시각을 통한 기술보급은 전달이 빠르고도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그 역할을 선교사 중심의 외국인들이 개화기에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우리농업의 근대화를 선도하였다. 이러한 모범농가를 통한 시각적 농촌지도는 우리 선인들도 일찍이 알았던 것같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재정경제규정인 호전(戶典)에 장려하고 권장하라는 장권(獎勸)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농업의 여러분야중 한가지라도 특이하게 힘써 잘하는 자(力業特異者)가 있으면 이를 본받도록다른 농민들에게 적극 권장하라는 조항이다. 5백 년 전에 이미 시범농가를 본받도록 농업의 시각적 교육을 권장한 규정이다.

그런데 개화기의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애석한 감을 금할 수 없다. 이 시각적 교육은 간데없고 일본은 외국문물을 적극 수용할 때 우리는 쇄국주의로 일관하였고 다섯 번의 종교탄압으로 처참한 사옥(邪獄)을 일 으켜 수많은 카톨릭 신자와 외국인 신부들을 학살하였다. 그 수준은 1801년 신유사옥(辛酉邪獄)의 경우 정조(正祖)의 이복동생으로 철종의 조부인 은언군(恩彦君) 부부까지 처형하는 혹독한 수준이었다.

역사에는 만일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하지만 만일 쇄국주의나 종교탄 압이 없었다면 선교사나 외국인들의 빈번한 왕래를 통하여 더욱 일찍이 더욱 다양하게 우리 농업의 근대화를 앞당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 2.9. 개화기 농학에 기여한 김가진(金嘉鎭)과 장지연(張志淵)

2020년은 재난의 해다. 강성 유행병인 코로나19의 만연과 이에 따른 세계사적 불황, 그리고 54일간의 긴 장마와 침수 및 태풍피해 등 여러가지 재난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임에도 일부 종교인들의 반사회적 활동이나 일부 인사의 친일몰이 등은 억하심정에서 하는 행위인지 알 수 없으나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옹졸함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존경받아오던 국가 유공자들을 작은 허물을 부풀려 패역의 무리니 토착왜구니 친일 비호세력 등으로 몰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그런 역사심판의 권리를 위임받았는지 알수 없으나 15,825명의 독립유공자들은 깃털만큼의 혐도 없단 말인가.지난 8.15 경축사에서 문대통령이 추켜세운 봉오동전투 승리의 주역인최진동(崔振東) 장군도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변절하여 일제에 거액을 헌금하고 일본군 토벌대의 선두에 섰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그에게주어진 건국훈장독립장을 취소할 수도 없지 않은가? 매사는 균형있게 평가하되 기여도가 큰 쪽을 택하여야 한다.

2009년 민간단체가 1,389명의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개화기 우리 농업에 크게 기여한 김가진과 장지연이 들어있다. 이에 그들의 개화기 농업에 기여한 활동을 밝혀 독자의 참고에 공하고저 한다.

그 중 김가진(金嘉鎭 1896~1922)의 약력을 살펴보면 그는 31세 때문과에 급제하여 규장각 참서관을 시작으로 사헌부 감찰, 통리군국사무아문의 농상사(農桑司)주사, 주일판사대신(駐日辦事大臣), 군국기무처의원, 농상공부대신, 황해도관찰사, 중추원의장, 다시 농상공부대신, 충청도관찰사, 대한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그에게 남작(男爵)의 작위를 주었으나 반납하고 비밀결사인 대동단(大同團)의 총재로 추대되어 상해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며임시정부요인으로 활동하다 중국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도 독립운동가다. 친일로 분류된 까닭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것인데 반납하고 독립운동을 하다 사망한 것은 참작이 안 된 것인가?

그의 이력중 개화기 농정에 기여한 점을 요약하면 첫째로, 개화기 농사시험 연구를 정착시켰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882년 한미(韓美)수호조약을 체결하고 1883년 그 답례로 11명의 외교사절이 미국을 방문하였다. 일행은 그곳에서 농사시험연구현황을 견문하고 돌아와 우리나라에도 농사시험의 필요성을 절감한 나머지 고종의 재정지원으로 1884년 농무목축시험장(農務牧畜試驗場)을 개설하였다. 미국의 젖소, 종마, 채소의 셀러리 등 3백여 종의 종자, 종축, 농기구가 이때 도입되었다. 초대장장은 사절의 일원으로 미국에 갔던 무관 최경석(崔景錫)이었으나 그가 갑자기 병사하자 농상사(農桑司) 당상으로 재직 중이던 김가진이 뒤를 이어 시험연구를 정착시키면서 고문으로 영국인 기사(技師) 재프레이(R.Jaffray)를 초빙토록 조치하였다. 또, 시험장의 명칭을 종목국(種牧局)으로 변경하고 시험장의 소속을 황실 소속에서 통리군국사무아문 농상사 직속으로 하며 정식 정부기구화 하였다.

둘째로, 김가진이 두 번의 농상공부대신이 된 것이다. 첫 번째는

1895년 4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133일간이며 두 번째는 1904년 3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163일간으로 두 번의 재임기간을 합쳐도 모두 10개월 뿐인 단기간 이었다. 그래도 이 경우는 당시로서는 긴 기간이었다. 1898년에는 1898년 4월 24일부터 1899년 3월 14일까지 만11개월 사이 무려 11명의 농상공부대신이 교체되어 평균 1개월간 재임하는 망국적 교체였기 때문이다. 김가진이 두 번이나 농상공부대신에 재임한 것은 그가 농정에 일가견이 있는 달인으로 객관적 정평이 있었기 때문이라 믿어진다. 그것은 지난날 농무목축시험장 정착의 경력과 주일판사대신으로 4년간 일본에 주재하는 동안 일본이 선진농법을 가능케 한일본농정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 믿어진다.

셋째는, 개화기 서양농학을 도입코자 농서편찬을 선도하였다. 1904년 말 장지연(張志淵)이 농학신서(農學新書) 상하권을 편찬하였는데 그 말미에 "농부대신(農部大臣)이 신농서를 편찬토록 명하여 인쇄에 넘길 무렵 로일(露日)전쟁으로 국내외가 복잡한데다 대신마저 교체되어 인쇄하지 못하였다."는 구절이 있다. 이때의 농상공부대신이 바로 김가진이다.

넷째는 김가진이 우리나라 잠업진흥에 기여한 공적이다. 농상공부는 1901년 4월 잠업과에서 잠업시험도 할 수 있도록 잠업과시험장을 병설하고 시험연구, 잠종생산을 겸하면서 2년제 잠업강습소(100명)도 겸하게 하였다. 강습소 양잠교재로 후일 보성전문교장이 된 신해영(申海永)이 1901년 잠상실험설(蠶桑實驗說)을 편찬하였는데 표제를 김가진이 쓴 것으로 보아 시험장과 강습소 개설을 주도한 것도 김가진이 일본을 본떠추진한 것으로 믿어진다. 김가진이 1904년 다시 농상공부대신이 되자 잠업과시험장은 잠상(蠶桑)시험으로 분리독립 시켰고 대신 퇴임 후에는 몸소 장장이 되어 잠업진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신을 두 번이나 거친 분이 산하기관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일본도 우리와 같은 농업국임에도 우리보다 한발 앞서 서양문물을 도

입할 수 있었던 것은 잠업진흥으로 대량의 생사(生絲)를 유럽에 수출하여 이에서 발생한 수출대전이 일본을 근대화하는 재정적 기초가 되었기때문이다. 김가진이 4년간 일본에 머무르면서 일본의 잠업을 배워 우리나라도 근대화의 힘을 잠업에서 얻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의 서구식 신농서 편찬을 살펴보면 그는 31세 되던 1894년 진사가 되고 1896년 고종의 아관파천이 일어나자 환궁을 요청하는 만인소(萬人疏)를 기초하였다. 1897년 내부주사(內部主事)가 되었으나 곧 사임하고 1898년 9월 황성신문(皇城新聞)이 창간되자 기자로 활약하였다. 1899년 시사총보(時事叢報) 주필을 거쳐 1901년 황성신문 사장이 되었다. 이 황성신문 1905년 11월 20일자에 그는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유명한 사설을 썼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乙巳條約) 때문이다. 그 내용은 국권침탈의 조약을 폭로하고 일제침략과 을사오적을 규탄하며 국권회복을 위한 국민총 궐기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이 일로 그는 투옥되어 65일 후 석방되었으나 황성신문은 정간되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자 동참호소문을 신문잡지에 계속 기고하였다.

1908년 2월에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 그곳에서 발행하던 해조신문(海潮新聞)의 주필이 되었으나 재정난으로 신문이 폐간되자 상해 남경등지를 유랑하다 귀국하였다.

1909년 진주에서 발행되는 경남일보 주필로 초빙되어 언론구국운동에 종사하다 1910년 8월 일제가 나라를 병탄함에 황현(黃玹)의 절명시(絶命詩)를 경남일보에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신문이 폐간되자 활동무대를 잃고 1911년 이후 향리에 칩거하다 1921년 마산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이력으로 보아 친일인명사전에 오를 까닭이 없는데 구명의 방편상 순간적 변신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친일인사로 등재된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장지연은 언론에 종사하면서 생전에 4종의 신농학서를 편찬하였다. 그중 1909년에 출판된 소채재배전서(蔬菜栽培全書)를 보면 이는 우리나 라보다 한발 앞서 서양의 채소재배법을 도입한 일본의 채소재배 교재를 원형 그대로 번역하여 만든 책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믿는 까닭은 일본 식 용어를 우리용어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직역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 컨대 민들레를 일어식으로 포공영(蒲公英), 대단히를 비상(非常)히, 시골 사람을 토인(土人), 지붕을 옥근(屋根), 채소를 소채, 손질을 수입(手入), 솎음질을 간인(間引) 등 일어식으로 직역하였기 때문이다. 또 번역이 잘 못된 곳도 있다. 예컨대 우엉은 배수가 잘되는 모래질 땅이 재배적지인 데 반대로 토양 중에 물이 정체된 곳이 적지라고 한 것들이다. 그래도 우 리나라 최초의 이 채소재배 전문농서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신라가지. 발해가지, 의림지(義林池) 순채(蓴菜), 신라박하 등의 품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종래에 우리나라에 없던 온상(溫床)육묘법이 처음으 로 소개되었다든가 채소의 촉성재배법이 풀이된 것은 처음으로 소개된 신농업기술이다. 또, 십자화과 채소의 잡종강세(雜種强勢)나 인공수분 (人工授粉) 그리고 토양의 기지(忌地)형상 등을 풀이한 것도 처음으로 소 개되는 서양농법이다.

또, 화학비료에 인산질 비료로 과린산석회나 가리질비료 등을 소개하고 채소농약으로 제충국(除蟲菊)이나 담배 삶은 물, 그리고 비눗물이나유황가루, 석유유제(石油乳劑), 고래기름의 사용법을 풀이한 것은 조선시대 농서에 없던 새로운 채소 농약이다. 이러한 새로운 농업자재의 소개나 새로운 농법의 풀이는 이 책이 지니는 장점이면서 농업사적 의미가큰 내용들이다.

장지연은 또 신농학서로 농학신서(農學新書)와 화훼원예를 다룬 위원 화훼지(韋園花卉志), 그리고 위암화원지(韋庵花園志)를 편찬하였는데 출 판이 안된 채 그 원고가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위원(韋園)이나 위암(韋庵)은 장지연의 호(號)다. 농상공부대신의 위촉으로 1904년에 편찬한 농학신서(農學新書)의 특이한 내용을 요약하면 토성(土性) 구별에서 중국식 화학기호를 표기하고 있어 일본의 신농서뿐 아니라 중국의 신농서도 이책 편찬에 참고한 것 같다. 예컨대 산소(〇²)를 양기(養氣), 수소(H²)를 경기(輕氣), 질소(N)를 담기(淡氣), 탄소(C)를 탄기(炭氣)로 표기하였기 때문이다. 제2권의 분저(糞苴)법은 각종 비료풀이, 제3권은 밭갈이, 제4권에서 볍씨의 염수선(塩水選)이 처음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5권은 여러 곡식의 품종명, 제6~8권에 종예(種藝), 제9권에 과수, 제10권에 식물총론, 제11권에 수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위원화훼지」에는 국화, 치자화, 파초, 월계꽃, 옥잠화, 한연(旱蓮)화, 금계(錦葵)화, 채승(彩勝)화, 적앵(赤櫻)화(코스모스), 철단화(鐵團花) 등 10종의 꽃나무를 순한문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편찬년도는 미상하다. 또「위암화원지」는 국한문 혼용으로 기록하되 화훼각론식으로 영춘화(迎春化 개나리), 신이화(辛夷花 붓꽃), 산다화(山茶花 동백), 근화(槿花 무궁화) 등 모두 169종의 화훼작물을 상하(上下) 2권으로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다.

요컨대 이상에서 밝힌바와 같이 김가진은 농정분야에서, 장지연은 신 농서 편찬에서 개화기 우리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한 인사들이 확 실함을 그 근거를 들어 이에 밝히는 바이다.

## 2.10. 전환기 농업의 고랭지채소와 직거래장터

농촌진흥청은 1907년 5월 15일에 개장한 수원권업모범장 개설 100 주년을 기념하여 2007년 모두 12권으로 구성된 '한국농업 근현대사'를 발간하였다. 모두 130여 명이 분야별로 집필한 방대한 내용이다.

필자는 한국농업사학회를 대신하여 그 발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제11권까지는 우리농업의 정사(正史)를 수록하고 제12권에는 정사를 뒷 받침하는 숨은 비화(祕話)들을 수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농업사를 연 구하다보면 대부분 그 서술 내용이 성과나 결과 위주로 풀이되어 있어 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이면의 노력이나 경위가 생략된 게 보통이다.

그러나 필자의 행정 경험이나 농업사 연구과정을 되돌아보면 후진들이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성과나 결과 못지않게 성과나 결과를 가져온 이면의 과정이 더욱 궁금하였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그것이 역사학도나 후진들에겐 역사 지식의 핵심일 수도 있었다. 원인이 기술되어야결과의 당위성이 더욱 확실하고 정당성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편찬된 제12권의 '농정비화'는 집필진이 모두 1960년 대 이후에 활동하던 분들이라 경험한 내용이 1980년대 전후의 현대농정에 관한 비화들이다. 그러나 이 시기가 우리 농업과 식생활의 격변기라고 할 정도의 전환기라서 후진들에겐 그 내용이 간절히 필요한 역사지식일 수도 있었다. 이 제12권에는 모두 88개의 비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농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두 편의 내용을 초록 검토함으로서 그 내용이 전환기 농업의 상징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 까닭은 이 무렵의 농정 중 농산물유통이 가장 뒤떨어진 분야였고 그로 인하여 농정의변화과정을 가장 민감하게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후일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한 김영욱 씨의 '직거래장의 난립'이란 소제목의 글을 초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김대중)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였다. 인수위원회 보고사항에 농산물 직거래대책이 우선순위에 올라있었다. 대통령 당선자가 농산물의 유통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직거래가 실

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라는 것이다. 직거래 실천계획을 마련 하여 일일보고체계를 갖추라는 지시도 있었다.

직거래 광풍이 불 것이란 예감이 들었다. 문민정부(김영삼) 초기에도 농산물의 직거래를 강력 추진하다가 유야무야 한 적이 있어 그때의 문제점 분석과 외국의 사례 등 새로운 직거래방안을 마련하느라 유통정책국은 경황이 없었다.

교수 출신의 김성훈 장관은 직거래와 유통개선에 직을 걸겠다고 공언하면서 독려하였다. 특히 직거래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수축협의 금융점포와 같은 공적기관에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하고 과천정부종합청사에도 직거래장터를 개장하라고 하였다. 직거래 모델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총괄 지원하며 농협이 운영하는형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직거래의 법적장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법의 추진은 재경부에서 하기로 하였다. 직거래장터개설은 공문 협조와 협의회를 통하여 촉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면서 장터개소수를 늘리고 거래물량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이러다보니 직거래장터가 난립하게 되었고 비효율적이고 경제적 효과도 떨어진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과천청사 직거래장터는 과천시청 앞 공터를 이용하고 운영은 과천농협이 하되, 총괄 연출은 농림부가 하는 형태로 1998년 4월 17일 개장되었다. 장터 운영과정에서 유통마진이 줄고 판매가가 시장보다 낫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입비용을 감안하면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나타났다. 곳곳에서 직거래장터가 이벤트 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부작용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직거래 모델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중략……

직거래의 한계와 역기능을 알면서도 이를 제기하지 못하고 밀어붙임 으로서 시행착오를 해온 공직자의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거 래에 관하여 자문하고 조언할 유통전문가들 역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점은 비난 받아야 한다……중략……

그 많던 직거래장터는 현재 다 어디로 갔나?……중략……직거래장터를 이용하던 생산-소비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팔고 사고 있나?"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비화는 김대중 정권 직후 직거래장 실패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농산물의 유통은 생산, 수집출하, 도매, 소매, 소비 등 여러 단계를 거치 는 게 통상이다.

김 대통령은 그 과정의 일부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막바로 연결하여 유통비용을 축소함으로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코자 직거래장을 구상한 것이다. 이 직거래 구상을 촉발시킨 것은 그 무렵 생산자와 소비자 가격의 차이가 어떤 농산물보다도 가장 컸던 한여름의 고랭지채소 때문이었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유통비용이 여러 단계에 걸친 중간상인의 폭리 때문이 아니라 유통 비용이 실제로 많이 든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지 않았다. 그런 까닭으로 농림부도 대통령의 정책대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김영욱이 밝힌 대로 직거래장의 경험을 통해 그 역기능이나 유통실비가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은 후라도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자칫 항명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 직거래의 역기능이나 불합리함을 직언하기 어려웠지 않았나 여겨지기도 한다.

이제 김성훈 장관 후임이었던 故 김동태 장관의 농정비화로 '농수산물 유통 현장체험'이란 제목의 글을 초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농림부에 근무하는 동안 수출과장, 무역과장, 시장과장, 농산물 유통국장, 축산국장 등 유통정책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였다……중 략……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여름배추의 경우, 언론에서 연일 산지에서 배추가 헐값인데 소비지에서는 중간상인들의 폭리로 몇 배나 비싼 값으 로 사먹어야 한다고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여론이 비등하자 감사원에서 는 농림담당 감사관이 대관령에 가서 고랭지 배추의 수확과 상차(上車) 과정을 점검하고 허름한 런닝 차림으로 대관령에서 용산 청과시장까지 배추를 적재한 트럭을 타고 고랭지배추의 유통경로와 유통마진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

그 감사관은 작업이 어려운 경사지에서 배추를 수확하고 적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비용 뿐 아니라 대관령에서 서울까지 오는 도중에 비공식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목격하였다.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용산시장에 도착한 배추 트럭은 하역하기까지 다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용산 청과시장이 협소하고 무질서하여 효율적인 물류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하역을 기다리는 동안 배추는 상품성은 고사하고 밑에실린 배추는 거의 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근대적인 유통시설과 거래방식 등이 농수산물의 가격을 높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높은 유통비용 발생을 농수산물 유통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쳤다. 농림부에 재직하는 동안수없이 경험한 일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소비자, 언론, 정부의 원성을 상당부분 유통인들이 감당하는 억울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감사원의 고랭지채소 유통비 실측과 유통인들이 그사이 억울하게 지탄받은 사정을 밝힌 것인데 이감사원의 유통비 실측도 도매시장까지만 하였지 도매시장에서 다시 소매상까지의 단계는 빠져있다.

여기서 잠시 고랭지채소가 농산물유통인이나 농정에 지탄의 대상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피고자 한다.

1977년 쌀 4,170만 석 생산으로 단군이래의 주곡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수출증진과 건설업계의 중동 진출 등이 겹쳐 외화 100억 달러 수출이 달성되자 국민소득이 늘면서 의식주 등 국민의 생활 수준도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되었다. 아마도 이 무렵이 우리 역사상 식생활이나 농업의 생산양식의 격변기가 아니었나 믿어진다.

먼저 식생활의 변화를 보면 국민 1인당의 쌀 소비가 차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육류소비가 일상화되기 시작하였다. 곧 명절이나 제삿날에 먹던 육류의 소비가 일상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통에 수요충족을 위해 1976년 쇠고기 1천 톤을 처음으로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삼겹살자급률이 50% 밖에 안 되는 원인도 이 무렵에 시작된 돼지고기 편중 선호가 원인일 것이다. 또 기름기 있는 육류의 소비증가는 신선채소와 자극적인 양념류의 소비수요를 짝지어 늘어나게 하였다.

자유당시절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넘어가던 채소나 양념류가 1970년 대 들어 행정의 주요대상으로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1960년대 말까 지만 하여도 농림부에 채소나 양념류 담당부서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고추의 경우 78년 계속된 가뭄으로 고추가 감산되자 세계시장의 건고추 출하 전량인 4만 톤을 우리나라가 모두 수입해 왔어도 고추가 부족하여 고추를 금추라 부르던 고추파동이 일어났다. 여기에 벼도열병이 그 무렵의 다수성 신품인 통일계 품종에 집중하여 발생하자 사법, 행정, 외무 등 고시3과 합격의 수재였던 장덕진 농림부장관이 경질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세상에 고추가 부족했다고 장관이 경질되는 일은 미처 경험해보지 않은 전환기 농업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인사조치였다. 이와 같은 식생활의 소비패턴이 바뀌고 육가공 등 식품의 산업화가 계속되자 농림부 산하에 비로소 식품개발연구원이 개설되고 60여개 대학에 식품공학과가 증설되었다. 뒤따라 급변하는 식품소비에 맞도록 하우스 재배 등 농업의 생산방식도 변화한 것이다.

이 시기 채소 소비패턴의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종래 겨울철에만 소비하던 김장김치를 한여름의 고온기에도 원하게 된 것이다. 예컨대 배추의 포기김치와 백김치, 무의 석박지 등이다. 이에 더하여 김치의 수출

수요가 겹치고 보니 서늘한 가을에 자라는 김장채소를 한여름의 고온기에도 생산 공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한여름에도 서늘한 곳은 교통이 불편한 산간지대일 수밖에 없고 알맞은 재배적지는 비탈진 계곡부에 한정되어 있다. 또, 생산된 여름철의 신선채소는 고온으로 신선도 유지가 어려운데다 낙후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하다보니 여러가지 어려움이 겹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감안하면 고랭지채소는 구조적으로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데도 그 내용을 분석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여름철이면 언론이 대서특필로 중간상인의 폭리를 매도해 왔고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무능함도 싸잡아 비난해 왔다. 그 결과가 김영삼 정부에 이은 김대중 정부의 직거래장더다. 그러나 정책상의 직거래장이라고 중간상이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막바로 직결시킬 수는 없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이유를 고랭지채소의 유통과정을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생산 자 수집 출하상, 도매상, 소매상의 단계별로 나누어 그 유통과정을 풀이 코자 한다.

생산자는 수집상에게 채소가 포장에 입모(立毛)상태에서 밭 상태로 팔게 된다. 이때의 용어를 "밭떼기"라 한다. 수집상은 경사진 밭에서 이를 거두어 공기소통이 잘되도록 망사주머니에 소포장하여 트럭 운반이 가능한 지점까지 지게 등의 인력으로 운반하게 된다. 여기까지 거두기(겉 잎제거, 뿌리 자르기), 망사주머니와 소포장, 트럭까지의 운반비, 상차비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 채소는 상호 마찰로 상하지 않게 일일이 트럭에 상차(上車)하는 과정을 거쳐 산간의 좁은 길을 벗어나 국도나 고속도로를 거쳐 서울의 청과시장이나 도매시장에 운반하게 된다. 이 과정에 상차비, 트럭운반비, 고속도로비, 하차비와 하치장비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사정에 따라 하차(下車)가 지체되면 김동태 장관이 밝힌 대로 적 재함 밑 부분에 실려 있는 배추는 하차하기도 전에 질식하여 물이 되고 만다. 그 손실비도 유통비용에 들어간다. 도매단계는 한 트럭의 배추가경매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소매상에 넘어가 운반과 소매과정을 거쳐소비자에게 전달된다. 한여름의 고온기 숨을 쉬는 신선채소는 그 무렵 저온 판매 시설이 없어 겉잎이 시들기 쉽다. 겉잎을 제거하면 물량이 줄어든다. 소매상의 운반비와 물량이 줄어든 비용에다 소매마진까지가 유통비에 포함되다보면 전체 유통비가 "밭떼기"로 생산자가 수취한 가격의 몇 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모르는 언론인들은 중간상인들의 폭리와 이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농림부를 싸잡아 매도하고 정치인은 직거래장을 정책화 한 것이다.

이 무렵은 1985년 현대화된 서울의 가락동 도매시장을 비롯하여 주 요도시마다 도매시장이 개설되었어도 초창기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던 농산물유통의 과도기였다. 현재 과거에 있던 수집 출하상, 도매상, 소매상 등 어느 과정도 빠짐없이 존재함에도 종래와 달리 말썽이 전혀 없는 것은 중간상들은 유통상 모두 필요불가결의 존재임을 인식한 결과 이며 그들의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어떤 역사적 현상은 그 사회의 수준이 필요로 하는 최선의 존재였음을 재인식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농산물 소비와 이에 따른 농업생산의 전환기적 현상이다.

#### 제3장

## 축잠고금

#### 차 례

- 3.1. 조선초기 마소의 대명(對明)교역
- 3.2. 조선시대의 우역사(牛疫史)
- 3.3. 원(元)나라의 제주목장 100년
- 3.4. 비싼 수업료 치른 대단위 한우목장
- 3.5. '70년대 양돈파동에서 얻은 것
- 3.6. 경제개발초기, 일거양득이었던 잠사업

# 3.1. 조선초기 마소의 대명(對明)교역

조선 태조 1년(1392)부터 태종 18년(1418)까지 3대에 걸친 왕들의 재임기간은 모두 27년간이다. 이 기간 중 조선왕조실록에 가축이나 들 짐승 그리고 맹금류 등 축정(畜政)이나 동물에 관련된 기록들은 모두 189개 항목이나 된다. 그러나 연평균으로 보면 1년에 겨우 7개 항목으로 농정(農政)의 타 분야에 비해 매우 희소한 편이다.

이 기록에 등장하는 가축은 소, 말, 양, 염소, 돼지, 개, 닭, 오리, 거위, 매, 꿀벌 등 11종이며 들짐승은 사슴, 노루, 코끼리, 기린 등 4종류다. 그러나 가장 빈번하게 기록된 축종은 말(馬)이며 그 빈도는 27년간

189개 항목 중 모두 233회 이상이나 된다. 한 항목 중에서도 두 번 또는 세 번씩 말이라는 용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 다음으로 빈번히 기록된 축종은 소로 모두 45회, 양이 10회, 돼지가 6회, 오리가 4회, 닭이 3회, 염소가 3회, 개가 3회, 거위가 2회 등이며 기타의 동물은 한 번씩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밝혀둘 것은 무엇 때문에 실록에 기록된 축종별 기록의 빈도를 살피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축의 명칭이 많이 기록된 가축일수록 당시의 축정의 초점이 집중된 가축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초기의 축정은 말과 소에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本稿)에서는 조선초기의 축정으로 마소에 관해서만 풀이코자 한다.

말의 용도를 먼저 밝히면 말은 승마(乘馬)용, 짐을 나르는 타마(馱馬)용, 통신용 치마(馳馬) 등으로도 쓰이나 조선시대에는 전투용 전마(戰馬)로의 역할이 가장 컸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마정(馬政)은 일관되게 국방을 담당하는 병조(兵曹)의 승여사(乘輿司)와 직속기관인 사복시(司僕寺)에서 담당하였고 각 도에서는 해당도의 병마절도사가 담당하였다. 만일 말이 가축으로의 역할이 더 컸었다면 일반 농작물과 재정경제를 다루는 호조(戶曹) 판적사(版籍司)가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제 조선 초기 말의 국가적 이용을 살펴보면 첫째가 말의 외교적 이용이었다. 예컨대 태조원년(1392) 10월 25일의 실록에 "정도전(鄭道傳)을 명경(明京 연경)에 보내 말 60필을 바치다."라는 기록과 태조원년 12월 계해일의 실록에 "사은사로 연경(燕京)에 가는 우인열(禹仁烈)이 말 30필(匹)을 바치고 왔다."는 기록들을 시작으로 태조3년(1394)9월 무오일의 실록에 "중추원부사 손흥종(孫興宗)을 경사(京師 연경)에 보내 종마(種馬) 50필을 바치다." 하였다든가 태조 5년(1396) 6월 신축일의 실록에 "문하부사 권중화(權仲和) 등을 경사에 보내 좋은말(良馬) 12필을 바쳤다." 하였다.

태종 7년 9월 을해일의 실록에는 "세자(世子)가 명경(明京 연경)에 가서 황제에게 50필의 말을 바치고 명나라 동궁(東宮 세자)에게 10필을 바치다."라고 한 것과 같이 말은 연례적으로 중국에 공물(貢物)로 보냈는데이를 현대적 용어로는 외교용으로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말은 우리나라가 강대국인 명나라에 바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규모는 적어도 이웃 일본에서 공물로 받기도 하였다. 예컨대 태종 5년(1405) 6월 3일의 실록에 "일본의 지좌전(志佐殿)이 도군(道君)이라 이름하는 중을 보내 말 2필과 토산물을 왕께 바치다." 하였다든가 태종 8년(1408) 4월 10일의 실록에 "대마도주 종정무(宗貞茂)가 사신을 보내 말 3필을 바치다."라고 한 기록들이 그 예에 속한다. 이 경우 말은 이웃 나라간 선린외교의 매개체였다. 말의 외교적 기증은 비단 국제간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행하여졌다. 태조 4년(1395) 7월 갑진일의 실록을 보면 "제주왕자(濟州王子) 문충보(文忠甫)가 와서 양마 7필을 바쳤다(濟州王子文忠甫來獻良馬七匹)"라고 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문인 것은 제주왕자라고 기록할 만큼 이 시기 제주가 조선조정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섬지역 이었던가 하는 의문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이 시기 말은 누가 어떤 이유로 주든 누구나 싫어하지 않고 수용하는 값진 재화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간 이소사대(以小事大)나 선린외교의 손쉬운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말의 국제간 교역품으로의 이용이다. 태조-태종년간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말을 요구한 횟수는 모두 5회에 걸쳐 42,880두였다. 그 이유는 주로 명(明)나라에 쫓겨 몽고로 옮겨간 북원(北元)정벌을 위한 요구였다. 명나라의 그 요구는 강제성이 있었지만 일단 이 요구에 응해 보낸말에 대해서는 무상이 아니라 대부분 보상이 뒤따랐다.

강제성이 있었다는 뜻은 말 얼마를 언제까지 보내라고 일방적으로 통 보하였다든가 태종 1년 9월말 일만 필을 보내라고 하였을 때 4천 필을 보낼 무렵 일만 필을 오천 필로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을 명나라가 들어주지 않은 데서도 이해할 수 있다. 또 보상을 요구하거나 적절한 가격을 제시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말을 보내라는 징마(徵馬) 요구나 말 가격을 정하여 보내는 것 등 모두가 강대국인 명나라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최근의 무역관행에 비추어 보면 말의 정상적 교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일단 말을 보내고 그 대가를 지불해온대로 받은 셈이 되니 이를 일응 말의 교역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그러기 때문에 실록에도 징마(徵馬)라 하지 않고 역환마(易換馬)라하여 물물교역으로 바꾼 말이라고 표기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명나라에 보낼 말의 국내 수집은 기록은 없으나 제1차로 국영목장에서 가려냈을 것이다. 그와 같이 믿는 까닭은 고려시대 전마(戰馬) 육성을 위해 10개 국영목장이 있었고 태종 5년의 기록에 국마(國馬 국영목장의말)이라는 용어가 보일뿐 아니라 후일의 기록이긴 하지만 현종 4년 (1663)의 조선시대에도 138개소의 국영목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영목장에서 가려내도 부족할 경우 태조 3년 4월 을해일의 기록을 보면 현직 관료들이나 전직관료(散官)에게도 말을 공출(供出)토록 명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말들은 수집 되는대로 초운(初運) 500필 (匹), 이운(二運) 1,000필 하는 식으로 일정규모씩 일정간격으로 나누어보내되 도착지는 매양 중국의 요동(遼東)이었다. 보내는 시기는 명나라가 지정한 시기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럴 경우 통사(通事 통역)를 일시 유배시킨 경우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어려움은 실록상 기록이 없었다. 명나라가 정한 액수의 말이 모두 인도 되었을 때 명나라가 일 방적으로 정한 마가(馬價)가 현물로 보내져 왔다. 예컨대 태조 2년 (1393) 6월 경진일의 실록에 9,880필의 말을 보낸데 대하여 사면포(絲絲布 햇솜실로 짠 면포) 19,880필, 면포(鯀布) 9,880필을 현물로 보냈다는 통보(咨文)를 받고 우리 정부 중추원사 조림(趙琳)이 중국 요양(遼

陽)에 가서 이를 받아 가지고 와서 출품자들에게 출마수대로 나누어 주 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말 1필당 사면포 2필과 면호 1필씩이 된다.

또 태종 원년(1401) 9월 15일의 실록을 보면 명나라의 국자감생(國子監生) 송호(宋鎬) 등 4인이 면포(縣布) 9만여 필과 약재(藥材)를 용차(用車) 150량(輛)과 우마 3백 마리에 실어 가져왔다고 하였고, 태종 3년(1403) 5월 1일자의 실록을 보면 말 1천 필씩 일곱 번째(七運馬) 보냈을 때 단자(段子?) 1,500필(匹), 비단(絹) 13,000필, 면포 6,500필을 말 값으로 주고 가며 단자 928필, 비단 5,380필, 면포 308필을 더두고 가면서 역마(易馬) 909필을 추후에 보내주기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 세 가지 경우의 말 값이 면포나 비단 등 모두 현물로 결제 되었는데 그 말 값이 적절한 가격이었는지 아니면 억울하고 참기 힘든 헐값이었는지는 말 값으로 준 현물이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명나라가 강대국이라고 우리나라 말을 억울하게 무상으로 강탈한 것만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이에 더 추가할 것은 말을 요구대로 모두 보냈을 때 말값 이외에 명나라 황제가 우리나라 임금에게 치하하는 감사품(포상품)이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태종 8년(1408) 4월 16일의 실록을 보면 "명나라 사신황엄(黃儼) 등이 와서 역환마(易換馬) 3천 필을 모두 보낸데 대하여 그 사례로 화은(花銀 장식품) 40개와 저사(紵絲 모시실) 50필을 드렸다(呈)고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은 국가 간의 교역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국경을 넘어 매매된 것 같다. 태종 6년 2월 4일자의 실록을 보면 평안도 민간인이 압록강을 건너마필을 매매함을 금한다 하였고 또 동북면(함경도)의 말은 연령, 털빛 등을 기록한 마적(馬籍)을 만들어 그 말에 낙인(烙印)을 찍어 허락 없이 말이 왕래함을 금하며 이에 위반한 자는 베 50필을 벌금으로 거두어 이를

고발한 자에게 주고 마주(馬主)는 법대로 처단한다는 기록들이 있기 때 문이다.

조선초기에는 말 뿐만이 아니라 소(牛)도 명나라와 역환(易換)의 대상 이 되었다. 태종 4년(1404) 4월 18일자의 태종실록을 보면 "명나라 사 신 한첩목아(韓帖木兒)가 명나라 예부(禮部)의 외교문서를 가져왔다. 그 문서에 조선에 소가 많이 산출되니 갈이소(耕牛) 1만두를 요동에 보낼 것 이며 그 댓가로 소1두당 비단 1필, 포(布) 4필, 착(着?) 2부(部)를 이미 요 동에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조선조정은 같은 4월 28일 1천두 를 비롯, 매회 1.000두씩 10회에 걸쳐 동년 6월 16일까지 도합 1만두를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시절에 2개월 미만에 평균 6일 간격으로 기 다렸다는 듯이 1만두의 소를 압록강 건너 요동까지 송출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기동성 있는 작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로 보면 당시 태종의 업무 추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이 간다. 1970년대 낙농진 흥을 위해 외국에서 젖소를 도입할 때 선박이나 화물차로 도입했어도 이 렇게 신속히 도입할 수 없었다. 다시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11월 6일자 의 실록을 보면 명나라 사신 유경(劉璟)이 칙서(勅書 황제의 친서)를 가져 와 "갈이소(耕牛) 1만두를 보낸데 대하여 치하의 뜻으로 저사(紵絲) 30 필, 숙능자(熟綾子) 30필, 채견(彩絹) 1백 필을 상(賞)으로 가져왔다. 왕 은 이것을 조정 고관들에게 나누어 하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15세기 초 마소의 보호육성을 위해 조선조정은 어떤 시책을 베풀어 왔을까?

첫째는 우수한 종축(種畜)의 확보와 보호였다. 태종 7년(1407) 3월 29 일자 실록을 보면 사복시(司僕寺)에서 제정한 마정사목(馬政事目 마정규칙)에 "말을 모두 거세(去勢)하면 좋은 말의 씨가 절종될 위험이 있으니 거세하지 말 것이며, 병들어 거세하여야 할 말이라도 병조(兵曹)나 수령(守令)에게 고하여 심사를 받아 낙인(烙印)을 찍은 후 거세토록" 엄격 규정하

고 있다. 이는 현대 과학으로 양질의 유전자 보존을 위한 보호규정이다.

둘째는 마소의 증식이다. 태종 7년(1407) 11월 갑진일의 실록을 보면 "관찰사가 수령들의 근무상태를 평가하여 포폄(褒貶)할 때는 그 고을 마필의 번식여하를 참고하여 평가하라"고 하였다. 또 태종 6년 7월 9일의 실록을 보면 제주목장 사의(事宜 준수사항)에 "4세 이상의 암말은 10필당 7~8필의 새끼 말을 생산할 때 이를 상(上)등으로 평가하여 그 담당자를 영전시키고 5~6필을 생산할 때 이를 중등으로 하여 고실마(故失馬) 6 필에 한필을 보상토록 하고 4필 이하를 하등으로 하되 고실마 4필에 1필을 보상토록 규정"하여 마필증식에 힘쓰고 있다.

셋째로 마소의 보호육성이다. 마소를 함부로 도살하지 말라는 것이다. 태조 7년(1398) 9월 15일자의 실록을 보면 임금께서 "사사로이마소를 도살함에는 마땅히 이를 금지하는 법령이 있어야 한다." 하였고, 12월 무신일의 실록에는 "마소도살을 금하라."는 엄명이 내려졌다. 태조 4년(1395) 7월 1일자 실록을 보면 "금후 말린 말고기를 세공(歲貢)으로 바치지 말라." 하였는데 제주 풍속에 매년 12월이면 살찐 암말을 잡아 포(脯)를 만들어 진상한데 대하여 임금께서 마소 보호상 금후 이를 금한 것이다. 말고기 뿐 아니라 우유나 말젖(馬種)도 절약토록 하고 있다.

태종 16년(1416) 3월 임인일의 실록을 보면 "궁중 각 전(殿)에 올리는 우유와 말젖도 감하고 각 전 이외에는 일체 공급을 금하라."는 왕명이 기록되어있다. 모두 마소 보호 때문이다.

이 무렵에는 달단(韃靼)족의 유민인 화척(禾尺 재주놀음꾼)이나 양수 척(楊水尺 남사당패)들이 생업으로 마소를 훔쳐 도살하며 생활하였던지 태조 원년(1492) 9월 24일자의 실록과 태종 6년(1406) 4월 24일자의 실록에 "이들의 마소 도살을 금하여 마소를 보호토록 하되 유랑하는 그 들을 정착시켜 농사를 짓도록 유도하라."는 기록이 있다.

또 이 무렵에는 호랑이가 자주 마소를 물어죽였던지 태종 5년(1405)

5월 2일자 실록을 보면 "매도(煤島) 목장에 큰 호랑이가 침입하여 국마 (國馬)를 상하게 하였다. 이 무렵엔 외딴섬에도 호랑이가 있었던 모양이 다. 강화부사가 호랑이를 포획하니 태종이 상을 주었다."고 되어 있다. 상은 호랑이를 잡아 국마를 보호한 공로 때문이다.

이상 조선초기의 마소의 종축확보와 증식, 그리고 보호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그 방법은 비록 현대에 비하여 미숙한 점이 있으나 그 생각(사상)의 방향은 현재와 다를 바 없다. 문명을 향한 사고의 방향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다만 얼마나 더 과학적이냐 하는 차이 뿐이다.

이 글은 강면희(姜冕熙)가 실록에서 축정부분을 초록하고 번역하여 1973년 고대(高大) 농림논총 제13집에 게재한 내용을 필자가 체계화한 것이다.

### 3.2. 조선시대의 우역사(牛疫史)

이 글은 1965년 1월 조선학보(朝鮮學報) 34집에 기고한 미끼사까에 (三木榮)의 조선우역사고(朝鮮牛疫史考)를 요약한 것으로 최영진(崔永鎭) 이 쓴 '조선 초기 축산에 관한 연구(인천교대 논문집6집)'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소는 중앙아세아의 흑해 및 아랄해 연안 원산으로 6천여 년 전 가축화되어 우리나라에서 농경용으로 쓰인 첫 기록은 신라 지증왕 3년(AD502) 우경법(牛耕法)이 시행되면서 부터다. 농경사회인 조선에 있어서도 가장중요한 가축은 소였다. 그 뜻은 육축(肉畜)으로의 효용보다 농경용 역축(役畜)으로의 효용이 지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우역(牛疫 Rinder Pest)이라는 질병이었다. 바이러스에의한 이 질병은 청정지역에서 이병(罹病)될 경우 90~95%가 폐사(斃死)

하고 면역성이 있는 초원지대에서도 50~60%가 폐사하기 때문이다. 우역은 주로 소의 역병이지만 양(羊)이나 돼지 등 발톱이 두 개인 우제류 (偶蹄類)에도 이병되나 말만은 이 병에 이병되지 않는다.

이 우역의 주된 발생계절은 봄이며, 가을에도 발생하나 여름과 겨울에는 적게 발생한다. 이 병의 바이러스는 약간 건조한 층(層)에서는 55~60℃에서 한 시간이면 죽으나 습윤한 조직에서는 상온하에서 수주간에서 일개월 남짓 생존한다. 감염경로는 코를 통한 호흡기 점막이 직접적 이병경로이나 때로는 오염된 사료를 통한 간접적 이병의 경우도 있다. 이병된 증상은 체온이 40~42℃로 오르고 눈이 충혈 되어 눈물이 흐르며 코는 충혈 되고 콧물이 흐른다. 입안 전체가 충혈 되고 물집이 생기며 식욕은 없는데 심한 갈증으로 계속 물을 마시고 떨며 점액성 혈액의심한 설사를 계속하다 급격하게 쇠약하면서 호흡곤란중 수일 내에 폐사한다. 우역으로 인한 세계적 피해는 유럽에서 18세기 초부터 1882년까지 1억 8천만 두의 소가 폐사하여 심각한 식량난을 가져왔다. 1762년 세계최초로 불란서 리온에 수의전문학교(초기에는 소 전문)가 설립되어방역기술을 개발해 오다가 19세기 중기부터 예방접종에 관한 연구가 비롯되어 면역혈청이나 백신을 개발하면서 20세기에 이르자 우역의 세계적 발생은 온전히 종식되었다.

우리나라 우역에 관한 첫 기록은 고려사에 고려 인종(仁宗) 20년 (1142) 10월 "서남로(西南路) 주군(州郡)의 마소에 역병이 들어 일관(日官 천문담당관)을 보내 기양(祈禳)하였다."는 게 사상 첫 기록이다. 그러나 말에도 이병되었다는 면에서 이것이 우역인지는 의심스럽다. 또 같은 고려사에 충열왕 5년(1279) 12월 "경상도에 우역이 발생, 백정의 손을 빌어 도축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탄저(炭疽)로 믿어진다.

조선시대에는 정종(定宗) 원년(1399) 4월 신편집성마의방 우의방(新編集成馬醫方 牛醫方 서문 房士良)이 간행되었는바 우의방의 온역문(溫

疫門)의 내용으로 보아 우역이 이시기에 발생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중종 36년(1541) 2월조에 "평안도의 소가 병으로 4,106두나 죽었다. 황해도도 또한 그러하였다." 하였고 11월조에 "평안도 소가 병사한 내용은 8월 17일 보고 후 모두 1,909두이며 서울에서는 많은 돼지가 죽었다."고 되어 있다.

같은 1541년 11월 그 대책으로 "우양저염역병치료방(牛羊猪染疫病治療方 서문 權應昌)이라는 수의서를 간행, 각도에 반포"하였고 12월의 실록에 "강원도 각지의 관축(官畜)인 돼지와 함경도 각지의 관우(官牛)가많이 폐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조선에서 대 발생한 우역의첫 번째 기록이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선조 10년(1577), 이 해에 "팔도에 크게 역병이 발생하였는데 평안도와 함경도가 더욱 심하였고 마소 또한 역병으로 죽어 소가 없자 농부들은 인력(人力)으로 농지를 갈았다."고 되어있다. 선조 11년(1578)의 실록에는 "우역의 대 발생으로 가정 20년 (嘉靖 1541) 편찬한 언해우마치료방(診解牛馬治療方)이라는 수의서를 다시 발간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는 두 번째의 우역대 발생으로 제1회이후 37년 만의 대 발생이다.

또, 인조실록에는 인조 14년(1636) 6월 "여름에 평안도와 황해도에 우역이 크게 발생하였다." 하였고 7월에는 "우역이 계속 퍼져 경기를 거쳐 호서(충청)에 파급되었는데 이것이 백여 년 간에 세 번째 발생한 우역의 대 발생이다.

이 해 9월에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을 중간(重刊)하였는데 이 세 번째의 우역대 발생은 제2회 발생 후 58년만의 일로 평안 황해에서 경기를 거쳐 충청도로 전파된 것이다.

인조 22년(1644)에 간행된 우역방(牛疫方)에 쓴 이식(李植)의 후발(後跋)에 "인조 15년(1637)과 16년 우역이 치열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

은 우역으로 소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자 인조 16년(1638)의 실록에는 "비변사의 랑관 성익(成釴) 일행을 몽고에 보내 181두의 소를 구입해와 평안도 각 군현에 배부하였다."고 되어있다. 또 같은 이식의 후발에인조 22년(1644) "우역이 발생하였다."는 기록과 12월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에 새로 개발된 약간의 처방을 보태어 교서관(校書館)에서 이를 인쇄, 각 고을에 배부하였다 하였는데 이는 네 번째의 우역 대발생으로 제3회 발생 후 7~8년만의 발생이다. 이를 병자호란의 여독으로 재연된 것이라고 본다면 앞에 발생한 세 번째 대 발생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있다. 이때 간행된 우역방(牛疫方)은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을 증보한 4판(版)에 해당한다.

인조 23년(1645)의 인조실록에 함경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중국 동 북부에 위치한 영고탑(寧古塔)에 우역이 우심하여 함경북도 북단에 위치 한 온성(穩城)의 우시장을 철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국경인 두만 강을 우역 방호선으로 한 첫 기록이다.

현종 4년(1663) 6월의 실록에 "제사에 쓰는 검은 소가 갑자기 폐사하자 다른 소들도 계속 죽어 겨우 7두만 남았는데 우역 때문이다." 하였고 10월의 실록에 "황해도에 우역이 크게 발생, 관에서 기르는 돼지까지 폐사 하였다." 하였으며 12월의 실록에는 "강원도에 우역이 크게 발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종 7년(1666) 12월의 실록에는 "전라도에 염병(癱瘦)이 크게 번지고 우역도 발생하여 인축(人畜)이 심히 많이 죽었다." 하였고 현종 9년 (1668) 5월의 실록에 "함경도의 마소에 역병이 크게 발생, 전후 폐사한수가 18,100여두라고 하는 감사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다. 9월의 실록에는 "전후의 마소폐사수가 2만여 두"라고 되어있다. 이때의 우역은 다섯 번째의 우역창궐로 이 해부터 현종 12년까지 4년간에 걸쳐 함경도에서 전라도까지 번진 것이다. 이는 제4회째의 대 발생 후 약 32년만의 발

생인데 그 이후 우역병균은 전 조선에 퍼진 것이다.

현종 10년(1669) 10월의 실록에 "충청도에 우역이 크게 발생하였다." 하였고 "이 해에 마역(馬疫)도 발생하여 말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마조제(馬祖祭)를 올렸다."는 것이다.

현종 11년(1670) 8월의 실록을 보면 "황해도에 우역이 크게 번져 한달 사이 2,600여두가 폐사하였는데 경기 강원 충청도에도 번져 소가 모두 폐사하였다는 보고가 매일 이어졌다."고 되어있다.

현종 12년(1671) 정월의 실록에는 "황해도에 염병과 우역이 함께 발생하였다." 하였고 "경상도에도 염병이 발생하면서 우역이 크게 번졌다."고 되어 있으며, 6월의 실록에는 "영호남에 우역과 가축의 역병이 겹쳐 폐사한 수를 헤아릴 수 없다." 하였다. 8월의 실록에도 "경상도의 우역으로 폐사한 소의 수가 6,820두"라 기록되었다. 또 "강원도 355두, 충청도는 779두, 전라도의 장흥 등 17개 군현에서 한 달 새 우역으로 폐사한 수는 1,039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의 우역은 4년 전부터의 연속이라 풀이된다.

숙종 6년(1680) 윤8월의 실록에는 "우역이 심히 치열하게 번져 폐사한 소가 심히 많다."하였고 10월의 기록에는 "전라도에 폐사한 소가 4,100 여두"라 하였다. 이 우역은 여섯 번째의 큰 우역으로 5회 이후 11~12년 만의 큰 우역이다. 이로 보아 조선에서의 우역은 대체로 10년 간격이 5~6년 간격으로 잦아지다 2~3년 간격으로 다시 더 잦아져 마침내 우역 상재(常在)지역이 된 것이다.

숙종 8년(1682) 11월의 실록에 "각도의 관찰사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우역으로 폐사한 소가 모두 1만여두"라고 기록되어 있고, 숙종 9년 (1683) 2월의 실록에 "황해도 관찰사가 보고한 내용은 옹진 등 7개 군현에서 우역으로 폐사한 소의 수가 모두 140여두"라 하였다. 또 윤6월의 실록에는 "제주도의 우역으로 인해 폐사한 소가 1만여두"라 하였다.

숙종 10년(1684) 2월의 실록에는 "관서(평안도와 황해북부)지방에 우역이 크게 발생, 전년 12월 이후 수개월 사이 숙천(肅川) 등 30개 군현에 발갈이용 소 3,749두가 폐사하였다." 하였고 "함경도는 안변 등 5개 군현에서 농사지을 소 600여두가 폐사하였다."고 한다. 4월의 실록에는 "태천(泰川) 등 24개 군현에 우역이 크게 번져 폐사한 소가 전후 1,950여두"라 하였고 5월의 실록에는 "평안도는 우역으로 1,600여두가 폐사하였다." 한다. 전 조선 각지에 퍼진 역병의 발생으로 숙종 8년부터 3년간 계속 발생한 것이라 이를 일곱 번째의 대 발생으로 볼 수 있다.

숙종 16년(1690) 10월의 실록에는 "경기도에서 우역으로 5백여 두의소가 폐사하였다." 하였고 11월의 실록에는 "경기도에서 우역으로 폐사한소가 1,700여두"라 하였다.

숙종 19년(1693) 5월의 실록에는 "종성(鍾城)도호부의 소 240두가 우역으로 폐사하였다." 하였고, 숙종 27년(1701) 12월의 실록에는 "평 안도에 우역이 치열하게 번져 소가 계속 죽고 있다." 하였으며, 숙종 43년(1717) 2월의 실록에 "경상도의 우역으로 폐사한 소가 3,700여두"라 되어있다. 숙종 44년(1718) 12월의 실록에는 "경상도의 우역으로 폐사한 소가 130여두"라 하였는데 이상의 숫자는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숫자로 진작 병독은 전국적으로 확대 상재하여 이무렵 면역성을 가진소도 일부 존재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영조 14년(1738) 2월의 실록에는 "북관(北關 함경도)에 우역이 크게 치열하여 청(淸)나라와 무역코자 하였던 소 600두 중 550여두가 폐사하 였다." 하였고 영조 23년(1747) 5월의 실록에는 "평안도에 염병과 우역 이 한때 만연하여 사망자와 폐사한 소가 심히 많았다." 하였으며 11월의 실록에는 "가을에 이르러 우역이 점점 치열하게 번지더니 한 달 사이 1,000여두의 소가 폐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영조 25년(1749) 9월의 실록에는 "우역이 치성하여 소의 도축을 금

하고 제사를 지내 우역이 물러나기를 빌었다. 이로서 마단(馬壇) 내에 소의 목신(牧神)의 위패도 새로 설정하였다"고 한다.

위의 두 개 조항은 서로 연결된 것으로 평안도→황해도→경기도의 경로로 퍼져 영조 23년 초여름에 시작하여 한여름에 소강상태가 되더니 가을에 이르러 다시 치열해 졌는데 이는 우역 유행의 계절성과 일치하는 발생양상이다.

영조 39년(1763) 12월의 실록에는 "호남에 우역이 창궐하여 1만여두의 소가 폐사하자 장차 소의 부족을 염려하여 각도에 도축(屠畜)을 금하도록 명 하였다"고 한다. 그 후 고종 8년(1871)까지 백여 년 간 실록상의 우역발생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아마도 기록 누락이거나 발생정도가 미미한데서 원인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고종 8년 시베리아로부터 전파된 우역이 조선에서 발생한 후 십여 년 간 기록이 없다가 주한미국공사 알렌(N.H.Allen 의사를 겸함)은 고종 22년(1855) 9월 서울에 우역이 유행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고종 29년(1892) 31년, 32년에도 우역이 크게 발생하였다 한다. 또, 광무 6년(1902)에는 경상도 중심으로 우역이 발생하고 광무 7년(1903)에는 전 조선에 우역이 크게 발생하였다고 한다. 융희 2년(1908)의 조선가축 위생통계에는 597두, 1909년 1,221두, 1910년에는 92두가 폐사 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이후 1931년까지도 매년 발생하였으나 1920년 1,144두의 폐사를 제외하면 다른 년도에는 모두 백 단위 이하의 젖소 폐사 수를 계속하다 1932년부터는 조선에서 우역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상으로 조선에서 우역발생의 대강을 개관하였다.

왕조실록에 기록된 우역으로 인한 소의 폐사 수를 통산하면 모두 10만 7,567두이나 아마도 기록 누락이 이 수치의 몇 배가 되지 않을까 추정된다. 여기에 일제강점기에 폐사한 4,691두를 합치면 통계에 나타난수만도 무려 11만 2,258두나 된다. 소가 폐사하면 그 자체로 농가의 손

실이 크지만 2차로 밭갈이를 못해서 오는 손실이 더 크게 된다.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은 금양잡록(衿陽雜錄)에서 큰 소 1두의 노력은 장정 9명의 노력과 같다 하였다. 이로 보면 임원경제지(林園經濟 志)에서 말하는 농사의 5해(五害 한해, 수해, 풍해, 병해, 충해) 못지않게 소의 역병도 농민을 울리는 큰 병이 아닐 수 없다.

### 3.3. 원(元)나라의 제주목장 100년

우리나라의 축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유리왕 28년(AD9) 8월조에 동명성왕이 말을 길렀다(我先祖(동명).....牧馬)고한 것이 처음인 것 같다. 다시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 3년(AD603) 8월조를 보면 보(步)병과 기(騎)병 4만으로 신라를 공격하였다 하여 말이 전마(戰馬)로 쓰였음을 기록하였고 신라본기 문무왕 9년(AD669) 5월조를보면 신라에 174개소의 말 목장이 있다 하였다. 특기할 것은 삼국사기제39권 직관(職官)조를 보면 신라 경덕왕(AD742~764)때 백천(白川) 한지(漢秪) 문천(蚊川) 본피(本彼) 등 네 곳에 목숙전(苜蓿典)이라는 관청을 두었다는 것이다. 중동 원산의 목숙은 우리말로 거여목(Alfalfa)이라 하여 말이 가장 즐기는 최고의 우량 콩과 목초다.

목초의 명칭으로 관청의 명칭을 삼은 것을 보면 목숙전은 말 중심의 축산담당기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우리나라는 기원전 후부터 말을 길러왔고 신라때부터는 목장형태로 길러온 것으로 믿어진다. 말은 가축 중 유일하게 무기(武器)인 전마(戰馬)를 겸한 축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고려 충열왕 2년(AD1276)에 제주도에 설치 운영한원(元)나라 직영의 목장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주도는 목포에서 남쪽으로 150km의 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동서의

길이 73km, 남북의 길이 41km, 전 해안선 길이 253km로 모두 1,792 평방의 넓이를 가진 섬이다. 섬 전체가 사(死)화산으로 이루어 졌고, 중앙에 1,950m의 한라산이 솟아있는데 산의 상부에는 산림이 많고 산허리 부분인 중산간지대는 완만한 경사지로 초원이 넓어 옛부터 방목장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산 아래 해안선 부분은 농경지로 밭작물을 재배해왔다. 이 외로운 섬이 초식가축의 방목 적지임을 원(元)나라가 어떻게 알고 여기에 직영목장을 설치하였을까? 그것은 삼별초(三別抄)의 난과 관계가 있다. 삼별초란 권신 최우(崔瑀)가 도둑을 막기 위한 야별초(夜別抄)를 설치한데서 비롯되어 그 수가 늘자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고 다시신의군(神義軍)을 합쳐 삼별초라고 한 무인집단이다.

삼별초의 난은 고려 원종 11년에서 14년(AD1270~1273)사이 강화도에 천도해 있던 고려조정이 개경으로 다시 환도할 때 이 삼별초의 무신들은 환도가 몽고에 대한 굴복이라고 완강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1270년 5월 27일 환도가 강행되자 삼별초의 주장인 배중손(裹仲孫) 등은 왕족 승화후(承化候) 온(溫)을 새 왕으로 추대하고 강화에 새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관민의 동조가 없자 1천여 척의 선함에 호응 세력과물자를 싣고 진도(珍島)로 근거지를 옮겼다.

이에 김방경(金方慶)장군이 이끄는 관군과 흔도(忻都)가 이끄는 몽고 연합군에 의해 그 세력이 꺾이자 일부는 도주하고 김통정(金通精)이 이 끄는 일부의 세력은 제주도로 건너가 현 북제주 애월읍에 위치한 귀일촌 (貴日村)에 항파두성(紅坡頭城)을 쌓고 끈질긴 항전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원종 14년(AD1273) 여몽연합군에 의해 중과부적으로 그들마 저 평정되고 말았다. 이때 몽고군이 제주도가 천혜의 목야 적지임을 알 고 몽고군의 일부가 제주에 주둔하면서 말 방목중심의 직영목장을 개설 하게 된 것이다.

제주는 몽고보다 온난하고 연 중 무상(無霜)기간이 길어 연 중 풀이 자

라는 기간이 긴데다 강수량이 연 간 400mm이하로 적은 몽고의 건조지대에 비해 연간 1800mm의 풍부한 강수량이 있어 방목 적지였기 때문이다. 이 삼별초 사건을 계기로 몽고의 세력이 급진적으로 고려에 침투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1271년 몽고가 원(元)나라로 바뀌고 그해 충열왕(忠烈王)이 원(元)나라 세조(世祖)의 딸 제국(齊國)공주에게 장가를 들면서 원나라의 간섭은 점점 더해가던 참이었다.

고려사절요 세가(世家)28 충열왕 2년(1276) 8월조를 보면 원(元 1271~1368)나라는 고려에 다루가치도감(達魯花赤都監 진압에 종사하는 원나라 관청. 벼슬 이름)을 설치하고 탑자적(塔刺赤)이란 무관을 목장책임자인 탐라다루가치(耽羅達魯花赤)로 임명하여 몽고 말 160두를 들여다 방목하기 시작하더니 다음해인 충열왕 3년(1277) 부터는 검은 소(黑牛) 달단마(韃靼馬 호마?) 노새, 나귀, 양 등을 들여와 본격적으로 목축업을 시작하였다. 탑자적(塔刺赤)이 최초로 목장을 설치하였던 곳은 동국여지승람에 정의현(旌義縣) 수산평(水山坪 지방행정지명사에는 首山坪)이라 하였다. 그 후 몽고는 계속 개(150두), 고라니(麂), 사슴 등의 축종과 사육전문가인 목호(牧胡)를 계속 보내옴으로서 제주도 목장은 점차확대되어 가게 되었다. 이때 초식 가축이 아닌 개를 들여온 것을 보면 양과 염소몰이용이 아니었나 여겨진다.

이로서 제주도 목장은 제주 재래종인 소, 말, 노루 등의 축종과 외래 종인 소, 말, 낙타, 노새, 염소, 고라니 등을 방목하게 되고 목장도 축종 에 따라 우장(牛場), 마장, 양장, 고장(羔場 염소), 장장(獐場 노루), 궤장 (麂場 고라니) 등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원(元)나라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그중 마장(馬場)을 가장 중시 하여 원나라 목호(牧胡)로 하여금 직접 관리케 함으로써 제주목장은 고 려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적 존재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제주마는 계속 원나라에 보내졌는데 심지어 원나라 예속 하에 있던 고려 정부는 충열왕 14년(AD1288) 축마별감(畜馬別監)이란 관직을 만들어수시로 제주에 파견하여 모든 목장을 감독케 하는 일방 제주마를 징발케하는데 협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공민왕 17년(AD1368) 명(明)나라가 원(元)나라를 사막 북쪽으로 내쫓고 새로이 국가를 세우자 공민왕은 공민왕 19년 명나라에 제주마를 보내는 대신 제주목장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이 제의는 3년만인 공민왕 21년(AD1372)에 결말이 난 듯 제주마의 대명송출(對明送出)이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다. 곧 마필송출이 고려의 대명외교의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러나 마필송출은 용이한문제가 아니었다. 공민왕 21년 3월 고려조정은 유경원(劉景元)을 유지별감 검 간선어마사(有旨別監 兼 揀選御馬使)로 삼아 예부상서인 오계남(吳季南)과 같이 제주에 가서 명나라에 보낼 제주마를 가려내게 하였던바그 일행은 몽고목자(牧子)들의 반란에 부딪쳐 유경원과 제주 목사 겸 수군만호(萬戶 종4품) 이용장(李用臟)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오계남은 그대로 돌아옴으로서 말의 대명송출은 어렵게 되었다.

원(元)나라는 망했는데 그의 잔존세력은 완강하게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에 고려는 민부상서 장자온(張子溫)을 명나라에 파견 제주도 정벌을 호소케 하고 곧이어 예부상서 오계남을 파견하며 말 6두를 보내면서 그 교섭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에 명나라 홍무제(洪武帝 AD1368~1398) 가 제주정벌을 승인하자 제주 목장은 그때서야 하는 수 없이 마필을 고려조정에 보내왔다.

공민왕 21년 11월에 제주마 50필을 필두로 다음해 2월과 6월에도 보냈으며 7월에는 제주마 19필과 노새 2필을 연이어 보내왔다. 그러나 명(明)나라는 이렇게 소량씩 제공되는 마필수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공민왕 22년(AD1373) 명나라 홍무제는 마필수가 적음을 추궁하고이렇게 무성의하면 장차 고려를 정벌하겠다고 통고해 왔다. 그 후 공민

왕 23년 4월에는 북쪽 사막으로 쫓겨가 원(元)나라를 유지하고 있던 북원(北元)을 치고자 제주마 2,000필을 보내라고 통고해왔다. 이에 고려조정은 명(明)나라에 보낼 말을 가리고자 하였으나 제주마 목장을 운영하는 목호(牧胡) 등은 원나라 황제가 방축(放畜)한 말을 어찌 명나라에 바칠 수 있느냐며 또 반항 하다가 겨우 300필만 제공해 왔다.

이에 고려조정은 동년8월 제주를 정벌하고 박윤청(朴允淸)을 제주목사, 박완(朴完)을 안무사, 김계생(金桂生) 석천검(石天劍)을 마축사(馬畜使)로 임명, 제주마 부족분 1,700필을 보내고자 서둘렀다. 지면관계상그 후의 사실(史實)들은 생략코자 한다. 1,700두의 말은 모두 보내지 않았지만 여러 곡절을 거쳐 우왕(禑王) 5년(AD1379)부터 명과의 국교가정상화 되면서 제주도에 대한 영유권이 인정되고 비로소 제주도 목장은고려조정의 행정력이 미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회고컨대, 충열왕 2년(AD1276)에 제주도 목장이 원(元)나라에 예속된 이래 약 100년 만의 일이다.

조선 세종조에 이르러 제주도 목장의 가축의 종류는 고라니목장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 소, 양, 돼지, 염소, 노루 목장 등만 운영되었으나 그중 말 목장이 가장 크고 중요시 되었다. 성종24년(AD1493)8월 정묘일의 성종실록을 보면 "산(한라)허리 온 둘레에 10개의 목장이 설치되었는데 한목장의 둘레를 돌려면 한참반(一息半) 또는 두참(二息)이 걸린다"는 기록이 있다. 하루는 보통 네참(四息)으로 나누므로 10개 목장 중 한목장을 한바퀴 도는데 한참반 또는 한나절이 걸린다는 해석이 된다. 정조실록 정조6년(AD1782) 정월 신해일의 정조실록에는 주회사십리(周回四十里)라 하여 목장을 한바퀴 도는 길이가 40리(里)라 하였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김정호)를 보면 소, 양, 염소, 돼지 등의 목장은 농경지가 많은 해안선에 가까이 설치되어 있고, 말 목장은 중산간지 대에 설치되어 있다. 몽고가 최초로 목장을 개설한 수산평(水山坪)은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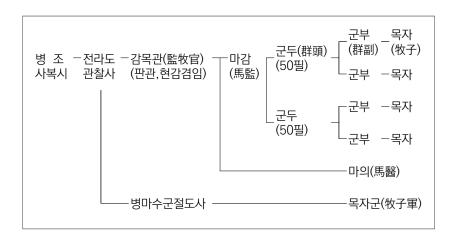
주도 서쪽 해안에 가까운 곳이다. 중산간지대의 열 개 목장의 순서는 제주 서쪽을 제1소장(一所場)으로 서귀포 쪽으로 돌아 제2소장, 제3소장으로 계속되어 한바퀴 돈 다음 제1소장에 가까운 쪽에 제10소장이 있고 한바퀴가 끝난다.

조선시대 제주목장의 가축 수는 말이 가장 많았는데 단종실록 단종 3 년(AD1455) 정월 정묘일의 기록에 모두 만여 필(匹)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현종 4년(AD1663)에 편찬된 목장지도(牧場地圖)를 보면 1만 2,821 필로 되어있다. 다시 1653년에 편찬된 탐라지(耽羅志)에는 1만 385필로 되어있어 평소 1~2만두 수준의 마필이 방목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소가 많았는데 영조실록 영조 10년(AD1734) 정원 정유일조에 "제주목장의 소 일천여두"라 되어 있으나 그밖에 가축은 자료부족으로 그 실 수를 알 수 없다.

제주도 목장의 운영체계는 고려사 제82권 병(兵)2(충열왕 2년)조에 다음과 같이 계선조직으로 되어있다.



조선시대의 운영체계는 남도영(南都泳)의 논문에 다음과 같은 운영체계로 개편되었다 하나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구목(廐牧)조에는 한명의 군두(群頭)당 말 50필이 아니라 암말 100필, 숫말 15필로 되어있다.



종축(種畜)은 원(元)나라 때 주로 요동에서 수입해 왔다고 하며 우수한 말이 절종(絶種)될 것을 예방코자 거세(去勢)를 금하였다고 한다. 이로 보면 거세는 오랜 수의술(獸醫術)의 하나였던 것 같다. 방목 방식은 열개의 각 목장마다 한쪽에서부터 방목하기 시작하여 점차 한바퀴를 도는 윤환방목(輪換放牧 Rotational grazing) 형태로 방목하였다. 한바퀴를 돌아 원점에 돌아오면 그사이 새 풀이 자라나는 것이다. 1931년 나까야 마(中山蕃)가 쓴 '제주도의 말에 대하여'를 보면 이무렵 말의 체형이 모두 퇴화한 탓인지 체구가 큰 호마(胡馬)는 없고 체고(體高) 1.2m의 조랑 말뿐이었다고 한다. 당시 남북한을 통틀어 5만 5,000두의 말이 사육되고 있었는데 그 반수가 제주도에서 기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말의 가장 중요한 전마(戰馬)로의 기능이 상실된 시대 제주마는 오직 태마(駄馬)와 승마(乘馬), 그리고 밭작물 파종 후 씨앗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진압(鎭壓)용으로 쓰였다. 그 후 필자가 축정 실무를 총괄하던 1970년대 외화벌이 중심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될 때 사 꾸라니꾸(桜肉 벚꽃빛깔의 고기)라 하여 말고기를 즐기는 일본에 말고기 용으로 제주마는 대부분 수출되었다. 이 글을 쓰는데 남도영(南都泳)이 쓴 '조선시대 제주도 목장(한국사연구4)' 등 3편의 논문과 나까야마(中山蕃)의 '제주마에 대하여(1931)' 마쓰마루(松丸志摩三)가 일본농회보에 기고한 '조선우마사'등 7편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 3.4. 비싼 수업료 치른 대단위 한우목장

조선시대 목장들은 모두 국영목장들로 말과 한우를 증식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전투용 군마와 역원 제도를 위한 역마(驛馬)의 육성과 주기적으로 역병이 유행하여 소가 모두 폐사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소(한우)를 증식한 것이다.

목장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막힌 분지나 말과 소가 달아날 수 없는 반도 또는 낙도와 같은 해남의 화원반도나 완도의 신지도 같은 섬에 위치하였다. 1663년(현종4) 사복시정(司僕寺正)의 제조로 있던 장유가 편찬한 책을 보완하여 허목(許穆)이 작성한 「목장지도(牧場地圖)」를 보면 전국적으로 138개소의 국영 목장에 말은 20,213필, 소는 895두가 사육되고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병전(兵典)을 보면 국영목장의 책임자는 현감 (縣監)과 품계가 같은 종6품의 감목관(監牧官)이 담당하였고, 감목관이 결원일 때는 해당 고을의 수령이 겸임하였다. 감목관의 책임은 무거웠다. 암말 100마리당 매년 새끼 85필을 생산토록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목장통계에는 한우가 모두 895두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상황에 비해 너무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역병이 군마를 통해 평안도로 확산되어 소가 전멸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비변사의 소구매단이 몽고에 가서 그 무렵 새로운 작물이었던 잎담배를

주고 181두의 소를 구해왔다. 방역기술이 없던 조선시대에 국영목장에서 더 많은 한우를 확보해두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국영목장에서 군마의 필요성이 없어지자 대한제국 말기에 모두 폐장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조성한 소규모 낙농목장들이 있었는데, 그중 아까보시(赤星鐵馬)가 1915년 현 천안시 성환읍에 개설한 낙농목장(500ha)이 가장 컸다. 아까보시는 일본 귀족으로 영국에 군함을 사러 갔다가 낡은 배에 색칠만한 군함을 사온 독직사건으로인해 일본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성환에 와서 목장을 조성한 것이다. 이곳은 현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광복 후 대부분의 목장들은 소규모 낙농(젖소)목장이었다. 하지만 5.16 군사혁명 이후 쇠고기 수요가 점점 늘어가자 1969년 민간자본으로 충남서산에 2,127ha의 초대형 육우목장이 설치되었다. 주된 사업목적은 한우 번식우(송아지)의 생산이었다.

농림부는 이 사례를 본떠 육우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젖소목장과 같이 육성코자 1974년 5월 재력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 45명을 농림부회의실에 초청하여 대단위 육우목장을 조성토록 권하였다.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 5종 세금 면제와 국공유림에 목장을 개설할 경우 초지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국공유지의 불하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 시책은 2, 3차 산업에서 얻어진 기업이윤을 자금이 부족한 축산분 야에 유치하여 쇠고기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부수적으로 낙후된 산간오지 개발을 통해 지역의 균형개발에도 기하자는 복안이었다. 목장이 조성되려면 산간오지까지 도로, 교량, 전기, 전화 등의기초시설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목장이 설치되면 인근 지역사회개발도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사업 초기에는 한진그룹, 삼양라면, 두산그룹, 한일시멘트 등 20여 개의 대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했으나, 40여 년이 경과한 현재, 남아있

는 대목장은 대관령의 삼양목장, 한일목장과 제주도의 제동목장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육우목장이 아닌 대부분 자금회전이 빠른 젖소목 장으로 전환되고 말았다. 말하자면 정책의 실패라 할 수 있다.

첫째로 대단위 육우목장을 기획하던 1974년만 하더라도 국내 쇠고기수급은 어디까지나 자급자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단위 육우목장 사업을 추진한 지 2년만인 1976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쇠고기를 각각500톤 씩 총 1,000톤을 수입하게 되면서 쇠고기 자급계획은 무너져버린 것이다. 쇠고기 가격이 물가인상의 선도품목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국내의 대단위 육우목장들이 쇠고 기 수출국의 육우목장들과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국내 토지가 격이 외국의 광활한 토지에 비해 턱없이 비싸고, 각종 생산자재들도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대단위 육우목장들은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어 자금회전이 빠른 상공업에 길들여진 대기업주들이 사업에 착수하자마자 이내 손을 들고 사업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넷째는 산지개발에 따른 관계 법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산림법 시행령에는 국공유림을 개인에게 임대할 때 임대료가 지가종율제(地價從率制)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의 뜻은 땅값이 비싸면 임대료도 비싸다는 뜻이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의 오지는 원시림으로 있을 때 땅값이 얼마 안 되지만 도로와 교량을 설치하고 전기를 놓아 목장을 조성하면 땅값이 천문학적으로 오르게 된다. 땅값이 오르면임대료도 오르기 때문에 목장주의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들여 땅값을 올리고 본인이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 것이다. 기업인들은 정부에 속았다는 항변이 대단하였다.

당시 산림청은 농림부산하에 있지 않아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3년 경찰력을 동원해 산림을 보호한답시고 산림청을 내

무부 산하로 이관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부처 간의 옥신각신 끝에 목장 조성에 한해 국공유지 임대료를 사업 착수 당년 임대료로 고정하기로 산 림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지만, 이미 기업인들의 목장조성의지가 상당부 분 감소한 후였다.

우리나라의 낙농업 개발에 독일과 합작한 한-독 낙농시범목장과 뉴질 랜드와 합작한 한-뉴 낙농시범목장은 성공적인 기여를 하였다. 낙농가가 젖소를 기르기 전 이 시범목장에서 수개월씩 교육과 실습을 하였기때문이다. 이와 같은 실적에 비추어 육우도 시범목장을 설치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1971년 4월 호주의 지원으로 남원군 운봉면에 한-호 면양 시범목장을 설치한터라 외국의 선진기술도입으로 농경우에서 차츰 육우화 되어가는 한우의 사양 기술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

다행히 뉴질랜드와의 통상회담 때 한-뉴 육우시범목장 설립이 합의되어 우여곡절 끝에 1974년 6월 대관령에 육우시범목장이 개설되었다. 낙 농시범목장은 반관반민이 사업 주체였으나 면양시범목장과 같이 육우시범목장은 국립종축장의 지장(支場)형식으로 관청이 운영주체였다. 이곳에 초빙된 뉴질랜드 전문가는 당연히 교사겸 고문으로 초빙되었다.

뉴질랜드가 낙농시범목장뿐 아니라 육우시범에까지 인심 좋게 제나라 돈을 써가며 합작해 준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당시 축산은 뉴질랜드 경제의 8할에 기여하고 있었다. 축산물은 연방 16개국으로 수출되며 부를 누려왔으나, 영국이 구주공동체(EC)에 가입하게 되자 영국에 수출하던 축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출코자한 것이다. 그 예로 당시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합작으로 치즈 공장을 설치하되 원료는 절반 뉴질랜드에서 가지고 오기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 육우시범목장은 당시 힘써 추진하던 대단위 육우목장조성 사업과 맞물려 활발한 기술연수를 통해 설치목적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

로 믿었으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부업으로 한두 마리씩 기르는 양축가들은 굳이 기술연수를 받을 필요 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조성되어 가는 대단위 목장들은 사업 착 수 당시부터 새삼 기술연수를 받을 필요조차 없는 대학출신의 고급기술 자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연수생들은 소수밖에 배출되지 않았으며, 시범목장을 통한 경영기법개선이나 사양기술보급은 거양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대단위 목장들도 자기자본으로 막대한 투자를 했으나 한우번식이나 육성우 사업은 투자에 비해 이윤이 너무 적었으며, 조성 당시의 여러 어려움때문에 새로 착수하려는 신규 투자자가 없었다.

가령 더 있었다 하더라도 정책상 쇠고기 수급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가령 1,000두 규모의 목장 10개가 더 있어도 전국의 한 우통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대단위 목장은 한때 반짝한 거품사업에 불과했다. 어찌 그뿐인가? 한우번식 및 육성우 사업에 남는 이윤이 별로 없자 대부분 목장들은 경영이 안정된 낙농목장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한우증식 및 육우사업은 한두 마리 부업축산이나 중소경영의 목장들이나 할 소규모 사업이란 교훈만 우리에게 남았다. 너무나도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었다(2015. 3. 세계 식품과 농수산).

### 3.5. '70년대 양돈파동에서 얻은 것

1960년대만 하여도 우리나라 축산은 부업 수준이었고 사료도 곡류를 도정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강피류(糠皮類)가 전부였다. 60년대 말기에 일부 배합사료가 생산되었지만 배합도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삽으로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축산의 비중은 파격적으로 수직 상승해 2013년 기준 축산물 생산액은 농림업 총 생산액 46조 6,500억 원의 35%를 차지하는 16조억 원에 이르고 있다. 농림부의 명칭에 축산을 넣어 농림축산식품부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축산의 범위에는 여러 가지 축종이 있다. 그 중 돼지의 생산총액만을 보면 무려 5조억 원이나 되어 생산액이 8조 5,000억 원으로 우리 농산 물 중 첫째가는 쌀 다음가는 품목이 되고 있다. 70년대만 하여도 양돈산 업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는 어떤 농업경제학자도 예측하지 못했다.

양돈산업이 부업양돈에서 전업양돈을 거쳐 기업양돈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된 시기가 1970년대에서 80년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따라서 그 무렵 국제시장에서 사료곡물을 확보하거나 수입하는 거래방법도 안 개속을 헤치듯 하였지만 여기서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돈농가들의 시장대응능력이 너무나 원시적이었다는 점이다. 그 예를 70년대의양돈파동에서 찾아 다시 반성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양돈경기는 총괄적으로 말할 때 대체로 사료곡물의 수입 가격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 흉작으로 국제 사료 곡물 가격이 폭등할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흉작이 아니라도 미국의 카길 등 세계 5대 곡물메이저들이 담합하거나 농간을 부려 가격이 오를 때에는 대체로 불황이었다. 그렇다고 반대로 국제 사료곡물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국내의 양돈경기가 호황이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 여러 가지 국내적 요인이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지구 북반구의 옥수수 수확이 끝난 1975년 10월의 국제 옥수수 가격은 톤당 146달러였다. 1년 후인 '76년 10월의 가격은 톤당 25%가 하락한 109달러였고, 2년 뒤인 '77년 10월에는 34%가 떨어진 93달러였다. 이렇게 되면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매우 안정되게 된

다. 이 기간의 국내 양돈상황을 보면 배합사료 가격이 올랐던 '75년 말의 양돈수는 '74년에 비해 31%가 감소한 124만 7,000두였다. 국제 에너지 파동으로 '74년 사료 가격이 올라 채산이 맞지 않자 양돈가들이 미처 다 자라지도 않은 중돼지까지 너도나도 투매하였기 때문이다.

그 시절만 하여도 육류는 차츰 식량의 일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라 연간 7%씩 돼지고기 수요가 더 늘고 있었는데, 양돈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그 반작용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생돈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자, 다시 양돈 붐이 일어나 '76년도 말에는 양돈수가 전년도 말에 비해 무려 36%가 더 증식된 195만 3,000두로 늘어났다. 당시까지의 기록상 한해에 돼지가 가장 많이 증식된 역사적인 해였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증식은 국내 배합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하락에 따른 이윤추구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 기간의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등락이 없이 매우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생돈수가 늘어 돼지고기 공급이 과잉이 되면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돈 가격이 폭락하기 마련이다. 생돈 가격이 떨어지자 '77년 말에는 '76년 말에 비해 24%가 줄어든 140만두로 줄어들었다. 너도나도 방매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국제 사료곡물 가격이나 국내 배합사료 가격이하락하거나 안정적인데도 생돈수가 출렁이는 것은 과잉증식과 과잉방매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1977년에 돼지수가 줄어들자 또 다시 양돈 붐이 일어 '78년에는 전년대비 16%가 늘어난 171만 9,000두로 증식되었지만,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계속 강세로 치닫자 경제기획원은 물가안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 돼지고기 긴급수입을 단행하게 되었다.

1977년 90kg 규격돈 가격이 6만 1,000원이었으나 '78년에는 연평 균 62%가 오른 9만 9,000으로 뛰어 강세가 계속되자, 기획원은 대만이 일본에 수출코자 포장까지 해 둔 돼지고기 6,000톤을 긴급교섭으로 우

리나라에 수입하게 되었다.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여 다른 물가까지 자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양돈가들도 농림부의 권유대로 돼지증식을 신중히 고려 했어야만 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무한정 쉽게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일어난 양돈 붐은 가시지 않고 계속 증식으로 치달아 '79년에는 '78년보다 65%가 늘어난 284만 3,000두로 증식되었다. 즉, 1년 사이 돼지 수가 112만 4,000두가 늘어난 것이다. 5년 전인 '75년의 2.3배가 넘는 증식이었다. 엄청난 숫자였다. 이러고도 무사하기를 바랄수는 없었다. 그 무렵의 양돈산업은 소나기 한자락에 홍수가 지고 3일만가물면 논바닥이 갈라지는 천수답 농사와 다를 바 없었다. '79년 1월 10만 6,000원이던 규격돈 가격은 그해 12월 3분의 1 가격인 3~4만원으로 대폭 하락했다. 폭락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표현이고, 곤두박질쳤다고나 할까? 3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새끼돼지 가격은 6분의 1 가격인 5천원대로 폭락하였고, 그나마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새끼돼지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사태까지 일어나 양돈문제는 사회적·도덕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이렇게 돼지가 과잉증식된 판에 '79년도에는 전년도에 수입계약을 맺고 아직 수입하지 않았던 돼지고기 7,000톤에 대한 수입을 더 미룰 수 없었다. 이는 행정부처간의 상호불신이 빚은 결과였다. 잘되든 못되든 축산행정은 고유의 기능이 있는 농림수산부에 맡겼더라면 국내 돼지 가격이 곤두박질친 판에 돈육을 수입하는 어리석음은 없었을 것이다.

어찌 그 뿐인가? 국제적 망신까지 겹쳤으니 말이다. 물가 주무기관인 경제기획원 산하의 조달청 구매단은 법정전염병 때문에 수입금지국으로 되어 있는 덴마크에서 돈육 5,000톤을 구매 계약하고 경제기획원을 통해 농림수산부에 수입신용장 개설을 요청해 오기도 하였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으로서 구제역 상재(常在)국인

덴마크에서 돈육 수입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기획 원이나 조달청은 맥도 모르고 침대를 흔드는 격으로 차치고 포치는 통에 더욱 더 엉망이 되고 만 것이다. 결국 덴마크로부터 수입키로 한 돼지고 기 5,000톤은 농림수산부의 강력한 반대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과 덴마크간에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외교문제로까지 불통이 튀어 옥신각신하는 톱질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양돈 불황이 극에 달할 때 물가안정을 내세워 불황에 부채질했던 경제기획원이나 조달청은 구매계약이 꼬이자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정부 부처간 역학적 균형이 안 맞아 힘없이 밀리던 농림수산부가 불황타개를 위해 진땀을 뺄 수밖에 없었다.

1978년 12월 장덕진 장관의 뒤를 이은 이희일 장관은 22만두의 돼지를 수매하여 돼지의 과잉공급을 막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돈육소비촉진운동을 벌여 각 기관과 축산단체 등의 구내식당 식단에 의무적으로 돈육요리를 넣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의문으로 남는다. 모자랄 때더 먹으라는 것은 효과가 있을지언정 남을 때 더 먹으라고 하는 것은 역겨움만 더해주기 때문이다.

연말연시를 기해 군경, 양로원, 고아원 등에 위로품으로 통돼지를 보 냈는데 수송이 용이한 도시 근교의 군부대로부터는 이제 통돼지 위문품 은 그만 가져오라는 연락이 왔을 뿐이었다.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어미돼지 감축이었다. 각 도축장으로 하여금 돼지의 새로운 증식을 막고자 돼지를 도축할 때 어미돼지를 60% 이상 도축토록 한 것이다. 이 무렵이 되어서야 양돈가들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진 경험을 살려 시장대응 능력이 약간 살아난 탓인지, 그들의 협조가 더해져 어미돼지 도축이 70% 이상 달성되었다.

결국 물가안정용으로 들여온 7,000톤의 수입돈육은 팔지도 못하고, 냉동비축기간도 지나자 궁여지책으로 돼지고기 통조림을 만들었다. 그 러나 그 통조림마저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자 1982년 헐값으로 잔여 물량을 국방부에 군납용으로 소비하고 말았다.

이 정도 체험을 거쳤으면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았어야 할 양돈파동이 었으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양돈 불황은 '80년에 오늘날의 김장용 무·배추 파동처럼 다시 반복되었다.

이와 같은 양돈파동의 원인을 요약하면 첫째, 70~80년대만 해도 부업에서 전업으로 전환하던 시기라서 양돈 규모가 작아 불황이 닥쳤을 때이를 극복할만한 양돈가들의 지구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그 무렵만 해도 마땅한 소득 작목이 없어 양돈수지가 좋다는 소문이 돌면 너도나도 돼지를 기르는 투기적 양돈이 계속되다가 수지가 맞지 않는다 하면너도나도 앞 다투어 방매하는 게 문제였다. 셋째, 돼지의 번식력이 강한데다 임신 기간마저 112일로 매우 짧아 단기증식이 용이한데도 문제가 있었다. 돼지의 번식구조상 잠깐 사이 어느새 만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결과 얻은 것은 무엇인가?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지만, 양돈 산업의 체질이 보다 강해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양돈가의 시장대응 능 력과 불황일 때 견디는 지구력을 의미한다(2015. 2. 세계 식품과 농수산).

# 3.6. 경제개발초기, 일거양득이었던 잠사업

최근 우리나라의 잠사업은 비단실을 생산하기 위한 잠사업이 아니라 동충하초 등 기능성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1960~70년대에는 비단실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외화획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유망한 사업이었다.

잠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1960~70년대의 우리 농촌에는 과잉노 동력이 넘쳐흘렀다. 공업화가 안 된 시절이라 농촌이 유휴인력을 흡수할 마땅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잠업기술은 기록상 고려초 이후 우리 농민이 천 년간 익혀온 기술이라 낯선 산업도 아니었다. 이에 더하여 누에고치에서 생산된 생사(비단실) 수요는 국제적으로 매년 증가일로에 있었다.

이에 착안한 5.16군사 혁명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66) 의 중요정책 사업으로 잠업증산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예컨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71) 중 잠업증산계획의 규모를 들어보면 5개년간 98억원의 투자와 융자를 통해 5억5,000만주의 뿅나무를 생산·식재하여 목표연도인 1971년에는 누에고치 4만M/T를 생산하고 비단실4,800M/T를 수출함으로써 연간 6,7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다는계획이었다. 1965년 국가전체 외화획득액(수출액)이 겨우 1억7,500만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단일품목으로 생사의 수출기여도는 대단히 큰것이었다.

잠업증산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농민들이 뽕나무를 심도록 하려면 뽕나무묘목 구입비를 정부가 보조해주지 않는 한 가난한 농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묘목을 구입해 심을 수가 없었다. 당시는 공무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했던 재정형편이라 정부예산으로 뽕나무묘목 구입비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은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참고로 1967년의 정부예산으로 책정된 묘목보조금은 겨우 2억 9,000만 원뿐이었다.

당시 누에고치를 사서 비단실을 만들어 수출하는 제사공장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본가들이 많았다. 이미 제사공장을 갖고 있던 자본가들은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떼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력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권력의 줄을 타고 제사업면허를 받고자 농림부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는 게 보통이었다. 이때의 농림부 장관은 서울대 교수로 있다가 장관으로 발탁된 박동묘(朴東昂, 1966.2.~67.6)씨였다. 그는 뽕나무

묘목을 구입할 정부예산은 확보하기 어려운데 뿅잎을 먹고 생산한 누에 고치를 가공할 자본가들이 많다면, 그 자본가들이 직접 뿅나무묘목을 사서 농민에게 나누어주고 그 뿅나무 잎을 먹고 생산된 누에고치를 농민으로부터 사서 제사를 하는 안을 생각해냈다.

즉, 정부가 하던 뿅나무묘목대 보조를 자본가가 대신하고 그 뿅나무에서 생산된 고치를 가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추진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때 잠업에서의 민간자본유치가 우리나라 경제개발에 있어 최초의 민간자본유치가 아니었나 기억된다. 이렇게 되면 제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정치권력의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확보가어려운 정부예산의 상묘대보조금 책정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성 있는 최소한의 공장을 운영하려면 제사기(製絲機) 100대가 있어야 했는데, 기계 100대가 1년간 가동하려면 300ha의 뽕밭이 필요했다. 따라서 제사업면허를 원하는 자본가가 300ha에 대한 뽕나무대금과지도원 월급 등을 공장을 세울 군수명의로 예치한다면, 2년 후 공장을가동한다는 조건으로 제사기 100대 규모의 제사업면허를 허가하겠다는요지였다.이 제도는 1967년 5월에 공표하였는데만 2년만인 1969년 5월, 뽕나무대금으로 확보한 민간자본유치총액은모두 7억원이었다.참고로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한 1968년의 뽕나무보조금은 9억 2,000만원, 1969년에는 8억원이었으니 민간자본의 규모가 적지 않았음을 알수있다.

잠업증산에 둘째로 어려웠던 것이 우수한 누에씨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만 해도 일제가 보급하였던 잠종을 그대로 사용하는 실정이었다. 최근에는 유전자조작으로 누에씨 육종이 놀랄 만큼 발전했지만 1960년대만 해도 6.25동란으로 시험시설이 모두 파괴되어 복구도 미처못한 처지라 새로운 누에씨를 육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 무렵 누에씨는 고치 한 개의 실을 풀어 보면 그 길이가 약 800m 내외였으나 개량된 외국종은 1,200m까지 나가는 품종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 다행히 서울대학교나 잠업시험장에는 일제 때 일본 고등잠사학교나 잠업전문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재학시절 일본인 동창생 중 당시 일본의 잠업시험장이나 잠종장에 근무하는 이가 있어 동창관계를 이용해 일본 누에씨를 은밀히 분양받도록 추진하였다. 마치문익점이 600년 전 중국에서 목화씨를 들여온 경우와 같이 일본정부가모르게 누에씨를 도입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도 국제시장에 생사를수출하였기에 국제경쟁을 고려해 누에씨를 금수품목으로 정하여 국외반출을 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누에씨의 도입은 쉬운 게 아니었다. 누에씨는 겨울철 냉장고에 보관해두었다가 뿅잎이 필 무렵 꺼내어 부화시키는데, 가령 누에씨를 요행히 분양받았더라도 수송 도중 기온이 올라 누에씨가 부화해버리면 종자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에씨 수송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이용한 것이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본국에 보내는 외교행당편을 이용한 것이다. 국제관례상외교행당은 일본의 세관에서도 열어볼 수 없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일본에서 분양받은 누에씨는 일본 비행장에서 외교행당을 부칠 때 얼음상자에서 꺼내 외교행당에 넣어 보내고, 2시간 후 김포공항에서는 잠업시험장 연구진이 휴대용 얼음상자를 들고 대기하다 인계받는 식의 과정을 거쳤다.

그 후 우리나라 육종기술을 향상시키고자 일본 잠업시험장의 유전생 리부장으로 있다가 은퇴한 스미스(淸水)씨를 초빙하여 1년간 육종지도 를 받은 적이 있다. 그가 일본으로 떠날 때 감사의 표시로 송별만찬을 갖 은 바 있는데 그가 답사를 할 때 "한국의 누에씨는 아무리 보아도 일본 의 누에씨와 닮았다"고 하였다. 이때 좌중 모두 당황하였으나, 그 이상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로 보아 스미스씨는 일본잠종이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제2차 잠업증산 5개년계획이 활발히 추진되던 1968년의 어느 날, 미 국의 듀폰사가 70억 달러의 연구비를 들여 인조실크를 개발하였다. 이 사실이 타임지에 보도되자 국내 매스컴이 이를 인용하여 대서특필하였 고 인조실크는 당시 세계의 화젯거리가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인조실크 는 비단실크와 통기성, 보온성이나 흡습성이 꼭 같을 뿐 아니라 천을 맞 대고 손으로 비벼보면 그 마찰음까지도 비단실로 만든 천을 비빌 때와 같은 소리가 난다는 보도였다. 이 무렵 이 인조실크의 영향 때문인지 확 실하지 않으나 국제생사가격이 일시 좋지 않은데다 예년과 같이 국제생 사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누에고치 가격을 전년보다 15% 인 상한 까닭에 생사수출이 한때 현저히 감소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청 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 하에 개최하는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대 책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잠업문제로 대통령까지 근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시절의 잠업증산은 국가적 과제였기 때문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 육영수 여사도 권잠(勸蠶) 행사로 1년에 두 번 뽕밭에 나아가 손 수 뽕잎을 따고 누에치는 행사를 하였다. 이 같은 행사는 조선시대 때 왕 비가 직접 뽕밭에 나아가 뽕잎을 따고 누에를 기르는 친잠의례를 본뜬 것이었다.

다행인 것은 그 후 얼마 안 되어 국제생사가격이 회복되어 염려한 만큼의 어려움은 없었다. 또 인조실크도 처음 화제에 오른 만큼의 인기가 없었던지 다시 국제적으로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 오늘날과 같이 잠사업이 침체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국내 노임이 급상승한데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중국과 인도가 대대적인 잠업증산을 통해 국제생사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우리나라 잠사업이 국제경쟁에서 패한데 기인한다. 안타까운 일이나 우리 실크가 경쟁력이 없는 데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다

만 군사혁명정부가 경제건설을 하던 초기에 잠업이 간절히 필요하였던 외화획득의 선봉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농정사에 길이 남을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2015. 7. 세계 식품과 농수산).

# 제4장 **조선시대의 농촌사회**

#### 차 례

- 4.1. 조선말기 농촌의 사회계급
- 4.2. 조선시대 농촌사회와 향약(鄕約)
- 4.3. 동국세시기의 풍년 기원
- 4.4. 조선시대의 농부가(歌), 왜 긴 한숨의 넋두리인가?
- 4.5. 17세기초 허균(許筠)의 팔도명산식품
- 4.6. 사라져버린 권농일, 아쉬운 농촌의 우리 민속

# 4.1. 조선말기 농촌의 사회계급

농촌이란 농업을 생업으로 삼아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사회다. 따라서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도시사회와 구별된다. 그 농촌사회에는 조선말기 어떤 사회계층이 몇 개나 있었을 까? 그리고 그 사회계층의 구별은 각종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사회계층부터 살피고자 한다.

도시에는 왕족을 정점으로 고관대작이나 사대부들인 양반(兩班)들이 보다 많이 살고 있다. 양반은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을 아우르는 말로 문반은 문과(文科) 과거를 거쳐 문관으로 임용된 가계(家系)이며 무반은 무과(武科)를 거쳐 무관으로 임용된 가계를 이르는 말이다. 이 양반들이 가세가 기울어 농촌으로 낙향(落鄉)하면 보통 이를 향반(鄉班)이라고 부른다. 이 양반 중에서도 차등이 있어 가장 존중을 받는 가계는 유림(儒林)의 가계다. 조선시대는 억불승유(抑佛崇儒)의 시대라서 같은 삼정승의 가계라도 문관으로 홍문관이나 예문관의 대제학(大提學) 출신의 가계가 더욱 존중되었다. 다음으로 유림 버금가는 가계는 왕족의 먼 후예나국가에 유공한 훈족(勳族), 그리고 충신열사의 후손들이다. 그 다음이 문무백관 등 권귀(權貴)의 가계들이다. 이들 세 종류의 양반들은 농촌사회에서 서로들 간에 잘 알려져 있어 누구네가 어째서 으뜸가는 양반인지를 소상히들 알고 있다. 이들 향반들도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개중에는 넓은 농지를 소유하는 지주(地主)들이 있어 이들을 서울에 사는 부재지주와 대칭되는 재촌지주라고 이른다.

이들 이외에 자신들은 양반 또는 향반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 본래 존중받던 양반 가계이지만 농촌에 낙향한지 오 래되고 일정한 곳에 대대로 모여 살면서 벼슬길이 막힌 가계로 통상 농민 으로만 인정받는 계층들이다. 향반들은 언어동작이 신중하며 큰 소리 치 는 것을 꺼리고 출입 시에는 의관을 정제하고 걸음걸이도 느리고 반듯하 다. 이들은 농촌사회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하는 잠재 지도층이다.

둘째는 중인(中人) 계급이다. 양반과 평민사이에 존재하는 계급으로 이 중인계급에도 구별이 있어 내의원(內醫院)이나 전의감(典醫監), 관상 감(觀象監), 사역원(司譯院) 등에 봉직하던 기술직(전문직)들이나 그 가 계가 중인 중에서는 보다 우월하게 존중되었다. 기술직들은 경국대전의 정원(定員) 규정에도 정3품(正三品) 이상의 품계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의 구별은 같은 정3품이라도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은 당상관이며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는 당하관이다. 인사규정상 기술직(전문직)들은 당하관인 정6품직이 승진 상한

선이다. 그래서 중인인 것이고 과거(科學)도 잡과(雜科) 급제자들을 이르는 말이다.

서울에서는 북촌에 문관, 남산 밑에 무관이 살고 중인들은 그 중간지점인 청계천 수표교 언저리가 주거지였다. 이 중인 중에서 버금가는 중인은 사자관(寫字官)이나 도화서(圖畵署)의 화공(畵工), 장원서(掌苑署)의신화(慎花) 등 종6품직 이하의 가계들이다. 농촌에서는 이와 유사한 부류가 한의(漢醫)들이며, 오늘날의 수의사(獸醫師)인 마의(馬醫)나 우의(牛醫)들은 한의 보다도 더 낮은 중인이었다.

농촌에서 한의 못지않게 존중되는 직종이 풍수(風水)들이다. 풍수란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줄임말로 명당(明堂)인 음택(陰宅)을 잡아주는 직종이다. 농촌에서는 숭조(崇祖)관념이 강하여 좋은 곳에 조상을 안장코자 하는 열망이 넘쳐 이를 잡아주는 사람을 지관(地官) 또는 지사(地師)라고 높임말로 부르기도 한다. 이 지사들은 양택인 집터를 고르거나 방위, 택일 등의 일을 겸하기도 한다. 양반이나 향반에 속하지 않으면서 평민보다는 좀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회계층이 양반이나 향반의 서자(庶子)가계이다. 정실부인 소생이 아닌 까닭으로 경국대전 이전(夷典)조에도 한품서용(限品敍用)조에 해당하는 부류들로 관리에 등용되더라도 5품 이하에 임용되는 가계들이다. 이들도 중인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셋째 계층은 평민 또는 상민(常民)계층이다. 농촌사회 구성원 중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를 점유하고 있는 게 이 평민들이다. 이 평민계층에도여러 종류가 있어 가장 우선된 부류는 금위영(禁衛營)이나 어영청(御營廳), 그리고 훈련도감(訓練都監) 등에 근무하던 각급 장교의 가계로 속칭한량(閑良)이라고 부르는 부류다. 또 각급 관청의 아전(衙前)들의 가계가이에 버금가는데 고을 원(員)님을 보조하는 이방(夷房), 호방(戶房) 출신등 육방관속(六房官屬)이 이에 해당한다. 또 면(面)마다 한사람씩 두어농사를 지도하였던 오늘날 면장의 전신인 권농관(勸農官)과 서당의 훈

장, 그리고 마을의 이정(里正) 등도 이에 속한다.

가장 인구가 많은 농민들은 평민들의 주류를 이루고 의식주의 원료 생산을 담당하며 명절이나 절식(節食) 등 각종 농촌풍속의 보존자들이기 도 하다. 이 농민들 중 지주(地主)나 자작농(自作農)층은 소작농(小作農) 이나 농업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농민보다 우월하였다. 광작하는 대농 은 농업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주인집에 상주하는 농업노동자를 머슴이라 하고 단기간 고용하는 노동자를 달머슴이라 하였으며 이들에게 주는 노 임을 품삯이라 하였는데 이 머슴들은 하대 받는 종과는 구별된다. 또 공 인(工人)들은 각종 건축을 전담하는 대목장(大木匠) 그리고 각종 가구(家 具) 등을 제작하는 소목장(小木匠) 등이 있다. 또 농기구들을 제작하는 철공(鐵工)과 금은세공(金銀細工)을 담당하거나 말총으로 갓(笠)을 제작 하는 전문직들과 흙을 빚어 질그릇을 만드는 도공(陶工)들이 있는데 이 들 전문직들 중 가장 노련한 사람을 장인(匠人)이라고 부른다. 평민 중 순서가 가장 처진 계층이 각종 물품을 사고파는 상민(商民)인데 일정한 곳에 상점을 차린 상인을 좌가(座賈)라 하고 상품을 지고 이 장(場) 저 장 을 왕래하거나 마을을 찾아다니는 상민들을 보부상(褓負商)이라고 한다. 상인 상호간에는 상부상조하는 협동심과 자기들끼리의 응집력이 강한 편이다.

넷째로 천민(賤民)계급으로 사회계층의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비(奴婢), 재인(才人 배우), 무격(巫覡 무당과 박수), 백정(白丁 도축업, 식육상)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천민계급의 연원에 대해 정약용(丁若鏞)은 그가 저술한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 고려시대 이래의 떠돌이(浮浪族)인 양수척(楊水尺)의 후계자들이라 하였다. 양수척은 우리말로 "무자리"라고도 이른다. 그렇다면 양수척이란 어떤 존재였던가?

고려사열전(列傳)의 최충헌(崔忠獻)전에는 "양수척이란 고려 태조가 후백제를 칠 때 제압하기 어려웠던 부족의 후손들로 본래 호적이나 부역 의 의무도 없이 수초(水草)를 따라 옮겨 다니며 수렵이나 유기(柳器 고리 등) 제작, 그리고 죽(粥)장사 등을 업으로 삼고 무릇 기생들은 이 유기장 (柳器匠)에서 나온다."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백제의 유민이라기 보다 북방 대륙에서 온 이민족인 것 같다. 세종 29년(1447) 2월 계미일의 세종실록을 보면 달단화척(韃靼禾尺)이란 구절이 보이기 때문이다. 달단은 본시 동몽고에 살던 유목민 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우리나라에 흘러와 고려시대에 양수척으로 불리다가 조선시대에 백정(白丁)인 화척(禾尺)계와 재주놀음을 업으로 하는 재인(才人)계로 나뉘었다고 한다.

화척계는 도축업이나 식육상 경영을 하는 백정과 유지(油脂) 채취로 양초 생산에 종사하거나 피혁 가공으로 가죽신을 만드는 "갓바치", 그리고 버들가지를 엮어 고리나 키(箕)를 만들기도 하고 말총으로 체(篩)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재인계는 줄타기, 말 위에서 재주놀음, 노래와 춤을 파는 남사당(男寺党)패가 대표적이다.

천인계층에 그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종(奴婢) 들이다. 노비에는 관(官) 노비와 사(私)노비가 있다. 관노비는 역적이나 국사범 등 큰 죄인으로 관아(官衙)의 잡된 일을 담당하였고 사노비는 "종"이라 하여 주인이나 상전(上典)의 명에 따라 농사나 가사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빈곤으로 몸을 팔아 종이 된 것으로 일체의 자유가 없이 주인의 사정에 따라 타인에게 매매되기도 하였다.

천인에 무당과 박수가 있다. 여자를 "무당(巫)", 남자를 "박수(覡)"라 하는데 각종 질병이나 액운을 비는 고사(告祀)때 기원행사를 전담하고 그 보수로 생계를 꾸리는 사회 계층이다. 한때 궁중에서조차 이들을 불러다 굿을 할 정도로 조선사회는 무당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조선사회는 마을마다 한두 명의 무당이 생계를 꾸릴 수 있을 정도로 기원행사의 기회가 많았다.

이들 천인들은 사회에서 천대받는 대신 자기들끼리의 결속력은 대단

히 강하였다. 이들 천민들은 갓이나 탕건(宕巾) 등을 쓸 수 없고 대나무를 오려 만든 패랭이(平凉笠)를 써야 했다. 통혼(通婚)이나 거주지도 자기들끼리 하거나 모여 살았다. 따라서 이들은 정신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상층계급과 격리된 존재들이다.

이러한 사회계층의 존재는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국가발전에 어떤 영 향을 미쳤을까?

그것은 첫째로 국민통합에 반하는 사회적 저해요인이 되었다. 계층 간의 상호 반감, 질시, 증오 또는 천시의 관행적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 다. 능력에 의한 신분상승의 기회가 박탈되고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입신양명의 기회가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경제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었다. 산업발전은 기술발전이 필수 조건인데 그 기술발전을 필요로 하는 각종산업을 평민이나 천민이 담당하다 보니 사람을 천시하는 습성이 그들이 담당한 산업까지 천시하게 되자 천대받는 산업의 생산기술이나 관리기술마저 발전시킬 의욕까지 송두리째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급의 사회계층은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일 뿐 긍정적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악폐였다.

이 악폐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사민평등(四民 平等)의 기치아래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노비제도의 폐지와 인신매매를 금하면서부터였다. 계급타파의 능동적 주류는 가장 천대받던 백정들이다. 1923년 진주에서 설립한 형평사(衡平社)가 계급타파를 선도하던 조직이고 현대방(懸大房)이라는 그들만의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인재육성에 힘쓰면서였다. 형평사는 백정들의 신분상승을 위한 정치적 투쟁을 목적으로 일본의 수평사(水平社) 운동에 자극받아 창립된 정치결사체였으나 관헌의 탄압을 받자 1936년 대동사(大同社)로 바꾸어 피혁(皮革)회사를 만들어 그들의 복리증진에 힘썼다. 또 식육상 경영자들끼리 전국을 망라한 축산기업조합을 설립하여 신분상승과 계급타파에 앞장섰다.

광복 후에는 민주화 바람이 계급타파에 부채질을 하였다. 예컨대 5.16 후 혁명군부가 그들의 결속력을 득표수단으로 이용코자 전국구 의원을 미끼로 축산기업조합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손, 사돈의 팔촌까지 수백만 표를 득표수단으로 연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사당패는 오늘날 극단이나 배우, 가수 등 인기 직종으로 발전하였고 백정인 식육상은 기업인으로 발전하여 조선일보 2021년 3월1일자 7면의 전면광고를 보면 "갈비 먹고 힘내세요." 하는 억대의 광고까지 내는 재력가가 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최하 천민이 민주화시대의 최상층 귀족이 된 것이다. 계급타파의 결정적 시기는 1970년대 제3차5 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도시공업의 발전으로 농촌인구가 줄면서 사람이 귀해지자 농촌의 사민평등은 완전히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 원고 작성에는 이우성의 '한인(閑人)과 백정(白丁)의 신해석(1962역사학보)', 이세영의 '19세기 농촌사회의 계급구조(1991 한신대 논문집)', 이태진의 '고려 말 조선 초의 사회변화(1982역사학보)', 이능화의 '조선관노의 기원(1930조선)', 이와사끼(岩崎繼生)의 '조선의 백정(1932조선)', 다나까(田中德太郎)의 '조선의 사회계급(1921조선)', 하마나까 (濱中昇)의 '여말선초의 한량에 대하여(1967조선)' 등을 참고하였다.

## 4.2. 조선시대 농촌사회와 향약(鄕約)

현재와 같이 가지가지 법률로 사회생활을 규제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의 사회가 규제가 많은 현재 보다도 더 도덕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였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더욱 의문인 것은 삼정의 문란으로 세도 집권 이후의 조선말기 공직자나 군인에게 급료조차 제때에 못 줄 정도로 국가재정이 심히 균형을 잃어 진작 붕괴될 나라가 반세기 이상 더 존속할 수 있

었던 까닭은 또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고려시대이래 조선조의 소년교육 중심의 교육정책에 힘입은 바 클 것이다. 정부의 공식교육기관인 서울의 사학(四學)과 지방의 향교 (鄉校), 그리고 사학(私學)인 서원이나 서당 등에서 가장 초보적인 교재 로 쓰이는 게 천자문에 이은 동몽선습(童蒙先習)이다.

그 내용에 가장 강조된 내용이 삼강오륜(三綱五倫)으로 가정과 국가를 지키는 삼강에 사회기강을 밝히는 오륜이 더해진 것이다. 곧 임금과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삼강이며부자간, 군신간, 부부간, 장유(長幼)간, 친구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가 오륜이다. 이 초보적 교육을 통해 굳게 지켜온 삼강오륜은 조선사회 성인들의 체질화된 덕목이 되었다. 그것이 조선사회를 법 없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 덕목이라 여겨진다.

이에 더하여 고려 말에 도입된 주자(朱子) 중심의 성리학이 도입될 때이에 묻어 들어온 중국의 향약(鄉約)이 조선시대의 도덕적 사회규범을 더욱 공고하게 다졌다고 믿어진다.

그렇다면 성리학에 묻어 들어온 중국의 향약(鄉約)이란 무엇이었던 가? 이를 한마디로 요약할 때 주민자치로 마을사회가 서로 지켜야 할 사회규약이다. 이 향약의 기원은 중국 송(宋)대의 람전여씨향약(藍田呂氏鄉約)에서 비롯된다. 람전이란 중국 섬서성 서안의 동남방에 위치한 람전현의 고을이름으로 여기에 살던 여씨(呂氏)가 창안한 것이다. 이름하여 「람전여씨향약」이라 부른다.

여씨네는 대충(大忠), 대균(大均), 대방(大防), 대림(大臨)의 사형제가 모두 출중한 유학자들로 덕이 있는 형제들이었으나 둘째인 대균이 주민 자치의 향약을 만들어 그 형제들의 협력으로 고을의 기풍 순화에 성공적 기여를 하게 됨에 급기야 온 나라에 이 향약실천이 전파되게 되었다.

그 향약의 내용은 네 가지로 대별된다. 그 첫째는 "덕이 되는 일은 주

민간 행하기를 서로 권하며(德業相勸), 과실이나 허물은 서로 규제하고 (過失相規), 미풍양속은 서로 교류(장려)하며(禮俗相交), 어려운 일들은 서로서로 돕자(患亂相恤)는 네 가지 덕목이다.

이 덕목이 더욱 빛나고 실천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남송(南宋)의 주자(朱子 1130~1200)가 이를 현실에 맞도록 증보하고 이를 널리 시행토록 권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鄉約)이라고 이름한다. 그 내용을 정조 10년(1786)에 편찬된 우리나라의 향약절목(鄉約節目)에서 찾아보면 "각 면(面)마다 덕이 있는 원로 한 분을 대표격인 도정(都正)으로 추대하고 또 학술과 덕행이 있는 한 분을 부정(副正)으로 추대한다. 또, 행실이 좋은 자 한두 명을 직월(直月 오늘날의 간사 또는 총무)로 선임하되직월만은 1년 임기로 매년 교체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면단위 향약모임의 조직과 구성이다.

여기서 밝힐 것은 수장인 도정은 학문은 없어도 덕행이 있는 원로로 고령자가 그 추대조건이고 부정은 연령에 관계없이 학술에 밝으면서 덕행이 추대요건이다. 또 간사격인 직월은 학문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덕행만이 선임 조건인데 임기는 도정과 부정은 종신직이고 직월만이 1년 임기로 되어있다. 세 가지 직책의 공통점은 덕행이다. 향약의 사무를 보면 직월은 세 개의 장부를 비치하되 그 한 장부에는 모범된 덕행자의 명부로 그 성명을 기록하고, 또 하나의 장부에는 허물이 있어 규제할 자의 명부로 하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향약의 사업인 네 가지 덕목을 풀이하고 있는데 첫째인 덕업 상권(德業相勸)의 덕업을 주자의 증손향약에서 찾아보면 덕(德)과 업(業) 으로 나누어 "덕이란 착한 것을 보면 반드시 행하고 과실이 있음을 들으 면 반드시 고칠 것이며 능히 자기 몸을 다스리고 능히 그 집안을 다스리 며 능히 부형을 섬기고 능히 그 자제를 가르치며 능히 종들을 통솔하고 능히 나라의 정교(政教)를 엄숙히 지키고 어른을 섬기며 능히 친척 간에 화목하게 하는 등 무려 23개의 세세한 실천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또, 덕업의 "업(業)의 내용도 집에 있을 때는 부형을 섬기고 자제를 가르치며 처첩을 화목하게 대할 것이다. 밖에 있을 때에는 어른을 섬기고 벗(友)을 덕으로 사귀며 이웃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독서와 농사에 힘쓰며 법령을 두려워하고 조세를 잘 납부하는 등 모두 13가지를 예시"하고 있다. 지면 관계상 둘째의 과실상규나 셋째의 예속상교, 그 외 넷째의 환란상휼에 대한 주자의 세세한 예시는 생략하거니와 요컨대 향약 전체가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은근히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두가 추대한 지도자의 통솔에 따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견제하여 자기 고장을 법 없이도 살기 좋은 이상향으로 만들자는 것이 향약의 정신이다. 그렇다면 향약을 증보한 주자는 유교사회인 조선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존재였던가? 주자는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 이를만큼 신유학을 집대성한 분으로 소학(小學), 근사록(近思錄), 사서집주(四書集註),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등을 저술한 대유(大儒)로 조선사회에선 군왕보다도 더 존중되고 공맹(孔孟)의 반열에 버금가는 존신(尊信)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여씨향약은 주자가 증보하였기 때문에 주자의 학덕에 힘입어 더욱 존중되어 조선의 유교사회에 깊이 침투될 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향약이 국가의 권장사항으로 정책화한 시기도 도학정치를 표방하던 시기였다. 함양의 선비 김인범(金仁範)이 중종 12년(1517) 향약의 시행을 왕께 진언하자 중종은 중신들에게 이를 연구 검토토록 하였고 다음해인 중종 13년(1518)에는 김안국(金安國)이 여씨 향약을 우리말로 번역한 여씨향약언해(呂氏鄉約諺解)를 편찬 배포하게 되었으며 중종 14년(1519)에는 대사헌 조광조(趙光祖)와 대사성 김식(金湜) 등이 여씨향약을 전국에 권장토록 진언하여 드디어 전국에 실시

하게 된 것이다. 조선사회는 성리학이나 향약뿐 아니라 주자의 말이라면 과하다 할 정도로 신뢰하고 추앙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공주목사 신속(申洬)이 1655년 농가집성(農家集成)을 출판할 때 신속은 송시열(宋時烈)에게 이 책의 서문을 의뢰한바 있다. 주자를 존신하는 송시열은 주자가 현재의 중국 강서성 남강(南康)군과 복건성 장주(漳州)의 행정책임자로 잠시 근무하면서 권농을 위해 지었던 권농문 3 개가 있는데 송시열은 이를 「농가집성」에 편입토록 권한 바 있다. 그런 까닭으로 「농가집성」에 주자의 권농문이 편입되게 된 것이다. 불행히 주자의 권농문은 중국 양자강 이남의 농법을 다룬 것으로 자연환경이 우리 나라와 다른 강남의 농법은 우리 농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다. 이 말을 여기서 굳이 밝히는 뜻은 조선의 유림사회는 주자의 말이라면 그 내용 여하에 관계없이 덮어놓고 과신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자한이다.

조선의 농촌사회는 계급사회였다. 최상층 계급이 주자를 존신하는 양반, 사대부나 유림들이었다. 향약이 비록 민간의 자치적 활동이지만 지배계급인 상층계급이 앞장서 선도한 향약이 대부분이 상민(常民)이나 천민(賤民)으로 구성된 향촌사회에서 시행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선시대 향약의 실행상황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향약이 시행된 최초의 기원은 기록상 태조 7년 (1398)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조는 친히 그의 향리인 풍패향(豊沛鄉)에 향헌(鄉憲) 41개 조항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고 한다. 후일 이 41개 조항은 태조의 손자 효령대군에 의해 증보되어 여러 향읍에 권하였다고 하나 그 시행정도는 밝혀져 있지 않다.

향약이 가장 잘 시행된 사례를 들어보면 이퇴계(李退溪)의 예안향약 (禮安鄕約)과 이율곡(李栗谷)의 해주향약(海州鄕約)이 대표적이다.

먼저, 명종 11년(1556)에 제정 시행된 현 안동 예안면의 예안향약 중

둘째의 덕목인 과실상규(過失相規)의 세목만을 예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의 덕업상권(德業相勸)은 앞에서 예시하였기 때문에 둘째의 과실상규를 예안향약에서 예시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부모에게 불손한자, 형제간에 서로 다투는 자, 부부간 불화 등 집안이 어지러운 자, 관청 일에 간섭하고 망령되게 위세를 부리는 자, 향장(鄉長)을 능욕한자, 수절하는 과부를 꾀어 더럽힌 자들은 가장 무겁게 벌하고(極罰) 친척 간에 불목하거나 본처를 소박하거나 이웃끼리 불화 하거나 무리지어 서로 꾸짖고 때리는 자, 염치불구하고 풍속을 해치거나 약자를 침탈하거나 관청에 시비를 걸거나 거짓말을 지어 남을 함정에 빠뜨린 자,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구하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는 자, 이웃의 혼사나 초상 때 무심히 보내는자, 관청에 순종하지 않거나 향론(鄉論)에 반대하고 원수를 짓는 자 등은 중벌(中罰)로 다스린다.

또 공회(公會)가 있을 때 뒤늦게 오거나 제때에 와도 제자리에 앉지 않고 순서를 문란하게 한 자, 좌석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빈자리에 드러눕거나 무고히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는 자는 하벌(下罰)로 다스린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벌의 수준은 극벌, 중벌, 하벌로 이해되나 벌을 무엇으로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은 밝혀져 있지 않다. 곤장을 치는지, 친다면 벌의 수준에 따라 몇 번씩을 차등 있게 치는지가 의문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1940년대 초 마을(부여 홍산 조현)의 풍기문란자를 벌할 때 곤장이 아니라 온 동네가 나서서 살림을 모두 꺼내어 거리에 쌓아두고 마을에서 떠나도록 한 사실을 목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여간 퇴계가 주도한 예안향약은 퇴계의 제자 중심의 퇴계학파에 의해 영남지방에널리 확산 보급되었다.

예안향약 이후 십여 년이 지나자 가장 완비된 해주향약(海州鄕約)이 이율곡(李粟谷)에 의해 시행된다. 율곡은 선조4년(1571) 청주 목사로 재직시 서원향약(西原鄕約)을 만들어 시행한 바 있다. 그 후 파주, 해주에

서도 그러하였다. 그중 가장 충실한 것은 황해도 관찰사와 부제학을 거친 후 해주 석담(石潭)에 은거하던 선조10년(1577)에 입안 실시한 해주향약이 으뜸이라 한다.

율곡은 해주 고산(高山)면 석담리에 은병정사(隱屏精舍)를 짓고 여기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저술하는 한편 해주향약을 지어 실천하였다. 또 석담리에서 남쪽 2킬로 지점인 가좌면(茄佐面) 야두취야리(野頭翠野里)에 사창(社倉)을 지어 곡물을 비축하였고 절량농가를 돕기도 하였다.

해주향약도 향약의 첫째 덕목인 덕업상권에 부모에게 효도하기 등 모두 11개 조항이 예시되어 있고 둘째 덕목인 과실상규도 불효자 상전을 배역(背逆)한 하인, 형제간 불목한 자 등 6개 종목에 걸쳐 해당자는 상벌 (上罰)에 처하는 등 수많은 예시들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모두 생략하고 향약의 셋째덕목인 예속상교(禮俗相交)만 풀이코자 한다.

첫째 둘째 덕목은 앞에서 주자나 퇴계의 향약풀이에 예시하였기 때문이다. "무릇 자기보다 20세 이상인 분은 존자(尊者)로 대접하고 10세 이상인 분은 어른(長者)으로 대하며 길에서 같은 계원의 존자를 만나면 말에서 내리되 존자가 내리지 말라고 할때는 말위에서 부복한다. 어른을만났을 경우 반드시 절하고 장자(長者)는 공손히 손을 들어 읍(揖)만으로답례한다. 자신보다 연령이 많지 않더라도 덕이 있는 자는 어른 대접을한다. 어른들에게 반드시 세배하고 자녀나 손자녀 혼사 시에는 쌀 3두를주되하인에게는 그 반만을 준다. 향약 계원 중 70이상의 고령자나 사마시(司馬試 진사 생원시험) 급제자로 관리가 된 자는 각기 과일 한 가지를가지고 공처에 모여 하례한다. 계원 중 삼년상(喪)을 마친 자를 위로한다. 계원 중 초상이 나면 모두 가서 문상하고 장례, 소상, 대상(大祥) 때도 위문한다. 이때 다소의 쌀을 가지고 간다. 계원 본인의 상일 때는 유사(有司 간사)가 계원들에게 알리어 각자 쌀 한말 씩을 내도록하고 유사

가 제문(祭文)도 지어 도와준다. 상인(喪人)들은 한달이 지난 다음 술을 마실 수 있으나 사대부들은 삼년상중 계속 술을 금한다."는 내용들이다. 모두 필자가 어릴 때 고향에서 행하거나 보았던 내용들이다. 이와 같은 향약은 정기적인 춘추 모임 때마다 강약(講約)을 통해 반복 교육이 계속되다.

조선사회는 정책으로 향약이 권장되기 이전인 성종20년(1489) 지방자치기구로 군현마다 향청(鄉廳)을 두어 수령(守令)을 보좌토록 한 바 있다. 그 우두머리를 향장(鄉長) 또는 좌수(座首)라 하며 지방의 덕망 있는사람을 골라 수령이 임명하였는데 그의 업무가 풍속교정, 향리규찰(鄉東糾察), 정령시달(政令示達), 민정대표(民政代表) 등으로 그중 풍속교정은향약과 유사한 내용들이다.

이상 향약에 대하여 개관 하였으나 법 없이도 조선사회가 안정되었던 것은 향약의 영향이 컸다고 믿어지며, 조선조 말기의 허약한 정부가 반 세기 이상 존속할 수 있었던 것도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우며 참고 기다 리는 향약사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 아닐까 믿어진다.

이 원고는 마쓰다(松田甲)의 '이조시대의 향약', 도미나가(富永文一)의 '향약일반', '향약절목'(鄉約節目 1786) 등을 참고하였다.

#### 4.3. 동국세시기의 풍년 기원

조선시대에는 새해가 되면 풍흉을 예측하는 점을 보거나, 풍년기원 행사가 해마다 열렸다. 새해뿐 아니라 연중에 열린 여러 가지 행사들은 매년 제 시기가 돌아오면 또 다시 되풀이 되었다. 그것은 풍속화로 그려 져 기록으로 남겨졌다.

풍속을 기록한 책을 세시기(歲時記)라 하는데 여기서 「동국세시기」는

중국의 동쪽인 한국의 세시기란 뜻이다. 이 책은 홍석모(1781~1850)가 중국 남북조시대 때 종능(宗懍)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를 본받아 연 중행사나 풍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은 책이다. 책머리에 이자유(李子有)의 서문이 있고 끝에 헌종 15년(1849)이라 적힌 것으로 보아 편찬 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완성한 책으로 보인다.

홍석모는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벼슬을 맡은 음사(蔭仕)로 남원부사 (종3품)를 거쳐 풍속에 관심이 많아 이 책을 엮었다.

이와 같은 풍속을 기록한 책으로 「동국세시기」보다 30년이 앞선 1819년에 김매순(金邁淳)이 저술한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가 있는데, 열양은 서울의 별칭으로 그 내용은 서울의 풍속을 그린 것이다. 김매순은 문과를 거쳐 예조참판과 강화유수를 역임한 문관이었다. 또「열양세시기」보다 풍천부사를 역임한 유득공(1749~?)이 「경도잡지(京都雜誌)」라는 풍속지를 엮은 바 있는데, 경도는 서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책 또한 서울의 민속을 기록하였다. 이들 책들은 홍석모가 「동국세시기」를 저술하는데 있어 많은 부분을 참고하거나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선민들이 풍년을 어떻게 기원하였으며 풍흉을 어떻게 점으로 예측하였나를 알아보기 위해 「동국세시기」에서 관련된 것만을 간추려 보았다.

정월 첫 돼지의 날(上亥日)에 임금은 곡식을 태워 주머니에 넣어 재상들이나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는 풍년을 비는 뜻을 나타낸 것이었다. 함경도 풍속에는 입춘날 나무를 소 모양으로 깎아 관아에서부터 민가까지 끌고 다녔는데 이 행위가 곧 풍년을 비는 뜻이었다고 한다.

또 정원 14일이 되면 짚을 묶어 만든 깃대모양 위에 벼, 기장, 피, 조등의 이삭을 꽂아 목화송이와 함께 긴 장대 끝에 매단다. 그 장대를 집 주변에 세워 새끼로 묶어 고정시킨다. 이를 볏가릿대(禾竿)라 하는데, 이것

도 풍년을 비는 뜻으로 세운 것이라 한다. 산간지방의 기원풍속에 가지가 많은 나무를 베어 외양간 뒤에 세우고 곡식이삭과 목화송이를 가지에 걸어든다.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 이 나무를 싸고 돌며 해가 뜰 때까지 노래를 부르며 풍년을 빈다고 한다.

농사의 풍흥은 정월보름 달빛을 보고 예측했었는데, 정월보름 달빛의 빛깔이 붉은 듯하면 그해 가뭄이 들고, 희면 장마가 진다고 보았다. 또 달 이 뜰 때 그 둘레가 두터우면 풍년이 들고, 얇게 보이면 흉년이 들며, 별 차이가 없으면 평년작이 된다고 믿었다.

또 정월보름날 밤 한 자 되는 나무 막대기를 뜰 가운데에 세워 놓고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달빛에 막대기의 그림자가 생기면, 그 길이를 재어 여덟치가 되면 그해는 비바람이 순조로워 풍년이 들며, 일곱 치, 여섯 치까지도 무난하지만, 다섯 치 이하가 되면 불길하고, 네 치가 되면 수해, 병충해로 어렵게 된다고 한다. 세 치일 경우에는 곡식이 아주 여물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동방삭(東方朔)의 고사에 근거한 것이다. 동방삭은 한무제 때 시중 벼슬을 한 해학가로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속설이 전해지는 인물이다. 화력신재(花曆新裁)에는 정월보름날 밤에 한 길 되는 장대를 뜰에 세워놓고, 자정 때 그 그림자의 길이가 6~7척이면 그해 풍년이 들고, 8~9척이면 수해가 심하며, 3~5척이면 가뭄이 든다고 했다.

앞서 한 자되는 나무막대기의 그림자는 짧을수록 작황이 나빠지고, 아주 짧을 때에는 곡식이 여물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장대 그림자의 경우 아주 길면 수해가 일어나고, 아주 짧으면 가뭄이 든다하여 앞뒤의 예가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시골풍속에는 보름날 새벽 맨 처음 우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우는 횟수를 세어 열 번 이상 울면 그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또 그동네의 가옥 수대로 고른 콩에다 각 호주의 이름을 써서 표시하고, 짚으

로 싸서 우물에 담갔는데, 이를 호자(戶滋)라 한다. 다음날 아침에 호자를 꺼내어 콩알이 가장 크게 부푼 짚은 그해에 풍작을 거두어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또 날씨를 보아 풍흥을 예측하는데 음력으로 2월 20일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들고, 비는 오지 않고 날씨가 좀 흐리기만 하여도 길하다고 보았다.

「열양세시기」에서는 입춘날 보리싹을 캐보아 그 뿌리가 세 개면 보리 풍년이 들고, 두 개면 평년작이 되며, 한 개면 흉년이 된다고 하였다. 또 2월 6일에 달을 보아 묘성(昴星)이 나란히 가거나 묘성이 촌척(寸尺)거리로 앞서가면 풍년이 들고, 묘성이 달의 앞이나 뒤로 멀리 떨어져 가면 흉년이 들어 어린이들이 굶주리게 된다고 하였다.

대추는 삼복(三伏)에 열리는데 이때 비가 내리면 대추가 열리지 않는 다고 한다. 그래서 삼복에 비가 오면 처녀들이 대추를 팔아 혼수를 마련 할 수가 없게 되어, 대추 명산지인 '보은처녀 눈물이 비 오듯 한다'는 속 담이 생겼다는 말도 있다.

이상에서 초록한 것은 풍년을 빌거나 풍흉을 예측하는 민속들이었다. 다음으로 풍작을 가져오는 실제 행위를 보면 「동국세시기」에 정원 초하 룻날 과일나무의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두면 그해에는 많은 과실이 열린 다고 한다. 이것을 과일나무 시집보내기라 한다. 중국의 서광계(徐光啟) 가 저술한 「농정전서」에는 자두나무에만 이렇게 한다고 하였고, 유종본 (兪宗本)의 「종과소」에는 초하루뿐 아니라 보름달에도 한다 하였으며, 또 진호(陳淏)의 「화력신재」에는 섣달 그믐날 새벽에 긴장대로 자두나무의 가지를 때려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였다.

또 설날에 석류나무의 가지 사이에 돌을 끼우면 열매의 크기가 커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섣달 그믐날 밤에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이런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과일나무 시집보내기는 섣달 그믐날 밤, 설날, 정월보름날 등 아무 때나 해도 좋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또 5월 단옷날에도 대추나무를 시집보내는데, 정오에 하는 게 좋고 다른 여러 과일나무도 도끼로 가지의 일부를 쳐내야 많이 열린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과일나무에 대한 처리는 옛 농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15세기 후반에 강희맹(姜希孟)이 초록한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에는 정월일과를 "초하룻날 새벽에 닭이 울 때 횃불을 들고 뿅나무나 과일나무의위아래를 쪼여주면 나무에 잠복중인 벌레를 없앨 수 있다. 해가 뜨기 전에 과일나무 가지 사이에 벽돌을 끼워두면 과일이 풍작이 된다. 이 작업을 가수(稼樹)라 하는데, 나무를 시집보낸다는 뜻이다. 보름날이나 그믐날에도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데, 대추나무만은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 상처를 내면 대추알이 야위기 때문이다"하였다.

풍년 기원이나 풍흥예측은 아니나 민속으로 믿고 있는 것이 태종우다. 태종이 병이 깊어 신음할 때 날씨가 계속 가물었다. 태종이 세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어 옥황상제님께 빌어 한바탕 비가 오게 하여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다고 한다. 태종이 승하하신 날이 음력 5월 10일이었는데, 매년 이 날만 되면 비가 내려 백성들은 이 비를 태종우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선조 25년(1592)에는 비가 내리지 않더니 섬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이상히 여긴다고 「열양세시기」에 기록되어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농민들의 염원인 풍년을 「동국세시기」기록에서 찾아 옮겨 보았다(2015. 1. 세계식품과 농수산).

### 4.4. 조선시대의 농부가(歌), 왜 긴 한숨의 넋두리인가?

이두순(李斗淳) 박사가 선인들의 문집이나 시집 또는 유고(遺稿) 등을 섭렵하여 선인들이 읊은 노래를 모아 「농촌의 노래, 농부의 노래」라는 제목의 책(319면)을 엮었다. 모두 103수(首)의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수(首)라기 보다는 노래의 큰 제목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예컨대이식(李植 1584~1647)의 '가을비 탄식(秋雨嘆三首)'을 한 수로 보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세 수가 기록되어 있고 장유(張維 1587~1638)의 '농가의 가을흥취(田家秋興四首)'도 한 수로 보았지만 그 내용에는 사수(四首)의 노래가 읊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 노래는 모두 103제목에 309수 가량 되는 방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로 노래를 기록한 작가의 수는 5명의 작자미상을 포함하여 모두 63명이 지은 노래들이다. 한 사람이 한 제목에 여러 수의 노래를 작은 제목이나 다른 갈래로 읊은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노래를 지은 분들의 생존 시기를 보면 고려 말 이전에 생존한 분이 2인, 15세기에 사신분이 7인, 16세기에 12인, 17세기에 17인, 18세기에 21인 등 최근에 가까울수록 노래를 지은분의 수가 많은데 이는 최근에 올수록 노래한 분들이 많아서라기보다 최근에 올수록 기록한 문헌의 유실이 적고 보존이 잘된데 유래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노래를 기록한 문체(文體)를 보면 김기홍(金起弘 1635~1701)의 농부사(農夫詞), 이승훈(李承薰 1756~1801)의 농부사(農夫詞), 정학유(丁學游 1786~1855)의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작자미상의 농부가 등 4개 제목은 국한문 혼용체로 지었고, 이기원(李基遠 1809~1890)의 농부가 그리고 작자미상의 2개 농부가 등 4개 제목의 노래는 순 한글체로 지었으며 나머지 95개 제목의 노래는 모두 순 한문체로 기록한 것을 편찬자가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이를 비율로 보면 92%가 한무체로 서술된 노래다.

한문체 노래가 압도적으로 많은 까닭은 노래를 지은 분들이 한문에 밝은 선비나 사대부들이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문집이나 시집을 후세에 남길 정도의 저자라면 가세가 유족한 사람들이다. 지식 있고 유족한 한량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한문체 노래들은 농부나 잠부(蠶婦)가 직접 지어 부른 것이 아니라 선비나한량들이 농부나 잠부들의 심정에 가깝도록 읊은 것들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농가 노래는 무엇을 중심으로 노래하였고 그무엇이 특징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가장 빈번히 노래한 것은 벼농사였다. 예컨대 '모내기 노래', '김매기 노래', '올벼를 베며', '벼베기 노래', '벼타작 노래', '이삭줍는 노래' 등 벼농사의 과정마다 엮은 것이 모두 13개 제목이나 되어 가장 많았다. 또, 제목에 벼농사를 내세우지 않은 다른 노래들도 중간에 벼농사에 관한 한 구절씩은 대부분 들어있는 게 보통이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보리를 주제로 한 노래다. '보리씨 뿌리는 노래', '보리베기 노래', '보리타작 노래', '보리가을(麥秋) 노래' 등 모두 9개나된다. 작물을 주제로 한 노래는 벼, 보리 이외에 '담배심는 노래(種菸謠)'가하나 더 있고 양잠에 관해서 '누에치는 여인의 노래', '누에치기 노래'등 2개의 누에치기 노래가 있으나 소, 돼지, 닭 등 가축을 주제로 한 노래는 전혀 없다. 중요성이 작물이나 양잠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주곡인 벼, 보리에 관한 애환의 노래가 많은 것은 당연한 순리다.

다음으로 노래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농부, 전부(田夫), 전 옹(田翁) 등 표현은 달라도 모두가 남성중심으로 엮어진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농가 아낙의 탄식(田婦嘆)', '베 짜는 아낙의 노래(繼婦行)', '베 짜는 여인의 탄식(織婦嘆)', '누에치는 여인의 노래(蠶婦詞)', '해녀의 노래(潛女歌)' 등 여성을 주제로 한 노래가 남성 다음으로 많은 9개나 된

다. 남성의 농사일 못지않게 농촌주부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그 밖에 수많은 노래들은 농촌, 농사, 풍속 등을 통틀어 종합한 노래들이라 제목부터 한 가지만 특징지어 부른 노래와 구별되는 게 대부분이다.

여기서 노래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사에 악곡을 붙여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라 풀이된다. 감정에는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즐거우며 두려움 등 칠정(七情)이 있어 어느 노래나 칠정중의 한두 가지를 읊지 않은 노래가 없으나 가장 빈번한 것은 슬픔과 즐거움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중에서 우리 농촌의 노래나 농부의 노래에 즐거움을 주제로 한노래는 얼마나 될까? 그것은 103 주제 중 딱하나 효종의 장인이기도 한장유(張維 1587~1638)가 읊은 '농가의 가을 흥취4수(田家秋興四首)'한주제뿐이다. 그노래의 기쁜 까닭을 풀이한 구절을 보면 "농부들 땀흘려농사짓다가 이제야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네." 하였다. 이 구절을보면 추수가 기쁜데 어째서 추수가 기쁘냐 하면 "관가에 세금도 낼수있게 되었고 아전들의 세금 독촉도 면하게 되었다. 일년을 배불리 먹으면서 판가의 세금독촉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다. 재산을 증식한다거나 여유가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기초적인 굶지 않고세금독촉 없어 기쁘다는 것이다.

다시 농촌의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 더 없을까 싶어 주제는 아니라도 가사의 한 구절이라도 기쁨을 뜻하는 노래들을 살펴본 바 성현(成俔 1439~1504)의 '농가의 노래(田家詞)'에 "정월 대보름에 온 동네가 술상 차려놓아 기쁘다."는 것과 성현이 '앞마을의 벼 타작'을 주제로 한 노래에 "해마다 풍년 되어 풍요로움 즐긴다. 조세 징수하려 급히 독촉하는일 없어 집집마다 닭 잡고 기장밥에 술잔 드네."라는 구절이 있다. 또 유호인(兪好仁 1445~1494)의 '화산십가(花山十歌)' 끝절을 보면 "가을걷이 끝나고 경사로운 풍년이다. 하루를 즐겁게 보내려고 술 마시고 노래

하며 춤을 추네."라 하여 농가의 드믄 기쁨은 오직 정월대보름의 명절이 나 풍년드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쁨과 대칭되는 농가의 슬픔을 읊은 노래를 찾아보면 제목부터가 탄식을 뜻하는 탄(嘆)자가 드는 노래나 괴로움을 뜻하는 고(苦)자, 그리고 가엾다는 뜻의 민(憫)자가 드는 노래들을 통틀어 슬픈노래로보면 이달충(李達衷 1309~1384)의 '농가 아낙의 탄식(田婦嘆)'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농가 아낙의 탄식(田婦嘆)과 '농부의 탄식(田父嘆)', 성현(成俔 1439~1504)의 '가을비 탄식(秋雨嘆)', 소세양(蘇世讓1486~1562)의 '농가의 괴로움(田家苦)', 이식(李植 1584~1647)의 '가을비 탄식(秋雨嘆)', 신익황(申益愰 1672~1722)의 '베 짜는 여인의 탄식(織婦嘆)', 정래교(鄭來僑 1681~1759)의 '농가의 탄식(農家嘆)',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궂은비 탄식(苦雨嘆)' 등 모두 아홉 제목이나 된다. 기쁨을 노래한 노래 제목이 오직 하나뿐인데 슬프거나 괴롭거나 가엾다는 뜻으로 노래한 제목이 무려 아홉 개나 된다는 것은 기쁨의 반대인 슬픔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그 슬픈 노래의 시대적 분포를 보면 9개 중 7개가 17세기 이전에 몰려있다. 17세기 이전이 그 이후보다슬픈 노래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슬픔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먼저 기록된 것이 이달충의 '농가 아낙의 탄식'이므로 아낙들의 슬픔을 먼저 풀이하고자 한다. 가사에 나오는 아낙의 남편은 홍건적(紅巾賊)에 죽고 하나뿐인 아들은 국경수비대로 차출되어 쓸쓸한데 스무날이 넘는 장맛비에 익은 보리마저 거둘 수 없어 굶주려 더욱 슬프다는 노래다. 공민왕 8년과 10년에 홍건적이 침입하였으니 그 무렵에 지어진 노래다. 슬픔의 초점은 굶주림 때문이다.

다시 서거정의 '농가 아낙의 탄식'을 보면 "치마 한 벌 없는 시어머니에 아이는 맨살인데 작년에 궂은비로 봄누에를 망치고 올해는 너무나 가물어 뽕잎이 말라 누에고치 켠 실이 겨우 두서너 냥 뿐 이웃의 담근 삼을

빌려 한올한올 이으면서 탄식하고 통곡하는데 추워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것은 참는다 해도 나라 세금을 탕감 받을 수 없다는 게 더욱 슬프다"는 것이다. 봄에 궂은비가 자주 내리면 공중 습도가 높아 잠작이 좋지 않게된다. 또, 담근 삼을 빌었다는 것으로 보아 빌려준 이웃도 자기가 쓰자고하였던 삼을 빌려준 것이다. 이 노래는 15세기 노래로 문익점이 중국에서 가져온 목화가 아직 덜 보급된 중부 이북지방의 노래라고 믿어진다. 이달충의 농촌 아낙의 탄식은 먹을 것이 없어서인데 서거정의 농가 아낙의 탄식은 입을 것이 없는데다 나라에 바치는 호포(戶布) 때문에 더욱 슬프다는 것이다. 결국 두 아낙의 슬픔은 먹거리와 입을 거리 부족으로 요약되다.

다음으로 농부의 탄식을 서거정의 '전부탄(田父嘆)'에서 살펴보면 "가 뭄과 메뚜기 피해로 60년만의 큰 흉년이 들어 죽으로도 끼니를 이을 수 없어 콩잎 같은 거친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데 어젯밤에 공문이 이르러 조세를 일찍 바치도록 독촉이 왔다. 거둔 벼는 한줌도 안 되는데 장차 관 아의 매질을 어떻게 면한단 말인가.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인즉 부부가 마주보며 밤새 울다보니 어느덧 새벽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노래도 먹 거리 부족과 조세가 슬픈 노래의 원인이다.

다시 성현의 '가을비 탄식'을 보면 "가을바람이 비를 몰고 와 메밀꽃 떨어지고 콩잎도 검어져 사직단에 기청제(祈晴祭) 지내 비구름 걷어주길 빌어도 하늘은 개의치 않네. 시래기로 처자식은 먹여 살린다 하지만 세금내라 독촉하는 매질을 어찌 견딜까?" 이 노래도 식량부족과 조세 때문에 탄식하는 노래다. 이어서 소세양이 지은 노래 '농가의 괴로움'을 보면 "붉은 해 중천에 떠 있는데 괭이질에 진땀나고 입안이 바싹 타들어간다며느리 시어머니 같이 일하며 아해에게 젖 줄 틈도 없는데 여름에는 가뭄이요 가을에는 궂은비라 벼베기도 못했는데 아전은 세금독촉, 아버지와 아들이 머슴살이 떠나면서 부여잡고 서로 우는 농가의 괴로움을 그

누가 알까"하는 노래다. 이 노래도 농사의 괴로움과 식량부족으로 요약 된다.

또 다시 윤현의 '가엾은 농사꾼'을 보면 "귀공자들 비단옷 입고 취해 춤추며 청루에서 즐기는데 농사꾼은 봄 가뭄에 김매며 갖은 신고를 다해도 배 채우기가 어려운데 세금 낼 날짜는 촉박하고 묵은 세금도 내야하니 장리 쌀 갚기도 어려워 장차 무엇을 먹어야 하나. 세상에는 주공(周公)같은 성인이 없는데 누가 농사꾼의 어려움을 알아줄까" 요컨대 이 노래도 생산력 부족에 따른 식량부족이 가엾은 농민이 된 원인이다.

다음으로 이식의 '가을비 탄식'을 보면 "여름가뭄으로 산에 풀 한포기 없더니 거친 밭에 열흘이나 가을비가 퍼붓는다. 군량 확보가 급하다고 조세(현물세) 매기는 관리가 문 앞에 서 있다. 도망치면 연좌(連坐)로 이웃 고생시킬까봐 방안에서 부부가 마주 보고 우는구나." 이 노래도 제목은 가을비 탄식이지만 생산력 부족이 탄식의 원인이다. 또 18세기 정래교의 '농가의 탄식'의 한 구절을 보면 "호포(戶布)로 베 바치니 몸에 걸칠옷이 없고 관청에 환자 갚으니 낟알 한 톨 안 남는다. 산골에 눈 깊은데이엉으로 바람 막고 겨로도 배 못 채우고 거적 덮고 잔다."는 참상을 읊은 노래다.

끝으로 19세기 정약용의 '궂은비 탄식'도 "철지나 모내기 하여도 한톨의 벼도 거둘 수 없는데 궂은비는 억세게 내려 물이 무릎에 차자 농사를 모르는 고을 원님은 비 내렸으니 모 심으라 독촉한다."는 희극적인 내용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조선시대 선비들이 한문체로 읊은 103제목 309수의 농가 노래는 대부분 농부나 아낙의 입장에서 벼 보리 재배나 누에치기 과정의 어려움이나 먹거리, 입을 거리 부족에다 조세납부 등의 고통을 서러운 넋두리로 읊은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슬픈 노래들이 18세기 이후부터 갑자기 줄어든 것은 17세기 이후 고구마, 감자, 옥수

수 등의 새로운 식량작물이 도입 재배되었고 모내기 재배가 보편화 되어 노동생산성이 오른 데다 덧거름, 이삭거름의 추가적 시용으로 농업생산 력이 향상됨에 따라 식량부족이 크게 호전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 증거가 초근목피를 먹도록 대대로 권하던 구황서(救荒書)가 17세기 이후 전혀 새로 출판되지 않은 것이 그 반증이다. 식량사정이 호전되자 농촌의 슬픈 노래는 간 데 없고 농촌에서조차 농사와 상관없는 사랑민요나 대중가요만 억세게 부르게 되었다.

#### 4.5. 17세기초 허균(許筠)의 팔도명산식품

허균(許筠 1569~1618)의 저술인 식품서 「도문대작(屠門大嚼)」을 보면 그가 살았던 17세기초 우리나라의 명산식품이 풀이되어 있다.

「도문대작」이란 책의 제목은 그 뜻이 푸줏간 앞을 지나며 크게 고기 씹는 시늉을 한다는 뜻이다. 어째서 씹어 먹지 않고 시늉만 하는 뜻으로 책의 제목을 삼았을까? 그는 시관(試官)으로 있으면서 자기 조카 '허요'를 부당하게 급제시켰다는 탄핵을 받아 전북 익산의 함열에 유배되었다. 그것이 그의 관료생활에서 네 번째 탄핵이었다. 그는 귀향살이의 궁색한 생활 속에서 먹고 싶은 게 하도 많았던지 일찍이 자신이 맛을 보았던 팔도의 명산식품을 기록하고 가끔 이를 보면서 이를 한 점의 고기로 여겨 침을 삼키면서 주린 배를 달랬다는 것이다.

1611년(광해군3) 4월 21일자로 쓴 이 책의 서문격인 도문대작 인(引)을 보면 "선친 '허엽'(許曄 경상감사)이 생존할 때는 사방에서 생산되는 명산물을 예물로 바치는 자가 많아 어릴 때 진귀한 음식을 고루 들었고 커서는 부잣집에 장가들어 산해진미를 고루 맛볼 수 있었다… 임진왜란 때는 외가가 있는 강릉에서 해산물을 골고루 맛보았고 벼슬길에 오른 뒤

로는 남북으로 전전하며 우리나라에서 나는 별미를 고루 먹어볼 수 있었다. 먹는 것과 성욕은 사람의 본성이다... 내가 죄 지어 유배되어 쌀겨마저도 부족하여 밥상에 오른 것은 마와 상한 생선이나 돌미나리 등이었고 그것도 끼니마다 먹지 못하여 굶주린 배로 밤을 지새울 때면 언제나 지난날 산해진미도 물리도록 먹어 싫어하던 때를 생각하고 침을 삼키곤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도문대작」에는 모두 132종의 식품이 풀이되어 있는데 그중 명산식 품으로 널리 알려진 것들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하늘이 주었다는 배 품종으로 천사리(天賜梨)라는 배를 들고 있다.

「도문대작」에는 강원도 정선이 주산지인 금색배(金色梨), 평안도 산고을에 주로 나는 검푸른 빛깔의 배로 수분이 많고 꿀맛이 나는 검은 배(玄梨), 함경도 안변의 석왕사에서 나는 붉은배(紅梨), 황해도 곡산과 강원도 이천(伊川)이 주산지로 과일이 크고 맛이 좋은 대숙배(大熟梨) 등 다섯 품종이 열거되어 있다. 그 중 천사리는 우리나라 성종(1470~1494)년간에 강릉에 사는 진사 김영(金瑛)의 집에 홀연히 배나무 한 그루가 돋아났는데 그 열매의 크기가 사발만하고 맛이 달고 과육이 연하다 하였다. 여기서 홀연히 배나무 한 그루가 돋아났다는 뜻은 그 조상을 알 수없는 일종의 돌연변이(突然變異)의 신품종으로 추정된다. 사발크기의 배가 맛이 달고 과육이 연하여 당시 널리 보급되었다는 것이다. 그 품종명을 하늘이 주신 배라고 이름한 것으로 보아 여러 배 품종 중 으뜸가는 명산 품종이 아닌가 여겨진다.

둘째로, 감 품종으로 조홍시(早紅柿)라는 품종이 있는데 같은 조홍시라 하더라도 충청도 온양에서 생산되는 조홍시가 붉고 달고 수분이 많다고 하였다.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조홍시는 이만 못하다는 것이다. 또 과실이 모(角)가 진 각시(角柿)라는 품종은 경기도 화성의 남양에서 생산

된 것이 가장 좋고 곶감용 품종으로는 지리산에서 생산되는 오시(烏柿) 가 좋다 하였다. 검푸른 빛깔의 과실이 둥글고 끝이 뾰족한데다 수분이 적어 꼬챙이에 꿰어 말려 곶감용으로 쓰기에 알맞다는 것이다.

셋째로, 밤은 밀양에서 나는 밤이 알이 크고 맛이 가장 좋고 지리산에서 생산되는 밤은 알은 크지만 맛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밀양산만 못하였던 것 같다. 다만 상주에서 생산되는 품종은 알이 작은데 속껍질이 저절로 벗겨지는 특징이 있어 이를 겉밤이라고 부른다 하였다.

넷째로, 대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은에서 생산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였다. 알이 큰데다 씨는 작고 익으면 붉고 물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도 보은 대추가 유명한데 그 명성은 4백년 전인 17세기 이전 15세기부터의 명성이 있었던 것 같다. 세종실록지리지(1432)를 보면보은 대추가 진산품인 토공(土貢)품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여러 가지 복숭아에 대하여 명산을 밝혔는데 과일이 누런 빛깔인 황도(黃桃)는 춘천과 홍천에서 많이 나고 과피에 털이 없는 승도 (僧桃)는 전주산이 크고 달며 반도(盤桃)는 시흥과 과천산이 맛이 좋았는 데 당시에 이미 절종이 되어 아쉽다 하였다.

여섯째로 자두는 삼척과 울진산이 주먹만큼 크고 수분이 많으며 푸른 빛깔의 록이(綠李)종은 서울 서교(西郊)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였고 과실이 붉고 누른빛깔의 자황도(紫黃桃)는 알이 작다 하였다.

일곱째로 포도(蒲桃)는 마유(馬乳)품종은 드물어 황해도 신천(信川)에 사는 윤대련(尹大連) 집에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맛이 매우 좋아 중국산에 뒤지지 않는다 하였다.

여덟 번째로 과채류 중 수박(西瓜)은 고려 때 홍다구(洪茶丘)가 개성에 심은 것이 우리나라 수박의 기원이라 한다. 홍다구는 원나라 장수로 1270년 삼별초란 진압 때와 1281년 일본 정벌 때 두 번에 걸쳐 우리나라에 주둔한 바 있는데 그 두 번의 기회 중 어느 경우에 수박을 심었는지

는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충주산이 상품인데 모양이 동아 같으며 원주산이 버금간다 하였다.

아홉 번째로 참외는 평안북도 의주산이 과일은 작아도 속에 씨가 작고 맛이 달다 하였다.

열 번째로, 각종 채소의 명산품이 풀이되고 있는데 마늘은 강원도 영월산이 가장 좋은데 그 이유가 먹어도 마늘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는 경기도 연천의 삭령산이 썩 좋은데 비단 파 뿐이 아니라 삭령에서 나는 부추, 고수, 작은 마늘 등도 모두 품질이 좋다는 것이다. 생강은 전주산이 가장 좋고 담양과 창평산이 버금가며 토란은 호남과 영남산이모두 크고 좋은데 서울산은 맛은 좋아도 알이 작다 하였다. 무는 나주산이 좋은데 맛이 배와 같고 수분이 많다는 것이다. 야채로 거요목(苜蓿 Alfalfa 콩과 목초로 어린잎을 삶아 무쳐먹음)은 원주산이 줄기가 희고 매우 맛이 있으며, 표고는 제주산이 좋고 동아는 충주산이 좋다 하였다. 그밖에 고사리, 아욱, 부추, 송이 등은 어디에서 나든 맛이 좋아 구별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하였다.

다음으로 짐승에 대해서는 곰의 발바닥(熊掌)요리를 첫째로 들고 있다. 산골에는 어디에나 있으나 요리를 잘하지 않으면 제 맛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 강원도 회양의 요리가 가장 좋고 평안도 의주 희천(熙川)이 버금간다 하였다. 표범의 태(豹胎)요리는 양양에 잘하는 이가 있다한다. 다른 곳의 요리는 불결하여 먹을 수 없다 하였다. 사슴의 혀(鹿舌)요리는 회양사람들이 요리한 게 매우 맛이 있고 사슴꼬리(鹿尾)요리는 전북 부 안에서 그늘에 말린 것이 가장 좋고 제주산이 버금간다. 꿩(膏雉)요리는 황해도 양덕과 맹산 산이 좋다 하였다.

수산물의 명산품 중 숭어는 서해 어느 곳이나 있지만 한강의 것이 가장 좋다 하였고 나주에서 잡은 것은 크고 평양에서 잡은 것은 얼린 것이더 맛있다 하였다. 붕어는 어느 곳에나 있지만 강릉의 경포(鏡浦)가 바닷

물과 통하기 때문에 흙내가 안 나고 맛이 있다. 위어(葦魚)는 일명 준치다. 한강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다. 호남에서는 2월이면 잡히고 관서지방은 5월에야 잡히는데 모두 맛이 좋다. 뱅어(白魚)는 얼음이 언 때 한강에서 잡은 것이 가장 좋다. 충청도 임천, 한산, 그리고 전라도 임피 지방에서는 1~2월에 잡히는데 국수처럼 희고 가늘어 그 맛이 매우 좋다 하였다. 노란조기(黃石魚)는 서해 어디에나 나는데 아산의 것이 가장 좋다. 삶으면 비린내가 안나기 때문이다.

오징어는 서해 일부 지방에서 잡히는데 홍덕과 부안산이 가장 좋다. 소라는 서해에서 많이 나는데 옹진 것이 가장 좋다. 청어(靑魚)는 네 종류가 있다. 북도에서 나는 것은 크고 배가 희고 경상도에서 잡히는 것은 등이 검고 배가 붉다. 호남에서 잡히는 것은 조금 작고 해주에서는 2월에 잡히는데 매우 맛이 좋다. 옛날에는 매우 흔하였으나 고려 말에는 쌀한 되에 40마리 밖에 주지 않았으므로 목은 이색(李穡)이 그를 한하였으니 난리가 나고 나라가 황폐해져서 모든 물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어도 귀해진 것을 탄식한 것이다. 명종 이전만 해도 쌀 한말에 50마리였는데 지금은 전혀 잡히지 않으니 괴이하다 하였다.

큰 전복은 제주산이 가장 크다. 맛은 작은 것만 못하지만 중국사람들이 매우 귀하게 여긴다. 해삼은 옛날에 이(泥)라고 부르던 것으로 중국인들이 좋아한다.

금린어(錦鱗魚)는 산골 어디에나 나는데 양근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다. 본래의 이름은 천자어(天子魚)였는데 중국 사신 동규봉(董圭峯)이 먹고 맛이 좋아 이름을 물으니 통역이 얼떨결에 금린어라고 하였는데 모두좋다하여 금린어가 되었다.

복어는 한강에서 나는 것이 맛이 좋은데 독이 있어 사람이 이를 먹고 많이 죽는다. 영동산은 맛은 떨어지지만 독은 없다.

송어(松魚)는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많이 나는데 바다에서 잡은 것은

맛이 좋지 않다. 알은 연어만 못하다. 은어(銀魚)는 동해에서 난다. 처음 이름은 목어(木魚)였는데 고려 때 좋아하는 임금이 있어 은어라고 고쳤다가 많이 먹고 실증이 나자 다시 목어라고 하여 환목어(還木魚 도로목)라 하였다.

석화(石花 굴)는 고원과 문천에서 나는 것이 크지만 맛은 서해에서 나는 것만 못하다. 왕새우(大蝦)는 서해에서 난다. 평안도에서 나는 새우알로 것을 담그면 매우 좋다.

죽 종류 중 하나만 들면 방풍죽(防風粥)이 있다. 허균의 외가는 강릉으로 그곳에 방풍이 많이 난다. 2월이면 그곳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 이슬을 맞으며 처음 돋아나는 방풍 싹을 따다 곱게 찧은 쌀로 죽을 끓이는데 반쯤 익었을 때 방풍 싹을 넣는다. 다 끓으면 차가운 사기그릇에 담아 따뜻할 때 먹는데 달콤한 향기가 입에 가득하여 3일 동안 가시지 않는다. 세속에서는 참으로 상품의 진미다. 나는 후일 수안군수로 있을 때 시험삼아 한번 끓여먹어 보았더니 강릉에서 먹던 맛과는 어림도 없었다.

또 석용병(石茸餅)은 보통 석이병(石耳餅)이라 한다. 허균이 금강산에 구경가서 표훈사(表訓寺)에서 자게 되었는데 그 절의 주지가 저녁상을 차려왔다. 상에 떡 한 그릇이 있는데 구맥(瞿麥 귀리)을 빻아 체로 여러 번쳐서 곱게 가루를 낸 후 꿀물을 넣어서 석이와 반죽하여 놋쇠 시루에 찐 것인데 그 맛이 매우 좋아 찹쌀떡이나 감떡(柿餅)보다 훨씬 낫다 하였다.

허균은 재사였다. 한번 맛본 식품을 용케 기억하고 굶주리던 귀향살이에서 이를 기록하여 침을 삼키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인박덕이란 옛말이 있듯이 처신이 너무나 가벼워 48세의 아까운 나이에 역적으로 몰려 저잣거리에서 능지처참에 처해졌으니 어찌 그 재주가 애석하지 않은가?

#### 4.6. 사라져버린 권농일, 아쉬운 농촌의 우리 민속

세월의 흐름에 따라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생활양상이 바뀜에 따라 농촌이나 농업의 풍속도 사라져가고 있다. 가장 확실하게 사라진 것은 아마도 국가적 행사였던 권농일(勸農日)이 아닌가 여겨진다.

조선시대 새해가 되면 역대 군왕들이 세수권농교문(歲首勸農教文)을 발하여 만백성으로 하여금 농사가 국가의 대본임을 재인식토록 강조하면서 권농의 뜻을 구구절절이 되풀이 하였다. 또 역대 임금은 이른 봄, 밭갈이 시범을 하였는데 영조 때 편찬된 친경의궤(親耕儀軌)를 보면 매년 3월 20일 왕이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동적전(東籍田)에 나아가 봉상시(奉常寺)의 부축을 받아 쟁기로 밭갈이를 하는 친경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그 뜻은 이른 봄에 왕이 몸소 농경의 모범을 보임으로서 천시(天時)라 이름하는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시범하면서 만백성에게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임을 재인식시키자는 것이었다.

광복 후에는 모내기 최성기의 하루를 골라 권농일(勸農日)로 삼고 국가적 행사로 모심기를 하여 농사의 중요성을 고취시켰다. 1950년대에는 6월 15일, 1960년대에는 6월 10일, 1973년부터는 6월 첫 주의 토요일, 1985년부터는 5월의 넷째 화요일 등 계속 모내기를 앞당겨 왔었다. 그것은 모내기가 증산의 중요한 요인인데다 생육기간이 긴 새로운 품종이 육성 보급되어 첫서리 이전에 벼를 완숙토록 하고자 함이었다.

쌀 증산이 가장 강조되던 1970년대에는 대통령이 직접 모를 심으면서 권농일 행사를 거행하였고 권농일 전후로 군인, 학생들까지 온통 들에 나아가 일손 돕기로 적기에 모심기를 끝냈다. 1980년대 이후 쌀 증산으로 수요가 충족되자 부처님 공양미도 빵으로 대신하던 혼분식 장려도 사라지고 권농의식도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권농일마저 사라져 버렸다. 권농 주관부처인 농정당국마저 권농일을 챙기지 않으니 농업의 중요

성마저 인식하는 이가 없는 것 같다. 이래도 되는지 앞날이 의심스럽다. 덴마크에 농업연수를 갔다 온 사람의 보고서를 보면 그 나라는 국내 수 요량의 6배에 달하는 식량을 생산하면서도 식사 때 거친 검은 빵을 먼저 먹은 후 다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다. 그 까닭을 물은즉 지난날 전쟁 후 국토가 황폐화되어 식량부족으로 보리빵으로 연명하던 고충을 잊지 않고자 국민 모두가 거친 빵을 먼저 먹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 수요량의 20% 수준의 곡류를 생산하는 우리가 권농의 상징적 의미마저 잊어도된단 말인가.

또 아쉬운 것은 통과의례(通過儀禮)에 따른 농촌의 사회교육마저 사라진 것이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반 즈네프(Arnold Van Gennep, 1873~1957)는 사람의 일생 중 출생, 성년, 결혼, 사망 등 한 생에 겪는 가지가지 의례나 습속을 한마디로 묶어 통과의례라 이름 하였다. 그 의례 중 우리 농촌에 그 전통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죽은 이를위한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인 것 같다. 이제 산자를 위한 관례(冠禮)나전통혼례(婚禮) 등은 민속박물관의 진열물을 보고서도 그 원형을 짐작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그러나 상례(喪禮)도 전통의 보류인 농촌에서마저 그 원형이 사라져버렸다. 필자가 어릴 때 보던 상주의 굴건(屈巾)이나 상복, 행전(行纏), 그리고 머리와 허리에 굵게 동여맨 수질(首經), 요질(腰經) 등은 진작 사라졌고 대나무와 오동나무를 부모의 어느 경우에 상장(喪杖)으로 쓰는지조차 분간하는 이가 거의 없다. 생전에 망인(亡人)의 공덕을 기리던 만장(輓章)도 볼 수 없고 대곡(代哭)까지 시키던 상가의 곡성도 들을 수가 없다. 상주의 답례 인사장에 양친의 한쪽이 버젓이 생존해 있는데도 양친이 모두 사별 하였을 때 쓰는 고애자(孤哀子) 아무개 올린다는 식의 인사장이 배달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그것도 옛이야기가 된 채 간단한 문자메시지가 스마트폰에 어른거린다.

3년 상복(喪服)은 백일탈상도 길었던지 불교를 신봉하지 않는 이조차 불교도가 하는 49일 탈상으로 축소되더니 이제는 삼우제(三虞祭)만 지 내는 삼일탈상(脫喪)으로 끝내고 있다. 그래도 이런 변화에 미련은 없다. 예절도 톱니바퀴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디지털시대에 걸맞아야 하기 때 문이다. 아쉬운 것은 꽃상여(喪輿) 메고 가는 운구(運柩)행렬의 상엿소리 (輓歌)다. 마을 젊은이들이 상여 메고 천천히 마을 어귀를 떠나갈 때 요 령(搖鈴)잡이의 가락 높은 선도창(先導唱)은 듣는 이웃까지 울리는 최루 성(催淚聲)이었다. 구구절절이 인생무상과 남은 한을 읊은 회심곡(悔心 曲)의 가락은 세계 어느 나라 장송곡보다도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숙 연한 사설이었다. 어버이를 모신 자 효심을 재촉케 하고 이웃 간에는 더 욱 화목토록 하며 수전노도 너그럽게 하는 것이 상여소리다. 그래서 상 여소리는 운구나 장례 그 자체를 위해서 뿐 아니라 농촌사회의 기풍순화 나 도덕의 재정비를 위해서도 더욱 필요한 존재였다. 마을의 상여소리는 권위 있는 어떤 효행교육 보다도 효과적인 사회교육이었다. 그러나 농촌 에서 상여가 사라지자 상여소리마저 사라진 채 그를 대신할 효행이나 사 회교육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각박한 민심만 무성한 것 같아 아쉽다.

또 아쉬운 것은 우리 농촌의 농악(農樂)이다. 농악이 언제 비롯되었는 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삼국시대 농사일이 끝나면서 제천의식(祭天儀式)을 행하고 남녀가 모여 가무음주(歌舞飮酒)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아마도 이때부터 농악이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확실한 기록은 고려 26대 충열왕이 농악을 장려하였다는 것과 조선 세조가 농악과 농가(農歌)에 관심이 커 이에 능한 사람을 궁중에 불러 연주케 하고 이들의 생계를 도왔으며, 가기(歌妓)들에게도 농악을 장려하였다고 한다. 고종 때에는 경복궁 재건공사 때에 농악대를 동원해 노역 인부들을 위로하면서 농악을 장려하고 육성하였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농악은 오랜 전통의 우리의 민족농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릴적 고향에서 보던 정초의 걸립(乞粒)굿이나 지신(地神)밟기, 그리고 한여름 두렛일 때의 농악놀이는 구경하는 마을의 남녀노소를 신명나게 하는 것이었다. 상쇠를 선두로 장고, 북, 징잽이의 조화로운 가락이흥겹게 어울려 집집마다 한마당씩 울리고 다닐 때면 점잖은 노인들마저 엷은 어깻짓을 하게 마련이었다. 오색띠로 치장한 소고(小鼓)잡이의 긴 상모가 팔랑개비처럼 돌아가다 보면 장단은 잦아지고 원무(圓舞)의 한마당이 끝나가는 절정이 된다.

7월이 되면 농촌은 불볕더위 속에 기음매기로 고된 나날이 계속된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대형의 농기(農旗)를 논두 렁에 세워놓고 수십 명의 일꾼들이 열을 지어 두레기음을 맬 때 느릿하게 시작한 가락은 점점 박자를 서두르다 마침내 자지러질듯 빨라지면 일꾼들의 호미질도 장단에 맞추어 눈코 뜰 새 없이 재빨라진다. 상쇠의 끝맺음 장단이 울리면서 일제히 함성이 오르자 어느새 한 배미의 기음매기는 끝나게 된다. 그 함성 속에서 농민은 가난과 고통을 잊고 마을공동체의 연대의식이 굳게 다져지며 잠시나마 삶의 희열을 맞보게 된다. 가락과 노동이 혼연일체가 되는 음악이 농악 이외에 이 세상 또 있을까?

그런 점에서 농악은 면면이 이어온 우리민족의 고유한 음악이며 농민들에겐 베토벤의 전원교향악곡 보다 더 공감을 살 수 있는 노동의 가락이다. 농악의 신묘함은 노동으로 손마디가 굵어진 달인(達人)들이 무아의 경지에서 신들린 듯 악기를 다룰 때만이 가능하였다.

그 달인들의 농악은 진작 농촌에서 사라진 채 도시나 학원에서 욕구분출의 데모 전주곡으로 바뀌었었다. 그때의 농악은 조화로운 농악이 아니라 귀청을 뚫는 파열음이었다. 그것도 잠시, 최근에는 노동조합의 데모 행렬에도 파열음의 농악마저 사라져 버렸다. 농민들 놀이에서 조화롭던 농악이 도시 노동자들의 데모전주곡으로 쓰이면서 파열음으로 바뀌더니이제는 그 파열음조차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 가락과 노동이 혼

연일체가 되던 달인들의 농악은 늙은이의 추억으로만 남는 것인가?

지난날 농촌민심은 순박하고 아름다웠다. 모처럼 마련한 색다른 제사음식은 다음날 노인이 사는 집에 먼저 보내졌다. 길에서 동네 노인을 만났을 때는 공손한 인사와 더불어 앞길을 사양하였다. 어쩌다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젊은이가 노인을 외면한 채 당당하게 앉아있는 버릇없는 꼴을 보면 지난날 농촌의 아름다운 예절을 추억하게 된다.

농촌에서는 자녀들의 가정교육도 공동으로 대처하였다. 백살을 바라보는 이 나이까지 기억이 생생한 내 경험을 밝혀보면 몇 살 때 일인지 확실한 나이는 기억할 수 없다. 자다가 내가 오줌을 쌌던지 어머님은 식전에 내게 키를 씌워 주시며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가서 소금을 받아오라하시었다. 나는 왜 소금을 받아와야 하는지도 몰랐다. 나는 내 키보다도큰 키를 머리에 쓴 채 질질 끌면서 이웃집에 갔다. 댁호(宅號)가 좌촌(坐村)댁인 이웃 아주머니는 평소 온화한 중년부인 이었는데 그날따라 무서운 얼굴이었다.

내가 소금 받으러 왔다고 여쭙기도 전에 내가 지난밤에 오줌 싼 것을 알아차리고 한웅큼의 소금을 내개 뿌리며 또 오줌을 싸겠느냐고 종주먹을 대는 것이었다. 가장 놀란 순간은 들고 있던 부지깽이로 내가 쓰고 있던 키를 드르륵드르륵 내려 긁으면서 다짐을 받던 순간이었다. 이 의외의 사태에 나는 하늘이 꺼지는 듯 그 어떤 천동(天動)소리 보다도 무섭고놀래 순간이었다.

그 후 나는 다시 키를 쓰고 소금 받으러 갔던 기억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좌촌아주머니의 부지깽이 효과는 아주 컸던 것 같다. 농촌의 자 녀교육은 이와 같이 상호 묵시적 청탁으로 이루어졌다. 맹자(孟子) 이루 장구(離婁章句)에 나오는 역자이교(易子以敎)가 바로 이것이다.

효행 교육도 그렇다. 한여름 마을 공동 작업으로 세 번의 두레기음 매기가 끝나면 농부들의 모습은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꼴이 된다. 가장 경

제적인 소복(蘇復)의 길은 마을 공동으로 5~6두의 개를 잡아 모여앉아 보신탕을 만드는 것이었다. 큰 투가리에 한 그릇씩의 보신탕이 배식되면 노부모를 모신 분 들은 자기 몫의 그 국을 먹지 않고 식지 않도록 호박잎 을 덮어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마을의 아해들은 그 꼴을 보고 어째서 국을 자신이 먹지 않고 가져가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렇게 할 것을 다짐한다. 이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농촌과 마을사회의 묵시적 효행 교육이다. 오늘날 불효를 넘어 패륜적 행동으로 부모를 울 렸다는 기사를 대할 때마다 지난날 두레 음식을 자신이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던 고향 마을의 어른들을 회상하게 된다.

또 아쉬운 것은 사라져버린 농촌의 가족 복지제도이다. 우리 농촌은 전통적으로 장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장손이나 여유가 있는 집에서 어려운 친척들을 보살피는 관행이 있었다. 필자는 이것을 가족복지제도라고 생각한다. 이 가족복지시대는 자녀수가 보통 3~5명씩 이었다. 가난해도 자녀에 대한 부담에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천불생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이라고 하늘은 록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는다는 가족복지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족복지가 연금이나 보험 등 사회복지로 바뀌면서 신생아수가 급감하자 드디어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에서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적은 (0.82명)나라가 된 것이다. 신생아 수가 적고 인구가 감소하면 국력이 쇠퇴하기 마련이다.

최근 수백조원의 예산을 써가며 정부가 신생아 수를 늘리고자 하여도 실효가 없다는데 가족복지시대의 신생아 수가 늘던 지난날의 장점을 참 고할 수는 없을까?

사라져서 시원한 것은 농촌의 무속(巫俗)신앙이다. 어릴 때 농촌에는 가지가지 귀신이나 도깨비가 많았다. 병이 나도 귀신에게 빌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무녀(巫女)나 박수(巫男)가 생활할 수 있도록 기원행사

가 빈번하였다. 이제 과학이 발전하자 농촌에서조차 무속이 사라지고 신 당(神堂)이나 성황당 등의 시설마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지난 반세기 농촌사회는 너무나 많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었다.

# 제5장 **시사를 통해 본 고사**

#### 차 례

- 5.1. 승정원과 대통령비서실
- 5.2. 목양장(牧羊場)이었던 경무대(청와대)
- 5.3. 이런 경제수석도 있었다
- 5.4. 대선공약과 국가의 장래
- 5.5. 망백(望百)의 비망록
- 5.6. 농업사 연재를 마치며

# 5.1. 승정원과 대통령비서실

최근 보도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의 행태를 접하면서 조선시대의 승정 원(承政院)을 생각하게 되었다. 승정원과 대통령 비서실은 최고 통치권 자를 보좌한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되기 때문이다.

고려 충열왕 이래 세종15년까지 대언(代言)이라 불렀던 승정원의 승지(承旨)들은 그 품계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공무원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이전(吏典)조에 명시된품계다. 우두머리인 도승지(都承旨)를 포함 6승지가 모두 같은 품계로옥관자(玉貫子)를 꾀었지만 당상관(堂上官)으로는 말석의 품계다.

따라서 승지들의 이 품계는 오늘날 대통령비서실의 구성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품계로 여겨진다. 총리와 부총리격인 의정부 삼정 승이 정1품이고 장관격인 6조(曹)의 판서(判書)들이 정2품이며, 차관격인 6조의 참판(參判)들이 종2품인데다 차관보급인 참의(參議)가 정3품이기 때문이다. 왕의 수라(水刺)나 청소, 그리고 문지기 등 하찮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내시부(內侍府)의 상선(尙膳)도 종2품인데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의 국정을 보좌하는 승지들의 품계가 겨우 정3품임은 무슨 까닭일까?

승지들의 품계가 높으면 장관격인 판서들 위에 군림(君臨)하기 쉽기때문이다. 벼슬이 높으면 속된 말로 갑(甲)질하는 게 벼슬의 속성이다. 승지들이 왕을 등에 업고 갑질이나 군림을 못하게 예방하는 장치가 바로 승지들의 품계를 육조의 참의급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文)정권이 들어서자 승지격인 대통령비서실 비서들의 직급을 거꾸로 상향조정 하였다. 정부조직법 제14조1항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하였고, 2항에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라 하여 실장만이 장관과 동급으로 하고 그 밑에 정무, 경제, 민정 등의 수석(首席)들을 두어 분야별로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

수석으로도 해당부처 장관들은 대통령을 의식, 수석들한테 은연중 부담을 느끼는 판에 문(文)정권은 대통령령(令)을 고쳐 "대통령 비서실에 정책실을 두고 실장 1명을 둔다."를 신설하여 정책실장이 장관이나 비서실장과 급이 같도록 격상시킨 것이다. 종래대로도 행정 각 부처는 대통령비서실의 압력을 느끼는 판에 한 계단 높은 정책실장의 신설은 비서실의 군림이나 갑질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다. 승지들의 품계를 하향고정한 것과 정 반대의 작태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던가? 2018. 12. 10일자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질 되었는데 실은 2개월여 전에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전격적으로 경질 발표된 것을 후임 경제부총리 국회 청문회 관계로 시일이 걸려 경제부총리만 뒤늦게 경질 발령 된 것이다. 경질의 발단은 국회 예결위 의원질의에 "우리 경제가 위기인가?" 하고 물은데 대하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데는 동의할 수 없지만 경제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하였다(동아 '18. 11. 13.).

말끝을 흐렸지만 묻지 않은 의사 결정까지 답한 것을 보면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한 답변이었다. 참아왔던 감정이 질의를 계기로 분출된 것이다. 이 말이 보도되자 경제부총리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해임되었는데 그 해임은 정책실장을 신설할 때부터 이미 예약된 결과였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정책실장이 경제부총리 위에 군림한 대표적 본보기다. 좋게 말해 불협화고 사실대로 말할 때 갑질이나 군림의 결과였다.

둘째로, 승정원과 대통령 비서실은 기능은 같으면서도 구성원의 선임은 전혀 다르다. 먼저 승지들의 선임을 밝혀보면 이조(吏曹)에서 삼비망(三備望)이라 하는 삼배수 추천서를 왕께 올려 왕이 낙점(落點)하는 자가 승지로 임용되었다. 이 삼비망에 오른 후보는 일선 경험이 풍부해 민정에 밝을 수 밖에 없는 인사들이다. 오늘날 공무원법 인사총칙에 해당하는 경국대전 이전(吏典)의 서두를 보면 "수령(현감)을 거치지 않은 자는 4품 이상의 품계에 오를 수 없다(非經守令者 不得陞四品階)"라 규정되어 있어 승지들은 승지의 물망에 오르기 전 말단 수령 때부터 민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수령의 임기가 최소한 1,800일(만5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조정의 4품 이상 관료들은 인사제도상 민정에 밝으면서 승지로 선임되기 전 왕과는 친숙할 기회가 전혀 없는 인사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통령비서실의 실장이나 수석들은 대부분 이념지향적 운동권 출신으로 문(文)정권 창출에 협력한 공신들이면서 임명 이전부터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고위직이 묵시적으로 예약된 인사들이다. 이

들의 결함은 승지들과 달리 대부분 민정에 밝은 인사들이 아니란 공통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의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비서들이 대통령과 친숙할 경우 그만큼 군림이나 갑질의 정도가 더욱 강화될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령 군림하지 않았어도 받아들이는 행정 각 부처 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뜻이다.

예컨대, 5.16 군사혁명 후 혁명주체세력들의 위세가 그러하였고, Y.S 정권때 속칭 좌동영(左東英) 우형우(右炯佑)라 하던 이들의 군림이 그러 하였다. 현 정권의 예를 들면 2018년말 대통령 외유중 비서실장이 사무실을 비워둔 채 색안경 끼고 유해발굴 현장인지 38선에 나타난 화면이보도 되었다. 그것도 국방이나 통일장관과 같이 나타난 화면이눈에 설었다. 그 화면을 보며 정권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실장이었다면 대통령 부재중 사무실을 비워둘 수 있었으며 군림이 아니라면 대통령이나총리만이 가능한 장관들 대동이 가능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기때문이다. 그러기에 이 화면이 방영된 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총재는 "자기정치하려면 나와서 하라"는 야유성 권고가 있었음을 국민들은 모두기억할 것이다.

그 둘은 이념적 운동권이나 교수 출신들의 비서들은 자칫 민정에 밝은 승지들과 달리 경력상 민정이나 경제현실에 밝을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있어도 적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문정권의 간판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그 결과가 불확실한데다 시행 2년이 지났어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목표치를 밑돌아 사상최대의 6천억 달러를 수출하고도 연간 3% 성장의 목표치는 꿈으로 사라질 것 같기 때문이다. 경제현실을 모르고 세운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청와대 정책실이 경제실정에 좀 더 밝았더 라면 좀 더 부드럽게 정책을 연착륙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원자력발전도 그렇다. 미세먼지를 증폭시키는 화력발전을 계속하면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을 억제함도 현실을 모르는 정책입안이다. 내각의경제부처에는 수십 년간 경제정책에 경험 많은 관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어려운 시험을 거쳐 수십 년간 경험을 쌓은 능력 있는 엘리트 관료들이다.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방법을 사전에 그들과 협의하거나 공론화과 정을 거쳤더라면 새로운 정책시행에서 오는 충격은 다소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제현실도 모르면서 묻지도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런 비서들이 설익은 정책을 강행하자니 군림의 정도만 높아진다. 그 통에 공무원들은 다칠까싶어 복지부동하니 나라발전만 더디게 된다.

일자리도 그렇다.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일자리만 강조할 뿐 일거리를 만드는 기업보다는 친노동정책에만 힘쓰는 것 같다. 앞뒤가 뒤바뀐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정책이다. 그러니 2018년도 32만 명의 취업자를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는 3분의 1도 못되는 겨우 10만여 명에 그쳤고, 그나마 이 수치는 몇 십조 원의 나라 돈을 써 단기 고용한 숫자가 포함된 수치가 아니었던가?

셋째로, 승정원의 인원구성은 이조(東曹)의 업무를 왕께 진달하거나 왕의 하명을 이조에 전하는 도승지(都承旨), 호조(戶曹)의 업무를 담당한 좌(左)승지 예조(禮曹)담당의 우(右)승지, 병(兵曹) 담당의 좌부(副)승지, 형조(刑曹) 담당의 우부승지, 공조(工曹)담당의 동부(同副)승지 등 정3품의 6명의 승지와 정7품의 주서(注書) 2명 등 모두 8명으로 매우 단촐한 기구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의 인원구성은 경호실을 제외하더라도 비서실 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3명의 장관급 실장에다 10명의 차관급 수석과 2명의 보좌관 등 장·차관급만 15명이 넘고 모두 443명의 인원이 연간 9백억 원을 쓰고 있어 내각의 몇 개 부처 못지않은 방대한 인원이 아

닌가 추정된다. 아무리 조선시대보다 정책이 다기화 되고 할 일이 늘었다 하더라도 비서실장 밑에 시민사회수석과 정책실장 밑에 사회수석의 업무가 무엇이 다른지 국민 99.9%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실적이 없는 일자리 수석이나 하나마나한 인사수석 등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없다. 신설기구라서 더욱 눈이 설다.

문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자 등 일곱 가지 중 하나라도 범한 자는 공직 기용을 하지 않겠다 하였는데 고위인사 발표 때마다 한두 가지 안 걸린 인사가 없으니 인사수석이 한일이 무엇인가 묻고 싶다.

대통령비서실이 비대하면 내각이 위축되고 비서실 인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행정각부처가 할 일을 비서실로 가져가거나 하지 않아도 될 민간사찰까지 하다가 그것이 들통나서 국회까지 비화되어 정쟁의 불씨가 되고 있지 않은가? 8명의 승정원 인력으로도 5백년의 왕업을 이어온게 조선왕조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로, 조선시대 승정원의 승지들은 결코 정치표면에 나타난 사실이 없다. 조선왕조실록은 단일목적으로 편찬된 책으로는 세계제일일 만큼 그 분량이 방대한 기록이다. 그 방대한 기록 중 승지들이 국정에 이러쿵 저러쿵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승지들의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 5백년간 문과 합격자는 모두 1만 5천 명 정도다. 그중에 정3품의 승지에 오른 사람이 라면 모두 문과 합격에 다년간의 관료생활로 민정에 밝은 엘리트 중의 엘 리트 들이다. 그래도 승지들은 왕의 그늘에 숨어서 일하고 일한 결과는 왕이나 판서들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표출시키는 게 승지들의 임무였다.

그럼에도 문대통령의 비서들 중에는 대통령이나 총리, 그리고 법무장 관 등 헌법기관만이 할 수 있는 헌법개정이나 국회 법사위에 대해 이왈 저왈 등의 언급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그것도 법학교수 출신이라 더욱 의아하다.

또, 어떤 비서실의 한 사람은 대통령과 마주서 평교지간처럼 대등한 자세로 몸짓하며 대화하는 화면이 보도되는데 동일화면이 한 번만이라도 의아한데 잊을만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 다분히 의도된 방영이 아닌가 의아하게 한다. 꼭 필요한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하나 더 보탤 것은 대통령 부재중 미국에서 온 특사가 총리나 외무 및 통일장관을 제쳐두고 비서실장을 먼저 만난 것이 보도되었다. 아무리 문 정권의 막강한 실세라 하더라도 그 보도를 본 국민이면 그것이 정상이라 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주무장관을 동석시키는 등 국민이 의 아해 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진(秦)나라가 망할 때 지록위마(指鹿爲馬)라 하여 황제에게 사슴을 말이라고 고(告)하여도 바로잡을 신하가 없으리만큼 환관 조고(趙高)의 횡포가 컸음을 생각하며 20년 계속 집권 하겠다는 여당과 문정권에 참고 토록 승정원의 고사를 되뇌인 것이다.

# 5.2. 목양장(牧羊場)이었던 경무대(청와대)

지난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활짝 개방되었다. 실로 74년 만의 개방이란다. 하루 3만 9천 명의 시민이 6천 5백 명씩 6교대로 나누어 인기리에 관람하고 있다고 하다.

청와대는 그 면적이 백악관의 3배로 모두 25만 평방미터나 된다고 한다. 면적만 넓을 뿐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관저, 비서실(여민관), 영빈관, 상춘제, 춘추관, 안가, 기화요초로 조경된 정원의 수려한 경관 등 여러 관련시설이 있다.

또 북악산 아래 정교하고 아름다운 석조불상(보물 1977호)이 있고 서쪽 끝에는 왕비가 아닌 후궁의 신분으로 왕의 어머니가 된 인조, 경종(장희빈), 영조의 어머니 등 모두 일곱 분의 후궁들 위패를 모신 칠궁(七宮)이 있어 역사적 볼거리들도 있다. 앞으로 시설 내부까지 관람할 수 있다면 볼거리는 더욱 다채로울 것이다.

이 청와대는 경복궁의 후원(後苑)으로 조선 건국이래 왕의 친경(親耕) 의식이나 왕비의 친잠(親蠶)의식의 장소로도 쓰였고, 과거시험의 장소로 도 쓰였으며, 군대의 연병장인 융무당(隆武堂)으로도 쓰였다. 1939년에는 일제총독이 관저를 지어 쓰다가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쓰여 왔다. 그 명칭은 본시 경(景)복궁을 호위한다는 뜻의 경무대(景武臺) 였으나, 윤보선 대통령 때 청와대(靑瓦臺)로 개칭하여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게제에 이 청와대가 경무대로 호칭되던 한말, 한때 축산시험의 하나인 목양장(牧羊場)으로 이용된 사실을 밝혀 농업인의참고에 자하고자 한다.

황성신문(皇城新聞) 1902년 2월 22일자, 수입목양(輸入牧羊)이라는 소제목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국한문 혼용의 옛 용어는 필자가 현대어로 바로잡음).

"조선신보에 근거한즉 수삼일전 연대(烟台)에서 인천항에 들어온 기선 수전환(水田丸)에 양(羊) 9백여 두를 실어와 청인(淸人)이 운영하는 상점 동순태(同順泰)에 가두었다가 엊그제 서울로 운송하였는데 이는 궁중의 제사에 쓴다는 말이 있으나 일설에는 궁중사업으로 부평(富平)에서 기르기 위하여 도입하였다는 설도 있다더라." 하였다.

여기에 기록된 황성신문은 광무 21년(1898) 윤치소(尹致昭)가 창간한 국한문 혼용의 주간신문이다. 연대라는 지명은 중국 산동반도의 항구명 으로 기록의 요지는 9백여 두의 양(羊 유산양 추정)을 이 연대에서 도입 하였는데 도입주체는 궁중(宮中)이다. 그 용도는 제수용이나 사육용이 다. 사육용일 경우 사육장소가 부평으로 되어있는데 부평에서 기를 양을 서울까지 운송할 어리석음을 감안할 때 이는 아마도 오보일 것이다.

다시 황성신문 광무 6년(1902.7.17)의 급봉목양(給俸牧羊)이란 소제목의 기사를 보면 "년전 궁내부(宮內府)에서 한 외국인을 목양교사(牧羊教師)로 초빙하였는데 월급은 매월 2백 원(元)이요, 목양장소는 경무대안의 잠농소(蠶農所)로 쓰던 곳이다. 양 수백 두를 상해에서 도입하여 목양 한다더니 최근에 들은즉 그 양들이 모두 스스로 병들어 죽자 그 교사는 이를 변상하는 뜻에서 자기의 돈으로 양 수백 두를 다시 구입하여 기르는데 그 양들은 극히 번성한다더라." 하였다.

앞에 예시한 기사를 재해석하면 사업주체가 궁중에서 궁내부로 바뀌었고 연대에서 도입한 9백여 두의 양은 모두 병사하고 다시 상해에서 목양교사의 돈으로 수입한 수백 두는 경무대 내의 잠농소에서 건강하게 잘자란다는 뜻이다.

여기서 첫째로 의문인 것은 목양교사인 외국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그 해답이 황성신문 광무 6년(1902) 9월 16일자의 목사상지 (牧師相持)라는 소제목의 다음과 같은 기사에 기록되어 있다.

"궁 내부에서 법국(法國 프랑스)사람 소특(蘇特 M.Schott)을 초빙하여 농상소(農桑所)에서 양을 기른다는 것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현재우리 조정에서 임금(고종) 등극(登極) 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경례식(慶禮式) 때 여러 나라 대사들을 초청하여 원유회(苑遊會)를 베푸는 장소를 목장 안으로 정하자 소특씨가 인준하지 않으므로 외무부와 궁내부가이 일을 다시 협의 중이라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된 소특은 주한 프랑스 공사 갈림덕(葛林德 Collin de plancy)의 추천으로 1884년 5월 28일에 개장하였던 우리나라 최초의 농사시험장, 농무목축시험장(農務牧畜試驗場)의 후신인 종목국(種牧局)의 책임기사(技師)로 초빙된 사람이다. 그를 추천한 프랑스 공사 갈림덕

은 1888년 6월 7일부터 3개년 간, 1896년 4월 7일부터 3개년 반, 1901년 5월 24일에서 4개년 반 등 모두 3회에 걸쳐 11개년 간 주한공 사로 재임하면서 한국 여인에게 장가 든 지한파 공사였다.

둘째로, 여기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소특이 일하던 종목국(種牧局)의 내력을 약술코자 한다. 우리나라는 1882년 미국과 한미수호조약을 체결하자 주한 미국공사로 푸으트(Lucius Foote)가 부임해 왔다. 조선조정은 그 답례로 1883년 보빙사(報聘使)라 이름하는 외교사절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민비의 조카 민영익을 전권 대신으로 홍영식 등 8명의수행 사절과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등 3명의 통역 포함 모두 11명이었다. 이들은 미국에 도착 당시의 대통령 아더(Chester A. Arther)에게 신임장을 증정하고 그곳의 선진문물을 시찰하였다. 시찰과정에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곳의 농사시험장인 시범농장(Model Farm)이었다. 팔뚝만하게 영근 옥수수며, 인함박 같은 젖소의 큰 유방, 그리고 향기롭고 신선한 채소 '셀러리' 등이 탐났다.

사절들은 그해 연말에 귀국하여 고종에게 이를 고하고 우리도 이 같은 시설을 하여 부국강병의 기초를 다지자고 건의하자 고종은 즉시 내탕 금을 내려 다음해인 1884년 5월 28일에 정식 개장한 것이 왕실직속의 우리나라 최초의 농사시험장인 농무목축시험장(農務牧畜試驗場)이었다.

초대장장은 보빙사의 일원이며 무관이었던 최경석(崔景錫)이었고 작물시험은 용산구 청파동의 전답을 활용하고 축산시험은 성동구 자양동의 왕실목마장을 활용하였다. 이곳은 본시 태종 때 지은 이궁(離宮)으로 현재 낙천정(樂天亭)이 남아있다.

그러나 불행히 1826년 최경석이 병사하자 시험장은 통리군국사무아 문(統理軍國事務衙門)의 농상사(農桑司) 소속으로 개편되면서 명칭도 종 목국(種牧局)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 통리군국사무아문은 당시 선진문 물 도입의 전담기구로 독일인 목린덕(穆麟德)이 협판(차관)으로 있었다. 그 기구로 7개의 분사(分司)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인 농상사(農桑司) 는 농림업 전담부서였다. 당시 농상사 당상(堂上,책임자)은 후일 농상공 부대신이 된 김가진(金嘉鎭)이다.

이 김가진이 당상일 때 초빙한 최초의 외국인 채임기사가 영국인 작불뢰(爵佛雷 R. Jaffray)였는데 그가 최초의 2년제 농업학교를 개설코자하던중 1888년 돌연 병사하자 소특(蘇特)은 두 번째로 초빙된 외국인 기사인 셈이었다.

이 종목국은 개설초 미국에서 3백여 종의 농작물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맞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적응성검정시험을 하였는데 육지면이나셀러리 등의 농작물시험은 청파동 시험장에서 하였다는데 이를 남(南)종목국이라 이름하고 축산시험을 하는 자양동 시험장은 동(東)종목국이라이름하였다. 당시 미국에서 도입한 젖소는 유육겸용(乳肉兼用)의 저지(Jersey)품종이고 말은 씨이트랜드(Shetland)품종이며 돼지는 품종 미상하다.

소특은 1902년 산유량이 많은 젖소 홀스타인(Holstain) 20두도 새로이 도입하면서 젖소 시험은 현재 연세대가 있는 연희궁(衍喜宮) 부지의남단(신촌역 부근)으로 옮기고 말과 돼지는 성동구 자양동의 옛 이궁(현樂天亭일대)에서 계속하였다. 새로이 목양(牧羊)시험을 추가하여 경무대에서 하였으니 축산시험은 3곳으로 분산한 셈이다. 이 목양장을 신문에서 잠농(蠶農)소 또는 농상(農桑)소라 달리 호칭하였는데 호칭은 달라도뜻이 같은 동일 장소다. 성동구 자양동의 옛 목마장이나 젖소시험의 연희궁 남단, 그리고 경무대 내의 목양시험장은 모두 궁내부 소관의 왕실소유지다. 다시 밝힐 것은 농사 시험을 어째서 궁내부가 맡았는가 하는점이다. 앞에서 밝힌바 개설 당시에는 왕실 직속이었다가 1886년 종목국으로 개칭하면서 통리군국사무아문의 농상사에 소속되고 갑오경장 때인 1894년에는 농상공부 소속이었다. 고종은 농사시험에 애착이 있었

거나 부산물인 우유나 서양채소 이용 때문이었던지 1895년 다시 궁내부 소속으로 개편하였다. 그 후 1907년 5월 수원에 농상공부 권업모범장이 개설되면서 종목국은 문을 닫았는데 이때의 종목국 책임자의 품계는 차관급인 종2품 가의(嘉義)대부였다.

셋째로 궁금한 것은 조정이 경무대의 목양장을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 경례식(慶禮式) 때 외교사절 원유회(苑遊會) 장소로 쓰고자 하였는데 소특(蘇特)이 거절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 조정은 양떼가 노니는 산뜻한 푸른 초원에서 외교사절을 접대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특이 반대한 이유는 아마도 가축의 전염병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사람의 왕래가 잦으면 병균 전염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앞에 기록된 신문기사에서도 보았듯이 연대에서 1차로 도입한 9백여 두의 양이 몰살 주검한 원인이 전염병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 책임을 느껴 상해에서 수백두의 양을 다시 도입하였는데 당시의 경무대 양들은 소특이 자기 돈으로 변상한 것이다. 소특은 전염병이 두려워 감히 자기를 고용한 한말조정의 요청마저 거절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제 넷째로 궁금한 것은 경무대에서 못하게 된 원유회는 그후 어찌되었을까?

이를 위해 황성신문 광무 6년(1902) 11월 5일자 원유이기(苑遊移基) 라는 소제목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례식(慶禮式) 때 원유회(苑遊會) 장소를 경복궁 후원의 농상소로 정하고 준비하더니 최근에 들은즉 다시 동궐내 옥류천(玉流泉)으로 옮겨시공을 시작한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궐의 옥류천은 창덕궁과 창경궁 사이에 위치한 경관이 좋은 곳이다.

다섯 번째로 궁금한 것은 그 후의 축산시험과 소특의 활동에 관한 것이다. 고바야가와(小早川九郎)가 1944년에 쓴 조선농업발달사(朝鮮農業發達史)를 보면 1902년 우역(牛疫)이 발생, 연희궁의 젖소 20두가 도입

당년 모두 폐사한데다 연이어 돈역(豚疫)이 발생하여 세계적 품종인 자양동의 돼지마저 모두 폐사하였다고 한다. 이제 말과 양만 남은 것이다. 방역수단이 전혀 없던 당시의 사정으로는 대책이 없는 불가항력적 폐사다. 그 책임을 물어 궁 내부는 프랑스인 기사 소특(蘇特)을 1902년 8월에 해임하였다. 이때 소특은 억울하였을 것이다. 규장각에 보존될 당시외무부의 공문철을 찾아보니 1902년 10월 3일자 조회(照會) 39호에 외부협판(외무부 차관) 최영하(崔榮夏)가 프랑스 공사 갈림덕(葛林德 collin)에게 보낸 공문에 "지난 10개월간 지불하지 못한 소특의 월급과그 이자, 그리고 다음해인 1903년 2월 9일까지 5개월분의 월급과 귀국여비에다 회환손해비(回還損害費?) 등 모두 7,499원을 프랑스 대사관에송금하였으니 소특에게 전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남아 있다.

8월에 해임하고 일하지 않은 다음해 2월 9일까지 5개월간의 월급을 계산해 송금한 것을 보면 궁내부는 그의 무능에 크게 분개하였던 것 같다. 또 지적할 것은 10개월 간이나 월급을 체불한 것인데 이는 당시의 재정이나 회계제도의 빈곤 때문인지 의심스럽다. 그밖에 귀국 여비나 의문의 회환손해비는 초빙시의 계약 때문이라 믿어진다.

그 후 경무대의 목양장 운영은 계속 종목국에서 관리하다가 1907년 5월 15일 권업모범장 개장 직전에 폐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 5.3. 이런 경제수석도 있었다

조선일보 2021년10월7일자 34면을 보면 차현진이 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는 제(題)하에 그의 칼럼이 게재되어 있다. 그 내용의일부를 보면 "…… 김재익은 수재인데 인복도 많았다. 하영기, 김건(훗날한은 총재들) 등 서울대 문리대 선배들이 인사 규정을 고쳐가며 학업을

위한 그의 장기 휴직을 여러 번 눈감아 줬다. 박사 공부를 마칠 무렵 스 탠퍼드 대학을 찾아온 남덕우(훗날 부총리)를 만났다. 남덕우는 자신에 게 최신 경제이론들을 쉽게 풀이하는 김재익을 눈여겨봤다가 장관 비서 관으로 특채하고 경제수석으로 천거했다.

김재익은 원칙주의자였다. 그는 1960년대 말 농촌 민심을 달래기 위해 도입한 이중곡가제가 경제를 망친다고 보았다. 정부가 농민들에게 쌀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재정 적자만 심화되고 구조조정이 늦어지기때문이다. 김재익은 대통령에게 이중곡가제 폐지와 쌀 시장개방을 제안했다. 아주 민감한 문제였지만, 대통령은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쌀 시장개방에 이어서 과일과 쇠고기 수입도 늘렸다. 그러자 마침내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담당 장관이 대통령의 외국 순방도 따라가지 못한 채 농심을 달래야 했다. 그런데 일이 터졌다. 1983년 10월 9일 미 얀마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폭탄 테러를 저질렀다. 그날 김재익 수석 등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장관 대신 출국한 강인희 농수산부 차관도 포함 되었다."

위 글을 쓴 이는 '김재익은 복 많은 원칙주의자'로 이중곡가제 폐지나 쌀 수입개방 등 그의 치적을 돋보이게 하고자 위 글을 쓴 것 같다.

금년으로 서거한지 42년이 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중곡가제를 실시한 것은 원칙 없이 한 것이 아니었다. 5.16혁명 공약 제4항을 보면 "절망과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공약이 있다. 굶주림 해결을 위해 주곡 증산을 기하려면 농민이 힘써 농사짓도록 사기를 높여주어야 한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계소득과 엇비슷해야 사기가 오른다고 본 것이다. 증산과 소득(사기) 곡가조절 등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양특적자를 무릅쓰고라도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중곡가제였다. 이중곡가제는 나라를 다

스리는 정치적 종합시책의 일환이지 재정만 생각하는 외눈박이 시책이 아니었다. 더구나 다음에 기록된 이병기 차관의 글을 보면 김재익은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의문이 많은 사람이었다.

2008년 농촌진흥청은 1906년 권업모범장 개설부터 백년간의 한국농업을 조명코자 130여 명의 집필진을 동원「한국농업 근현대사」12권을 편찬하였다. 그 중 제12권은 필자의 건의로 정사(正史)에는 쓸 수 없어도 정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사(祕史)를 수록토록 하여 만든 책이다. 역사의 이면에는 가지가지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그 책 153~160면을 보면 후일 차관이 된 이병기 식량차관보의 '그해 여름은 서늘하였네'라는 제하에 김재익이 개입된 쌀 도입관련 체험담이 진지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1980년은 세계의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7월 하순부터 계속 평년보다 4~10℃나 낮은 저온현상과일조량이 평년수준의 50% 밖에 되지 않는 날이 계속되어 벼의 생육이매우 부진하였다. 그 결과 1977년 쌀 4,200만석 생산 이래 3년이 채가기도 전에 사상초유의 대 흉작이 닥쳐 1980년 생산목표 4,200만석의58.7%인 2,466만석 밖에 생산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 해는 신군부(전두환)의 대두, 사북사태, 광주 민주화운동 등의 후유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데다 쌀 흉작으로 농촌에서도 소 팔아 쌀 사둔다는 루머가 유포될 정도로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쌀 가격안정을 위해정부미를 대대적으로 방출하였으나 쌀값은 12월까지의 4개월간 28%나급등하였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코자 정부는 1980~1981년 쌀 수급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은 쌀 수급상 1,160만석의 외미(外米) 도입이 적정수준이지만 다음해인 1981년도에도 이상 저온현상이 반복되며 쌀 작황이 부진할 우려가 있다는 일본 기상청의 예보에 대비하고 안보상 우리의 특수여건 을 감안하여 쌀 도입량을 1,500만석으로 확대 결정하고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때 미국산 쌀값은 이미 폭등하여 1979년 톤 (M/T)당 200불 수준이던 것이 500불 이상으로 급등하여 우리입맛에 맞는 자포니카 쌀은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도입물량에 대하여 농수산부 측과 청와대 K수석(김재익)비서관사이에 큰 시각 차이와 갈등이 있었다. 농수산부는 도입계획 총량 1,500만석을 전제로 이미 조달청 확정물량이 1,320만석임으로 30만톤 (210만석) 수준의 일본쌀 추가 수입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K수석(김재익)은 1981년 기상여건과 쌀 작황도 불투명한데다 안보상 물가안정을 이유로 조건이 유리한 일본쌀(차관조건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충분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추가 수입량을 70만 톤(490만석)으로 할 것을 관철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양 기관의 주장을 조정코자 국무총리는 1981년 2월 21일 협의회를 소집하였다. 당시 장관은 해외출장중이고 차관은 다른 장관회의에 대리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식량차관보(이병기)가 참석하게 되었다.

양측의 주장을 경청하던 총리는 농수산부의 30만톤 추가 수입안을 손수 수정하여 50만 톤(350만 석)으로 결정하고 그 곁에 총리의 싸인을 남겼다. 그 결과 1980~1981년의 외미 도입계획 총량은 1,700만 석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982년 말의 재고량은 FAO의 적정재고 권고수준을 넘어 1천만 석을 초과하고 있었다. 그 후 1982년 3~4월 국회에서 외미도입이 과다하였다는 것이 정치문제화 되었다. 결국 경과위상임 소위원회에서 3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외미도입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개최되어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조달청의 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이 있었다. 그 회의과정을 매일 회의가 끝나는 대로 늦은 시간에 김재익 수석에게 보고하였다. 그 보고를 들은 김 수석이 하루는 "국회 답변에 절대로 청와대를 언급하지 말라. 이를 어기면 행정적인 조치는 물

론이고 불경죄를 면치 못할 것이요"라고 경고하였다. (중략) 5월초 어느날 농수산부 간부들의 저녁 회식이 있었는데 K농수산부장관이 이차관보를 옆방에 불러 "오늘 청와대 K수석(김재익)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이번 국회의 쌀 도입 조사결과를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그 책임을 물으라는 말씀이 있어 이병기 식량차관보의 사표를 받도록 하라"하였으니 사표를 내라는 것이었다. 재하자 유구무언으로 사표를 냈으나 과다도입이 김재익 수석의 압력 때문임을 소상히 아는 김태호 행정수석의 도움으로 사표는 반려되고 이차관보는 자리만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옮겼다." 여기까지가 이병기 차관보가 쓴 내용의 요약이다.

농수산부가 210만석만 더 도입코자 할 때 김재익 수석 자신이 그보다 280만석이 더 많은 490만석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 총리의 조정으로 350만석을 더 도입하게 되었다. 농수산부의 계획보다 140만석이 많은 것은 순전히 김수석 때문이다. 그런데 과다 도입이 국회에서 정치문제화 되자 비겁하게도 국회 답변에서 청와대(자신)를 거론하지 말라그것은 불경죄에 해당한다고 부당한 압력을 넣더니 과다도입을 이유로적량 도입을 주장한 담당 차관보의 사표를 받으라고 한 사람이 조선일보에 기고한 차현진의 말대로 과연 원칙주의자란 말인가? 또 그런 수석의지시를 그대로 전한 K장관도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은 당시 농수산부 뿐아니라 전 공무원사회의 큰 화제꺼리였고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가시지 않았는데 차현진의 글을 읽고 필자는 분심에서이 글을 쓰는 것이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2003년 초 농수산부 퇴직자 모임인 농우회 신년회에서 당시 농수산부장관이던 김동태 장관이 축사를 하면서 양정에 대하여 한 말이 기억난다. "2002년에 289만 석을 북한에 지원하였고 2002년산 쌀 생산이 2001년보다 408만 석이나 감산되었는데도 2003년 10월말 현재 1.040만 석이 재고로 남게 되었다." 하였다. 신축성 없

는 쌀 생산구조, 최성출하기의 곡가조절, 식량안보와 정부미 수매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양정을 하다보면 제갈량 같은 양정가가 양정을 담당하여도 별 수 없이 단경기 쌀의 과잉재고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 혹시 고원인의 하나가 김 수석의 과잉 도입 때문에 재고 이월이 계속된 때문은 아니었을까?

다음의 글은 필자가 2002년 72세로 공직을 떠나면서 썼던 19년 전의 회고록 중 김재익 수석과 얽힌 내용이다. 필자는 1980년 11월 1일자로 농촌경제연구원에 초청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초청이란 직명이 붙어 그럴 듯하지만 실제는 정원에 없는 임시직이다. 그 무렵 전두환 정권은 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정부기구와 각종 공사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이 통에 농수산부는 차관보 두 자리와 1급인 국립종축장장 등 3개의 1급 공무원자리가 없어졌다.

필자가 연구원에 부임하자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정비한다는 풍문이돌아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동향 후배에게 알아보았더니 26~27대 농수산부장관이던 김보현 장관이 원장인 농촌경제연구원과 28대 농수산부장관인 정소영 장관이 원장인 중동경제연구원이 정리대상이라는 것이었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에 축소 통합하되, 그 연구인력 채용을 전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존 정원 중 30명을 감원한다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정비계획은 농업에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김재익 경제수석이 개입된 지시라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무렵 김재익 수석 못지않게 전 대통령의 최측근은 소위 3허(許)라고 하는 세 사람의 허씨들이었다. 그 3허 중의 한분이 나의 학부 직계후 배로 내 은사의 서랑이면서 후일 통일부장관이 된 사람이다. 나는 재학 중 그 은사의 실험실 조수로 일한 적이 있어 피차 허물없이 대하던 처지였다. 나는 그를 만나 "세계 어느 나라나 농촌경제연구기관이 없는 나라

는 없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설명해 사전지식을 넣어주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연구원의 임시직으로 7월에 들어온 머슴 같아 원 내외의 일에 나설 처지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연구원이 정리된다는 판에 수수방관할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최종안을 김창식 행정수석(후일 전남지사, 교통장관)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날 12시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허 수석이 전화로 내게 말하기를 "김 수석에게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잘 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지금 곧 전화로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김 수석에게 전화 사례를 하였다. 나와 종씨간인 김 수석은 "지금 막 브리핑을 끝내고 나왔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 했나."라고 되묻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허 수석이 대통령에게 사전지식을 넣어준 때문이니 허 수석에게 감사하다고 전화 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중동경제연구원이 정리되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원만 30명 감원되었으며 농촌경제연구원은 존치토록 되었다.

그 후 1982년 초의 일이다. 경제수석을 보좌하던 J비서관이 내게 연구원의 획기적 운영개선방안을 만들어 김재익 수석에게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작성취지나 요령에 대해서는 물어도 전혀 암시가 없었다. 나는이수영 연구조정실장과 협의, 기존의 연구 및 운영현황에 원장이 겸직하던 이사장직을 분리하는 안을 보태어 J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J비서관은 특별한 지적도 없이 수석과의 면담일시를 정해주며 반드시 김보현 원장이 직접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지정된 날짜에 김 원장을 수행하여 국보위 출신으로 후일 부원장과 식품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성배영 박사와 셋이서 김 수석실에 갔다. 내 가 보고하던 내용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수석은 무례하고도 거칠게 나 왔다. 그 요지는 누가 이런 것 만들어오라 하였느냐 막대한 국고예산을 쓰면서 국가에 기여도가 없는 연구원은 필요 없다 연구 다 집어치우고 전 연구진을 동원해 한자리 물가유지에 필요한 농어민 경제교육이나 시키라는 봉변이었다. 나는 모시고 간 원장에게 면목이 없었다.

김 원장은 김 수석이 기획원 하급관료이던 70년대 초 이미 체신부장 관을 거쳐 농수산부장관을 역임한 관료사회의 대선배다. 김 원장이 자청 해서 김 수석한테 보고하러 간다고 해도 사양 하는 게 상식인데 오라 가라 하면서 본업인 연구업무 다 집어치우고 농어민들 물가교육이나 하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더구나 국회가 연구를 하라고 만든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업무를 일개 수석이 이래라 저래라 하다니……이하 생략하거니와 그날 청와대를 나오면서 나는 분할 때 생기는 위경련으로 약국부터 찾은 기억이 있다.

회고컨대 전날 농촌경제연구원을 없애버리려다 뜻대로 안되자 연구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그는 왜 그리도 치졸하고 농업을 억압하였는지 모를 일이다.

이병기 차관의 글 끝에는 "이제 미움도 그리움도 모두 버리고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하였는데 나도 그렇다.

# 5.4. 대선공약과 국가의 장래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후보들이 각자 각종 현란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약들 중 국가 장래를 위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할 것으로 믿어지는 공약은 빠져있거나 있어도 부분적인 공약들이 있어 이에 개인적 소감을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최근 급격히 줄어드는 신생아 수에 대한 국가적 대책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를 장차 어떻게 줄이고 갚아나가겠다는 공약 등이다.

먼저, 나라의 장래를 지고 갈 신생아 수를 보면 50년 전인 1972년의 신생아 수는 952,780명이었다. 이렇게 신생아 수가 연간 백만 가까이 출생하다보니 부족한 식량이 더욱 부족하여 매년 막대한 외화를 써가며 외미를 사들여 부족한 식량을 보충해 왔다. 한편 식량절약을 위해 잡곡 혼식이나 값싼 분식을 적극 권장하면서 중국을 본떠 산아제한을 정부시책으로 강력 추진하였다. 그것이 가족계획이었다. 당시 국가적 표어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아 잘 기르자"였다. 이를 전담하는 생활개선 지도원들은 시집도 안간 처녀들이 나이든 주부들을 모아놓고 피임법을 지도하는 웃지 못할 광경도 있었고 일당이나 밀가루 한 포대, 그리고 아파트 추첨 우선권을 미끼로 남성들의 정관수술을 강권하였다. 그 결과 '80~'9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족계획이 가장 성공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다. 그것이 오늘의 신생아 수 급감의 큰 원인의 하나이며 비극의시작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신생아 수는 어떠한가? 2020년의 신생아 수는 겨우 275,815명으로 50년 전인 1972년 신생아수 952,780명의 3분의1도 채 되지 않는 28.95%에 그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생아 수의 감소폭이 최근에 올수록 더욱 가속도가 붙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2년에서 2001년 사이에는 952,780명이 554,895명으로 줄어 30년 간 연평균 13,263명씩 감소하였는데 2001년에서 2020년 사이의 20년간은 554,895명이 275,815명으로 줄어 20년간 연평균 14,054명씩 줄어들고 있다.

그 원인은 총 인구 감소에 따른 가임(可姙) 여성의 감소에다 평균 출산 연령마저 더 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6년의 경우 29세 이하의 출산연령 비율은 겨우 26.1%인데 30~34세의 출산연령 비율은 47.5%, 35세 이상은 26.4%로 30세 이상의 출산연령이 74%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곧 노산(老産)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연간 평균

으로 보면 1997년의 평균 출산연령은 28.3세였다. 그것이 20년이 지난 2017년에는 32.6세로 그사이 4.3년이나 더 나이 들어 출산하고 있다.

이 가임여성의 감소나 평균 출산연령이 늦어지는 것 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가임(可姙)여성들 중 아예 아이를 한 번도 출산하지 않는 여성이 늘어간다는 것이다. 그것을 지수로 파악하는 것이 합계출산율이다. 여성 1인당 평생 출산인구를 표시하는 수치다.

2016년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17이었다. 최소 2.1이 넘어야 인구 유지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수치를 한참 밑돌고 있다. 그해의 OECD회원국 평균이 1.68로 우리나라는 세계 224개국 중 220위라고 한다. 그래도 이 수치는 약과다. 2018년에는 0.98, 2019년에는 0.92로 2018년 이후에는 가임 여성 중 단 한명의 신생아도 출산하지 않는 여성이 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가임여성의 12%가 임신이 안되어 고통 받고 있어도 정부가 인공수정권장에 소극적이란 사실이다.

그렇다면 장차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국민 총 인구의 감소다. 이 인구 감소는 장차 지방이 소멸되고 사회가 소멸될 것이다. 2020년 신생아 수가 275,815명인데 당년 사망자 수가 307,764명으로 총 인구가 31,949명이 줄어든 것이다. 예상치보다 9개년이나 앞당겨 졌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21, 1, 4.).

드디어 2020년을 변곡점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느새 노인들이 많은 고령화 사회라서 장차 이들의 사망이 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간 인구의 감소폭도 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어찌 될 것인가?

2020년 5월 기준으로 계산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앞으로 30년 내에 소멸될 시군구가 자그마치 전 시군 구의 46.1%에 해당하는 105개나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인구감소에 인구의 도시집중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에는 포천, 여주 등 수도에 가까운 큰 규모의 시군들이 포함되어 있다(조선일보 2020. 11. 참고: 소멸시군은 해당 시군 중 39세 미만의 여성인구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나는 값이 0.5 미만이면 30년 내 소멸시군).

시군구 보다 먼저 소멸될 곳은 시군구를 구성하는 전국 3,463개의 읍 면동 중 해당 시군구의 읍면동 들이다. 읍면동이 사라진 연후 시군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장차 우리의 2세, 3세가 살 것으로 철썩 같이 믿었던 읍면동은 인적이 사라진 채 돌볼 자손이 없는 선산(先山)들만의 적막 강산이 될 것이다. 인력을 대신한다는 인공지능(AI)도 작동할 사람이 있어야 움직인다. 나라의 위기가 목전에 다다랐다.

이러한 가공할 인구감소가 우리 당대에 현실화 될 줄은 우리국민 누구도 미처 몰랐다.

1962년 5.16 군사혁명 때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던 혁명구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세대들은 가족계획도 당연한 시책으로 받아들였다. 세계 제1의 고아 해외 입양국이 되었어도 국민 모두가 잉여인구 처분이라고 보거나 아예 무감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인구 감소를 조금만 예상하였어도 1977년 쌀 4,170만석 생산으로 쌀 자급이 이루어졌을 때 가족계획은 수정하였어야 했다. 더욱후회스러운 것은 신생아 수가 급감하던 1987년에 가족계획을 완전 폐기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IMF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 현상으로 알고계속 밀고 오다 9년이 지난 1996년이 되어서야 중단하였다. 만일 1987년터 가족계획을 폐기하고 출산에 따른 여러 혜택을 주었더라면 가속적인 출산감소는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때늦은 후회뿐이다. 2천년대 들어 신생아 수 감소를 완화코자 여러 시책들을 베풀어왔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출산율 감소를 막고자 200조원을 썼어도 효

과가 없었다고 한다. 그것은 결혼이나 임신, 그리고 출산이나 보육 등 출산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공임신에 필요한 시술비가 천여만원씩 필요한데 빈부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였더라면 인공임신으로 출산하는 2만여 명의 신생아 수는 그 2배가 될 수도 있었다.

그와 같이 믿는 까닭은 12년간의 실적을 밝힐 때 총 지출 126조원의 50%인 63조원만이 결혼이나 임신 출산, 보육 등에 지출되고 나머지 50%는 학교폭력예방이나 성범죄, 그리고 문자해독 등 출산율과 거리가 있는 부분에 지출되었다고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출산으로 이로움이 확 실하고 대(代)를 이을 수 있다면 어째서 출산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않겠 는가? 인구정책은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라서 대선공약에 들어있지 않 았다 하더라도 당선된 대통령은 국가장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신생아 정 책을 재정비 시행하여야 한다. 동아일보(2021. 10. 19.)의 보도에 따르 면 인구감소 89개 지역에 정부가 금후 연 1조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하였 는데 돈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지원이어야 한다. 일본 은 금년에 저출산 전담기구로 중앙에 '어린이 가정청'을 신설한다는데 우리도 인구정책의 주관부처 재확정과 대통령비서실의 인구전담 수석비 서관 지정에서부터 관련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정책의 새로 운 도출, 이에 따른 시책의 우선 구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책 실천의 주기적 점검 등 일련의 과정을 재수정 하여야 한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국가의 부채와 관련된 대선공약이다. 보도(조선일보 2021. 5. 29.)를 보면 정부수립 후 지난 70년간 누적된 국가부채가 모두 660 조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여 늘려놓은 빚이 404조원으로 모두 1,064조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2022년 본예산 607조를 감안하면 1,064조는 너무나 과중한 부채다. 여기에 연초 추경으로 14조가 더해질

예정이다. 그 부채의 증가속도는 1초에 139만 원씩 늘고 국민 1인당의 부채액은 연말에 2.081만 원이 될 것이라 한다.

장차 나랏빚 이자 갚느라 한해 20조원이 더 들어가 빚을 더 내야할 판이라는 것이다. 부채란 당대에 갚지 못하면 다음세대가 갚아야 한다. 혹자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부채는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인구감소율이 세계 제일이라 장차 빚을 갚아야 할 2세 인구가 선진국에 비해 더욱 적어 어려움이 겹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OECD는 재정악화 속도가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가 한국이라고 경고하였고 IMF는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비율 증가속도가 선진국보다 2배나 빠르다고 하였다. 국제기구의 우려스런 충고다. 참으로 부끄러운 경고다.

2020년 기준 국민총생산액이 세계 9위이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경제규모는 세계10위권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이상의 나라로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7개국 중의 하나라는 말도 있다. 최근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57년 역사에서 개도국이 선진국이 된것은 우리나라 하나뿐이며, 세계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도 우리나라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휘황찬란한 숫자에 고무된 탓인지 나랏돈 쓰는 게 턱없이 헤퍼진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 치하 4년 동안 11만 명의 공무원을 증원시켰고 공공부문 종사자 포함 23만 명을 증원시킨 것이 그 예의 하나다. 국민 총 수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늘린 공무원 수만큼 지속적인 예산 지출이 뒤따르기 때문에 더욱 부정적인 것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비나 재난지원금 등 불가피한 예산 지출도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피해도 입지 않은 사람까지 1인당 백만 원씩 무차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있

을 수 없는 표몰이식 공약이다.

세계 10위권에 드는 부자나라가 빚을 져 당대에 갚지 못한다면 2세들이 갚아야 한다. 현재 4.3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데 장차 30년 후인 2050년에는 1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어려운시대가 된다. 그런데 신생아 수 감소가 가속화 하는 것을 감안하면 30년후가 아니라 그보다 앞당겨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지난날 법률 9931호로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무 엇하러 만들었단 말인가? 그 법의 입법취지는 "미래세대의 요구를 해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었다. 부유한 시 대의 국가부채를 가난할지 모를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이 쓸 생 계비를 앞당겨 뺏어먹는다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이며 범법행위다. 자식 이 누릴 생활비를 부모가 앞당겨 약탈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로, 정책의 입안과 실천을 청와대 중심에서 각 부처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 지난 5년간 문 정권의 실적을 되돌아보면 청와대와 그 비서진만 보이고 행정주체인 중앙부처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청와대나 비서 중심의 정책입안이나 추진이 실효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은 현재 어떻게 되었으며 기세등등했던 일자리수석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또 탈원전 정책은 현재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며, 수백억 원을 들여 4대강 보(狀)를 재검토한 결과는 어찌되었나? 모두 김대중 대통령 때 농산물의 직거래장터같이 실패한 정책들이 아닌가?

대선공약이나 청와대 비서진들의 정책입안은 사전에 행정이나 시책 경험을 보다 많이 축적하고 있는 각 부처의 백전노장들에게 물어 실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 부처 공무 원들은 월급만 축내는 머저리들이 아니다. 지식이나 정책 경험 면에서 운동권 출신이나 이론만 아는 교수 출신 비서진들보다 월등한 능력과 정책경험을 겸비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활용하지 않고 비서실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백악관보다 많은 443명의 비서들이 연간 약 9백억 원의 국고부담만 늘리면서 설익은 시책으로 실정(失政)과 국론분열만 되풀이 한 것이다. 그 서슬에 다칠까 두려워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백전노장들은 복지부동한 채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어 이중의 국력낭비만 가져오고 있다. 바라건대, 새 대통령은 옥상옥격인 비서진들을 대폭 축소하고 정책입안과 집행을 각 부처중심으로 되돌리기 바란다.

### 5.5. 망백(望百)의 비망록

살아온 삶을 되돌아 볼 때 쫓기는 듯 부지런히 살았어도 무엇 하나 이 룩한 것 없이 어느새 백 살을 바라보는 망백의 나이가 되었다. 106세를 사신 내 5대 조모님과 94세에 가신 선친을 생각하면 장차 몇 해 더 여유가 있을 법도 하나 늙은이 건강은 속빈 강정처럼 공허한 것, 언제든 대문밖이 저승길로 알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제 생전에 정리해둘 일들은 무엇일까? 자손들에게 짐이 될 일은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첫째가 루대의 선영(先瑩)을 시대에 맞는 예절로 모시는 일이다. 나는 장손은 아니지만 내가 모셔야할 선영은 먼저 간 반려자 등을 포함 모두 19위(位)가 된다. 이산 저산 명당을 찾아 모두 여섯 곳에 모시어 봉심(奉審)이나 벌초 그리고 시제(時祭)를 올릴 때 마다 번거롭기 이를 데 없었다. 농진공에서 퇴사한 63세 때 윤달로 손이 없는 어느 봄날 8촌 이내의 당내(堂內) 젊은 종원(宗員)들을 동원, 마을에 가까운 두 곳으로 옮겨배위합분으로 모신바 있다. 또 그 무렵 종손기준 5대 조부모이상의 조상

에게 일년에 한번 선영에 가서 올리는 시제(時祭)는 위토답(位土畓)을 짓는 이가 제수(祭需)를 준비해 왔으나 농촌에 인구가 줄자 이를 지을 사람이 없어 위토답을 처분하여 위선기금으로 하였다. 시제는 후손들이 매년 윤번으로 제물을 준비하되 그 실비는 기금 이자와 연회비로 충당하도록하였다. 제물의 진설(陣設)도 붉은 것은 동쪽, 흰 것은 서쪽을 뜻하는 홍동백서(紅東白西)나 포는 좌측, 식혜는 우측을 뜻하는 좌포우혜(左脯右醯), 그리고 물고기는 동쪽, 짐승고기는 서쪽으로 하는 어동육서(魚東肉西)라 하여 말썽이 되기 쉬운 제물 진설도 앞줄의 조율이시(棗栗梨柿)만 맞으면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르도록 하였고 제물의 품목수도 줄이도록하였다.

금후 과제는 내가 사망하는 해부터 고조부모까지 명절에 올리는 두번의 다례(茶禮)와 기일에 올리는 기제(忌祭) 등 1년에 10회 이상 올리는 사대봉사(四代奉祀)도 1년에 한 번 선산에서 올리는 시제로 갈음토록 일러두었다. 시제를 올리는 일자는 주말로 하되 가급적 전원 참석으로 게제에 종원(宗員)간 친목도 다지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참신(參神)시간에 맞추어 멀리서라도 망배(望拜)로 대신토록 하였다. 다만 명절의 다례만은 원할 경우 아해들의 숭조(崇祖) 교육상 관행대로 집집마다 하여도 좋다 하였다. 이와 같이 간소화 한 까닭은 농한기에는할 일이 없던 농경시대의 예절을 치차(齒車)같이 맞물려 바삐 돌아가는 디지털시대에 맞추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손들의 편의만생각한 것 같으나 자손들이 지킬 수 있어야 중단없는 숭조(崇祖)예절이 영속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위자손(爲子孫)이 위선영(爲先瑩)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사 다닐 때마다 가장 큰 짐이었던 장서(藏書)의 처리 문제다. 일제하 국민(초등)학교 3학년 때 어린이신문이었던 당시의 소국민신문 (小國民新聞)의 글짓기 시상작에 응모하여 '참새'라는 제목의 글이 입선 한게 계기가 된 탓인지 일찍이 문학에 흥미를 가져 그 문학 방면의 책들을 사 모았다. 게제가 좋았던 것은 6.25동란으로 어려웠던 피난민들이책을 책으로 파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용이 좋은 책이라도 종이(책)의 무게로 헐값에 팔았기 때문이다. 일어로 된 신조사(新潮社)의 세계문학전집 한질은 살 사람이 없었던지 종이 값도 반값으로 샀다. 서울수복 무렵의 학부시절에는 방학 때마다 미쳐 기계화가 안된 연탄공장에 취업하여그 보수로 책을 사 모았다. 연탄공장은 중노동이라 희망자가 적은 탓으로 언제든지 취로가 용이하였다. 이 취로로 사 모은 책들이 노후에 작은 보탬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광복부터 동란기까지는 종이가 없어 구멍 뚫린 마분지(馬糞紙)를 사다. 노트를 만들만큼 종이가 귀하였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문학작품도 초판 3백부 이상을 찍을 수가 없었다. 시일이 지나자 이 책들이 희귀도서가 되었다. 그후 나라 형편이 펴지자 시군마다 자기 고장을 빛내고자 그 고 장 출신의 문인들을 기리는 문학관을 건립하면서 그 문인의 작품을 구하 다보니 이미 책이 귀하여져 책값이 천문학적 고가일 수밖에 없었다. 더 욱이 희귀도서의 가격상승을 부채질 한 것은 KBS의 '진품명품'프로에서 골동품 가격을 터무니 없이 올려 방송한 것이다. 내가 사 모은 책 중에는 광복과 동란 무렵에 인쇄된 그 희귀도서가 더러 섞여 있었는데 고서연구 회에서 얻은 정보대로 천도교본부 건물에 들어있는 코베이(Kobay)라는 골동품 경매회사에 그 희귀도서 몇 권을 시험 삼아 넘겼다. 함인덕의 '동 승(童僧 희곡)', 앞부분의 5~6매 없어진 이광수의 '무정(無情)', 마분지 에 인쇄한 박일원의 '남로당 비판서' 등으로 기억되는 책을 시험삼아 출 품해 보았다. 2할의 경매수수료를 제하고 내게 돌아온 책값이 돈복이 없 는 내게 처음 겪는 천문학적 액수였다. 나의 문학도서는 이런 경로로 여 러 번 처분되어 내가 주도한 3개 장학재단의 종잣돈이 되었다.

이로서 지난날 떡매로 대여섯 번 내려 쳐 한 개의 19공탄을 만드는 작

업을 하루 500번씩 반복하고 이미 녹초가 될 무렵 퇴근하며 한지게씩 사가는 수요자의 뒤를 따라 코가 열 개라도 숨이 차는 비탈길을 지고 가던 고난의 보상은 충분히 상계가 된 셈이었다. 중년의 34세 때 금양잡록 (衿陽雜錄)이 동기가 된 농업고전의 수집은 오늘날까지도 평생의 과제로 수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집한 책의 기증을 처음 시작한 것은 농어촌공 사에서 퇴직할 때 농업사 관련자료 이외의 사회과학분야 책들 약 500권을 공사 도서실에 기증한 것이다. 그 책들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곳으로 전직할 때 용달차로 싣고간 책들이었다. 두 번째의 책 기증은 충남대에 출강하자 신임총장이 도서기증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출강할 때마다 필요 없는 책들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충대 도서관에 몇 번 가져갔으나 그때마다 접수하는 이가 기증자의 성명도 묻지 않은 채 두고 가라 하여 도서기증운동이 겨우 이 수준인가 싶어 중단하고 말았다. 그때 기증한 것은 50~60권 정도로 기억된다.

세 번째의 기증은 중국 연변대학에서 충남대학에 유학 온 학생이 석 사학위를 끝내고 돌아가면서 자기대학 도서관에 책 기증을 요청해와 각 종 학회지 중심으로 1천권을 기증하였는데 포장과 운반비 등은 연변대 학과 연구협력을 하고 있는 농업사회연구원(신동완)이 부담하였다.

네 번째의 기증은 내가 평생동안 공부하는 농업사 관련 서적들이다. 모두 돈과 시간, 그리고 수집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간 나의 분신같은 책들이다. 내가 나이가 들자 어느 지방 국립대에서 장차 책 기증을 할 때는 자기 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전화요청이 있었다. 내가 농업고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하는 사전 요청으로 알았다. 그러다가 아직은 책 기증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할 80세 때 후일 장관이된 김재수 농촌진흥청장이 장서기증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김청장을 움직이도록 한 것 같았다. 나는 진작부터 농업고전을 포함한 일체의 도서를 장차 농업과학도서관에 기 증할 심산이었다. 2000년대 초 후일 장관이 된 서규용 청장에게 권하여 우리 농업고전을 한글세대가 읽을 수 있도록 사업의 일환으로 번역토록 권하면서 그 후 16년간 농촌진흥청이 30여종의 농업고전을 번역할 때 내가 최종 감수를 본 인연도 있어 농업기술의 본산인 농촌진흥청에 기증함이 뜻있는 일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책의 수량은 권수로 얼마나 되는지 헤아리지 않았으나 도서관 직원들이 와서 중형트럭으로 한 대 가득히 실어갔다. 책들이 실려 나가자 텅 빈집같이 허전하였다. 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려운 1655년 출판의 농가집성(農家集成)을 비롯한 희귀한 농업고전 등, 그리고 구하기는 쉬워도 값이 너무 비싼 조선왕조실록 한질, 민족문화백과사전 한질, 대영제국백과사전 한질, 민속백과사전 한질 등 매일 참고로 한두 번 씩 찾아보는 책들로 모두 월부로 산 책들이었다. 그때 김재수 청장은 산하연구기관장들이모인 자리에서 내게 감사의 뜻을 패(牌)에 새겨 주었고 서고에는 내 명의의 장서코너를 별도로 구분지어 그곳에 책상을 마련하여 언제든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책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특기할 것은 내가 기증한 희귀본들은 대형의 유리로 된 진열장에 넣어 밖에서 무슨 책이 얼마나 있는지 투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보안을 위해 자물쇠로 잠궈둔 것이다.

나는 이 책들을 따라 농촌진흥청 인근의 노인시설로 이사해 필요에따라 이용해 오다가 4년이 지나자 농촌진흥청이 전주로 옮겨갔다. 그래도 농업과학도서관의 친절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그때마다 FAX로 전달받아 오늘날까지 이용하고 있음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

셋째는 책 다음으로 짐이 되는 것이 사진들이다. 나는 평생 카메라를 가진 적도 없고 조작법도 모르나 이런저런 사유로 모아둔 사진들이 사과 상자로 두 상자였다. 노인시설에 옮겨올 때도 가져왔으나 다시 열어본 적도 없이 공간만 차지할 뿐 아니라 내가 북망산(北邙山)에 묻혔을 때 자 녀들이 부모의 사진을 처리하기가 망설여질 것 같아 의미 있는 몇 장만 남기고 몽땅 파쇄기에 넣어 한나절만에 몽땅 갈아 없애 버렸다.

넷째는 서화 등의 잡동사니 처리다. 축산국장이 되자 선친의 죽마고 우로 명필인 원곡(原谷) 김기승(金基昇) 선생이 축하의 글씨를 표구까지 해 보내주셨다. 그때 감사의 예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고희동(高義東) 선생의 동양화는 잠업과장 때 잠업증산 1등을 한 전북지사가 자축의 뜻 으로 보내온 것이다. 정제(鼎齊) 최우석(崔禹錫)의 참새그림, 백하(白荷) 가 주자(朱子)의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를 쓴 12폭 병풍, 일중(一中) 김 충현의 글씨를 새긴 판서(版書), 검여(劍如)와 무림(霧林)의 글씨, 김종 필, 윤길중 등 정치인의 글씨, 김대중의 글씨가 새겨진 필통 등은 지금의 노인시설로 이사 오기 전 초면의 골동품상이 찾아와 팔라는 것이었다. 일방적으로 앞질러 가격을 현찰로 쳐주면서 서두르는 통에 밀려서 판 셈 인데 어떻게 그 골동품상이 나의 주소를 용케 알고 찾아왔을까 의문이었 다. 그 후 시일이 지나 우리집에 더러 들렀던 종(宗)씨 한 분의 전화가 걸 려왔다. 댁에 걸려있던 족자(簇子)가 어떤 골동품상 가게에 걸려 있더라 고 남의일 같이 지나가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가 그 골동품상을 보낸 것으로 알고 의문이 풀렸다. 그래도 아직 간직하고 있는 것이 몇점 남아 있다. 농수산부 재직시 연상의 동료였던 유인태(柳寅泰)씨의 입선작으로 이태백의 장진주(將進酒)를 쓴 글씨는 내가 족자로 표구한 것이고 왕건 (王建)의 한시를 백하(白荷)가 쓴 족자 등 몇 점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아 끼고 있으나 그 가치를 모르고 알고자 하지도 않는 아해들이 가져갈지는 의문이다.

다섯째는 공직에 임명된 사령장, 훈장, 상장, 감사패 등의 처리다. 내 경력의 골격이 되는 대통령의 임명장 이외의 각종 임명 또는 위촉장이나 심의위원 또는 겸직 임용장 등 일체도 버렸고 패(牌)로 만들어준 39개의 기념패, 축하패, 감사패, 공로패 등도 주신 분들에겐 미안하지만 노인시 설에 오기 전 큰 자루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렸다. 다시 볼일도 없는데 짐 스럽기만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훈장이다. 1977년 농산차관보 때 쌀 4,170만석 증산이 달성되어 신현학 총리가 걸어준 홍조근정훈장, 인문 사회연구회 이사장 퇴임 때 연구제도개선 유공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한 것 등이다. 훈장증과 별도로 목에 거는 휘장은 고운 상자에 담아다시 이를 부피가 있는 가방에 넣어 짐스러울뿐 아니라 훈장을 받았다고 단 한 번 덕을 본적도 없고 달고 다닌 적도 없다. 만일 내가 어떤 행사날 훈장을 달고 식장에 나갔다면 모두가 드디어 아무개가 나이들더니 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고보면 훈장이란 알아주는 이 없는 허울 좋은 한울 타리요 빛 좋은 개살구다. 농어촌진흥공사 재직 시 국영기업 경영평가에서 23등을 9등으로 올려 10개 등급 이상을 제쳤다고 경제기획원장관상을 받았고 다음해는 3등에 들어 또 같은 상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부상으로 전 사원에게 실속 있는 보너스를 받은바 있다. 그에 비하면 국가가 주는 훈장은 장관상만도 못한 채 노년의 짐만 더해주는 애물단지이다. 가장 많은 상금은 모교 동창회가 준 상록대상(常綠大賞)이었는데 받은 즉시 동창회에 기부하였다.

아끼던 양복도 새것이나 다름없어 체구가 비슷한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주는 성의에 밀려 마지못해 가져갔지 반기는 기색은 아니었다. 이로서 고난의 시절을 살아온 나의 세대의 귀중품은 풍요로운 시대에 자 란 젊은세대에게 짐스러운 증여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였다.

고향인 부여 홍산초등학교와 면 노인회관 앞, 그리고 수리사업용 제방에 세워진 나의 송덕비 세 개는 시설한 분들이 한 일이니 내가 단독으로 정리할 시설은 아니다. 이러고 보니 망백의 나이에 정리할 것은 대부분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5.6. 농업사 연재를 마치며

「농업사」연재를 마치며 연재를 수용하신 농우회와 임직원, 그리고 회보 편집위원 제현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드린다. 또 노무현 정부 초대 내각에 농수산부장관 이었던 故 박홍수 장관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는 4H회장 출신으로 장관에 오른 순수농업인일 뿐 아니라 연간 6천여만 원의 정부 보조로 「월간농정」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농우회보의 지면을 넓힐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감사드릴 것은 남욱 (전)차관과 조익래 (전)차관이 십여 년간 농 우회 실무를 맡아오던 김규철씨가 퇴임함에 농우회 기금을 축내지 않고 도 공무원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백만 원씩 보태어 나를 도와주신데 대해서도 때늦은 감사의 뜻을 드린다. 필자는 농우회 창설시 부터 십여 년간 농우회 운영을 총괄한바 있다.

또 나에게 한(漢)학을 익혀 고전농서를 해독할 수 있게 교육하신 나의 종(從)조부 매당(梅堂)공에게도 지극한 감사의 뜻을 올린다. 서당 훈장이 셨던 종조부는 동몽선습, 명심보감, 통감절요(초권), 소학, 대학, 중용까지 가르치고 돌아가셨다. 그 후 나는 만학의 늦은 연령에 6년제 공주농업학교에 입학하였다. 1년 선배로 동갑인 윤기중과는 같은 만학도라 친숙하게 지내왔는데 그가 2022 대선에서 대원군이 되더니 통화조차 힘든 사이가 되었다.

내가 농업사에 눈뜨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34세 되던 1964년 농업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할 때였다. 가다야마(片山隆三)가 쓴 「금양잡록 (衿陽雜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학술지 「조선학보」에서 읽고서부터 이다. 세종의 이(姨)질 이었던 강희맹(姜希孟)이 양부(養父)의 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물러나 금양(衿陽: 금천과 시흥이 한때 한 현(縣)일 때의 현이름) 땅에서 시묘(侍墓) 살이를 하면서 연구하는 자세로 농사를 지은 기

록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 「금양잡록」이란 농서였다. 가다야마는 「금양잡록」의 농업기술을 극찬하면서 15세기의 조선에서는 강희맹의 농업기술을 이을 후계자가 없었다는 게 불행이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규장각에 들러 「금양잡록」을 열람하며 그 내용을 모조리 필사(筆寫)하였다. 복사기는 1970년대 초에야 비로소 보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느낀 것은 이런 수준의 농서(農書)가 15세기에 있었다면 필시 조선시대만 하여도 수많은 농서가 편찬되었을 것으로 믿어졌다. 나는 그때 문화유산인 우리농서가 더 소실되기 전에 누군가 이를 수집정리 하여야 한다고 느꼈다.

그것은 농학도의 학문적 의무이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주제넘은 생각도 하였다. 우선 수집부터 하고 정리는 퇴직 하여 한가할 때 하기로 마음먹었다.

농서를 구(求)하는 구서(求書)의 과정은 희비와 환희가 반복되는 감정의 격동기였다. 그 시기는 주로 복사기가 보급된 이후의 일이다. 예컨대마사본기(馬史本紀)라는 한적(漢籍)을 만났다. 직감적으로 말에 관한 기본적 사서로 알고 즉시 한질을 몽땅 복사해 왔다. 시간을 끌다간 그 사이거래조건이 바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후 차분히 그 내용을 읽어보니뜻밖에도 그것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 본기였다. 사마천의 사기를 마사로 약칭한 것을 모르고 복사를 서두른 데서 온 해학적 실수였다.

또, 잠업과장으로 일할 때의 일이다. 태종의 명으로 편찬된 양잠경험 촬요(養蠶經驗撮要)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소유자 이겸로(李謙魯) 씨를 찾아갔다.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억대의 가격만 호가하였다. 다시 잠업증산에 협조하라는 김보현 농림부장관의 협조요청 공문을 가지고 가서야 42매의 필사본을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필사료가 자그마치 과장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하였다. 그나마 원본은 보지도 못한 채 이를 장차출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왔다. 원본을 못 보아 개운치 않았다.

그런가 하면 일생 중 몇 번 안되는 큰 희열로 충만한 때도 있었다. 2001년 말경 계명대 김용원 교수가 앞부분이 훼손된 폐지 수준의 산가 요록(山家要錄)이란 고서를 가져와 그 가치를 묻는 것이었다. 책의 이름도 책의 말미에 기록된 간기(刊記)로 안 것이다. 내용을 읽어나가다가 15세기 우리나라의 온실설계를 읽고 뛸 듯이 기뻤다. 왕조실록을 보면 한겨울에 영산홍 화분을 대비전에 올린 기록은 있는데 겨울철에 어떻게 꽃을 피게 하였다는 기록은 찾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우리나라는 15세기에 온실에서 꽃도 기른 것이다.

이렇게 구한 농업고전 정리는 예상과 달리 십여 년 앞당겨 정리하게 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시해되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많은 공무원이 해직되는 서슬에 나도 해직되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사 자료를 정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부는 무슨 생각에서였던지 1980년 각 부처별로 해 직자들의 친목 모임을 결성하라고 권고하였다. 아마도 해직자들의 집단 반발을 사전 무마코자 한 것은 아니었을까?

농우회 정관을 보면 1990년 12월 22일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농우회가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980년 김영준 장관을 회장으로 회무는 필자가 총괄하되 김규철씨가 유급직 간사로 일하면서 비롯되었다.

초기에는 회보도 농우소식(農友消息)이라 하여 몇 장의 소식지에 회원 경조사나 회비납입상황 등을 통보해 오다가 농우회 재산이 차츰 늘면서 농정홍보를 겸하게 되자 회보의 지면도 늘어 회지의 명칭도 오늘날과 같이 바뀌게 되었다. 그 사이 간사도 세 번째로 김종천 과장이 서규용 장관이 차관보일 때 추천하여 부임해 오면서 사무국 간사도 사무국장으로 격을 올렸고 독자적 사무실도 마련하게 되었다. 문제는 회보의 지면이 늘어나자 지면을 채울 원고 수집이 어려웠다. 기고할 회원들이 모두 펜을

놓은 노인들인데다 고료마저 줄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김종천 국장의 목마른 원고청탁에 응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다보니 그 사이 150여회의 원고를 농업사란 이름으로 연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고된 내용들을 농우회가 사업의 하나로 책으로 엮어 2017 년 「한국농업사 이모저모」1,000부를 발행하였고, 2020년 「한국농업사 산고(散稿)」500부를 발행하였다. 필자는 이 책들의 판매수익금 6백여만 원이 농우회 재정에 편입된 것을 마음 뿌듯하게 생각한다. 나의 집 경조사에 빠짐없이 격려와 위로를 주신 회원님들에게 작으나마 보답이라도 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농업사 연재를 장기간 연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농업사 연구는 농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여야 정확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인문계 사학과 출신들이 편찬한 농업사를 읽다보면 농학의 이치에 맞지 않는풀이를 자주 볼 수 있다. 예컨대「신라전심양옥(新羅田甚良沃) 수륙겸종(水陸兼種)」을 "신라는 농지가 거름져 수륙겸종, 곧 1년 2작을 하였다"로풀이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도 1년 휴경을 뜻하는 일역전(一易田) 2년 휴경하는 재역전(再易田)이 농지등급에서 2등전 3등전 하는 식으로 지력에 따라 토지가 등급화 되었는데 이는 시비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보다 앞선 신라시대에 무비료 상태에서 1년 2작이 가능하였겠나? 농작물은 거름의 변질물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륙겸종의 뜻은 농지를 논으로도 쓰고 밭으로도 썼다고 풀이하여야한다.

또 파종법에서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랑파종(壟種法)이 골파종(畎種法)으로 발전하였다는 농업사대가의 글을 보았는데 쟁기가 갈이 농구로 개발된 신라 때부터 골과 이랑이 지어져 골뿌림을 해왔는데 무슨 근거로 조선시대에 골뿌림이 비롯되었다고 하는지 의문이었다. 이는 농기구 발달사를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다.

1928년에는 소련의 Lysenko가 가을보리에 저온처리로 봄보리화 하여 월동중의 동사를 막아 소련방의 맥류생산을 획기적으로 증산하였다. 이를 춘화처리(春化處理)라 하는데 이는 당시 세계적 농학적 성과였다. 그러나 1619년 고상안(高尚顏)이 편찬한 농가월령(農家月令)을 보면 춘화처리로 얼보리(凍麥)를 개발하였는데 이 얼보리는 원리면에서 Lysenko의 춘화처리와 같은 처리였다. Lysenko의 세계적 명성은 그보다 3백여 년 전의 고상안이 누렸어야 했다. 농학도가 아니면 어떻게 고상안의 글을 보고 그것이 춘화처리임을 이해하겠는가? 그런 이유로 농업지식을 바탕으로 한 농업사 연재를 하게 된 것이다.

또 농업사 연재는 회원 간에 지식을 공유하자는 데도 원인이 있었다. 필자 연배의 연령층은 재학시절 농대에서조차 농업사 과목이 없었다. 교수들이 일제하에 교육받은 분들로 일본의 농업사는 알아도 우리의 농업사는 몰랐기 때문이다. 또 광복 후에는 한글 전용으로 한(漢)자 교육이 안되어 오롯이 한문으로 엮어진 고전 농서의 해독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 밝혀진 우리 농업사는 최소한 회원간만이라도 지식소통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필자가 농업사 연구를 계속해 온 개인적 사정은 건강유지와 관련이 깊다. 누구에게 쫓기듯이 부지런히 자료를 찾고 해독에 골몰하다보면 머리쓰는데 에너지 소비가 많은 까닭인지 밤에 7~8시간 죽은듯이 숙면(熟眠)하게 된다. 숙면 후 아침에는 머리가 맑고 상쾌하다. 그러다가골몰할 일이 없는 날은 어김없이 잠을 설치게 되고 다음날 찌뿌둥하게종일 머리가 무겁다. 나의 농업사 연구는 잠을 잘 자기 위한 방편이며 건강 유지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건강법도 접을 때가 된 것 같다. 기억력이 현저히 줄 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김동태 회장의 부음을 메시지로 받았을 때 곧 문상하기로 하였다. 그 후 어느 순간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다음달 농우회보 첫머리에 이준원 부회장의 추도사를 읽으며 비로소 김동태 회장의 부고를 받았던 사실, 문상가지 않은 사실들을 회상하고 귀밑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김동태 회장은 동학 후배이고 옛 직장의 동료였을 뿐 아니라 필자의 강권으로 농우회장을 수락하여십여 년간 농우회를 이끌어 왔다. 그는 청장, 장관시절 필자의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다. 필자는 마지막 가는 그의 영전에 의당 작별의 문상을 하여야 했다. 나의 기억력은 나를 의리없는 자가 되도록 쇠퇴한 것이다. 이런 결례는 지난날 유가공협회에 있을 때도 그랬다. 동학 후배로 축산국재직 시의 동료였고 유가공협회 창립을 주도한 분이 협회를 방문하였다. 반갑게 수인사 후 의당 그에게 오찬을 대접할 심산이었는데 그사이 마감을 앞둔 서울대 주문의 「농업과학기술사」의 집필에 생각이 미치자 순간방문자도 잊은 채 그쪽으로 머리가 줄달음친 것이다. 어쩌다보니 그는이미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는 노여워 나를 의리없는 무뢰한으로 알고 조용히 떠났을 것이다. 변 명같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으나 반성만은 뼈에 아로새겼다. 전국시대 육국정승을 겸한 소진(蘇秦)의 변설을 빌어도 해명이 안 되는 결례였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최근 부쩍 반복된다는 것이다.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이 무엇이었던가 잊어버리기 일쑤이고 한(漢)자의 음과 모양은기억나는데 글자의 획을 어떻게 쓰는지 잊어버려 익숙한 글자마저 옥편을 뒤져 다시 확인하는 게 일상화되었다.

결국 이는 농업사 연재를 그만두라는 신호라고 받아들이는 게 순리다. 그나마 연재할 자료마저 더 찾아내기 힘들 정도로 한계에 다다랐다. 이래서 농업사 연재를 마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독자의 애독에 재삼 감사드린다.

## A 농경마루 4

## 농업사 산고(散稿) II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22.8.30.

발 행 2022.9.1.

저 자 김영진

발행인 김홍상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쇄처 지아이지인(070-7705-1324)

## ISBN 979-11-6149-562-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